O‘ZBEKISTON RESPUBLIKASI
OLIY VA O‘RTA MAXSUS TA’LIM VAZIRLIG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KOREYASHUNOSLIK FAKULTETI

MINISTRY OF HIGHER AND SPECIAL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FACULTY OF KOREAN STUDIES

«YOSH KOREYASHUNOSLIK: ILM VA IJOD OSTONASIDA – 2021»
Xalqaro talabalar forumi

International Student Forum on the topic

«YOUNG KOREAN STUDIES: ON THE THRESHOLD OF SCIENCE AND CREATIVITY – 2021»

TOSHKENT – 2021

UDK_____

BBK _____

Mas'ul muharrirlar:

filologiya fanlari doktori, professor
Saydazimova Umida Turaxanovna
falsafa fanlari doktori, dotsent
Viktoriya Nikiforovna Kim
Taqrizchilar:
filologiya fanlari doktori, professor
Ulpatxon Uchqunovna Muxibova
iqtisod fanlari nomzodi, dotsent
G'olibjon Lutfullayevich Yoziyev

«Yosh koreyashunos: ilm va ijod ostonasida – 2021» ilmiy maqolalar to'plami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Koreyashunoslik fakulteti ilmiy faoliyati doirasida tayyorlangan.

To'plamga bakalavriat yo'nalishi talabalari hamda magistratura mutaxassisliklari magistrantlarining koreyashunoslikning turli sohalari: lingvistika, adabiyotshunoslik, tarix, madaniyat, iqtisod va h.k.ga oid ilmiy maqolalari kiritilgan.

To'plam bakalavr, magistrant hamda sharqshunoslik va koreyashunoslikning dolzarb masalalari bilan qiziquvchilar uchun mo'ljallangan.

Ilmiy to'plam TDSHU Kengashi qarori bilan nashrga tavsiya qilingan (bayonnoma №_____)

Yosh koreyashunoslik: ilm va ijod ostonasida – 2021 [matn] /tahrir hay'ati.:U.T. Saydazimova [va b.]. Toshkent: 2021. – 192 b.

UDK:
ISBN Nashriyot «_____», 2021 y.

MUNDARIJA

Lingvistika, til o'qitish metodikasi

Муслимова Ш.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5
Sobirova M. (TDSHU) Gazeta matni sarlavhalari va ularning shakllari (Koreys tilida chop etilgan maqolalar misolida)……11
Karimov N. (TDSHU) Koreys tilida o'qituvchi kasbiga oid frazeologizmlarning leksik xususiyatlari……..16
Лим Н. (ТГПУ им. Низами) Креолизованные тексты и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е...21
Ким В. (ТГПУ им. Низами) Рол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преподаван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30
Xamidova D. (TDSHU) Koreys tilida «호랑이/yo'lbars» leksemali maqollar tahlili ..……..…..37
Kenjayeva M. (TDSHU) Koreys tilida uchraydigan noto'g'ri so'zlarning xarakterli xususiyatlari.42
Anorqulova B. (TDSHU) Koreys tili shevalarida fonetik farq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47

Adabiyot, san'at

Hidoyatova A. (TDSHU) Yan Kvi Ja ijodida davr va qahramon masalasi……....52
Abdug'aniyeva F. (TDSHU) Pak Vansoning «Juftli juftsizlar» hikoyasida ayol taqdiri masalalari……....59
Saidov B. (TDSHU) An Guk Son ijodida o'rdak obrazining ijtimoiy ahamiyati……...63
Nazarov S. Cho Myonxi va Muhammad Yusuf ijodida vatan mavzusi……71
Allamova M. (TDSHU) Zamonaviy koreys yozuvchisi Chon Yon Tek ijodida mavzular ko'lami..78
Акрамова Ш. (ТГУВ)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 в рассказе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и»…….83
Ли Ю. (ТГУВ) Трансформация женской судьбы в рассказе Шин Кён Сук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88
Кинжаева Б. (ТГУВ) Мотив насилия в рассказе Ли Мун Ёля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93
Рахимова С. (ТГУВ) Мир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 рассказе Ким Донина «Огненная соната»…..…98

Iqtisod, tarix, siyosat

Qutbiddinova Mohira (Academy of Korean Studies) 발해 출토 바르간 의의…….103
Yamamoto Narumi (Academy of Korean Studies)1880-1894 년 일본인의 조선인식 변화 ─ 갑신정변을
중심으로….....……..……106
Mirkhamidova Noila (Academy of Korean Studies) 고려와 이슬람 사회의 교류……....108
Li Bin Bin (Academy of Korean Studies) 중국 청말·민국시기 «고려» 호칭의 사용과
의미.....112
Sodikova Rano (Academy of Korean Studies)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122
Файзиев Лазиз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벤처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우즈베크스탄에서의 적용 가능성.....126
Турлибекова Ойгул. (ТГУВ)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130

Шукурова Нодира (ТГУВ) Особенности внешне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135
Анаркулова Эльвира (ТГУВ) Узбекистан-Корея: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140
Аллаберганов Баходир. (ТГУВ)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торговых связ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Евросоюзом……144
Турсунова Севинч. (ТГУВ) Эта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149
Чориев Ботир (ТГУВ)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и последствия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153
Хожабаева Алтинай.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Cultural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to Uzbekistan…….....158
Жуманазарова Чарос (ТГУВ) Цифровизац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163
Турдиалиев Азизбек. (ТГУВ)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167

Tarjimashunoslik masalalari, koreys tilidan o‘zbek (rus) tiliga o‘zbek (rus) tilidan koreys tiliga badiiy tarjima

Абатова Айша (ТГУВ) Переводах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173
Hidoyatova Aziza (TDSHU) Yan Kvi Ja «Qo‘ng‘iroq qushi».....180

Lingvistika, til o'qitish metodikasi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Shakhnoza MUSLIMOVA

***Supervisor*: professor Lee, Keon-Sik**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목차

1.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호칭어 높임 방법
2.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높임 방법
2.1. 우즈벡어의 1원적 성분 높임과 한국어의 2원적 성분 높임
2.2.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높임 의미 실현 기반
5. 결론

1.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호칭어 높임 방법

우즈벡어에서는 호칭어를 높이는 접미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호칭어를 높이는 접미사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우즈벡어에서 호칭어를 높이는 접미사로 «-xon, -jon, -boy, -oy, -cha, -gina, -bek, -bonu, -zor, -m, -kay, -loq, -bibi, -poshsha/nisa» 등이 있으나, 한국어에서 호칭어를 높이는 접미사로 «–님, – 씨» 등 정도만 있다.

우즈벡어의 호칭어 접미사는 부분적으로 «가족 관계, 직업 관계» 등의 호칭어에 사용되기도 하나 주로 고유명사에 부착되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 «–님»은 고유명사에 부착되어 «높임» 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나 한국어 호칭어 접미사 «–님» 은 주로 «가족 관계, 직업 관계» 등의 호칭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1) 가. Noilabonu, diplom yoqlash kuningiz qachon? / 노일라님, 논문 빌표 날짜는 언제예요?

나. Onajon, bugun to'yga borasizmi? / 어머님, 오늘 결혼식에 가세요?

다. Ustozjon, bayramingiz muborak bo'lsin! /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2) 가. ×길동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 아버님! 조석으로 바람이 찹니다 «조선일보 1980년 12월 19일, 4면»

다. 선생님! 이 못난 제자들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동아일보 1999년 4 월 13 일 21»

2.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 의 높임 방법

우즈벡어와 한국어 모두 문장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높임법이 있다. 그러나 우즈벡어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높이는 방법과 청자가 화자에 대해 겸양하는 방법이 없다. 즉 한국어에는 우즈벡어의 높임법에 없는 «상대 높임법» 과 «화자 겸양법»이 있다.

(3) 가. Siz meni doim xursand qilasiz / 당신은 저를 항상 기쁘게 만드십니다.

나. Sen meni doim xursand qilasan / 너는 나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

(3) 의 화자는 (3) 에서 목적어 성분으로 나타나는 «men/나» 이고 (3) 의 청자는 (3) 에서 주어 성분으로 나타나는 «siz/당신» 과 «sen/너»이다. (3가)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이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 단수형 «sen»이 사용되지 못하고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하는 2인칭 대명사 복수형 «siz» 가 사용되고 서술어에도 높임 일치 어미 «siz»가 나타난 것이다. (3나)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 단수형 «sen» 이 사용된 것이고 복수 일치 어미도 «– san» 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3가)의 인칭 대명사 «siz» 와 서술어 높임 일치 어미 «siz» 는 화자가 주어 성분으로 나타난 인물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화자를 지칭한 «meni/저를/나를» 는 청자가 상위자이거나 하위자이거나 간에 동일한 형태인 «meni» 로 나타난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겸양» 표현법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겸양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청자가 상위자인 (3가) 에서는 «저를» 로 나타났고 청자가 상위자가 아닌 (3나) 에서는 «나를» 로 나타났다.

(3가) 에 나타난 서술어 높임 일치 어미 «–siz» 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주어에 대한 «높임» 의 의미만 실현 시키고 있을 뿐이다.

(4) 가. Ular meni doim xursand qiladilar / 그분은 저를 항상 기쁘게 만드십니다.

나. U meni doim xursand qiladi / 그 분은 저를 항상 기쁘게 만든다.

(4가) 에서 «ular/그 분» 은 3인칭 대명사 복수형으로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한 것이고 (4나)에서 «u/그» 는 3인칭 대명사 단수형으로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한 것이 아니다. (4가) 의 서술어에 나타난 높임 일치 어미 «–lar»는 단순히 (4가)에서 주어 성분으로 등장한 3인칭 «u/그» 만 높인 것으로 청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4가) 의 서술어에 나타난 높임 일치 어미 «–siz» 도 주어로 등장한

2인칭 «sen/너» 만 높인 것이다. 다만 (4가) 에서 주어로 등장한 2인칭 «sen» 이 청자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상대 높임» 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가) 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높임법에서는 « – 습니다»가 «상대 높임» 의 표지로 기능하고 있다.

2.1. 우즈벡어의 1원적 성분 높임과 한국어의 2원적 성분 높임

우즈벡어와 한국어에는 모두 문장의 성분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높임법이 있다. 그러나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은 1원적 체계이나 한국어는 2원적 체계인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5) 가. Siz ularni yaxshi ko‘rasiz / 당신은 그 분을 좋아하십니다.

나. Ular sizning kitobingizni o‘qidilar / 그 분은 당신의 책을 읽으셨습니다.

다. Ular sizni yaxshi ko‘radilar / 그 분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라. Ular sizga kitobni berdilar / 그 분은 당신에게 책을 드리셨습니다.

마. Sizda farzand bormi? / 당신한테 자식이 있습니까?

바. Ular sizdan kitobni oldilar / 그 분은 당신으로부터 책을 받으셨습니다.

(5) 은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복수형 «siz»와 «ular» 로 문장의 성분으로 나타난 인물을 높인 예문들이다. (5가) 에서 주어의 높임으로 «siz» 가 사용되었고 (5나) 에서는 속격어의 높임으로 «siz»,

(5다) 에서는 주어의 높임으로 «ular», 목적어의 높임으로 «siz» 가 사용되었고 (5라) 에서는 주어의 높임으로 «ular», 여격어의 높임으로 «siz» 가 사용되었다. (5마) 에서는 처격어의 높임으로 «siz» 가 사용되었으며, (5바) 에서는 탈격어의 높임으로 «siz» 가 사용되었다.

(5가) 에서 «siz/당신» 은 주어이고, (5다) 에서 «siz/ 당신» 은 목적어이다. 그런데 (5가) 의 서술어 «ko‘rasiz» 와 (5다)의 서술어 «ko‘radilar» 에서 보듯이 «높임» 의 주어와 «높임» 의 목적어 모두 동일한 서술어 «ko‘r/보다» 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이 1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높임» 의 주어와 «높임» 의 여격어가 동일한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6) 가. Ular sizga kitobni berdilar / 그 분은 당신께 책을 드리셨습니다.

나. Siz ularga kitobni berdingiz / 당신은 그 분께 책을 드리셨습니다.

(6) 의 «ular/그분» 은 주어로 사용된 것으로 (6나) 의 «ular/그 분» 은 여격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서술어는 «ber/주다» 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법이 1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원적 성분 높임 체계를 가진 우즈벡어와 달리 한국어의 성분 높임 체계는 2원적이다, 주어 성분을 높일 때와 목적어나 부사어의 성분을 높일 때의 서술어가 달라진다.

(6) 가. 그 분은 당신께 책을 드리셨습니다.

나. 그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

(6가) 를 (6나) 와 비교해 보았을 때 (6가) 에서 주어인 «그 분» 은 «그» 에 대한 높임말인데 서술어에서는 선어말어미 « –시» 를 개재시켜 서술어의 «높임»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6나) 의 부사어
«당신께» 는 «너에게» 에 대한 높임말인데, 서술어에서는 «주다» 를 «드리다» 로 교체하여 높임 의미를 실현 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성분에 대한 높임 체계에서는 주어에 대한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과 목적어나 부사어의 높임법인 객체 높임법으로 구별되고 있다.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 체계는 1원적이어서 한국어의 성분 높임 체계처럼 «주체 높이법» 과 .«객체 높임법» 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 체계가 «개체» 를 높이는 방법임을 말해 준다. 우즈벡어의 «높임»이 «개체 높임» 이라는 사실은 «높임 일치 어미» 가 나타내지 않는 사실로 설명된다, «높임» 의 뜻으로 «buvim keldilar/ 할머님이 오셨다» 와 같이 서술어의 높임 일치 어미 «– lar» 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buvim keldi/제 할머님이 오셨다» 처럼 서술어 높임 일치 어미 «–lar»가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한국어의 성분 높임 체계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의 2원적 체계라는 사실은 한국어의 성분 높임 체계가 우즈벡어의 «개체» 높임 방법과 다르게 «행위» 를 높이는 방법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7) 가. 어머님께서는 늘 웃으셨다.
나. 어머님은 늘 웃으셨다.
다. 어머니는 늘 웃으셨다.
(8) 가.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나.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9) 가. 나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 나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7) 은 주체 높임법의 예이고, (8) 과 (9) 는 객체 높임법의 예이다. (7다) 의 «어머니는» 과 (8나) 의 «어머니를» 에는 «높임» 을 표현하는 요소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에 높임의 요소가 없어도 (7다) 는 주체 높임법이 적용된 것이고, (8나) 는 객체 높임법이 적용된 것이다. 한국어의 성분 높임 체계에서 (7다) 와 (7나) 의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한국어의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개체의 높임» 이 아니라 «행위의 높임» 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높임 의미 실현 기반

우즈벡어의 인칭 대명사에 나타난 «높임» 의미는 «복수»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 인칭 대명사의 단수형이 «개체» 를 특정하는 것이라면 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은 «개체» 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토 예스퍼슨, 이환묵 외 (1987: 248-250) 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0) 가. We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막연하여 화자가 자기 자신 이외에 누구를 포함하고 싶어하는가를 표시하지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 대신 «우리» 라고 말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청 자나 독자에게 자신을 주제 넘게 나타내기로 꺼려하는 겸허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10가) 는 복수형이 지칭하는 대상이 막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10나) 는 막연한 의미를 가지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목적이 «청자» 나 «독자»에 대한 겸허함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즈벡어의 인칭 대명사 복수형도 «막연한 의미» 를 가지고 «높임» 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수 접미사 «–lar» 에 «막연함» 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복수 접미사가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 사용될 때 드러난다. 우즈벡어에서 «3시간» 은 «3 soat»이지만 «3시간쯤» 은 «3 soatlar» 로 표현된다.

한국어의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의 의미를 실현하는 동사로 다음이 있다.

(11) 있다 → 계시다, 말하다 → 말씀하시다, 자다 → 주무시다, 먹다 → 잡수시다, 드시다, 마시다 → 드시다, 아프다 → 편찮으시다, 죽다→ 돌아가 시다.

(11) 에서 «아프다 – 편찮다, 죽다 – 돌아가다, 먹다 – 들다» 등의 경우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간접적인 표현» 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높임의 대상이 아닌 주체의 행위는 «아프다, 죽다, 먹다» 등의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만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의 행위는 «편찮다, 돌아가다, 들다» 등의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에 체시한 높임의 서술어들이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높임» 의 의미를 나타낸 것처럼 주체 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시» 도 부착되는 서술어에 대해 «간접적인 의미» 를
첨가하여 «높임» 의 의미를 실현 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다» 에 «–시» 를 첨가한 «가시다» 는
«가다» 의 간접 표현으로 «높임» 의미를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의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동사로 다음이 있다.

(12) 데리다 – 모시다, 보다 – 뵈다, 주다 – 드리다, 묻다 – 여쭙다.

(12) 에 제시된 객체 높임법의 «안 높임말» 과 «높임말» 의 짝에서 «보다 – 뵈다» 의 짝이 주목된다. «안 높임말» 인 «보다» 는 타동사이고 «높임말»인 «뵈다» 는 타동사 «보다» 의 피동사인 점이 주목된다. «높임» 의 대상인 목적어와 관계되는 타동사를 회피하고 «피동사» 인 «뵈다» 를 선택하여 간접적 표현 방식으로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주다 – 드리다» 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의미 표현과 간접적 표현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주다» 는 «손에 가지다» 의 의미인데, «드리다»는

«들다» 의 사동사로 «들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주다» 는 «손에 가진» 의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만 «들게 하다» 의 뜻인 «드리다» 는 «손에 가진» 사람의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아 «높임» 의 의미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 뵈다», «주다 – 드리다» 등의 대립도 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의 대립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우즈벡어 호칭 접미사는 고유명사에 주로 부착되며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부분적으로만 부착됨을 언급하였다. «거리» 나 «높임» 을 표현하는 우즈벡어 호칭어 높임 접미사가 «낮선» 과 «친밀» 의 부류로 다시 구분되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즉 «-xon/-jon, -boy/-oy, -cha/-gina, -bek/-bonu, -zor/-m, -kay/-loq, -bibi, -poshsha/nisa» 등으로 «낮선» 과 «친밀» 의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즈벡어에서는 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이 «높임» 의 의미를 실현 시키는 공유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2인칭 단수형 «sen» 의 복수형 «siz» 는 복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높임» 의 의미도 나타내고, 3인칭 단수형 «u» 의 복수형 «ular» 는 복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높임» 의 의미도 나타낸다.

우즈벡어의 서술어에는 주어의 단수나 복수에 일치되는 요소가 나타나는데, 주어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어 서술어에 나타난다. 주어의 복수형이 «복수» 의 의미가 아니라 «높임» 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서술어에 나타나는 복수 일치 어미도 «높임» 의 의미를 나타낸다.

우즈벡어와 한국어 모두에 문장의 성분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높임법이 있음을 논의했다.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법은 1원적 체계이고 한국어의 성분 높임법은 2원적 체계로 주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법이 1원적 주체 높임법과 객체를 높이는 체계를 가진 것은 우즈벡어의 성분 높임법이 «개체 높임» 의 성격을 가졌고 한국어의 성분 높임법이 «주체» 와 «객체» 의 2원적 체계를 가진 것은 한국어의 성분 높임법이 «행위 높임» 의 성격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높임» 의미 실현 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즈벡어의 «높임» 의미는
«복수» 의미에 기반한 것인데 «복수» 의미는 «단수» 의미 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어의 «높임» 의미 역시 간접적인 표현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4.참고 문헌

1. Sjoberg. Andree F. (1962), Uzbek structural Grammar, Uralic and Altaic Series, Vol 18. Indiana

State University, Bloomington.
2. Sodiqova Sh.B. O‘zbek tilida hurmat ma’nosining ifodalanish ususllari. filol. fan. nom….diss. avtoref. –Toshkent. 2008.
3.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짐문당. 구본관.박재연.
4. 이선웅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 기문흠 (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6. 김효정 (2007), «터키어와 우즈벡어의 명사범주 비교 연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07-7, 사단 법인 한국언어학회.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HONORIFICS BETWEEN UZBEK AND KOREAN LANGUAGES

Shakhnoza MUSLIMOVA

***Supervisor*: Professor Lee, Keon-Sik**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honorifics between Uzbek and Korean languages.

The chapter mentions that while honorific suffixes for addressing people are much developed in the Uzbek language, they are relatively underdeveloped in the Korean language. It also discusses that the Uzbek language does not have the addressee honorifics and speaker’s humble form as in Korean language. The component honorifics of the Uzbek language have a unitary system since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 honorifics» while the component honorifics of the Korean language have the binary system of «subjects» and «objects» a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verb honorifics». The «honorific» meaning in the Uzbek language is based on the meaning of «plurals», and the meaning of «plurals» is considered to be more indirect than the meaning of «singulars». In addition, the meaning of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is also found to be based on indirect expression.

Key words: Uzbek, Uzbek language, Korean language, honorifics, humble forms, plural pronouns, pre-final endings «–시»

GAZETA MATNI SARLAVHALARI VA ULARNING SHAKLLARI
(Koreys tilida chop etilgan maqolalar misolida)

Madina SOBIROVA

Ilmiy rahbar: PhD. Kim T.S.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Tugallanma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
2.1.Tugallan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Bugungi kunda, biz axborot asrida yashayotgan ekanmiz, axborotning o‘rni misli ko‘rilmagan darajaga ko‘tarilib, har bir inson hayotiga ta‘sir ko‘rsatmoqda. Uinston Cherchill: «Kim axborotga ega bo‘lsa, u dunyoga egalik qiladi», degan iborani takrorlashni yaxshi ko‘rardi. Ayni paytda ommaviy axborot vositalarining, xususan, publitsistikaning ahamiyatini baholab bo‘lmaydi. Bunday katta hajmdagi ma‘lumotlar ommaviy axborot vositalari, jumladan, gazeta maqolalari orqali ham taqdim etiladi.

Keyingi yillarda gazetalar tilini o‘rganish masalasi ko‘plab tadqiqotchilar diqqat-e’tiborini o‘ziga jalb etib kelmoqda. Shuni ham alohida qayd etish lozimki, gazeta jamiyatimizda sodir bo‘layotgan voqea-hodisalar to‘g‘risida ma’lumot beruvchi vosita bo‘libgina qolmay, til birliklarining fikr ifodalashda, jurnalist munosabatini bildirishdagi o‘ziga xos imkoniyatlarini o‘zida aks ettiradi. Ana shunga ko‘ra, gazetalar ma’lum ma’noda lingvistik manba sifatida ham ahamiyat kasb etadi.

Zamonaviy hayotning jadal sur’atlarda rivojlanib borishi natijasida davriy nashrlarning barcha matnlari bilan tanishib chiqishning iloji yo‘q. Shuning uchun kitobxonlarning aksariyat qismi ular uchun kerakli yoki qiziqarli bo‘lgan ma’lumotlarni izlash maqsadida birinchi navbatda gazeta matnlarining sarlavhalari va pastki sarlavhalariga e’tibor qaratishadi. «O‘zbek tilining izohli lug’ati»da sarlavha quyidagicha izohlangan: «Sarlavha» – kitob, asar, maqola va yoki ularning ayrim qismlarining nomini ifodalovchi so‘z yoki jumla.

Zamonaviy ommaviy axborot vositalari sarlavhalarining asosiy vazifasi – o‘quvchining e’tiborini jalb qilish, qiziqtira olish va o‘qishni davom ettirishga bo‘lgan istakni uyg‘otishdan iboratdir. Zamonaviy sarlavhalar til birliklarining ifodalanishi va uslubiy vositalari bilan ajralib turadi. Ommaviy axborot vositalaridan tobora ko‘proq ekspressiv va e’tiborni jalb qiluvchi sarlavhalarni tanlash talab qilinmoqda[1].

Gazeta tilini o‘rganish jarayonida tadqiqotchilar matn mazmuni bilan chambarchas bog‘liq va ma’lum darajada matn mazmunini o‘zida aks ettirgan gazeta sarlavhalariga alohida e’tibor qaratadilar. Sarlavha gazetxonlar e’tiboriga havola qilinayotgan xabarning eng muhim komponentlaridan biridir, matn mazmunining yuzaga chiqishida u juda katta ahamiyat kasb etadi. Sarlavhalarning lingvostilistik qurilishi o‘ziga xosligi bilan ajralib turadi.

Ma’lumki, sarlavhani atash, farqlash, xabar berish, reklama qilish, ishontirish, ko‘rsatma berish, tashviq qilish, murojaat qilish, ixcham izoh, havola, ta’sirchanlik kabi bir qator funksiyalarni bajaradi. Sarlavhaning qayd etilgan ana shu xususiyatlari jurnalist tomonidan tanlangan so‘zlar

[1] Лютая.А.А. Современный газетный заголовок:структура, семантика, прагматика//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филол. наук. – Волгоград, 2008.

vositasida yuzaga chiqadi. Gazeta ortiqchalikka, til birliklarini o‘rinsiz, pala-partish qo‘llashga yo‘l qo‘ymaydi. Unda qo‘llanilgan sarlavha, avvalo, ixcham, aniq, tushunarli va ta’sirchan bo‘lishi talab etiladi[2]. Ba’zan birgina so‘zning sarlavha sifatida qo‘llanishida ham o‘ziga xoslik bor. Chunki birgina so‘z ham matn mazmunini qisqacha tarzda gazetxonga yetkazishi, matn mazmuniga ishora qilish bilan gazetxonni mazkur matn mazmuni bilan yaqindan tanishishga undashi mumkin.

2.Tugallanma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

Koreys tilida gazeta sarlavhalarining lingvistik o‘ziga xos xususiyatlari quyidagilardan iborat: Gazeta matni sarlavhalaridagi gaplarni tuzilishiga ko‘ra 2 turga, ya’ni, tugallangan va tugallanmagan gaplarga ajratish mumkin. Tugallanmagan tuzilishga ega gaplar odatda: kesimlik shakli tushib qoluvchi shakl, ot va ravish so‘z turkumlari bilan yakunlanuvchi shakl, bog‘lovchi, kelishik va yordamchi qo‘shimchalar bilan tugallangan shakl, gaplarni bog‘lovchi qo‘shimchalar bilan tugallangan sarlavhalar bilan yakunlanuvchi shakllarga ajratish mumkin[3].

Koreys tilida gazeta matni sarlavhalarda tugallangan gaplarga qaraganda tugallanmagan gaplar ko‘p uchraydi. Buning sababi sifatida, cheklangan satrlarga iloji boricha qisqartirish, so‘z, qo‘shimcha va so‘z birikmalarini tushirib qoldirish orqali kerakli ma’noni yetkazib berishga qaratilganligida deb aytish mumkin. Tugallanmagan gazeta matni sarlavhalariga quyidagilarni kiritish mumkin:

Birinchidan, koreys tilida gazeta maqolalarida ot so‘z turkumi bilan tugaydigan sarlavhalar ko‘p uchraydi. Bunda kesim tarkibidagi «하다» va «– 이다» tushib qoladi. Masalan:

«9월 22일 법원으로»...소환장 받은 황태자.

«22-sentabr kuni bo‘ladigan sudga chaqiruv qog‘ozini olgan shahzoda»

Yuqoridagi gazeta sarlavhasida «황태자» so‘zidan so‘ng « – 이다» tugallovchi qo‘shimchasi tushib qolgan.

Ikkinchidan, gazeta maqolalari orasida kesim tushib qoldirilib, ravish bilan yakunlanuvchi sarlavhalar mavjud.

하이포,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 출격 .정상급 가수와 어깨 나란히.

Haipho, Inchonga Hallyu gastrol safariga jo‘nab ketdi…eng yaxshi qo‘shiqchilar bilan yelkama-yelka.

Uchinchidan, bog‘lovchi, kelishik va yordamchi qo‘shimchalar bilan tugallanadigan sarlavhalar.

국제선도 지방공항에서. *Xalqaro reyslar ham mahalliy aeroportlarda.*

Yuqoridagi sarlavhada qanday so‘z tushib qolganligini topish uchun bog‘lovchi, kelishik va yordamchi qo‘shimchalar bilan bog‘lanib keluvchi fe’l va sifatlarni yaxshi bilish kerak bo‘ladi. Masalan: – 에서 출발하다/타다, –로 가다.

To‘rtinchidan, bog‘lovchi qo‘shimchalar bilan tugallanadigan sarlavhalar. Odatda bunday sarlavhalardagi murakkab gap tarkibidagi birinchi gap qolib, fe’l, sifat yoki ikkinchi gap tushib qoladi.

비발디파크 정전 ... 리프트 멈춰서.

Vivaldi chang‘i kurortida elektr quvvati uzilib qoldi…Lift to‘xtab.

Bu sarlavhada lift to‘xtab qolishi natijasida «foydalanuvchilar zudlik bilan evakuatsiya qilinganligi» mazmundagi gap tushib qolgan. Bunday shakldagi maqola sarlavhalarida boshqa sarlavhalarga qaraganda tushib qoladigan qismlari ko‘p bo‘lganligi sababli sarlavhani tushunish qiyinchilik tug‘dirishi mumkin.

Yuqorida keltirib o‘tilganidek, tugallanma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 o‘ziga xos murakkablikka ega. Bu kabi sarlavhalarni tushunish uchun gazetxon birinchi o‘rinda tilni yaxshi bilishi, xususan, koreys tilining grammatikasi, publitsistik usulda qo‘llaniluvchi maxsus leksikasidan

---

[2] Maxmudova U.U. Zamonaviy xorijiy publitsistik matnlarda til va uslub muammolari. – Qarshi, 2017. – 33 b.

[3] 이지영.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2007. – 7 쪽.

yaxshi xabardor bo‘lishi darkor. Tugallanmagan shakldagi maqola sarlavhalarining tushib qolgan qismini taxmin qila bilish, fe’l, sifat, ravish bilan bog‘lanib keluvchi so‘z va so‘z birikmalari bilan bog‘liqligini bilish, ravishning ma’nosini yaxshi tushunish kabi taraflariga e’tibor qaratish lozim.

2.1.Tugallan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

Tugallangan shaklga ega gazeta matni sarlavhalariga darak, buyruq, so‘roq, taklif va undov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sarlavhalarini kiritish mumkin[4].

1.Darak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Darak gap bilan tugallanadigan sarlavhalardan odatda voqea-hodisaning mazmunini aniqlik bilan yetkazish yoki xulosa yasash maqsadida qo‘llaniladi.

Masalan:

ㄱ: 뽀글이 파마 점점 사라진다.

Kimyoviy usul bilan jingalak qilingan sochlar asta-sekinlik bilan o‘z holiga qaytadi.

ㄴ: 가장 쉬운 웰빙은 많이 웃는 것이죠.

Hotirjamlikning eng oson yo‘li ko‘p kulishdir.

Yuqoridagi gaplar –죠, -다 qo‘shimchalari bilan yakunlanganligi ularning darak gap ekanligidan dalolat beradi. Shuningdek, sarlavhaning mazmuni aniq va ravshan tarzda muallif tomonidan yetkazib berilgan.

2. Buyruq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Buyruq gap bilan tugallangan gazeta matni sarlavhalarida maqolaning mazmuni yanada kuchliroq va aniqroq yetkazib berilayotganini ko‘rish mumkin.

Masalan:

ㄱ: 세 끼 잘 챙기고 물 많이 마시는 것부터 사작하라.

Taomni uch mahal tanovul qilish va suvni ko‘p ichishdan boshla.

ㄴ: 아름답고 싶다면 화장품 줄여라.

Go‘zal bo‘lishni istasang, kosmetika vositalarini qisqartir.

ㄷ: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세요.

Jarimalarni to‘lay olish qobiliyatingizni ko‘rsating.

ㄹ: 손호영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 보세요.

Son Ho Yong tomonidan tayyorlangan kimchidan tatib ko‘ring.

Yuqoridagi buyruq gap bilan tugallangan gazeta matni sarlavhalarida gapning tugallanishi kuchli va yumshoq tarzda ifodalangan. Sarlavhaning – 아라/어라 bilan yakunlanishi maqola mazmunini yanada kuchliroq tarzda yetkazib berilayotganini bildiradi (ㄱ, ㄴ misollari). ㄷ va ㄹ sarlavhalarida esa, muloyimlik bilan maslahat berilayotgani sezilib turadi.

3. So‘roq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So‘roq gap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ning ikki turi mavjud. Birinchisi, so‘roq gap mazmunidagi sarlavha, ikkinchisi esa, ritorik so‘roq gap shaklidagi sarlavhalardir.

Masalan:

ㄱ: 윈도 비스타 대신 리눅스는 안 되겠니?

Windows Vista o‘rniga Rewolfs bo‘lsa bo‘lmaydimi?

ㄴ: 혹시 오늘 싱싱한 책 한 권 낚으셨나요?

Mabodo bugun yangi kitobni qo‘lga kiritmadingizmi?

ㄷ: «공공의 적» 이냐, «공공의 美’냐»?

Bu «jamoat dushmani”mi? yoki «jamoat go‘zalligi»mi?

ㄹ: 지폐 속 선조들도 성형수술을 했다?

Qog‘oz puldagi ajdodlarimiz ham plastik operatsiya amaliyotini o‘tkazishgan?

ㅁ: 사자, 호랑이 무서워 곰에 졌다?

---

[4] 이지영.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2007. – 12 쪽.

Sher yo‘lbarsdan qo‘rqib ayiqqa yengildi?

Yuqoridagi so‘roq gaplar bilan yakunlangan sarlavhalardan ko‘rinib turibdiki, ㄴ, ㄷ sarlavhalarida – 냐, – 나요 singari so‘roq gaplarda qo‘llaniluvchi tugallovchi qo‘shimchalar qo‘llanilgan. ㄹ va ㅁ singari sarlavhalarda esa, darak gapni bildiruvchi 다 tugallovchi qo‘shimchasidan foydalanilgan bo‘lsa-da, sarlavha so‘roq mazmunini anglatadi.

4. Taklif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Bu ko‘rinishdagi gazeta matni sarlavhalarida muallif gazeta mazmunida keltirilgan biror harakat yoki holatni gazetxon bilan birgalikda fikrlash va harakatlanish bilan amalga oshirishni nazarda tutadi.

Masalan: ㄱ: 해주 특구와 공공 임대 제 도입하자.

Heju rayonida jamoaviy ijaraga berish tizimini joriy qilaylik.

ㄴ: 대중화된 필리핀 어학연수 이것만은 알고 가자!

Ommalashgan Filippinning til seminarlari… shuni bilib ketaylik!

Yuqoridagi gazeta matni sarlavhalarida – 자 qo‘shimchasidan foydalanilganligi sarlavhalar taklif gap shaklida ekanligini ko‘rsatib turibdi. Shuningdek, gap egasi, ya’ni, birinchi gapdagi 우리나라 va ikkinchi gapdagi «어학 연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 tushirib qoldirilgan.

5. Undov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Undov gaplar bilan tugallanuvchi gazeta matni sarlavhalari maqolada tanishtirilayotgan mazmunning ijobiy taraflaridan hayratlanish, his-hayajon bilan ifodalashda qo‘llaniladi.

Masalan: ㄱ: 아하~ 이게 백제 문화구나!

Haaaa~~ bu Pekche madaniyati ekanda!

ㄴ: 종잇장처럼 날아가는구나!

Qog‘oz varaqlari singari uchib ketar ekanda!

ㄷ: 얼쑤! 흥이 절로 나는구나!

Ofarin, men hayratdaman!

Yuqoridagi gazeta matni sarlavhalarida tugallovchi qo‘shimcha ~구나, undov belgilari va his-hayajon, hayratni ifodalovchi fe’llardan foydalanilgan. Bu ko‘rinishdagi sarlavhalar gazetxonlarni e’tiborini tortish maqsadida foydalanilgan deb aytish mumkin.

3. Xulosa

Xulosa o‘rnida shuni aytish mumkinki, gazeta tili o‘ziga xos bo’lib, gazetxonlar e’tiborini tortish uchun muallifdan alohida bilim va malaka talab qilinadi. Gazeta matnida berilgan ma’lumotlar gazetxonning e’tiborini tortishi uchun eng birinchi navbatda gazeta matni sarlavhalari qiziqarli, informativ bo‘lishi bilan birga qisqa va lo‘nda bo‘lishi kerak. Koreys tilidagi gazeta matni sarlavhalari o‘zbek tilidagi sarlavhalardan farq qiladi. Koreys tilidagi gazeta sarlavhalari qo‘shimchalarning tushib qolishi, gazeta usuliga xos murakkab so‘zlardan fordalanilganligi, gaplarning tugal va notugal holatda bo‘lishi, ko‘p nuqtalardan foydalanilishi, so‘zlarning qisqartirilishi va ko‘pgina boshqa o‘ziga xos xususiyatlarga egadir. Bu kabi sarlavhalarni tushunish va uning mag‘zini chaqish uchun gazetxonlar birinchi navbatda koreys tilidan yaxshi xabardor bo‘lishi lozim.

4. Adabiyotlar ro‘yxati:

1. Abdusaidov A. Gazeta sarlavhasi (Gazeta sarlavhalarining struktur-grammatik va leksik-stilistik xususiyatlari). – Samarqand: SamDU, 1995.

2. Лютая. А. А. Современный газетный заголовок: структура, семантика, прагматика//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филол. наук. – Волгоград, 2008.

3. Maxmudova U.U. Zamonaviy xorijiy publitsistik matnlarda til va uslub muammolari. – Qarshi, 2017.

4.이지영. 인터넷 기사 표제 표현 분석: 국어교육연구. – 서울, 2007. Vol.20.

5. 익현. 인터넷의 매체특성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Abstract

NEWSPAPER TEXT HEADLINES AND THEIR FORMS

(based on Korean articles)

Madina SOBIROVA

Supervisor: PhD. Kim T.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Due to the fast development, it is impossible to get acquainted with all the texts of periodicals published in publishing houses. Therefore, most readers pay attention to the headlines and subheadings of newspaper texts in order to search for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or interesting to them. The main task of modern media headlines is to attract, engage and motivate the reader to continue reading. Following is a about of newspaper headlines, the meaning of the headline,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choosing the right headline for a newspaper article. There is also information on the types of headlines in the Korean language, both complete and incomplete, and their specific features in the examples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Key words: journalism, title, ending suffix, completed form title, incomplete form title, cut form, phrase.

KOREYS TILIDA O‘QITUVCHI KASBIGA OID FRAZEOLOGIZMLARNING LEKSIK XUSUSIYATLARI

Nodirbek KARIMOV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Frazeologik birliklarning umumiy tavsifi
2.1. Koreys tilida o‘qituvchi kasbiga oid frazeoligizmlarning xususiyatlari
3. Xulosa
4. Bibliografiya
Abstract

1. Kirish

Tilshunoslikda o‘zining alohida o‘rniga va salmog‘iga ega soha – frazeologiya sohasi ham yangi bosqichga ko‘tarildi. Frazeologik birliklar til egasi hisoblangan xalqning ma’naviy madaniyati, urf-odati, kasbi, yashash joy va tarkibi, intilishi, voqelikka munosobati bilan chambarchas bog‘liqdir.

Frazeologik birliklar obrazlilik va emotsional-ekspressivlikni yuzaga keltiruvchi eng muhim vositalardan biridir. Ular badiiy, siyosiy va publististik matnlarning ifodaviy ta'sirchanligini oshirish uchun xizmat qiladi. Shu boisdan frazeologizmlar tilshunoslikning alohida sohasi hisoblangan uslubshunoslikda muhim ahamiyat kasb etadi. Frazeologizmlar ixcham, ma'no jihatdan salmoqli til birligi bo'lib, davr ruhiga mos keladi, chunki milliy qadriyatlar, urf-odatlar rivoj topib borayotgan davrda so'zlovchidan har tomonlama ixcham, asosli, obrazli va ta'sirchan shaklda ifodalashni taqozo etadi.

Frazeologizmlarning turli tillar doirasida qiyosiy o'rganish, ularning til va nutq bosqichlaridagi umumiylik va xususiylik dialektikasini yoritish, alohida olingan sohalarda frazeologik birliklar, ularning semantik-grammatik va nutqning vazifaviy uslublarida uslubiy xususiyatlarini ochib berish, ayniqsa, kasbga oid frazeologik birliklarning semantik, grammatik va emotsional – ekspressiv xususiyatlarini belgilash dolzarb mavzulardan biridir.

2. Frazeologik birliklarning umumiy tavsifi

Metaforik iboralar hamda ko'plab grammatik iboralar ixtisosli nutqlarda yuzaga kelgan. Adabiy tilda barcha inson faoliyat turlari o'zining so'z boyligi, ayniqsa metaforik nutqlarda maxsus iboralariga ega. Bizning nutqimiz hayotning bitmas boyliklarini, uning o'zaro bog'liqligini, barcha fikr va his – tuyg'ularimizni to'liq namoyon eta olishga qodir emas; badiiy til garchi so'z yasalish imkoniyatlari cheklangan bo'lsa-da, bizga hamma vaqt bildirmoqchi bo'lgan fikrimizning o'rnini bosa oladigan unga yanada kengroq ma'no ottenkalarini qo'sha oladigan maxsus terminlar berishni taqozo etadi.

Idiomalar turli soha vakillari yoki sport bilan (barcha inson faoliyat turlari) shug'ullanadigan xalq tomonidan yaratilgan lo'nda, jonli, ifodali nutq birligi bo'lib, ularni nutqda ishlatish bir qancha qulayliklarni yuzaga keltiradi. Suvdagi dengizchilar, o'rmondagi ovchilar, daladagi dehqonlar, qozon tepasidagi oshpazlar – umuman, buyruq berish istagida bo'lgan kasb egalari o'z sohalariga oid yorqin so'z birikmalari hamda go'zal metaforalarni qo'llay olganlar. Oqibatda bu nutqiy ifodalarning ba'zilari yanada keng ma'no kasb etib, shunga o'xshash vaziyatlar yoki boshqa joylarda, ko'pincha hazilomuz tarzda ishlatiladigan bo'ldi. Shunday qilib, "dengizchi o'zining dengizga oid iboralarini, baliqchi, uy bekasi, sportchi qaysi mavzuda so'z olib borishlaridan qat'iy nazar o'z iboralarini keng qo'llay boshlaganlar va ushbu yorqin va ifodali iboralar asta –sekin adabiy tilga kirib uni yanada shakllantirib boyitib boradi"[5].

Butunlay olganda har qanday tilning frazeologik lug'at tarkibi o'zining milliy xususiyatlariga egadir. Ikkita yoki undan ko'p tillarning frazeologik tarkibining farqi aniq nimada namoyon bo'lishini faqat ularni taqqoslab o'rganilishida aniqlash mumkin. Albatta bu farq taqqoslanadigan tillarning genetik aloqasi qanchalik uzoqlashgan bo'lsa, shunchalik bu farq chuqurroq bo'ladi. Va aksincha, tillar qanchalik yaqin bo'lsa, shunchalik frazeologiya sohasida ularda ko'p o'xshash xususiyatlar seziladi.

Kasb oti komponentiga ega kommunikativ frazeologik birliklar sinfiga maqollar kiradi. Maqollar xalq tomonidan yaratilgan eng nodir fikrlar yig'indisidir.

Koreys xalqining hayot-tarzi boshqa davlatlardan farqlanib turuvchi o'ziga xos xususiyatlari mavjud. Oilaviy madaniyatlar har bir oilada turlicha bo'lib, hududlarga qarab ham farq qiladi. Koreya an'anaviy tarzda qadimdan konfutsiychilik madaniyatining ta'sirini olib kelgan. Shu bois, koreys oilalari madaniyatining konfutsiychilik madaniyatiga ega bo'lgan boshqa davlatlar madaniyati bilan o'xshash tomonlari ko'p.

Oilada katta-kichik o'rtasidagi o'zaro hurmat va tartib muhim hisoblanadi. Oilada bolalarga ota-ona, bobo-buvi, qarindoshlar, umuman olganda yoshi kattalarni hurmat qilishni o'rgatib borishadi.

---

[5] Феделенкова Т.Н.Англий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Архангельск,2000.1988. – С.46.

Koreys tilida biron kishi bilan gaplashishda uning yoshi, munosabatlarining yaqinligi, lavozimiga qarab turlicha ifodalanadi. Bunday hollarda gaplashayotgan kishiga nisbatan hurmat (sizlash) va oddiy muomala gapidan foydalaniladi.

Agarda gaplashayotgan kishining yoshi katta yoki lavozimi baland bo‘lsa, shuningdek, rasmiy joylarda hurmat gap ishlatiladi. Agarda gaplashayotgan kishi do‘sti yoki o‘zidan kichik yoshdagi shaxs bo‘lsa, oddiy muomala gapi ishlatiladi.

2.1. Koreys tilida o‘qituvchi kasbiga oid frazeoligizmlarning xususiyatlari

Koreys milliy madaniyatida ustoz bilan bog‘liq turli xil maqol, metal, hikmatli so‘zlar juda ko‘p. Ushbu maqolada shulardan bir nechtasi ko‘rib chiqamiz.

1. 가난도 스승이다[6]. So‘zma-so‘z tarjimasi: Kambag‘allik ham ustozdir.

Ma’nosi: 가난하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생기므로 가난이 주는 가르침도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 Agar siz kambag‘al bo‘lsangiz, uni yengish uchun sizning xohishingiz va kuchingiz bor, shuning uchun qashshoqlik haqidagi ta’limotlar ham o‘qituvchi bilan bir xil rol o‘ynaydi. O‘zbek tilidagi muqobil varianti: O‘tmishdagi xato – kelajak uchun darsdir.

Bu maqolda inson qiyinchilikka duch kelganida yoki sinovlar girdobida qolganida albatta uni yengib o‘tish uchun mehnat, kuch sarflaydi. Bir kun kelib shu mehnat va kuchi kelajakda unga dars bo‘ladi.

Shuningdek, koreys tilida xitoy tilidan o‘zlashgan maqollar ham juda ko‘p. Ular koreys tilida 사자성어 ya’ni 4ta ieroglifdan tashkil topgan maqol yoki hikmatli so‘zlardir.

2. 사엄도존[7] – 사(스승) – ustoz, 엄(엄할) – qattiqqo‘l, qat’iy, 도(길) – yo‘l, 존(높을) – baland, yuqori.

Ma’nosi: 스승이 엄하면 자연 (自然) 히 가르치는 도 (道) 도 존엄 (尊嚴) 해짐을 이르는 말. Agar o‘qituvchi qattiqqo‘l bo‘lsa, tabiat o‘rgatgan Tao ham obro‘li bo‘ladi.

Daosizm e’tiqodi ma’lumki tabiat hodisalari, turli xil toshlarga sig‘inish demakdir. Koreys madaniyati va tiliga bu e’tiqodning ham ta’siri bo‘lgan. Agar hamma narsani o‘rgatadigan ustoz qat’iy va qattiqqo‘l bo‘lsa, Daosizm (yoki to‘g‘ri yo‘l) ga boshlab, bir kun kelib uning martabasi yuqori bo‘ladi. O‘zbek tilida muqobil varianti: Ustoz bilimli – shogird ilmli.

3. 사제동행[8] – 사(스승) – ustoz, 제 (아우) – shogird, 동(한가지) – birga, 행(갈) – harakat qilmoq.

Bu maqolning 2ta ma’nosi mavjud: (1)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감. (2) 스승과 제자가 한마음으로 연구하여 나아감. (1) Ustoz va shogird birga borishadi. (2) Ustoz va shogird bir qalb ila oldinga intilishadi.

4. 군사부일체[9] – 군(임금) – podshoh, 사(스승) – muallim, 부(아비) – ota, 일(한) – bir, 체(몸) – daraja, unvon.

Ma’nosi: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음. Podshoh, muallim va otada bir xil inoyat bor.

O‘zbek tilida muqobil varianti: Ustoz qadami qutlug’, ustoz – otangdan ulug’.

5. 사덕제신정도지각[10] – 사(스승) – muallim, 덕(행위) – xatti-harakati, 제(아우) – shogird 신(삼가다) – ehtiyot bo‘lmoq 정(바르다) – to‘g‘ri 도(길) – yo‘l 지(슬기) – donolik 각(깨닫다) – anglamoq.

---

[6] 김선정, 강현자, 김경하, 류선영.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 서울: 랭기지플러스, 2008. – P.227.

[7]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8] 김정화, 최은규.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 서울, 2002. – P.122.

[9]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10]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Ma’nosi: 스승이 덕으로 가르치니 삼가 받들어야 바른 길의 지혜(智慧)를 밝혀 깨닫음. O‘qituvchi shogirdlariga to‘g‘ri yo‘lni ko‘rsatishda ta’lim berar ekan, har doim ehtiyotkor bo‘lishi darkor. Har bir to‘g‘ri yo‘ldagi donolikni anglay olishi kerak.

6. 사심자용[11] – 사(스승) – muallim, 심(마음) – qalb, 자(스스로) – o‘zi, 용(쓰다) – ishlatadi.

Ma’nosi: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쓴다는 뜻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일은 다 옳다 하여 그대로만 하고 남의 말은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 O‘qituvchi ta’lim berayotganda har doim qalbini, borini berib mustaqil tarzda dars o‘tadi. Shuning uchun biror bir ishni qilayotganda xuddi o‘qituvchidek qalban ish qilishni, yuragini berib ish qilishni va shu ishni mustaqil, o‘z fikriga ega bo‘lishni anglatadi.

7. 사사여친필경필공[12] – 사(일) – bajarish, 사(스승) – ustoz, 여(같다) – o‘xshash, 친(친하다) – yaqin bo‘lmoq, 필(반드시) – albatta, 경(공경) – hurmat qilish, 필(반드시) – albatta, 공(공손하다) – xushmuomala bo‘lmoq.

Ma’nosi: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하여 반드시 공경(恭敬)하고 반드시 공손(恭遜)하게 하여야 함. O‘qituvchiga xizmat qilish ota-ona vazifasini bajarishga o‘xshaydi va uni hurmat qilish va har doim xushmuomalada bo‘lishi kerak.

8. 사자상승[13] – 사(스승) – ustoz, 자(재물) o‘z boyligini, 상(서로) – bir-biriga, 승(받들다) – ulashmoq.

Ma’nosi: 스승이 제자에게 학예를 이어 전함. Ustoz o‘z shogirdlariga bor bilimini beradi.

3. Xulosa

Tilning o‘ziga xosligi faqat uning moddiy tomonida emas, balki semantik tomonida ham namoyon bo‘ladi. Frazeologik birlik tarkibida bo‘lgan emotsional-ekspressiv jihatlar unga u yaratgan jamoa tomonidan beriladi. Bu belgilar faqat haqiqatni emas, balki unga bildirilgan munosabatni ham o‘zida aks ettirishi zarurdir.

Kasbga oid frazeologik birlikning emotsional-ekspressiv xususiyatlari uni yaratgan jamoa tarixining tajribasi, etik va estetik jihatlariga ham bog‘liqdir. Tajriba qilinayotgan frazeologik birliklar har xil ijtimoiy statuslar (holatlar), aniq tarixiy davrga berilgan tilga oid jamoalar kasblar vakillarining idrokini aks ettiradilar.

Koreys tilidagi ba’zi bir o‘qituvchi kasbiga oid frazeologik birliklarning emotsional va ekspressiv jihatlarini tahlil qildik.

Xullas, kasbga oid frazeologik birliklar mehnat faoliyatini, siyosiy tuzilishni, an’anali maishiy xarakterdagi hodisalarning haqiqatligini aks ettiradi. Ular maqollarda ham, maqol tipida bo‘lmagan frazeologik birliklarda ham uchraydi. Koreys tilidagi maqol va matallar chegara bilmaydi. Ular kommunikativ frazeologik birliklar sirasiga kiradi.

Koreys tilida kasbga oid frazeologik birliklar semantik jihatdan nominativ xarakterga ega bo‘lgan va kommunikativ frazeologik birliklardir. Shuningdek, frazeologik birliklar emotsional-ekspressivlikni hosil qilib, obrazlilikni yuzaga keltiradi.

4. Adabiyotlat ro‘yxati

1. Феделенкова Т.Н. Англий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Архангельск, 2000.1988.

2. 한 러 사전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 러시아어문학사, 2004.

3. Koreyscha-o‘zbekcha-inglizcha lug‘at. – 두란노서원, 2007.

4. 김선정, 강현자, 김경하, 류선영.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 서울: 랭기지플러스, 2008.

5.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11]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12] 김낙준. 한자사전. –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13] 김낙준. 한자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2012. – P.760.

6. 김정화, 최은규.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 서울, 2002.
7. http./www.phrase.com.
8. http./www.academia.edu.
9. http./youngsearchersjournal.org.
10.https://wordrow.kr.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PHRASEOLOGY IN THE KOREAN LANGUAGE ASSOCIATED TO TEACHER PROFESSION

Nodirbek KARIMOV

The current article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phraseology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are associated to teacher profession. Comparative study of phraseology of different languages, coverage of dialectics of commonality and specificity in their linguistic and speech stages, phraseological units in certain areas, their semantic-grammatical and methodological features in functional speech techniques, particularly, analysis of semantic, grammatical and emotional-expressive features of phraseological units that are associated to teacher profession is one of the urgent topics.

The emotional-expressive features of a phraseological unit related to a profession also depend on the experience, ethical and aesthetic aspects of the community history that created it. The phraseological units being experimented with reflect the perceptions of the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situations), language communities given to a specific historical period.

There are many proverbs, metaphors, and wise sayings about the teacher in Korean national culture. This article discusses some of them and analyzes the emotional and expressive aspects of phraseolog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hraseology of the profession reflects the hard work, political stability, realism of traditional trademark nature. They are found in proverbs as well as in non-proverbial phraseological units. Korean proverbs and sayings has no bounds. They are among the communicative phraseological units.

Key words: phraseological unit, emotional-expressive feature, proverb, profession.

КРЕОЛИЗОВАННЫЕ ТЕКСТЫ И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Е

Надежда ЛИМ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фессор Ли Ю Ми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К вопросу о понятии термина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2.1.Роль элементов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2.2.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текстов и их употребление в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ось, что в языкознании термин «креолизованные тексты» употребили и впервые дали опре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ие языковеды. Креолизованные тексты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привлекали к себе внимания многих языковедов, хотя еще в 30-е годы XX столетия А.А. Реформатский писал о том, что иллюстрация «как особый структурный момент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длежит ведению лингвиста»[14]. Традиционно узкий подход к тексту, ограничивающий его природу лишь верб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приводил к тому, что исследования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сводились к отдельным наблюдениям за применением изображения в рекламе, афише, о роли подписи под фотоизображениями в прессе и карикатурами.

[14] Реформатский А.А. Лингвистика и полиграфия // Письменность и революция. – М. – Л., 1933. – 58 с.

2. К вопросу о понятии термина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Термин «креолизованные тексты» принадлежит отечественным лингвистам, психолингвистам Ю.А. Сорокину и Е.Ф. Тарасову[15].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 это текст, структура которого состоит из разнородных частей: вербальной (язык/речь) и невербальной (относится к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отличным от ест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Примерами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являются рекламные тексты, комиксы, плакаты и афиши. Несмотря на схожесть взглядов в применении и семантике данных текстов, внима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се чаще обращается к термину «поликодовый текст» и «па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текст». В 1974 году Г. В. Ейгер и. Л. Юхт вычленили оппозицию монокодовых и поликодовых текстов. «К поликодовым текстам в широком семиотическом смысле должны быть отнесены случаи сочетания ест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кода с кодом какой-либо иной семио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зображение, музыка и т.п.)»[16].

Термин «поликодовый текст» используется Л.М. Большияновой [17]. Автор исследовала «лингвовизу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 газетный текст, сопровождаемый фотоизображением, как разновидность поликодовых текстов. Следует различать вербальный и невербальный компоненты в поликодовых текстах. Все пять органов чувств выполняют в челове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семиот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Но наибольшая часть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богатых и существенных для общества знаковых систем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восприятие посредством зрения и слуха. В этой связи закономерно наличие больш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ипичной и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и уникальной системы языка (аудиальной в своей естественной, устной и визуальной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с другими аудиальными и визуальными знаковыми системами. А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современная цивилизация в гораздо большей мере, чем прежде, является письменной цивилизацией, то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изоверб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уделяемое им внимание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о.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ь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в виде комплекса его составных частей, то между ними непременно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связи. Примером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афиша, листовка, рекламный стенд:

1.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дополнения.

Изображение понятно без слов и мож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рисунок не абстрактный и несет информацию прямую, а не косвенную.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описывает изображение, дублируя его информацию. Вербальному комментарию отводится вторична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функция.

2.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Изображение зависит от вербального комментария,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яет его интерпретацию. Изображение может быть условным, абстрактным, поэтому без комментария смысл изображения неясен или может быть превратно истолкован.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ыполняет первичную, основную функцию.

Л. Барден[18] расширяет корреляции между вербальным и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характера передаваемой в них информации – денотативной (д) и коннотативной (к).

Ученый устанавливает четыре типа корреляции:

---

[15] Сорокин Ю. А., Тарасов Е. Ф.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икладные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 М.: Наука, 1990. – 5 с.
[16] Ейгер Г..В. К построению типологии текстов. – М., 1974. – С. 103-109.
[17] Большиянова Л.М. Внешняя организация газетного текста поликод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 М., 1987. – С. 50-56.
[18]

1. Изображение (д) + Слово (д) Изображение и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выражают де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Этот тип корреляции свойственен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сообщению.

2. Изображение (д) + Слово (к) Изображение выражает де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передает кон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нный тип присущ иллюстративному сообщению.

3. Изображение (к) + Слово (д) Изображение выражает кон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 де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Этот тип корреляции характерен для комментирующего сообщения.

4. Изображение (к) + Слово (к)

Изображение и вербаль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выражает коннота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нный тип корреляций наблюдается в символическом сообщени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1-м и 2-м типах корреляций изображение доминирует над словом, в 3-м типе ведущая роль принадлежит слову. В 4-м типе корреляций вербальный и изобразительный компоненты равноправны, например, в изображении, передающем эстети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ю и сопровождаемом поэтическим комментарием.

С. Д. Зауэрбир[19] описывает корреляции между изображением и вербальной частью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референтной соотнесенности.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параллельная корреляция (содержание рисунка и вербальной части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дают), комплиментарная корреляция (содержание иконической и вербальной частей частично перекрывают друг друга); субститутивная корреляция (икон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замещает верб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нтерпретативная корреляция (между содержанием вербальной и иконической частей нет прямых точек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Эти виды корреляции по-разному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области психолингвистики обращение к креолизованным текстам обусловлено стремл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явить роль ико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в смысловом восприятии текста, а также управлять этим процессом, устанавливая разные сочетания между вербальной и икон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ей[20].

Наличие негомогенных частей в структуре креолизованного текст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как один из способов созд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напряжения как в текстов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так и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воспринимающего этот текст. Исходным в псих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является 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воспринимаемая по разным каналам, в том числе вербальная и иконическая, интегрируется и перерабатывается человеком в едином универсально-предметном коде мышления[21]. На уровне глубинной семантики язык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разницы между семантикой иконических и вербальных знаков.

С позиции коммуникантов,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гомогенного вербального текста, ему присущи те же текстовые категории. К основным текстовым категориям относятся целостность и связность. Под целостностью понимается единство текста, его способ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как внутренне и внешн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целое. Связ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одержательной и формальной связи частей текста. Обе категории диалектически взаимосвязаны и взаимообусловл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Целостность креолизованного текста задаетс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когнитивной установкой адресанта (автора текста, его «соавторов» в лице художника, фотографа, редактора и др.),

---

[19] Ворошилова М. Б.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аспекты изу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ая лингвистика. Вып. 20. –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2006. – С. 180–189.

[20] Сорокин Ю. А., Тарасов Е. Ф.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икладные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 М., 1979. – 95 с.

[21] Жинкин Н. И. Речь как проводник информации. – М.: Наука, 1982.

единой темой, раскрываемой вербальными, иконическими и другими па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речевом общении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предстает сложным текстов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в котором вербальные и икон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образуют одно визуальное, структурное, смысловое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е целое, нацеленное на комплексное прагматическ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адресата.

Роль вербальных и ико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в реализации замысла автора/авторов не является однозначной. Б. Карлаварис[22] предлагает различать четыре типа иллюстраций в тексте: 1) доминирующую иллюстрацию, конституирующую текст; 2) равноценную иллюстрацию, используемую в текстах, где определенная часть информации переда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ко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3) сопровождающую иллюстрацию, применяемую в тексте в качестве дополнения, пояснения вербальной части; 4) декоративную иллюстрацию, служащую украшению текста, эстетическим целям общ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ервый тип иллюстрации играет ведущую роль в раскрытии темы, образуя как бы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остяк» текста (например, в фотоальбоме, фотохронике, где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передаются видеорядом текс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значимость последнего типа иллюстрац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велика и ей отводится второстепенная роль в содержа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текста (например, орнамент, виньетка).

Исходя из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связность креолизованного текста проявляется в согласовании,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вербального и иконического компонентов, она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содержательн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языков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композиционном.

2.1. Роль элементов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Элементами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23] следует считать элементы, помогающие в понимании и анализе текстов, для дальнейших процессов узнава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почерпнутой из текст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идов К.т. элементы могут различаться свое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и графическим изображением.

Однако классически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что основ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являются[24]:

– Шрифт;
– Цвет;
– Монологическая речь;
– Диалогическая речь;
– Форматирование.

Шрифт – (нем. schreiben – графический рисунок начертаний букв и знаков, составляющих единую стилистическую и компози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Размер шрифт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параметром. Очевидное, устоявшееся восприятие текст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змеров шрифтов таково: крупный шрифт – важный элемент, например, заголовок; меньшим размером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раницы набирается основной контент. Это традиция, дошедшая до нас от истоков эры книгопечатания.

Через дифференциацию размеров шрифтов привлекается внимание читателей к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для автора (маркетолога, копирайтера) части текста (заголовок, призыв к действию). Одно из луч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читабельности шрифта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М. Тинкером (Tinker) и Б. Патерсоном (Paterson) в 1929 году[25]. Используя черный шрифт в 10

---

[22] Дугалич Н.М. Политическая карикатура как жанр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 М.: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2017. – 164 с.
[23] В дальнейшем К.т.
[24] Могу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ипа К.т.
[25] Тинкер М., Патерсон Б. Исследования типографских факторов, влияющих на скорость чтения. Размер шрифта//Журнал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Миннесоты – Миннесота, 1929. – С. 2–25.

английских типографских пунктов (3,515 мм), отпечатанный на белой бумаг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бнаружили, что строка длиной от 3 до 3,5 дюймов (от 75 до 90 мм) дает самую высокую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чтения. Абзацы с длиной строки от 7,3 дюйма (185 мм) читались заметно медленней. Авторы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увеличение длины строки, по-видимому, требует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боковых движений глаз. Большая амплитуда движения взгляда по горизонтали во время чте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 читатель чаще теряет свое место чтения текста.

Цвет – это качественная субъектив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электромагнитного излучения оптического диапазона, определяемая на основании возникающего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го зрительного ощущения и зависящая от ряда физических, физиологических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Восприятие цвета определя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ю человека, а также спектр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цветовым и яркостным контрастом с окружающ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света, а также несветящимися объектами. Очень важны такие явления, как метамер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наследств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глаза (степень экспрессии полиморфных зрительных пигментов) и психики.

На странице цветом выделяются важнейшие элементы, на которые посетитель должен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заголовки, призывы к действию, тег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 фразы. Подавляющее количество животных, птиц, некоторых видов насекомых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зрительное восприятие или формы, или цвета. Человек же имеет относительно уравновешенную систему «цветоформа»[26] при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восприимчивости к цветам. Многие лингвисты, такие как А.П.Василевич, Пол Кей, А.А.Брагина, Р.М. Фрумкина, Л.В. Лаенко признали, что в восприятии цвета доминантную роль играют физические, физиологические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а не фактические проявления цвето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ощущение цвета зависит от физи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Оно базируется на «первичных цветах» (теория Геринга) – синем, зелёном, жёлтом, красном,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пар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полняя и исключая друг друга. Однако, на примере цвет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технически достаточно (в связи со структурой сетчатки) трех основных цветов (красного, зеленого и синего), чтобы передавать другие цвета.

Ощущение цвета также зависит от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опыта. Например, синее авто при различных вариантах освещения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ять оттенки, однако мы все равно будем воспринимать его цвет как синий. Происходит неосознаваема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коррекция восприятия цвета. Эту особенность называют памятью на цвета (цветовой памятью).

Также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опыт. У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количество «важных» цветов может быть различным, что отражается в языке и мышлении (см. обозначение цвета в разных языках). В языке одного народа может быть множество названий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оттенков какого-либо цвета, важного для обыденной жизни или доминирующего в местной природной среде.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ого народа могут вообще не замечать эти оттенки и не иметь для них названий.

Существуют некоторые визуальные и оптические эффекты, создающие в восприятии человека определенные иллюзии: эффект Бецольда (контраст линий влияет на восприятие яркости цвета: яркость цвета дает информацию о мнимом «свечении» цвета, например, у желтого она больше, чем у темно-синего); эффект Пуркинье (цвет мен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свещенности фона: на светлом выделяются зеленый и синий); эффект Струпа (если названия цветов изобразить другими цветами или заполнить другими цветами фон, то распознавание названий цветов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яется).

---

[26] Малевич К. Черный квадрат. – СПб.: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2003. – 576 с.

Монолог должен содержать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информации, нежели диалог, так как речь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 вдвое больше информации,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 об увиденном или пережитом событии - адресован собеседнику, который разделяет мотивы говорящего и имеет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общей ситуации. Допускает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неполнота, преобладание информативности жестов, мимики, интонации.

Лекции и доклады – адресованы большой аудитории слушателей. Излагаемый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м и логически стройном виде, с выделением наи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х частей. Данный вид моно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требует большого опыта и длите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Монолог актёра – речь, обращённая к слушателю или к самому себе с целью донести «внутренний смысл», эмоциональный контекст, авторский замысел, который лежит в основе текста. Монолог актёра преломляется через образ, который им создаётся. В этом случае речь приобретает плавность, которая создаёт у слушателя впечатл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сти и естественности.

Структура композиции выступления: вступление – установление контакта, подготовка слушателей к восприятию информации, формирование интереса к теме предстоящего разговора; главная часть –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изложение основных положений выступления; Главная часть предполагает наличие основного плана выступления – подробное обозначение пунктов и подпунктов, содержащих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свещаться в презентации. Заключение – сделать выводы, призвать к действиям, обозначить важность сказанного.

Диалогическая речь, как считают И.Л.Колесникова и О.А. Долгина[27],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роцесс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ся поочередно сменяющими одна другую репликами двух или более лиц. Диалог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как раскрывают это понятие В.В. Бабайцева и Л.Ю. Максимова[28],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аиболее крупную структурно-семантическую единицу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Оно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реже трех или четырех предложений-реплик, тесно связа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по смыслу и структурно; при этом содержание и форма первой реплики определяют содержание и форму второй и т. д., так что только в сочетании реплик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понимания полнота данной части диалог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различаются диалог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микродиалог и макродиалог. Единица обучения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 это диалог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образуемое парой реплик,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 реплика-стимул, другая – реплика-реакция. Способы сочетания реплик могут быть различны, они лежат в основе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типологии диалогических единств:

– вопрос – ответ;
– вопрос – контрвопрос;
– сообщение – вопрос;
– сообщение – отв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 приглашение (просьба) – согласие (несогласие);
– сообщение (приказ, просьба) – эмоциональная реакция;
– просьба – сообщение;
– сообщение – просьба.

Форматирование текста – имеет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его читаемость (читабельность). Вспомним традиционные бумажные газеты с их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узкими колонками.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а по промышленному дизайну Боба Бейли[29], подобная верстка есть результат многолетн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пытаний и уточнений.

---

[27] Колесникова И. Л, Долгина О. А. Англо-русский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 СПб., 2008. – С. 185-186.
[28] Бабайцева В. В., Максимов Л.Ю.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 М., 1987.
[29] Боб Дэйли. Форматирование 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текста. – Техас: Дизайн Ньюслетер, 1989. – 6 с.

2.2.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текстов и их употребление в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итывая глобализацию, которая влияет на все сферы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тексты принято делить по стилям их применени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известно, существует около 5 стилей текста:

– Разговорный;
–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 Научный;
–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 Официально-деловой.

Однако для более уз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текстов учитывается также и тип текста, элементы, содержащиеся в текста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делить К.т. как отдельный тип,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что все тексты, в своем многообразии, могут быть монокодовыми (только вербальными) или поликодовыми (смешанными).

Монокодовый текст – это гомогенное линейное или нелине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ключающее коды только одной семио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прежде всего знаковой системы языка (в ее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Примерами монокодового нелинейного текста являются *интертекст* (текст, состоящий из цитат, комментариев и реминисценций к другим текстам, как правило данные виды текста не являются свободными в стиле, способе выражения и изображения на бумаге) и некоторые виды *гипертекста* (энциклопедия, словар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текст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но без иллюстраций). Первым исследовал явл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екстов М.М. Бахтин. По его мнению, каждый текст связан с другими текстами особыми диалогиче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Укоренившееся понятие «текст в тексте» Ю.Н. Лотман трактуе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когда в основной текст произведения включается «чужой текст», определенное изменение испытывает и чужой, «включенный» текст, и основной. Отрывок, который был не текстом, включаясь в конкретный текст,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этого текста, что порождает нов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целостность»[30].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ля интертекста характер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двумя текстами, принадлежащими разным авторам и во врем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определяемыми как более ранний и более поздний.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интертекст является монокодов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т.к. и основной текст, и «включенный» представлены знаками одной вербальной семио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Гипертекст* также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монокодовый текст, если он не содержит фотографии, рисунки и другие элементы изобразительности. Гипертекстом можно назвать незамкнутую цепь пояснений.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му являются комментарии, например, Ю.М. Лотмана к роману А.С. Пушкина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Гипертекст – это нелинейн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бъем политематических комментариев, интегрирующих непересекающиес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ресурсы, между которым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гут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ы перекрестные ссылки[31]. В гипертексте осуществлена интеграция огромного, но фрагментарного знания о той соци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дискурсивн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отражена в линейном тексте. Гипертекст призван помочь читателю понять текст в релевантном для него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м контексте. Тексты различаются степенью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гипертекста: чем больше единиц исходного текста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но, тем чаще возник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заглянуть в гипертекст. Гипертекс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снятия неоднозначности и возможно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текста.

---

[30] Лотман Ю.М. Внутри мыслящих миров. Человек – текст – семиосфера – история. –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9. – 464 с.
[31] Шехтман Н.А. Понимание речев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гипертекст. – Оренбург: Изд-во ОГПУ, 2005. – 168 с.

Поликодовый (он же креолизованный) текст – это нелинейное однородное (с единым смыслом) образование, содержащее коды нескольких знаковых систем.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К.т. являются поликодовыми текстами, то есть содержащими верб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ыражения и неверб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Монокод вербальных текстов создается для доставки информации получателям. При их интерпретации не важны «техн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текста: шрифт, цвет, деление на колонки, тип бумаги, иллюстрации и т. д.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ехнического оформления, реципиент воспринимает информацию в плане содержания одинаково. К.т. совсем другое дело, они требуют содержа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В них иллюстративный и визуальный ряды имею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восприятия текста. Например, если один и тот же текст написан и латинским, и готическим шрифт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 их интерпретация будет разной, ибо разный шрифт буд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читающими по-разному: негативно и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Это связано с эмотивной частью восприятия разных предметов: ассоциативно человек подразделяет предметы опасные и безопасные для жизни, так 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человек выбирает предметы наи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е и не угрожающие его жизни, опираясь на визуальное восприятие.

В лигвистике к К.т.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другие синонимичные термины: «семио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нетрадиционный», «видео-вербальный», «композитный», «лингвовизуальный феномен», «синкретическое сообщение», «изоверб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зоверб», «иконотекст», «поликодовый текст». Поликодовые тексты отличаются количеством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щих знаковых систем. К числу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х относятся мюзиклы Р. О. Якобсона, особенно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е – «очень сложные синкретические спектакли, сочетающие в себе ряд слуховых и зрительно-семио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32].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и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системами, использующими разнородный характер материала, Ролан Барт[33] назвал те,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социологии масс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телевидении, кино и рекламе смыслы создаются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зображения, звука и дизайна персонажей»[34].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ые сферы и стили употребления, нельзя применить К.т. к одному лишь стилю, так как эти тексты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множество элементов из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сфер и стилей. Тогда как монокодовые тексты просты в употреблении и принадлежат одному стилю, не подвергаясь изменению и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психо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кору головного мозга человека.

3. Заключение

Исходя из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связность креолизованного текста проявляется в согласовании,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вербального и иконического компонентов, она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содержательн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языковом, содержательно-композиционном. Элементы креолизованных текстов такие как шрифт, цвет, монологическая речь, диалогическая речь, форматирование.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 запоминания информации. Нельзя применить К.т. к одному лишь стилю, так как эти тексты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множество элементов из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сфер и стилей.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Бабайцева В. В., Максимов Л.Ю.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 М., 1987.

---

[32] Семиотическая модель-отношения и такой вид связи между знаками, его смыслом и обозначаемым им предметом,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не только для ест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но и для искусственных языков. В своем сочетании несколько знаков могут относится к разным типам языков, но их сочетание дает более обширное понятие передаваемой мысли.

[33] Ролан Барт**.** Как жить вместе: романтические симуляции некоторых пространств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 Париж: Ad Marginem Press, 2016. – 270 с.

[34]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 – это сочетание формы силуэта, цвета для графическ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персонажа какой-либо истории, компьютерной игры, книги. Обычно графический редактор, художники занимаю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персонажа для какого-либ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лицетворения героев.

2. Большиянова Л.М. Внешняя организация газетного текста поликод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 М., 1987.
3. Боб Дэйли Форматирование 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текста. – Техас: Дизайн Ньюслетер, 1989.
4. Ейгер Г..В. К построению типологии текстов. – М., 1974.
5. Дугалич, Н.М. Политическая карикатура как жанр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 Н.М. Дугалич. – М.: РУДН, 2017.
6. Жинкин Н. И. Речь как проводник информации. – М.: Наука, 1982.
7. Колесникова И. Л, Долгина О. А. Англо-русский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 СПб., 2008.
8. Лотман Ю.М. Внутри мыслящих миров. Человек – текст – семиосфера – история. –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9.
9. Малевич К. Черный квадрат. – СПб.: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2003.
10.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информ.- аналит. журнал. – М.: Универсал Пресс, 1993.
11. Реформатский А.А. Лингвистика и полиграфия // Письменность и революция. – М. – Л., 1933.
12. Сорокин Ю. А., Тарасов Е. Ф.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икладные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 М., Наука, 1990.
13. Сорокин Ю. А., Тарасов Е. Ф.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икладные проблем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 – М., 1979.
14. Тинкер М., Патерсон Б. Исследования типографских факторов, влияющих на скорость чтения. Размер шрифта//Журнал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Унив-та Миннесоты. – Миннесота, 1929.
15. Шехтман Н.А. Понимание речев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гипертекст. – Оренбург: Изд-во ОГПУ, 2005.

Abstract

CREOLIZED TEXT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SOCIAL ENVIRONMENT

Nadejda LIM

Supervisor: professor Lee Yu Mi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Tashkent, Uzbekistan

In this article are considered the following issues: the derivation and isolation of the term C. t. in linguistics from related linguistics sciences, such as the history of linguistics, psychological linguistics, methodology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 was proven that the interrelation of C.t. which manifests itself in the coordination, close interaction of the verbal and iconic components has been found at different levels: content, content-language, content-composition levels. The main elements (font; color; monologue speech; dialogic speech; formatting) were emphasized as a components containing verbal and nonverbal information. It is suggested information on the style and types of texts, their differentiation and the perception of different functional texts by a person, and the impact on the human psyche of C. t.

Key words: the verbal component, iconic component, content level, content-language level, content-composition level, font. monologue speech, dialogic speech, formatting, nonverbal information.

РОЛ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Владимир КИМ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фессор Ли Ю Ми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Примене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2.1. Виды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Проблемы обучения в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мся мире сегодня настолько актуальна, что нет, пожалуй, ни одн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торый бы не задумывался над ними. Рол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видов урок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феномен нетрадиционного урока – это объективно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классно-урочной системы в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е.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роцесс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учеников,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решаются задачи образования, воспит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Однак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и нестандартные методы в обучени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меньше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учителем и учащимся, 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разумевает более активное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каждого ученика в заняти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н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й урок счит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м, но, однако имеет не мало слабых сторон на фоне быстрого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ых детей и глобализации,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возмест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Мы выделили несколько слабых сторон традиционного урока:

- Опираясь только на традиционный урок,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а порой даже таланты, развить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урок каж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ым, у урока все еще много ограничений;
- Плохо уда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надлежащий уровень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 учебных умений;
-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связь учитель-ученик, ученик-ученик.

Таким образом, традиционный урок предполагает ведущую роль учителя, а потому плохо приспособлен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и понимания материала и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ченику возможности раскрыться, а потому плохо развивает их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поиску новых знаний.

В связи с чем,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урока являются базой принятия учителем учащихся как субъект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Именно такие уроки прямо наце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и школьников, их твор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мотивационно-ценностной сферы. Вместе с этим, именно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уроки помогают учащимся развиваться творчески, пробуждая в них интерес, а на этой основе и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активность. Разумеется, данные формы урока помогают раскрыт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не только учащимся, н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ю.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отбирается материал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ритериями проблемности, альтернативности, критич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интеграции знаний из других научных дисциплин. Понятно, что данный процесс сложнее, однако именно такая подготовка к уроку становится интересна и самому учителю, который тоже становится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ь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и нестандартные методы преподавания мотивируют, стимулируют и активизируют такие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процессы учеников, как внимание, восприятие, мышление, память, воображение. Правильно подобранный метод преподавания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интерес к предмету у большинства учащихся. На основе рождающегося интереса,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становятся более прочными. Такие уроки позволяют развивать способности учащихся, гармонично сочет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е и логическое усвоение знаний, за счет чего учащиеся получают прочные, осознанные и прочувствованные знания.

2. Примене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Применен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является мощ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личности учащихся, вместе с тем, это разнообразная и сильная мотивация к поиску новых знаний не только учеников, н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Ф.А. Фрадкин, исследуя мотивы участия школьников в играх, замечает, что «некоторые уче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играх,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 находящие выхода в иных видах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ругие –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третьи –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ебя перед коллективом, четвертые решают сво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проблемы и т.п.»[35].

Большая рол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также в том, что на этих уроках также идет большая воспитательная работа. Достаточно ярко воспитательную сущность нетрадиционного урока показывает В.М. Букатов: «для педагога, работающего в социо-игровой стилистике,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 это россыпи счастливых предлог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аждый из учеников занялся установлением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укреплением, обновлением и т. п.) делов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деал социо-игровой педагогике не передача знаний, а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коления. Начинается оно с

[35] Фрадкин Ф.А. Воспит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 М.: Прометей, 2013. – 176 с.

появления у учеников чувства ровесничества, при котором для учеников очевидна и уважаема взаимная и равн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проявлении себя друг перед другом. 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именно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и продвижение в нем делают эту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очевидной. На дневном свету, когда, казалось б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доброго знакомства друг с другом, для открытия в других и в себе родственной таинствен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озрачности. Но чаще всего дневной свет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выявления и демонстрирования неравенства. А на уроке, где присутствует игровое действие, «именно овладение знаниями становится новым уникальным условием сплачивания сверстников, условием обретения интереса и уваж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а по ходу – и обретения себя»[36].

Самое важное на наш взгляд, это то, что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урок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укоренившиеся стереотипы, изменить привычные способы мышления и общения, сделать изучаемый материал более наглядным, ярким,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оздает наиболее 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н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Уроки данного типа оригинальны по замыслу, структуре и сюжету.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уроков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при следующих условиях:

- умелое сочетает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и традиционных форм работы на уроке;
- нестандартные уроки принимаются наряду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ак ведущие средства обучения;
- регулярное включение нестандартных уроков в свою систему;
- владение методикой проведения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уроков;
- способность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отбирать содержание, 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дидак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в рамках нестандартного урока.

Актуальность технологии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уроков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 занятия боле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и запоминающиеся;
- способствуют глубокому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му усвоению материала;
- благоприятно воздействуют на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 развивают лог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учащихся;
- организуют связь с другими предметами.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форм урока:

- расширяется кругозор учащихся за счет привлечения их к поиск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 реализуются межпредметные и внутрипредметные связи;
- расширяется учебная зона;
- организуется коллективная работа учеников;
- формируются личностные качества личности: умение план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вид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своей работ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следствия своей работы,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клонности и способ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коммуникативность, коллективизм и т.д.;
- мотивация к эффективной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37].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оль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в образовании велика, так как применение данных методов позволяет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по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отойти от строгих рамок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значительно разнообразить уче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пособствуют повышению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учащихся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рока. Безусловно, выбор конкретны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

[36] Букатов В.М. Секреты дидактических игр. Психология. Методика. Дисциплина. – СПб.: Речь, 2010. – 208 с.

[37] Шаров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5-11 классы. Конспекты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ых уроков.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предметных связей на уроках. – М.: Учитель, 2012. – 144 с.

методик и технологий обусловливается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ей, содержание темы,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ей обучения, технической оснащенность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 так далее. Погружение в тему происходит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самого ученика. Учащийся ищет, пробует, ошибается – именно через этот процесс его личность развивается, накапл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ый опыт в реше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задач.

2.1. Виды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период а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СМИ, процесс глобализации становиться обычным делом. И, разумеется, каждое по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сменяется новым более продвинутым, с более широким мировоззрением. Учителя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детей к тем или иным урокам. Учитывая вышеизложенное,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отреть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 нестандарт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Метод «общины» (метод советника)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американским психологом Ч. Курраном. В основе метода лежит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обучению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теория «советника», суть которой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людям необходима помощь советника-психолога, а его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участие желательны в любом виде со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в образовании. «Советник» призван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и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их «клиентов» – учащихся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38].

Метод «общины»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следующими чертами: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м подходом к обучению учащимся принадлежит ведущая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строении урока. Обучаемые определяют содержание обучения и выбирают удобный для них темп и режим работы;
- Учитель выступает в роли «советника» – информанта, который подсказывает учащимся фразы, необходимые им для общения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Он не должен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роль лидера 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я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не должен заставлять учащихся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если они этого не хотят. Учитель находится на втором плане и лишь советует, подсказывает учащимся, как лучше оформить ту или иную фразу. Он должен быть носителем языка и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владеть языком, так как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учащийся вправе запросить любу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цесса обучения строи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учащиеся работают в группе, они сидят вокруг стола лицом друг к другу и обсуждают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о чем хотят побеседовать, при этом желательно достиже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решения. Затем начинается общение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Метод «тихого» обучения (метод Гаттеньо) опирается на структурный подход в лингвистике и гуманис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психологии. Автором этого метода является К. Гаттеньо, который перенес свой опыт создания программ по обучению математике и чтению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на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Название метода отражает идею автора о том, что инициатива на уроке должна исходить от учащихся, речь которых занимает большую часть учебного времени, а учитель должен говорить на уроке как можно меньше. Обучение в тишине, в противовес повторению 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ю за учителем, становится приемом, который способствует мысл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концентрации учащихся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задания[39].

Основными положениями метода «тихого» обучения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

[38] Кашина Е.Г. Традиции и инновации в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 Самара: Изд-во «Универс-групп», 2006. – 25 с.

[39] Алигаджиева А. Р.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 вузе //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электронный журнал «Концепт». – 2015. – № S15. – С. 6–10. – URL: http://e-koncept.ru/2015/75211.htm.

- Процесс овлад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отличается от процесса овладения учащимся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этому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должно носи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быть специальным образом организовано;
- Обучение грамматике основано на индуктивном подходе и на изучении правил. Единицей обучения является предложение – структура. За период обучения учащиеся должны овладеть определенным набором таких структур;
-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отбирается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1) лексика, отражающая повседнев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и относящаяся к темам «Еда», «Покупки», «Путешествия» и т. д.; 2) лексика, необходимая для передачи специф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пример, в беседе,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агаю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ого лекс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3) функциональная лексика (предлоги, союзы,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глаголы и т. д.);
- Учащиеся играют ведущую роль на уроке, поэтому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акцент смещается с обучения на учение, которо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Учащиеся выдвигают гипотезы, исследуют проблемы и решают их по-своему, не полагаясь на способы учения, предлагаемые учителем.

В связи с расширением науч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появилас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овладеть языком и речью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н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достаточном уровне,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л бы общаться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с его носителями.

Перед педагогами возникла задача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обучения, конечной целью которой было научение общению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в наиболее сжатые сроки.

Виды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1. Гипнопедия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во время сна, на его определенных стадиях (через многократное повторение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в неизменном виде в первый период сна и сразу же после засыпания и перед пробуждением); результат – непроизвольное запоминание информации; не получил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з-за низкой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и и слож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2. Релаксопедия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в состоянии мышечного и психического расслабления и покоя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аутогенной тренировки (психическое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протеканию процессов непроизво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поминания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н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большом объеме).

3. Ритмопедия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создании особого состояния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человека («гипнотической фазы»), при котором достигается запоминание большого объема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информации. Такое состояние создается при воздействии на биоритмику человека монотонных низкочастотных импульсов звука, цвета и света через слуховые и зрительные анализаторы. Ввод информации – в период ритмостимуляци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покойной, мелодичной новой для слушателя музыки, способствующей объединению логического 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понентов психики, т.е. в период релаксации. Активизация и закрепление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оводится в период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ы обучающегося в УЛУР по программе сеанса,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на занятиях выполн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упражн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4. Методика «погружени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ая, интенсивная устно-речевая, ситуативно обусловленная, личност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учебная колле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часто в рамках заданного сценария в обстановке,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ой к ре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5. Эмоционально-смысловой (широк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левых игр, проблемных ситуаций, мыслительных задач, решаемых в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енн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настроя всей группы обучающих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вариантов такого

подхода является методика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разработанная Г.А.Китайгородской. Главным критерием такой методики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всех резервов личности учащегося в процесс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группового) обучения общению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на 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достаточном уровне в заданных временных рамках.

По мнению Китайгородской, можно считать два фактора определяющими в интенсивном обучении:[40]

1. минимально необходимый срок обуче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задан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цели при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ом (для этой цели) объеме учеб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его организации;

2. максим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сех резервов личности обучаемых взрослых в условиях творческог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учаемых и обучающего в групповом общении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Основным средством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твор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личности обучаемых в раскрытии ее резервов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особог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климата в учебной группе, возникающего на основе доверительных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и учащимися и между самими обучаемыми, повышенн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настроя всего коллектива и каждой личности путем мо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оощр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коллектива.

Для данного метода характерно ситуативно-тематическо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обще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левых игр,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ь обучения всем видам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ведущей роли аудирования и говорения, сочетание осознаваемого и неосознаваемого, принцип активности (сочетани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и групповог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через групповое).

Цель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тенсивного метода может быть разно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тапов обуч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обучающихся. Наиболее полно разработана методика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 некоторых формах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краткосрочные курсы) такой целью начального этапа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уровн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общения на лекс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в 2500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и нормативной грамматике учебной речи за 120 академических часов из расчета не менее 12 часов в неделю,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занятия 4 часа при следующем распределении времени: 1-я неделя – 24 часа; 2-3-я недели – 40 часов (по 5 дней); 4-5-я – 32 часа (по 4 дня); 6-я неделя – 24 часа (6 дней)[41].

Интенсивные методы получи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курсах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для взрослых и не все приемы и формы работы приемлемы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редних школ. Но основные идеи такого обучения (ситуативно-ролевое обучение, созд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климата на уроке,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твор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учащихся в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школе с учетом ее условий.

3. Заключение

Исходя из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способ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изучение грамматики и практику заучивания лексики. При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тодах обуче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ыступает основ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лицом, студенты пассивными слушателями, выполняющие зада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данных методов являются расширение словарного запаса, овладение приемами перевода и усвоение грамматики. Недостатками - отсутствие навыков

---

[40] Китайгородская Г.А. Методика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6.

[41] Колесникова И., Долгина О. Англо-рус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СПб., 2001.

устной речи, а также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занятий твор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которые нашли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тодах обуче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кри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активизации ум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ащихся. Главн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таких методах уделяется живому общению,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приближен к реальным жизненным ситуациям. В центре обучения находится личность студента, выступающая как активный творческий субъект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ражение субъективных мнений, размышлений по поводу той или иной проблемной ситуации играет главную роль в построении смысловой структуры высказываний на изучаемом языке.

Традиционные методы продолжают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виде современного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по которому работают многие языковые школы,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методы, в частности методы проблемного обучения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практ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повышают мотивацию, являются приемлемыми и актуальным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Алигаджиева А. Р.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 вузе //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электронный журнал «Концепт». – 2015. – № S15. – С. 6-10. – URL: http://e-koncept.ru/2015/75211.htm
2. Букатов В.М. Секреты дидактических игр. Психология. Методика. Дисциплина. – СПб.: Речь, 2010.
3. Кашина Е.Г. Традиции и инновации в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 Самара: Изд-во «Универс-групп», 2006.
4. Китайгородская Г.А. Методика интенс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6.
5. Колесникова И., Долгина О. Англо-рус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 СПб., 2001.
6. Фрадкин Ф.А. Воспита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 М.: Прометей, 2013.
7. Шаров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5-11 классы. Конспекты нетрадиционных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ых уроков.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предметных связей на уроках. – М.: Учитель, 2012.

Abstract

THE ROLE OF ALTERNATIVE AND NON-STANDARD TEACHING METHODS IN THE EDUCATIONAL PROCESS

Vladimir KIM

Supervisor: professor Lee Yu Mi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alternative and non-standard teaching methods in the educational process. The methods are based on the class-lesson system, teaching all types of speech activity: grammar, phonetics, vocabulary. When using teaching methods, the teacher acts as an actor, students are passive listeners. Problem-based teaching methods are characterized by problematization of educational material, active independent activity, development of students' thinking abilities. Overcoming the psychological barriers inherent in traditional education and eliminating the fear of making mistakes

Key words: teaching methods, the educational process**,** class-lesson system, problem-based teaching methods, educational material, active independent activity, thinking abilities, psychological barriers, traditional education, speech activity.

KOREYS TILIDA «호랑이/ YO‘LBARS» LEKSEMALI MAQOLLAR TAHLILI

Dilnavoz XAMIDOVA

Ilmiy rahbar: o‘qituvchi M.K. Nazar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Yo‘lbars* leksemali maqol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Maqollar uni yaratgan xalqning paydo bo‘lishi tarixi qadar ko‘hnadir. Chunki ular xalqning hayot tajribalari davomida orttirgan xulosalarini ifodalaydi. Maqollar o‘quvchilarga xalq to‘g‘risida ko‘plab ma’lumotlarga ega bo‘lishda yordam beruvchi vositadir. Koreys maqollari orasida 호랑이-*yo‘lbars* leksemasi ishtirok etgan maqollarni ko‘plab uchratishz mumkin. Bu maqollar koreys xalqining yo‘lbars fe’l-atvori orqali kundalik donoligi, aql-zakovati va hazil-mutoyibasini namoyish etishi bilan muhimdir.

2. *Yo‘lbars* leksemali maqol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Koreys tilida *yo‘lbars* leksemali maqollarda jonzot asosan hayvonlarning shohi yoki yebto‘ymas sifatida namoyon bo‘lishi kuzatiladi. Ular orasida «hayvonlar shohi» sifatida paydo bo‘lishi yirtqich, qo‘rquv obyekti, g‘azab va kuchni anglatadi. Quyida ba’zi ayni zoonim ishtiroki bor koreys xalq maqollarni tahlil qilib chiqamiz.

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Ta’rif: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흉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 ham o‘zi haqida gapirganda keladi, ya’ni, «*Agar siz men haqimda gaplashsangiz, uzoq tog‘dagi yo‘lbars ham keladi*», degan ma’noni bildirib, qandaydir joyda yo‘q deb boshqalarni noto‘g‘ri talqin qilmaslikni aytish. Boshqa bir kishi haqida gapirganda, u kishi beixtiyor paydo bo‘ladi. Ushbu maqol suhbat mavzusi bo‘lgan shaxs ayni suhbat davomida paydo bo‘lganda qo‘llaniladi. O‘zbek tilidagi ekvivalenti: «*Bo‘rini yo‘qlasang, qulog‘i ko‘rinadi*».

Jumladan: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가 민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민수가 교실에 들어왔다.

Yo'lbars ham men gapirganda keladi *deganlaridek, Minsu haqida gaplashib turgan paytimizda xonaga Minsu kirib keldi.*

2.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Ta'rif:**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 bolasini tutish uchun yo'lbarsning uyasiga kirish kerak, ya'ni «Tavakkal qilmasangiz, muammoni hal qila olmaysiz». O'zbek tilidagi ekvivalenti: *«Chumchuqdan qo'rqqan tariq ekmaydi».*

Jumladan: 바라건데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아가라. 한 사람 두 사람이 나가더라도 열 백 천만이 있는 한 주저 말고 나아가라. 끝까지 나아가라.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는다.

Umid qilamanki, siz imkoniyatni boy bermaysiz va olg'a borasiz. Bir- ikki kishi olg'a yursa ham, 10 millionni tasavvur qilib ikkilanmasdan olg'a yuring. Oxirigacha boring. ***Yo'lbarsning bolasini yo'lbarsning iniga kirgan tutadi.***

3.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ni tutish uchun yo'lbarsning uyasiga borish kerak, ya'ni ushbu maqol kishi o'z maqsadiga erishish yo'lida bor kuchi va e'tiborini qilayotgan ishiga qaratmasa, u o'z niyatiga erisha olmasligini anglatadi. O'zbek tilidagi ekvivalenti: *«Jon kuydirmasang - jonona qayda, Toqqa chiqmasang – do'lona qayda?!»* Ushbu maqol mazmun jihatdan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maqoli bilan sinonim, ya'ni manodosh bo'la oladi.

Jumladan: 자신의 행로가 청천맹 쪽으로 향하면 입질을 해올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천살검을 회수하려면 청천맹으로 가야 한다. 청천맹이 입질을 해오면 못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준다.

Yo'lingiz Chongchonmeng tomonga yo'nalgan bo'lsa, cho'qib oladi. ***Yo'lbarsni tutish uchun yo'lbarsning uyasiga borish kerak.*** *Chonsal qilichini ortga qaytarish uchun Chongchonmengga borishingiz kerak. Chongchonmeng cho'qib olsa, chiday olmaganday qilib ko'rsatib izidan boring.*

4. 세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Ta'rif: (* 셋이 모여 우겨 대면 누구나 곧이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도 진실로 둔갑한다).

To'g'ridan to'g'ri tarjimasi: Agar uch kishi o'z fikrida qat'iy turib olsa, yo'q yo'lbarsni bor qiladi. Ma'nosi: *Uch kishi yig'ilib, doimo bahslashsa, kim bo'lsa-da tezda ishonib ketishini anglatib, ko'pchilik kuchini birlashtirsa, qilish mumkin bo'lmagan ishni ham amalga oshirishi mumkinligini anglatadigan majoziy ma'nodagi gapdir. *Bir necha kishi yig'ilib mish-mish qilganda, haqiqat bo'lmagan narsa haqiqatga aylanadi, degan majoziy ma'no uqiladi. *Agar bir nechta odam bir narsani aytsa, yolg'on haqiqat bo'lib chiqadi. Boshqacha qilib aytadigan bo'lsak, agar bir necha kishi biror narsaga ishonsa va o'z fikrlarini qat'iy ilgari sursa, boshqalarni noto'g'ri bo'lsa ham ishontira olishlari mumkin. O'zbek tilidagi ekvivalenti: *«Oltovlon ola bo'lsa, og'zidagin oldirar, To'rtovlon tugal bo'lsa, unmaganni undirar».*

Jumladan: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했소. 우선 우리 두 사람이 상소를 올립시다. 가급적 역모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오.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날개만 붙여 주는 꼴이 되오.

*Aytishlaricha****, agar uch kishi o'z fikrida qat'iy turib olsa, yo'q yo'lbarsni bor qiladi****. Avvalo ikkimiz murojaat qilib chiqaylik. Iloji boricha fitna bilan bog'liq gaplarni ko'p aytish kerak bo'ladi. Yaxshi o'ylamasdan hujum qilib, qanotinigina kuydiradigan holat bo'ladi.*

5.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Ta'rif: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다).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ga tutilsa ham, es-hushini yig‘ib olgan tirik qoladi. Ma’nosi: * Qanchalik favqulotda holatga uchrasa-da, hushini yig‘ib olsa, juda xavfli vaziyatdan yengil chiqib ketishi mumkin degan ma’noni bildiradi. *Qanchalik og‘ir ishga duch kelmasin, vazminlik bilan ish yuritsa, muammoni hal qilish mumkin.

Jumladan: 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모두 얼어 죽겠어.
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분명히 살 방법이 있을 거야.
A: Endi nima qilamiz? Bu ketishda hammamiz muzlab o‘lamiz.
*B: **Yo‘lbarsga tutilsa ham, es-hushini yig‘ib olgan tirik qoladi** deb aytishgan. Aniq tirik qolishning bir usuli bo‘lish kerak.*

6.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났다**.** Ta’rif: (갈수록 더욱더 힘든 일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To‘g‘ridan to‘g‘ri tarjimasi: Tulkidan qochib, yo‘lbarsga duch keldim. Ma’nosi: Borgan sari yanada qiyinlashadigan ishga duch kelishni anglatadi. O‘zbek tilidagi ekvivalenti: *«Yomg‘irdan qochib, do‘lga tutildim».*

Jumladan: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려다 걸려서 0 점 처리되었으니,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Imtihon topshirgan paytimda nohaqlik qilib 0 baho olib, **tulkidan qochib yo‘lbarsga duch kelgandim.***

7.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Ta’rif: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고 훌륭하게 하려고 했으나 처음과 달리 끝은 초라하고 엉뚱하다).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ni tutmoqchi bo‘lib, quyonni tutish. (Yo‘lbarsni o‘stirmoqchi bo‘lib, mushuk o‘stirish). Ma’nosi: Biror ishni ulkan g‘ayrat bilan boshlab, oxirida kutilgan natijani olmaslikni bildiradi.

Jumladan: 가: 의류 사업 좀 크게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양말 장사나 하고 있으니.
나: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됐구먼.
A: Men kiyim-kechak biznesini kattaroq qilmoqchi edim, lekin oxir-oqibat bu yerda paypoq savdosi bilan shug‘ullanyapman.
*B: **Yo‘lbarsni o‘stirmoqchi bo‘lib, mushuk o‘stiribsizda.!***

8.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Ta’rif: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보다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한다).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 bo‘lmagan vodiyda quyon qirol rolini o‘ynaydi. Ma’nosi: Salohiyatli odam bo‘lmasa, johil odam boshqaruvni o‘z qo‘liga olishga harakat qiladi. Ya’ni mushuk ketganda sichqon o‘ynaydi. O‘zbek tilidagi ekvivalenti: *«Otning o‘limi – itning bayrami».*

Jumladan: 가: 쟤는 반장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나선다니?
나: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더니 반장이 없으니 자기가 반장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지 뭐.
A: Anavi bola sinf sardori ham bo‘lmasdan turib nega bunaqa aralashadi?
*B: **Yo‘lbars bo‘lmagan vodiyda quyon qirol rolini o‘ynaydi**-ku, sinf sardori bo‘lmaganidan keyin o‘zini sinf sardoridek tutsa nima qilibdi?!*

9. 호랑이 담배 먹을 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Ta’rif: (*아주 오래 전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옛날).
To‘g‘ridan to‘g‘ri tarjimasi: Yo‘lbars tamaki tutatadigan payt (Yo‘lbars tamaki tutatgan vaqtlar) Ma’nosi: * Ancha payt oldin degan ma’noni anglatadi. * Odamzod hisoblashi qiyin bo‘lgan juda qadim zamon.

Jumladan: 가: 엄마, 재미있는이야기해 주세요.
나: 그럴까?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울 적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A: Oyijon, qiziqarli hikoya aytib bering.
*B: Shunaqami? Qadim- qadim zamonda, **yo‘lbars tamaki tutatgan vaqtlar** bir bola yashagan ekan.*

10. 돈이라면 산 호랑이의 눈썹이라도 빼 온다**.** Ta’rif: [*돈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무릅쓰고 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To‘g‘ridan to‘g‘ri tarjimasi: Pul bo‘lsa yo‘lbarsning qoshi o‘sib chiqadi. Ma’nosi: *Pul sarflasa, qanday ish bo‘lsa ham bitadi. *Pul keltiradigan ish bo‘lsa, qanchalik qiyin va xavfli ish bo‘lmasin, bardosh bera olishi mumkinligini bildiradi. O‘zbek tilidagi ekvivalenti: *«Pul bo‘lsa changalda sho‘rva».*

Jumladan: 가: 이제 아파트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 걱정 하지 마세요. 돈이라면 산 호랑이의 눈썹이라도 빼 온다더니.

A: Endi kvartira topa olmasam nima qilaman?

B: Xavotir olmang, axir ***pul bo‘lsa yo‘lbarsning qoshi ham o‘sib chiqadi****-ku.*

Yuqoridagi misollardan ko‘rinib turibdiki, koreys lingvistikasida «yo‘lbars» yirtqich jonzot bo‘lish bilan birga g‘azab, qo‘rquv, mardlik kabi tushunchalarni o‘z ichiga olishini bilish mumkin.

3. **Xulosa**

Koreys va o‘zbek tillarida «호랑이/yo‘lbars» leksemasi qatnashgan maqollar mavzu, ular kasb etgan ma’no-mazmun jihatdan bir-biriga o‘xshash. Farqli jihati shundaki, har ikkala tildagi maqollarda qo‘llangan majoziy obrazlar bir-biridan biroz farq qiladi. «호랑이/yo‘lbars» leksemasi qatnashgan koreys maqollarida yo‘lbars asosan, qo‘rquv obyekti sifatida gavdalangan.

4. **Adabiyotlar ro‘yxati:**

1. 한국어 속담 대사전, 2006.
2. 한국인의 속담, 1999.
3. 국어국문학, 1966.
4. 우리 속담 사전, 1993, 용 숍 원.
5. 중한 성어 속담 대사전, 2011, 유 은 종.
6. 한국 속담 활용 사전 , 1993, 김 도 환.
7. Madayev O. O‘zbek xalq og‘zaki ijodi. -T.: MUMTOZ SO‘Z, 2010.

Abstract

ANALYSIS OF KOREAN PROVERBS WITH THE LEXEME «호랑이 / TIGER»

Dilnavoz KHAMIDOVA

Supervisor: Nazarova M.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In this article selected ten Korean proverbs with the lexeme «호랑이 / tiger» and translated into Uzbek language. Each article is commented in Korean and Uzbek, with examples translated into Korean. In this article it is given Uzbek equivalents (i.e., alternatives) of Korean proverbs with the lexeme «호랑이 / tiger» and comparatively analyzed. An analysis of proverbs involving the Korean lexeme «호랑이 / tiger» revealed that the tiger could reflect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In Korean articles involving the lexeme «호랑이 / tiger» chosen for analysis, the tiger is mainly embodied as a king of the forest, a symbol of strength, greatness, difficulty, risk, fear and courage. The Korean proverbs with the lexeme «호랑이 / tiger» analyzed above call people to goodness, but also to courage, bravery and not being afraid of take risks.

Key words: 호랑이 – tiger, 호랑이 굴 – tiger nest, 호랑이 새끼 – tiger cub, 잡다 – to catch.

KOREYS TILIDA NOTO‘G‘RI SO‘ZLARNING XARAKTERLI XUSUSIYATLARI

Munira KENJAYEVA

Ilmiy rahbar: o‘qituvchi Murodova D.B.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Kirish
2.1.ㅅ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2.2.ㄷ harf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2.3.ㅂ harf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2.4.ㄹ harf birikmas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2.5.르 harf birikmas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Barcha tillarda bo‘lgani kabi, koreys tilida ham ko‘plab tushunmovchiliklarga sabab bo‘luvchi ba’zi bir tartibsiz birikmalar (noto‘g‘ri fellar/sifatlar) mavjud. Noto‘g‘ri so‘zlar iborasi so‘zning negiziga ma’lum belgilarni qo‘shganda ayrim o‘zgarishlarga uchraydigan fe’llarga yoki sifatlarga nisbatan qo‘llaniladi. Koreys tili grammatikasida bu hodisa «qo‘shimchalar» ga asoslangan bo‘lib, ular ayrim sifat va fe’llarga istisno tariqasida qo‘shiladi. Bu hodisa, asosan, so‘zning qanday harf bilan tugallanishiga bevosita bog‘liqdir.

Fe’l yoki sifatning o‘zak qismiga qo‘shish mumkin bo‘lgan yuzlab qo‘shimchalar mavjud. Ushbu qo‘shimchalarning ba’zilari qo‘shma gaplarda, ba’zilari esa so‘zda ma’noga ega bo‘lgan, maxsus grammatik kategoriyalardir. Ular so‘z o‘zagiga qo‘shilganda so‘zning shaklida morfologik o‘zgarishlarga sabab bo‘ladi. Bunday qo‘shimchalarning ba’zilari haqida ushbu maqolada yoritib o‘taman.

Masalan:

~ㄴ / 는다	badiiy uslubda oddiy hozirgi zamonnni ifodalovchi qo‘shimcha
~ 아 / 어	norasmiy past hurmat shakli
~ 아 / 어요	norasmiy yuqori hurmat shakli
~ ㅂ / 습니다	rasmiy yuqori hurmat shakli
~ 았 / 었어	o‘tgan vaqtdagi norasmiy past hurmat shakli
~ ㄴ / 은	sifatdosh shaklini yasovchi qo‘shimcha

2. ㅅ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Qoidaga ko‘ra, agar so‘zning oxirgi harfi ㅅ bilan tugagan bo‘lsa, unga unli qo‘shilganda ㅅ tushib qoladi. Masalan, affiksatsiya paytida:

짓다 = qurmoq 짓 + 어 = 지어 나는 집을 지어 = Men uy quraman.
짓 + 었어요 = 지었어요 저는 집을 지었어요 = Men uy qurdim.

E’tiborlisi, bu hodisa faqat unli qo‘shganda sodir bo‘ladi. Masalan, oddiy shaklga undosh bilan boshlangan qo‘shimcha qo‘shishda biz «~는다»ni qo‘shib ko‘ramiz, lekin bu yerda ㅅ o‘chirilmaydi. Masalan:

집을 짓는다 = uyni quraman.

- Bu qoidaga taalluqli bo‘lmagan umumiy so‘zlar ham mavjud, ular to‘g‘ri so‘zlardir:

웃다 (kulmoq) = 저는 웃었어요 = Men kuldim.
벗다 (kiyimni yechmoq) = 저는 저의 옷을 벗었어요 = Men kiyimlarimni yechdim.
씻다 (yuvmoq) = 저는 저의 손을 씻었어요 = Men qo‘llarimni yuvdim.

2.1.ㄷ harf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Agar so‘zning oxirgi harfi ㄷ bilan tugagan bo‘lsa, unli qo‘shilganda ㄷharfi ㄹga o‘zgaradi. Bu qoida faqatgina fe’l so‘z turkumidagi noto‘g‘ri so‘zlar bilan ishlaydi. Masalan:

걷다= piyoda yurmoq 걷 + 어 = 걸어 저는 걸어요 = Men yuraman.
걷 + 었어요 = 걸 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 Men yurdim.

Lekin biz bu o‘rinda omonim so‘zlarni ham hisobga olishi kerak, ya’ni 걷다 so‘zi «yurmoq» degan ma’noni anglatadi. Affiksatsiya qilinayotganda unli qo‘shsak u 걸어 ga o‘zgaradi. 걷다ning

yana bir ma’nosi – «tortib olmoq» hisoblanadi. Basharti, 걷다ning bu ma’nosi noto‘g‘ri so‘zlar qoidasiga amal qilmaydi. Shuning uchun unli qo‘shib affiksatsiya qilganda, u shunchaki 걷어 shaklida qoladi.

Bundan tashqari, 걸다 «osib qo‘ymoq» degan ma’noni anglatadi. Affiksatsiya natijasida u ham yuqoridagi so‘zlar bilan bir xil shakl oladi. Albatta, bularni chalkashtirib yuborish hech gapmas, har birini gapda kelgan o‘rni hamda ma’nosiga qarab farqlashimiz mumkin.

걷다 kabi to‘g‘ri so‘zlar ham anchagina:

받다 (olmoq) = 돈을 받았어요 = Men pul oldim.

묻다 (ko‘mmoq) = 저는 저의 강아지 를 묻었 어요 = Men itimni ko‘mdim.

닫다 (yopmoq) = 저는 문을어요 = Men eshikni yopdim.

2.2.ㅂ harf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Agar so‘zning oxirgi harfi ㅂ bilan tugagan bo‘lsa, unli qo‘shilganda ㅂ harfi 우 ga o‘zgaradi. Lekin 우 so‘zning keyingi bo‘g‘iniga qo‘shiladi. Bu asosan sifat so‘z turkumidagi so‘zlar bilan amalga oshiriladi. Jumladan, ko‘p fe’llar ㅂ bilan tugaydi, ammo bu qoida kamdan-kam hollarda fe’llarga nisbaan qo‘llaniladi (masalan: 줍다 – ko‘tarmoq).

Misol,

쉽 + 어 = 쉬 + 우 + 어 = 쉬워; 그것은 쉬워 = Bu oson.

어렵+ 우 + 어 = 어려워; 그것은 어려워요 = Bu qiyin.

귀엽 + 어 = 귀여 + 우 + 어= 귀여워; 그 여자는 귀여워요 = U qiz yoqimli.

- Istisno: «돕다» (yordam bermoq) va «곱다» («chiroyli» deyishning g‘ayrioddiy usuli) ㅂ harfi 오 ga o‘zgaradi. Masalan:

돕 + 았어요 = 도 + 오 + 았어요 = 도왔어요.

저는 저의 어머니를 도왔어요 = Men onamga yordam berdim.

Agar bunday sifatlarga o‘tgan zamon sifatdoshini qo‘shmoqchi bo‘lsak, 우 / 오 bo‘g‘inidan keyin ~ ㄴ qo‘shamiz:

귀엽 + ㄴ = 귀여 + 우 + ㄴ = 귀여운

저는 귀여운 여자를 좋아해요 = Men yoqimli qizlarni yaxshi ko‘raman.

Misollar:

쉽 + ㄴ = 쉬 + 우 + ㄴ = 쉬운

저는 쉬운 일을 했어요 = Men oson ishni qildim.

부드럽 + ㄴ = 부드러 + 우 + ㄴ = 부드러운

나는 부드러운 손이 있어 = Mening yumshoq qo‘llarim bor.

춥 + ㄴ = 추 + 우 + ㄴ = 추운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 Menga sovuq ob-havo yoqadi.

Bu ㅂ bilan tugaydigan ba’zi so‘zlar uchun qilingan. Bunga tegishli bo‘lmagan ba’zi oddiy so‘zlar quyidagilar:

잡다 (ushlamoq) = 저는 공을 잡어요 = Men to‘pni ushladim.

넓다 (keng) 이 방은 넓어 요 = Bu xona keng.

2.3.ㅡ harf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Agar asosdagi oxirgi harf ㅡbo‘lsa, ~ 아 / 어 qo‘shilganda biz ㅡga qarab o‘zakka ~ 어 yoki ~ 아 qo‘shilishi kerakligini aniqlay olmaymiz. Biz buning uchun – harfi joylashgan bo‘g‘indan oldingi bo‘g‘indagi unliga e’tibor qaratish kerak. Masalan, 잠그다 so‘zida, o‘zakdagi ikkinchi oxirgi bo‘g‘in 잠, bu yerdagi unli ㅏ bo‘lsa, 아 yoki 어 qo‘shilishini aniqlash uchun ananaviy qoidalardan foydalanamiz. Agar ikkinchi ohangdagi unli ㅏ yoki ㅗ bo‘lsa, 아 qo‘shiladi. Agar ikkinchi ohangdagi unli ㅏ yoki ㅗ dan boshqa bo‘lsa, 어 qo‘shiladi. Masalan:

Oxirdan ikkinchi bo‘g‘indagi unli ㅏ yoki ㅗ bo‘lgan joyda:

나쁘다 +아요 = 나빠요

Ikkinchi oxirgi bo‘g‘indagi unlilar ㅏ yoki ㅗ dan boshqa harf bo‘lsa:
슬프다 + 어요 = 슬퍼요 (xafa bo‘lmoq)
예쁘다 + 어 = 예뻐요 (chiroyli)
Misollarni ko‘rib chiqamiz:
저는 문 을 잠갔어요 = Men eshikni qulfladim.
저는 바빠요 = Men bandman.
그 여자 는 예뻐요 = Bu qiz chiroyli.
저는 아주 슬퍼요 = Men juda xafaman.

- Ba’zi bir bo‘g‘inli so‘zlar mavjud. Masalan, 크다 ning asosi shunchaki 크. Bunday holda, biz asosga ~ 어 ni qo‘shamiz. Masalan:

크 + 어 = 커 그 집은 커요 = Bu uy katta.

2.4.르 harf birikmasi bilan tugaydigan noto‘g‘ri so‘zlar

Agar so‘z asosidagi oxirgi bo‘g‘in 르 bo‘lsa, ~ 아 / 어 qo‘shilganda boshqacha affiksatsiya hosil bo‘ladi. Ushbu so‘zlarga ~ 아 / 어 qo‘shganda 르 qo‘shimchasi 러 yoki 라 ga o‘zgaradi. Bu hodisa fe’llarga ham, sifatlarga ham qo‘llaniladi. Lekin biz istisno holatlarni ham hisobga olishimiz kerak. Masalan:
다르 + 아요 = 다 + ㄹ + 라요 = 달라요; 그것은 달라요 = Bu narsa boshqacha.
빠르 + 아요 = 빠 + ㄹ + 라요 = 빨라요;그 남자는 빨라요 = Bu odam tezkor.
부르 + 었어요 = 부 + ㄹ + 렀 어요 = 불렀어요
저는 저의 누나 를 불렀어요 = Men singlimni chaqirdim.
Agar asosning oxirgi harfi ㄹ bo‘lsa va biz quyidagilardan birini qo‘shganimizda ㄹ tushib qoladi:

- ✔ ~ㄴ / 은
- ✔ ~ㄴ / 는
- ✔ ~ㅂ / 습
- ✔ ~ㄹ / 을
- ㄹ bilan tugaydigan asosga ~ ㄴ / 은 qo‘shganda, ㄹ tushib qoldiriladi va ㄴasosga qo‘shiladi:

길 + ㄴ = 긴; 저는 긴 거리를 어요 = Men uzoq ko‘chani kesib o‘tdim.
멀 + ㄴ = 먼; 저는 먼 병원에 갔어요 = Men olis kasalxonaga bordim (olisda joylashgan shifoxona).
열 + ㄴ = 연 (ochmoq)

- ㄹ biln tugaydigan noto‘g‘ri so‘zlarga ~ㅂ / 습 qo‘shilishi:

Rasmiy yuqori hurmat shakli qo‘shimchasi qo‘shilayotganda fe’l va sifatlarga ~ㅂ / 습니다 qanday shaklda affiksatsiya qilinishda unli bilan tugagan so‘zning tagiga ~ㅂ 니다 ni va patchim bo‘lsa, ~ 습니다 shaklini qo‘shamiz. Masalan:

- Fe’llarda:

저는 집에 갑니다 = Men uyga ketaman.
저는 밥을 먹습니다 = Men guruch yeyman.

- Sifatlarda:

그 여자는 예쁩니다 = Bu qiz chiroyli.
이 방은 넓습니다 = Bu xona katta / keng.
Ammo ㄹ bilan tugaydigan so‘zning asosiga ~ㅂ 니다 qo‘shganda, ㄹ ni olib tushirib qoldiriladi va to‘g‘ridan-to‘g‘ri o‘zakka ~ㅂ qo‘shiladi. Masalan:

- Fe’llarda:

저는 문을 엽니다 = Men eshikni ochaman.
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 Men pirojniy tayyorlayman.

- Sifatlarda:

그 병원은 멉니다 = Bu kasalxona uzoq.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깁니다 = Qizlarning sochlari uzun.

3. Xulosa

Yuqorida ta'kidlanganidek, har bir tilda o'ziga xos istisno holatlari mavjuddir. Maqolada koreys tilida fe'l va sifatlarda yuz beradigan istisno holatlarni ko'rib chiqdik. Ular o'rtasidagi xarakterli xususiyatlarni misollar orqali izohlandi. Har bitta holat o'ziga xosligi bilan ajralib turadi. Muxtasar qilib aynganda, koreys tilida bunday istisnoli vaziyatlar talaygina, ularni faqat puxta o'rganish va yodlash orqali esda saqlash mumkin.

4. Adabiyotlar ro'yxati:

1. Kim-Renaud, Young-Key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Vol.9 No.2.
2. Cho, Seung-Bog. 1967.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Uppsala.
3. I, Huy Sung. 1961. (l971- 13th ed.). Kwztketaysacen (Great Korean Dictionary). – Seoul.
4. Korean Language. AAS Chicago, 30 March, 1973.
5. Category:Irregular verbs https://www.korean wikiproject.com/wiki/Category:Irregular_verbs
6. Irregular verbs and adjectives (불규칙동사와 형용사) http://bruce-the-korean. blogspot. com/2015/07/irregular-verbs-and-adjectives.html?m=1
7. Irregular Korean Verbs With «ㅡ» (ㅡ 불규칙) – Learn Korean24 https://learnkorean 24.com /korean-lessons/korean-irregular-verbs-2/

Abstract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WORDS IN KOREAN LANGUAGE

Munira KENJAYEVA

Supervisor: Durdona Murodova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is specifically devo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irregular words that you can face up in Korean grammar. As with all languages, Korean has also some disordered combinations (irregular verbs and adjectives) that cause a lot of misunderstanding in learning procces. Irregular words are applied to verbs or adjectives that undergo certain changes when certain characters are added to the word base. In Korean grammar, this phenomenon is based on suffixes added as an exception to certain adjectives and verbs. In particular, the article describes and gives examples of irregular words that are a confusing part of Korean grammar. For example, groups of incorrect verbs ending in ㅅ, ㄷ, ㅂ, ㅡ, ㄹ are highlighted. You can see that they are enriched with a number of ideas, expla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functions with examples. Learning this type of except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incorrect verbs, affixation, stem, suffix, grammatical categories, ~ㅂ / 습니다, ~아 / 어요;

KOREYS TILI SHEVALARIDA FONETIK FARQ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Baxtigul ANORQULOVA

Ilmiy rahbar: Dadaboyeva D.Sh.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Koreys tilining kelib chiqishi va koreys tili leksikologiyasi
2.1. Hududiy shevalar tasnif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Til bu – har bir insonning, millatning ma’naviyatini, o‘zligini ifodalovchi eng muhim aloqa vositalaridan biri, insoniyat tafakkurining bebaho ko‘zgusidir. Til ikki davlat o‘rtasidagi muhum diplomatik aloqa vositasi hisobladi va jamiyat, yurt taraqqiyotida ham tilning o‘rni beqiyosdir. Necha asrlardirki, turli xil davlatlar, xalqlar tillari o‘zaro bir-birini boyitib, rivojlanib kelmoqda. Chetdan kirib kelgan yangi so‘zlarni o‘zlashtirish orqali o‘z tilini boyitib, yozuvi ham o‘z navbatida o‘zgarib bormoqda. Bularning barchasi o‘sha davlatning rivojlanib borayotganidan dalolat beradi va ko‘plab izlanishlar, kuch va harakat talab qiladi.

2. **Koreys tilining kelib chiqishi va koreys tili leksikologiyasi**

Hozirda koreys adabiy tili va shevalarida nafaqat xitoy va yapon tillaridan, balki, ingliz tilidan o‘zlashgan so‘zlarni ham ko‘plab uchratish mumkin. Korea urushidan so‘ng Janubiy Korea butun dunyoga eshiklarini ochdi va shiddat bilan oqib kelayotgan rivojlanish, ma’lumotlar ummonini hech qanday e’tirozlarsiz qabul qildi. Hozirda Koreada adabiy tilda so‘zlashadigan aholi qatlamining soni kamayib bormoqda va shu sababli shevalarning asl ma’nosini saqlab qolish siyosati olib borilmoqda.

Koreys tili KXDR hamda Koreya Respublikalarining rasmiy til hisoblanadi. Bu tilda 60 mln.ga yaqin aholi so‘zlashadi (1992-y). Koreys tilida so‘zlashuvchilarning ko‘p qismi Koreya yarim orolida yashaydi, 3mln.dan ziyod kishilar esa dunyo bo‘ylab tarqalib ketgan. Koreys tili Oltoy tillariga, ba’zan To‘ngus-manjur tillariga kiradi, deya taxmin qilinadi. Leksikasida xitoy tilidan, sanskrit, mo‘g‘ul va ba’zan Yevropa tillaridan o‘zlashgan so‘zlar bor. Koreys tili 1966-yili «Madaniy til» (문화), 1993-yilgacha «Standart til» deb atalgan va bu tilning ikki turi ham KXDR va Koreya Respublikasida qo‘llanib kelinadi. KXDRda koreys yozuvi, Koreya Respublikasida xitoy-koreys aralash yozuvi qo‘llaniladi. Koreys tili leksikologiyasi 3 qatlamdan iborat. Ular qadimgi koreys tili, xitoy tilidan o‘zlashgan so‘zlar va boshqa tillardan kirib kelgan so‘zlardir[42].

Sheva – bir millatga mansub, ammo, turli hududlarda yashaydigan odamlar tomonidan ishlatiladigan milliy til ko‘rinishidir. Sheva adabiy tildan fonetik, leksik va grammatik jihatlari bilan farq qiladi. Koreya yarim orolida bir qancha shevalar mavjud. Yarim orol tog‘li hududda joylashgan bo‘lib, har bir sheva taxminan geografik hududlarga mos keladi. Yarim orolning shimoliy, shimoli-sharqiy, shimoli-g‘arbiy, markasiy, janubiy, janubi-sharqiy shevalari mavjud.

Seul shevasi – Janubiy Koreyaning rasmiy tili bo‘lib, bu shevada Seul, Inchxon, Janubiy Koreyadagi Kyongido viloyati va Shimoliy Koreyadagi Keson viloyatidagi aholi so‘zlashadi.

[42] Library.ziyonet.uz//uz/book/download/12393

Pxenyan shevasi – Shimoliy Koreyaning rasmiy tili. Bu shevada Pxenyan, Kvanso va Chagando viloyati aholisi so‘zlashadi. Yo‘nalishni bildirib keladigan –로 va – 고 qo‘shimchalari bu shevada – 루 va – 구 deb tallafuz qilinadi.

Cheju shevasi – Chejudo viloyati va Janubiy Koreyaning janubi-g‘arbiy qirg‘og‘idagi aholisi so‘zlashadi. Bu sheva Koreyaning boshqa shevalaridan ancha farq qiladi. Bu sheva boshqa hudud shevalari kabi shakillanmagan hamda shevada eski so‘zlar saqlanib qolingan. Shuningdek, Chejudo shevasida xitoy hamda yapon tillaridan o‘zlashgan so‘zlar mavjud. Shu bilan birga hozirda yo‘qolib ketgan «Tomna» tiliga oid so‘zlar ham uchraydi. Cheju shevasining ohangi ham boshqa shevalardan tubdan farq qiladi. Bu shevada undosh harflar kuchliroq talaffuz qilinishi kuzatiladi.

Misol uchun: Seul shevasida yoshi katta insonlarga 안녕하세요? *(«assalomu alaykum»),* Cholla shevasida 안녕하셨지라? *(«assalomu alaykum»),* Cheju shevasida esa, 반갑시요 *(«qandaysiz?»)* deb murojaat qilinadi[43].

2.1. Hududiy shevalar tasnifi

Janubiy Koreyalik lingvist Li Chonmin tadqiqotlari natijasiga ko‘ra, dialektlar 4 ta asosiy guruhga bo‘linadi:

1. Seul shevasi;
2. Kyonsan viloyati shevasi;
3. Cholla viloyati shevasi;
4. Chxuchxon viloyati shevasi.

Aynan yuqorida sanab o‘tilgan shevalar muloqotda tez-tez uchraydi. Chejudo shevasi alohida xususiyat kasb etadi, boshqa shevalardan farq qiladi, shu bilan birga bu shevani tushunish biroz qiyinchilik tug‘diradi[44].

Seul shevasining o‘ziga xos xususiyatlari:

1. Unlilar tizimi 10 ta tovushdan iborat: 이, 에, 애, 위, 외, 어, 오, 우, 으, 아.
Lekin bugungi kunga kelib, 에 va애 tovushlari bir tovush sifatida qo‘llaniladi.
2. Ohangdorlik bo‘lmasa-da, tovush cho‘ziqligi mavjud.
3.아, 야, 오, 요 unlilari 어, 여, 우, 유, 으, 이unlilariga o‘zgarishi kuzatiladi.
Misol uchun: 가도 – [가두] – 들어도 – [들어두].
4. [ㄱ], [ㄴ], [ㅅ] undoshlari jarangli undoshlar orasida kelganda tushib qoladi yoki kuchsiz talaffuz qilinadi. Dastlab koreys tili butun hududda bir xil qo‘llanilgan, keyinchalik, ya’ni bugungi kunga kelib ㄱ, ㅂ, ㅅ undoshlari jarangli undoshlar orasida kelganda kuchsiz yoki kuchliroq talaffuz qilinadi: Masalan: 마을 *(Seul shevasi)* – 마슬 *(Kyongido shevasi).*
1.ㄴ va ㄹ harflari so‘z boshida kelsa, tallafuz qilinmaydi.
Masalan: 녀자 – [여자] 리발수 –[이발수]
ㄱ, ㄴ, ㅈ, ㅂ, ㅅ undoshlari so‘z boshida kelsa, kuchaytirilgan holda ifodalanadi.
Masalan: 고추 – [꼬추] 수세미 – [쑤세미] 바닥 – [빠닥]
2. Agar so‘zning oxiri undosh 고 yoki 다 bilan tugallansa, ularning orasida [ㅡ] tovushi qo‘llaniladi.
Masalan: 같다 – [가트다] 같고 – [가트고]
3. Suhbatdoshga murojaat qilish qoidasining 6 xil darajali formasi mavjud: 해라, 해, 하게, 하오, 해요, 하십시오.
4. Hurmat formasidagi so‘zning oxirida –ㅂ쇼, – ㅂ죠 formalaridan foydalaniladi.
5. Tallafuzda so‘zning boshi va tugallanish orasiga qo‘llaniladigan yana bir asosiy narsa bor, oxirgi va oxirgidan oldingi tugallanishning o‘rtasiga 에 harfi qo‘llaniladi.
Masalan: 아니오 – [아니에요] 하시오 – [하세요]
6. Uzun va qisqa inkor formalar mavjud. Har ikkala formadan ham foydalaniladi.
Masalan: *놀지 못 한다

---

[43] Xolmurodova K. Koreys adabiy til me’yorlari va sheva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 Samarqand, 2014. – B. 9.

[44] www.chinesetools.eu

*못 논다
*놀지 않는다
*안 논다
Chechjudo shevasining xususiyatlari :
1. 6 ta unli tovushi mavjud: 이, 에, 애, 으, 어, 우.
2. Tovush ohangdorligi hamda tovush choʻziqliligi mavjud emas.
3. Kuchli talaffuz qilinadigan «ㄱ» tovushi jarangli undoshlar orasida kelganida, tushib qoladi yoki kuchsiz talaffuz qilinadi. [ㄱ] tovushining saqlanishi juda kam holatlarda uchraydi: 심는다 – [심근다].

Kuchli talaffuz qilinadigan ㅂ tovushi jarangli undoshlar orasida kelganida tushib qoladi yoki kuchsiz talaffuz qilinadi. ㅂ tovushining saqlanishini faqat bitta soʻzda uchratishimiz mumkin: 우엉 – [우방지] ㅅ tovushi jarangli undoshlar orasida kelganida umuman ifodalanilmaydi. Faqatgina 2-3 ta qadimiy koreys soʻzlarida uchratish mumkin:
Masalan: 가을 – [가슬] 겨울 – [저슬]
4. Soʻzning boshlanish qoidasi mavjud. Kuchli tovush yumshatilish hodisasi ㄷ, ㅌ, ㅋ, ㄱ, ㅎ tovushlarida mavjud.
Masalan: 형– [성] 호지– [소지]
5. Undosh tovushlarning orttirilish hodisasi kam uchraydi. Lekin undoshlarning qattiqlashuv hodisasi koʻp uchraydi.
대들보 – [대들포] 번개 – [펀개]
1. Regressiv assimilatsiya hodisasi mavjud.
Masalan: 고기– [궤기] 토끼– [퉤기]
2.암/엄/염 Ish – harakatning davomiylik zamonini bildiruvchi qoʻshimchalardir.
밧테레 감저 – *shevada;* 밭에 가고 있다 – *adabiy tilda.*
3. – 아서 qoʻshimchasining oʻrniga – 앙/엉 qoʻshimchasi ishlatiladi.
Masalan : 가당 물어 가쿠다 – (*shevada)*
가다가 물어서 가겠다 – (*adabiy tilda).*
4. Suhbatdoshga murojaat qilishning 4 xil darajali koʻrinishi mavjud;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5. Inkor soʻzning qisqa va uzun shakli mavjud:
Masalan: * 쓰지 않는다, 안 쓴다 * 쓰지 못 한다, 못 쓴다[45].

Seul va Pxenyan leksikasining farqli jihatlari. Hozirgi koreys tili negizi Janub va Shimol dialektiga borib taqaladi. Shuningdek soʻzlarda mavjud boʻlmagan farqlar ham bor, ular yozilishda, talaffuz qilinishda bilinadi. Masalan, Shimolda «r» harfining adabiy til normasi boʻlib, soʻz boshida keladi: *sartaroshxona* – 리발소 *(shimolda),* – 이발소 *(janubda); maqola* – 론문 *(shimolda),* – 논문 *(janubda); tarix* – 력사 (*shimolda),* – 역사 *(janubda); poyezd* – 령차 *(shimolda),* – 열차 *(janubda); mehnat* – 로동 (shimolda), – 노동 *(janubda). Shimolda "ayol"* soʻzi quyidagicha yoziladi va oʻqiladi: – 녀자, 녀성, *Janubda esa* – 여자, 여성; *tish* – 니 (*shimolda),* – 이 *(janubda)* [46].

3. **Xulosa**

Har qanday tilni taqqoslash yoʻli bilan oʻrganish ancha yaxshi natija beradi, albatta. Koreys shevalarini oʻzaro solishtiradigan boʻlsak, koʻplab farqli va oʻxshash jihatlarini uchratishimisiz mumkin. Koreys tilida 4ta dialekt mavjud boʻlib, bular Seul, Kyonsan, Cholla, Chxuchxon viloyatlari shevalaridir. Chejudo shevasi esa alohida oʻrganiladi. Chunki mazkur sheva boshqa shevalardan tubdan farq qiladi va eski soʻzlar koʻp uchraydi. Cheju shevasida 6ta, Seul shevasida 10ta unli tovush mavjud. Talaffuzida ham ancha farqlar mavjud. Cheju shevasida ohangdorlik kuzatiilmaydiva soʻzlar choʻziq talaffuz qilinmaydi, Seul shevasida esa ohangdorlik uchraydi.

4. **Adabiyotlar roʻyxati:**

[45] Library.ziyonet.uz//uz/book/download/12393.
[46] Islomov H. N. Koreys va xitoy tillarida ierogliflarning qiyosiy tahlili. – Samarqand, 2014. – B.15.

1. Islomov H. N. Koreys va xitoy tillarida iyerogliflarning qiyosiy tahlili. – Samarqand, 2014.
2. Xolmurodova K. Koreys adabiy til me'yorlari va shevalarning o'ziga xos xususiyatlari. – Samarqand, 2014.
3. www.chinesetools.eu
4. Library.ziyonet.uz uz/book/download/12393

Abstract

ANALYSIS OF LEXICAL LAYERS IN KOREAN
Baxtigul ANORQULOVA

Supervisor: Dadaboeva D.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Organizing by comparing any language gives much better results, of course. If we compare Korean dialects, we can see more different and similar aspects.

As noted above, the article discusses the preservation of ancient words in some regional dialect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dialects. There are 4 dialects of Korean, which are the dialects of Seoul, Gyeongsangbuk-do, Cholla and Chukchi provinces. Chejudo dialect is studied separately. The reason is that it is radically different from other dialects and has retained the old words. Briefly, if we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Cheju dialects, there are 6 vowels in Cheju dialect and 10 in Seoul dialect.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nunciation.

Today, at a time when the Republic of Korea is opening its doors to world civilization, there is an ocean of information flowing and the disappearance of Korean dialects for some reaso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preservation of regional dialects is now underway.

Key words: cultural language, literary language, dialect, Seoul dialect, Pyongyang dialect, Jeju dialect, Tomna language, dialect.

Adabiyot, san'at

YAN KVI JA IJODIDA DAVR VA QAHRAMON MASALASI

Aziza HIDOYATOVA

Ilmiy rahbar: DSc, professor U. T. Saydazim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Adiba ijodida davr va qahramon mutanosibligi
2.1. «Vonmindonglik odamlar» hikoyalar to'plamida qahramon va vaziyat talqin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i
Abstract

1. Kirish

Koreys adibasi Yan Kvi Ja o'zi yaratgan hikoyalarda zamondoshlari bilan birga bo'lish, ularning tashvishlari, hissiyotlari, dunyoqarashlari, ichki kechinmalarini o'rganish, suhbatlashish singari olijanob maqsad qo'yganligi bilan o'z zamonasining boshqa adibalaridan ajralib turadi. Shuning uchun ham o'zining ezgu maqsadini amalga oshirishda, shaxsni tarbiyalashda, jamiyatning ma'naviy hayotini shakllantirishda, insonni kamol toptirishda aynan adabiyot alohida rol o'ynashini ta'kidlaydi. Uning fikricha, adabiyot insonda insoniylikni madh etishi, shaxsda o'zini qurshagan muhit uchun mas'uliyat hissini tarbiyalashi lozim. Shuning uchun bo'lsa kerak, Yan Kvi Ja hikoyalarida ba'zan ajoyib urg'ular yangraydi, kutilmagan ma'no va ohang zanjirlari namoyon bo'ladi, bularning barchasi, tabiiyki, uning o'ziga xos tasavvur uyg'otadi.

Shu sabab kitobxon Yan Kvi Ja hikoyalarida doim o‘zini uning personajlari bilan ayniylashtiradi. Amalda bu Yan Kvi Ja qahramonlari hayotda ularning kechinmalari, o‘y-xayollari va orzu-umidlariga yaqin turadigan muhitni yaratishlarini anglatadi.

Qiyinchiliklarni yengishga intilish – bu shaxs kuchining negizi. Kurashmagan odam o‘z kuchining me’yorini hech qachon bilmaydi. Erkak ham, ayol ham hayot sinovlarisiz o‘z ijodiy imkoniyatlariga ishona olmaydi.

Hayot tajribasini o‘zlashtirish, sinovlar va kurashlardan o‘tish uchun dushmanni sun’iy ravishda yaratish shart emas. Kundalik hayot ham qiyinchiliklar va sinovlarga to‘la. Ularni qidirib uzoqqa borishning keragi yo‘q, ular bizning yaqinimizda, aksariyat hollarda esa – bizning o‘zimizda. Yozuvchi omadsiz nikoh, yoqimsiz xizmatdosh yoki boshliq, tarbiyasi og‘ir bola, sog‘liqning zaifligi, jizzakilik, uyatchanlikni tavsiflaydi va bularning barchasi oshib o‘tish talab etiladigan to‘siqlar hisoblanishini qayd etadi. Ularning ko‘pincha bizni xotirjamlik holatiga keltiradigan odatdagi «pardasi» ostida chinakam «ajdarlar» yashirinib yotadi.

Bir qarashda, shaxs kuchiga ega odamlar afsonaviy qahramonlardek bo‘lib tuyulishlari mumkin, lekin aslida har qanday odam – u xoh katta shahar boshlig‘i, xoh oddiy sartarosh bo‘lsin, hayotda qiyinchiliklarga ham, sinovlarga ham duch keladi. Faqat qiyinchiliklarni yengishga intilish, kurashish insonni qahramonga aylantirishi mumkin[47].

Urushdan keyingi davr (XX asrning 60-70-yillari)da yaratilgan asarlarda pessimizm, tushkunlik ohanglari kuchli yangradi. Ammo bu qiyin va tushkunlik davriga qaramay, ijodkorlar asarlar yaratish uchun o‘zida kuch topa oldi. Bugungi kunda Koreya mamlakati o‘z kuchi va imkoniyatlari doirasida avtoritar tuzumdan ijtimoiy va iqtisodiy samarali demokratiyaga, xo‘jalikni modernizatsiya qilish va fuqarolik jamiyati barpo etishga o‘tayotgan sharoitlarda rivojlandi.

2. **Adiba ijodida davr va qahramon mutanosibligi**

Yozuvchi asar yaratishni maqsad qilar ekan, uning qanday mavzuda, kimga mo‘ljallangan bo‘lishi, shu bilan birga qanday muammoni va qay tarzda ilgari surishi haqida o‘ylashi tabiiy. Aynan shulardan uning ijodiy niyati shakllanadi. Albatta, ma’lum bir hayotiy muammo qo‘yilmas ekan, asar syujeti hayot hodisalarining shunchaki bayonidan iborat bo‘lib qoladi.

Olti hikoyadan iborat turkum hikoyalar to‘plamiga kiritilgan «Tonggi xayollar» hikoyasini adiba ikki insonning tasodifiy suhbati asosiga quradi. Hikoyada mamlakatda xudbinlik va soflik, vijdoniylik yonma-yon turgan, kishi sal nojo‘ya harakat qilsa xudbinlik ko‘chasiga kirib ketishi mumkinligi juda ham ishonarli tarzda berilgan. XX asrning birinchi yarmi, ya’ni yapon anneksiyasi davrida ham, fuqarolar urushi tugab, mamlakat ikkiga ajralib ketgan davrda ham Koreyada ishga joylashish muammosi yuzaga keldi. Mana shunday dolzarb muammoni o‘zida aks ettirgan hikoya qahramoni davr ruhiga monand qadam tashladi.

Bu haqda adiba hikoya so‘ngida shunday fikr beradi: «*O‘z qobiliyatingni namoyon etish uchun imkoniyat berishmagani yomon, albatta. Buning sababi shundaki, jamiyat odamlarni tanlashda olingan ma’lumot yoki o‘tgan yillarda to‘plangan kasbiy tajribani mezon qilib oladi…*»[48].

Yapon istilosi davrida ijod qilgan Chxe Mansikning «Sotilgan hayot» hikoyasida ham mana shunga o‘xshash masala ilgari surilgan edi. Vaqt o‘tib bu masala yana dolzarblik kasb etdi. Yan Kvi Ja ham bu masalaga alohida e’tibor qaratdi. Asar ziyoli qatlamning ishsizligi masalasiga bag‘ishlangan edi. Bir qaraganda bu mavzu davr uchun yangilik emas edi. Biroq aslida adiba bu mavzuga qo‘l urish orqali katta haqiqatni ochib berdi. Mazkur asarning mashhur bo‘lishiga davrning dolzarb va muhim masalasini ko‘tarib chiqqanligi sabab edi.

Mazkur mavzu adibaning keyingi hikoyasi «Va’da»da o‘z tadrijiy davomini topdi. Hikoya qahramoni – Lim-si tinimsiz ishlaydi, faqat yorug‘ kelajakka umid qilib yashaydi. Ammo bu kelajakdan darak yo‘q. Oradan to‘rt yil o‘tadi, bu oz muddat emas, axir biron narsa yaxshi tomonga

---

[47] Поль Вайнцвайг. Десять заповедей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 М.: Прогресс, 1990. – С. 181–182.

[48]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o‘zgarishi kerak-ku? Lekin amalda ahvol qanday bo‘lsa, shundayligicha qoladi. Muallif quyidagi savolni o‘rtaga tashlaydi: «…*nahotki bu dunyoda yashashning faqat ikkita yo‘li bor: hech qachon to‘ymaydigan ochko‘zlik, ashaddiy molparastlik… va insonni o‘z komiga tortuvchi botqoqlik. …Bir odam baland toqqa ko‘tarilayotgan va o‘z ochko‘zligi unga kuch baxsh etayotgan bir paytda boshqa odam botqoqlikka tushib ketadi va zo‘r berib undan chiqishga harakat qiladi*…»[49].

Bu hikoyalarda adiba har bir narsaga o‘z davri nuqtai nazaridan qaraydi va baho beradi, bu uning yutug‘idir. Iste’dodli yozuvchi har doim davr bilan hamnafas bo‘ladi, o‘zgarishlar mohiyatini ziyraklik bilan anglaydi va unga o‘z munosabatini bildiradi. Mana shu tarzda yaratilgan asar kitobxon qalbidan chuqur joy egallaydi. Chunki bu asarlarda davr ziddiyati ochib berilgan bo‘ladi. Adibaning yuqorida keltirilgan hikoyalari ana shu davr nafasi asosida tuzilgan.

Inson va hozirgi dunyo, inson va ilmiy-texnika inqilobining o‘zaro munosabatlari negizida ayrim muqobil vaziyatlar yuzaga keldi, dramatik konfliktlar yuz berdi. Ming yilliklar chegarasidagi intellektual to‘fonlar odamlar tafakkuridagina emas, balki ularning qalbida ham o‘chmas iz qoldiradi.

Yan Kvi Janing barcha hikoyalari orqali «baxt siri» g‘oyasi uning eng sodda ta’rifi bilan o‘tadi: «Hayotni u qanday bo‘lsa, shunday seving. Uni hech bir shart qo‘ymasdan qabul qiling». Hayotni u qanday bo‘lsa, shunday, hech bir shart qo‘ymasdan sevish – uni hayot og‘ir bo‘lganda ham, yengil bo‘lganda ham bir xilda tushunish, qabul qilish demak. To‘g‘ri, hayot bizni ozodlik, salomatlik, do‘stlar, muvaffaqiyatdan mahrum etishi mumkin, lekin u bizni o‘y-xayollarimizdan ayira olmaydi. Hayotda eng katta boylik – tabiat, muhabbat, musiqa, san’at, adabiyotni pulga sotib olish mumkin emas, ular taqdirning o‘zgarishlariga bo‘ysunmaydi.

Yan Kvi Ja hikoyalaridan birida har kim hayotda ko‘p muhim va qiziqarli narsalarni ko‘rishi qayd etiladi. Har bir odam bu dunyoga faqat o‘zigagina xos moyilliklar, qobiliyatlar va iste’dodlar bilan keladi. Agar odam ularni ro‘yobga chiqarmasa, uning hayoti og‘ir va ma’nosiz tus kasb etadi. Odamning qo‘li ish bilan band bo‘lmasa, uning ko‘ngliga qo‘rquv oralaydi. Bu hayotning og‘ir haqiqati. Ammo hayot qanchalik og‘ir bo‘lmasin, inson yaxshi kelajakka umidni yo‘qotmaydi. Yan Kvi Ja o‘z hikoyalarida bunga urg‘u beradi:

«*Men – san’atkorman. Siz uchun doim o‘z hikoyalarimni yozgim, insoniy munosabatlarni belgilovchi omillarni tinimsiz izlagim keladi. Men yangi jamiyat qurilishida ishtirok etishni istayman. Bu shunday bir jamiyat bo‘ladiki, unda odamlar bir-birlariga ishonib va mehr-muruvvat ko‘rsatib yashaydilar*»[50].

Yan Kvi Ja hikoyalari insonni o‘z-o‘ziga nazar tashlashga majbur etadi. Shunda Seul yaqinida joylashgan shaharchada yashaydigan «kichkina odam» ham nasrning kichik shakli – hikoyaga murojaat etadi, o‘z tuyg‘ulari va ma’naviy olamini boyitadi, oz sonli so‘zlarda koreys xalqining ma’naviy qadriyatlarini kashf etadi. Avloddan avlodga o‘tuvchi ma’naviy qadriyatlar esa millatning hayotiy va ma’naviy boyligidir.

Yan Kvi Ja o‘z hikoyalarida ko‘p sonli axloqiy-ma’naviy va ijtimoiy muammolarni ko‘tarar ekan, shaxsning ruhiy olamiga nazar tashlash bilan kifoyalanmadi, balki ijtimoiy muammolarni ham aniqladi va ularni anglab yetishga harakat qildi. Shu tufayli ham uning hayotga munosabati kitobxonda hurmat uyg‘otadi, kichik hikoya janri yozuvchining ijodiy kredosiga aylandi. Zero, hikoya o‘zining ixchamligi tufayli yangi voqealarga tez munosabat bildirish, dolzarb muammolarni ko‘tarish va ularni tezkorlik bilan yechish imkonini berdi.

Hayoti taassurotlarga boy yozuvchi Yan Kvi Ja qobiliyati va nafis hissiyoti sabab kitobxonlar qalbidan chuqur joy egalladi. Adibaning «Vonmindonlik shoir» hikoyasi tanqidchilar tomonidan yuqori baholandi, o‘zgacha qobiliyat sohibi nomiga sazovor bo‘ldi.

---

[49]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50]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Mazkur hikoyada adiba kundalik hayot tashvishlari, muammolarini yoritib berishi orqali, hayotning asl mazmunini anglab yetishga, jamiyat nuqsonlarini ko‘rsatishga, Koreyaning XX asrning ikkinchi yarmidagi ahvolini, turmush tarzini, qashshoqlikni ochib berishga erisha oldi. «Vonmindonlik shoir» hikoyasi orqali u koreys xalqining mazkur davrdagi iqtisodiy, ijtimoiy va ma’naviy ahvolini tasvirladi.

Bu haqda Yan Kvi Ja o‘zining «Xayrlashish vaqti» hikoyasida xotiralaydi. Maktabda ona tilidan saboq bergan adibaning uyiga uch sobiq o‘quvchisi mehmonga keladi. Maktabni tamomlagan o‘quvchilar sakkiz yil davomida ustozi bilan uchrashmagan edilar. Uchrashuv chog‘ida uchchala mehmon institutda tahsil olayotgani haqida gapirishdi: ikkitasi oxirgi kursda, uchinchisi o‘qishni kelasi yil bitiradi. Sobiq o‘quvchilar ustozlari yozgan asarlar, hikoyalar to‘plamidan xabardor ekanliklarini bildirishdi.

Yan Kvi Ja uchun bu quvonchli hol edi, albatta. Ammo o‘quvchilar o‘z ustozlarining Vonmindongdek xarob mavzeda yashashini eshitib hayron qolishdi. Nahotki ustozning ahvoli shu darajada yomon ekan, deb qayg‘urishganini bildirishdi. Ammo, bu yerga kelib mavze ular o‘ylagan darajada xarob emasligi, aksincha, o‘rta darajadan ham yuqori ekanligiga amin bo‘lishdi.

2.1.«Vonmindonglik odamlar» hikoyalar to‘plamida qahramon va vaziyat talqini

Darhaqiqat, «Vonmindonglik odamlar» hikoyalar to‘plami chop etilgach, adiba o‘z sha’niga aytilgan bunday gaplarni men juda ko‘p eshitdi. Odatda, o‘zlarining bunday taassurotlari bilan Puchonga kelgan, adibadan intervyu olish yoki uni suratga tushirish uchun Vonmindong mavzesini topib kelgan jurnalistlar ham o‘rtoqlashishgan. Ba’zilar hatto: «Eringiz yaxshi topadi, o‘zingizning topishingiz ham yomon emas-ku, nima uchun Siz Vonmindongda yashaysiz? Nahot bu yerdan ko‘chib keta olmaysiz?», deb so‘rashgan.

Albatta, bu yerda «topadi» deganda pulni, «Vonmindong» deganda esa – xarob mavze nazarda tutiladi. Bunday savollar adibada faqat tabassum uyg‘otgan. Bu savollar javobsiz qolgan. Chunki adiba Vonmindongdagi uyini hamma narsadan aziz, deb hisoblagan: «Taksini mavze qarshisidagi yo‘l chetida to‘xtatib, tushganingiz zahoti qalbingizda hamma narsa o‘zgaradi. Buni qanday tushuntirish mumkin?»[51].

Vonmindong boy hudud bo‘lmagan. Puchonda birorta inson Vonmindongni obro‘li joy, deb hisoblamaydi. Shuningdek, Vonmindong mavzeini xarobazor, deb ham bo‘lmaydi.

Vonmindong – obodlik darajasi o‘rtacha bo‘lgan hudud. 1990-yillarga qadar bu yer keng dala bo‘lgan. Keyinchalik bu yerda yangi mavze qurilishi uchun yer maydoni ajratilgan. Ko‘chmas mulk idorasi harakati tufayli dastlab ko‘chalar paydo bo‘ldi, boshqa joylardan odamlar ko‘chirib keltirildi, uylar o‘z egalarini qabul qildi.

Mavzening tashqi ko‘rinishi chindan ham g‘alati: birinchi qavatida do‘konlar va rastalar joylashgan qator uylar. Adiba e’tiborini esa bu uylar ro‘parasida qalampir ekilgan dalalarga go‘ng tashib tirikchilik qiladigan qo‘shni chol Kan o‘ziga tortdi.

Boshqa har qanday mavzeda bo‘lganidek, Vonmindongda ham fotosalon, qurilish materiallari do‘koni, dallollik idorasi, kimyoviy tozalash shoxobchasi, mahalliy supermarket bor, hammasi o‘z joyida. Bola-chaqa asosan bolalar bog‘chasida; kattaroq bolalar maktabga qatnaydi.

«*Tasvirlanayotgan voqea shu darajada asoslangan bo‘lishi kerakki, uning boshqacha bo‘lishi mumkinligi kitobxonning xayolidan ham o‘tmasin*», deb yozadi L.N. Tolstoy. «*Buning uchun avvalo yozilayotgan asariga tanlangan davr hayoti mantiqini singdira olishi, hayot mantiqiga rioya qilish yozuvchi uchun muqaddas bir qoidaga aylangan bo‘lishi kerak. Shu asosda asarda xarakterlar ham ma’lum bir mantiqqa ega bo‘lib, buni yozuvchi muqaddas bir narsadek saqlashi lozim*»[52].

Yan Kvi Ja o‘z ijodida bunga jiddiy e’tibor qaratgani aniq. «Vonmindonglik shoir» hikoyasi syujeti buni tasdiqlaydi. Adiba Vonmindong mavzesini xarobazor deb hisoblashlariga o‘zi yo‘l

---

[51]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52] М. Қўшжонов. Абдулла Қодирийнинг тасвирлаш санъати. – Т., «Фан», 1966. – Б. 68-69

qo‘yganini, aniqroq aytganda, o‘zining «Vonmidonglik odamlar» to‘plami sabab bo‘lganini ta’kidlaydi. To‘plamga kiritilgan hikoyalarda Yan Kvi Ja ishchilarning fojia va iztiroblarga to‘la og‘ir hayoti, ishsizlar va daydilar yashaydigan muhitni tasvirlagan. Kitobxon darhol Vonmindongni xarobazor bilan tenglashtiradi. Ammo ular haqiqiy Vonmindongni ko‘rsalar, unga «boy» mavze sifatida qarashlari aniq.

Shu sababli adiba: «...men ba’zan kitobdagi Vonmindong haqiqiy Vonmidongdan farq qiladi-ku, demak, yozuvchi sifatida men uydirma – xarob va muhtoj mavzeni badiiy shaklda tasvirlagan ekanman-da, degan xayolga boraman. Aslida bunday emas. Men o‘z hikoyalarimda tasvirlagan Vonmindong o‘zim yashaydigan mavzedan sira farq qilmaydi»[53] deganida qanchalar haq edi.

«Vonmindonglik shoir» hikoyasi adabiyotshunoslar tomonidan ham yuqori baholandi. Hikoya qahramonlari yetti yoshlar atrofidagi qizaloq, axlat tituvchi ota, baxtsiz ona, deyarli fohishaga aylanib qolgan opa.

Yan Kvi Ja har bir obraz xarakterini ochishda realistik yo‘l tutadi, ya’ni qanday obraz bo‘lishidan qat’iy nazar, uning tasviriga xolisona yondashadi, ularning asl qiyofasini xatti-harakatlarda, faoliyatda ochib beradi:

«우리 가족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집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우리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담배의 집 연기에있을 때 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나는이에 동의합니다»[54].

«*Oilada to‘rt farzand edik. Otamizni ko‘p ko‘rmas edik, chunki u, odatda, axlat titgani ketardi. Men umuman bunga qarshimasman. Chunki u uyda bo‘lgan vaqtlarda, uyimizni sigaret tutuni bosib ketadi*».

Qizaloqning axlat terib yuradigan otasi, qizlarining taqdiriga befarq onasi, fohishadan kam bo‘lmagan opasi, yoki bo‘lmasa qashshoqlik tufayli opalarining tobora tubanlashib borishi, yon-atrofidagi tanazzulga yuz tutgan, ham ma’naviy, ham iqtisodiy qashshoq insonlarning dardi-tashvishi qizchaga har taraflama yomon ta’sir ko‘rsatayotgani, qizaloqni men aslida «tengdoshlarim orasida ancha kattaman» degan so‘zlarida o‘z ifodasini topadi. Ayollarning bu darajada xudbinlashib ketayotganiga nima sabab: real voqealikmi, taqchillikmi, zamonning zaylimi?

Hikoyadagi bu oddiy tuyulgan so‘zlar aslida katta bir inqirozni, ma’naviy qashshoqlikni, insonning qadri yo‘qligi va u tobora tubanlashib, indivudualizm kuchayib borayotganini anglatadi. Nazoratchi Kim obrazi orqali bir mug‘ombir insonning kirdikorlari, pastkashligi, biroq odamlar buni sezmasliklari ajoyib tasvirlangan. Aslida ishbilarmon navqiron bu yigit bilan hech kimning ishi yo‘q, qiziqishmas ham edi. Tentak shoir «Mongdal», ya’ni «sharpa» obrazi hikoyaning asosiy obrazlaridan biri. Chunki aynan shu tentak eng sog‘lom fikrlovchi insondir. U barcha narsani anglab yetgani uchun ham o‘zini tentaklikka solib yuradiganga o‘xshaydi. Uning shoir sifatida namoyon bo‘lishi ham e’tiborga molik. Hikoya so‘ngida qizaloqqqa u she’r o‘qib beradi, shunda qizaloqning unga aytgan gaplaridan shoir ko‘zlarida paydo bo‘lgan ma’no uning tentak emasligiga ishoradek tuyuladi.

Adibaning yana bir yutug‘i shundaki, u qahramonlar xarakteridagi ijobiy va salbiy holatlarning yuzaga kelish sabablarini ko‘rsata olgan. Hikoyaning jajji qahramoni qizaloq o‘z tengdoshlari kabi mazkur davrda urf bo‘lgan pianino to‘garagiga borishni istagan qalbini tushkun kayfiyat egallaydi. Ota-onasining urush-janjali qizning ruhiy holatiga, albatta, salbiy ta’sir qilishi, umidsizlikka tushib yashashiga sabab bo‘lishi, o‘z uyida emas, ko‘cha boshidagi do‘kon oldida o‘zini biroz yaxshiroq his etishi hikoyani yanada reallashtiradi:

---

[53]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54]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 Seoul. Think-book. 2015.

«내가 자랄 때,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시작합니다. 나는 사본을 유지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학습 후, 나는 모든 음악을 재생합니다. 발견 아빠가 음주에 소요 된 금의 작은 조각은 지역 음악 학교에 참여하기에 충분했다»[55].

«*Qachonki katta bo'lsam, albatta, pianino chalishni o'rganaman. Bu daftarni doim yonimda saqlayman va painino chalishni o'rganganimdan so'ng, buning ichidagi hamma musiqalarni chalaman. Dadam topib, ichkilikka sarflab qo'ygan tilloning kichkinagina bo'lagi ham, mening musiqa maktabiga qatnashimga yetar edi*».

Ota-onasining navbatdagi janjalini oldindan payqash qizcha uchun odatiy turmush tarziga aylanib qolganligi jamiyat uchun mudhish bir holatdir. Dugonalari bilan urishib qolganida kelib shikoyat qilib oila a'zolaridan panoh va mehr topish o'rniga qizaloq har kuni ichkilikka mukkasidan ketgan otasining onasi bilan janjalini kuzatadi. Navbatdagi janjalga axlatdan topib olingan o'n sakkiz karatli tilla taqinchoqni otasi pullab ichkilikka sarflab yuborishi sabab bo'ladi. Buni ko'rgan qizaloq g'azablanib chiqib ketadi va ko'chadagi do'kon oldidan o'ziga panoh topadi:

«그들은 그렇게 나쁜 행을했다. 나는 그런 시간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나의 아름다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배. 심지어는 내가 나가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 않았다. 금은 나를 위해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작하면 논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감이다»[56].

«*Ular juda qattiq urushdi. Men bunday vaqtlarda chiday olmayman. Shuning uchun ko'chaga chiqdim va to'g'ri o'zim sevgan joyga bordim. Do'konga. Hattoki, ular mening chiqib ketganimni payqashmadi ham. Men janjalning asosiy sababi bo'lgan tillaga emas, balki ular agar janjallashib boshlasa, hech qachon to'xtatib bo'lmasligiga achinaman*».

Bu holatning fojea ekanligi hech kimga sir emas. Ma'lumki, farzand yetmish foiz ma'lumotlarni besh yoshga qadar oilada oladi va ota-ona farzand uchun namuna bo'ladi. Lekin o'z farzandiga namuna bo'la olmaslik juda qo'rqinchli holat. Yuqorida berilgan parchada aynan shu holat ko'z oldimizda namoyon bo'ladi.

Qizchaning kattalar bilan do'stlashishi ham uning hayot zarbalari tufayli erta katta bo'lganligini ko'rsatadi. Nazoratchi Kimni avval hurmat qilgan, uni o'zining bo'lajak pochchasi, deb hisoblagan. Lekin uning asl qiyofasini bilganidan keyin hayotdan yana hafsalasi pir bo'ldi. Nazoratchi Kimni hurmat qilishlari, uni yaxshi inson deb hisoblashlari, aksincha vijdoni toza bir shoir yigitni tentakka chiqarishlari odamlar gapiga to'liq ishonish noto'g'ri ekanligiga yozuvchining ishorasini sezish mumkin:

«일반적으로, 아무도 우리 집에 온다. 그러나 나는 종종 우리 집에서 컨트롤러 김을 참조하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을하지 않지만, 나는 우리 집에서 누군가를보고 좋아했다. 내가 그들을 볼 때까지 그 다음 나는 나의 아름다운 장소 가게에 실행 ... 계속했다»[57].

«*Odatda, bizning uyimizga hech kim kelmas edi. Ammo nazoratchi Kimni uyimiz oldida tez-tez ko'rar edim. Garchi, u menga umuman gapirmagan bo'lsa-da, uyimizda boshqa odamni ko'rish menga yoqardi. Bu holat men ularni ko'rib qolgunimcha… davom etdi. Keyin yana sevimli joyim, do'konga yugurib ketdim*».

Nazoratchi Kimning insondan ko'ra qandaydir bir makkoli shishalarini ustun ko'rishi, Mondal kaltak yeganida unga yordam berish o'rniga tomosha qilish uchun yig'ilish, odamlar orasida xudbinlikning avj olganini ko'rsatadi. Jamiyatda inson huquqlari poymol bo'lar ekan, mamlakatda birlashish va rivojlanish bo'lmaydi. Aksincha, u orqaga qarab ketaveradi. Bu holat bizga xuddi cho'kayotgan inson qirg'oqqa qarab suzish o'rniga suv tubiga g'arq bo'layotganini yodga soladi.

Koreyada mazkur davrda yuz berayotgan voqealar, qashshoqlik, oddiy xalqning asl hayoti, jamiyat inqirozi adiba tomonidan o'tkir tasvirlangan. Yan Kvi Janing alohida o'ziga xos xususiyati ham aynan shunda, deyish mumkin. U o'z asarlarida jamiyatning katta muammolarini oddiy,

---

[55]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 Seoul. Think-book. 2015.
[56]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 Seoul. Think-book. 2015.
[57]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 Seoul. Think-book. 2015.

kundalik hayotiy voqealar orqali yoritib berdi. Adibaning mahorati ta'sirchanlikni oshirishda nazarga ilinmaydigan holat va vaziyatlarni mohirona ifodalab berishda namoyon bo'ldi. Har qanday katta muammolar ham aslida kichik-kichik jabhalarda namoyon bo'lish bilan kattalashib boradi. Har qanday kichik xato tuzatilsa katta muammolarning oldi olinadi.

Bir faylasuf ta'kidlaganidek hayot bir fortopianodir, unda musiqa chalib hayotimizga mazmun berish uchun fortopianodagi ham qora, ham oq klavishlarni bosishimiz lozim. Bu qora va oq klavishlar bizning muammolarimizdir. Demak, biz nazarga ilmay qolgan har bir loqaydlik bizga zarar keltirishi tabiiy hol. Yan Kvi Ja bir qarashda oddiy bir zerikarli tuyulgan hikoyalari, aslida, haqiqiy hayotni aks ettiradi va falsafiy mazmun kashf etadi. Shu bois, uning hikoyalari har jihatdan foydali va tarbiyaviy ahamiyatga ega, jamiyat a'zolariga ijobiy ta'sir ko'rsata oldi. Uning asarlarida inson hayoti falsafasi hamda maishiy hayotni aks ettirilishi koreys adabiyotida yangi bir yo'nalish. Adiba o'z asarlari bilan kitobxon qalbini zabt eta oldi.

3. **Xulosa**

Yan Kvi Ja o'ziga xos yozuvchi. U o'zi bilmagan, o'zi uchun notanish mavzuda qalam tebratmadi, faqat mazmun-mohiyatini chuqur anglab yetgan masalalarni qog'ozga tushirdi. U o'z qahramonlari bilan bir havodan nafas oldi, ular bilan birga yashadi, shuning uchun ham u yaratgan qahramonlar jonli, hayotiy tasvirlandi.

Adiba yaratgan qahramonlar – sartarosh ayol, chol, qizaloq, tentak shoir, beva ayol bularning hammasi o'z davrining jonli qahramonlari. Bu qahramonlar o'z davri muhiti bilan birga yashaydi. Yan Kvi Ja hikoyalari qahramonlari ruhiy olamini muhit bilan uyg'unlikda bera oldi, bu esa kitobxonga falsafiy mushohada yuritishi uchun zamin yaratadi.

Adiba hayot va odamlar olamining mohir kuzatuvchisi sifatida obrazlar yaratar ekan, albatta, ramzlar va xarakterlarga alohida urg'u beradi. Har bir obrazning o'ziga xos detali mavjud. Bu detallar qahramonlarning ijtimoiy holatini ham anglatadi.

Yan Kvi Ja koreys adabiyotida mumtoz davrdan yetakchilik qiluvchi tush motividan unumli foydalanadi, ammo u yaratgan hikoyalarda tush yangi talqinda beriladi. Mumtoz davr adabiyotida tush – o'tkinchi dunyo, ro'yo, xayolot bo'lsa, adiba hikoyalarida tush inson hayotida ro'y berishi mumkin bo'lgan falokatdan darak beradi.

Yan Kvi Ja bizni «kichkina odamlar»ning ajoyib fantaziyalari olamiga olib kiradi, ularning sodda va sentimental o'y-xayollari, voqealardagi o'zgarishlar, fasllar, yoshlar va avlodlar almashuvi ustida mulohaza yuritishga da'vat etadi. Olis bolaligidagi hayotning barcha ikir-chikirlari va tafsilotlarini qayd etgan, hech narsani nazardan qochirmagan muallif xotirasining o'tkirligi aqlni lol qoldiradi.

4. **Adabiyotlar ro'yxati**

1. Қўшжонов. Абдулла Қодирийнинг тасвирлаш санъати. – Т., «Фан», 1966
2. Поль Вайнцвайг. Десять заповедей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 М.: Прогресс, 1990/
3. Пак Вансо. Как их много! Рассказы /Пер.с корейского Ли Сан Юн, Хам Ён Чжун. – М.: Время, 2011.
4.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 Seoul. Think-book. 2015.

Abstract

THE ISSUE OF TIME AND HEROISM IN THE WORK OF KOREAN WRITER YANG GUI-JA

Aziza HIDOYATOVA

Supervisor:* DSc, *professor Saidazimova U.

Tashkent State Univesir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explores the writings of Korean writer Yang Gui-ja and shows how unique she is, how she lives together with her characters and portrays the characters in a vivid and vibrant way, thus revealing the environment in which she lives and revealing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s an experienced observer of life and the human world, the writer pays special attention to symbols and characters. Each image has its own detail. These details also represent the social status of the protagonists.

Yang Gui-ja takes us into a world of wonderful fantasies about «little people», prompting us to think about their simple and sentimental thoughts, changes in events, seasons, youth and generational change.

Key words: *Yang Gui-ja, Wonmi-dong, hero, «little man» image, adversity, trials, dream, old man, young girl, stupid poet.*

PAK VANSONING «JUFTLI JUFTSIZLAR» HIKOYASIDA AYOL TAQDIRI MASALALARI

Feruza ABDUG‘ANIYEVA

Ilmiy rahbar: DSc, professor U.T.Saydazim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Hikoyada ko‘tarilgan masalalarning ijtimoiy mohiyat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i

Abstract

1. **Kirish**

XX asrning ikkinchi yarmida mashhur adibalar safidan munosib o‘rin egallagan Pak Vanso qalamiga mansub «Juftli juftsizlar» hikoyasida oila muqaddasligi haqidagi urf-odatlarga zid ravishda pul masalasi ko‘tarilgan. Hikoya muallifi yosh ayol va uning taqdiri misolida jamiyatda yuz berayotgan salbiy voqea-hodisalar, ya’ni pul, boylikning shaxs hayoti, ichki his-tuyg‘ularidan ham ustunlikka erishganini, insonni butunlay o‘zgartirib yuborish qudratiga ega ekanligi yoritilgan. Pak Vansoning hikoyachilik mahorati ayol hayotining bir kunini tasvirlashda bo‘rtib namoyon bo‘ladi. Ma’lum bir voqealar rivoji, personajlar nutqida aslida jamiyat inqiroziga sabab bo‘luvchi katta muammolarda o‘z aksini topadi. Shu o‘rinda adibaning kichik janrda katta gap aytish mahorati ko‘zga tashlanadi. Yozuvchi XIX asr so‘nggida yashab ijod qilgan satirik hikoyalar ustasi Pak Chivon ijodini yodga soladi.

2. **Hikoyada ko‘tarilgan masalalarning ijtimoiy mohiyati**

Hikoyaning qisqacha syujeti quyidagicha: hikoya bosh personaj tilidan hikoya qilinib, uning nutqidan o‘ttiz yoshdan oshgani, ikki farzandning onasi ekanligi, erining uch yildan buyon mamlakatda yuzaga kelgan ishsizlik tufayli xorijga ishlashga ketganligi anglashiladi. Xorijda ishlayotgan eri tufayli ayol yaxshi mebel bilan jihozlangan uyga, xizmatkorga ega, qimmatbaho kiyimlar xarid qilishga imkoni yetarli. Umuman olganda har bir ayol havas qiladigan sharoitda

yashaydi. Shu bilan birga ayol mazkur davrda urfda bo‘lgan xorijiy kompaniya filiallaridan birida ishlaydi, atrofdagilar uchun bu sharafli faoliyat hisoblanar edi. Ammo ayol o‘zini doimo yolg‘iz his qiladi, u o‘z his-tuyg‘ularini birga baham ko‘radigan umr yo‘ldoshi yonida emasligidan har on afsuslanadi. Hatto, er-xotin bir-biriga yozgan xatlari mazmuni ham faqat oiladagi moliyaviy ahvol, oila a’zolarining sog‘ligi haqida so‘rashdan iborat.

Erta tongdan qaynonasi bilan bo‘lgan yoqimsiz suhbat va o‘rinsiz tanbehlardan so‘ng ayol yana eshik ortiga yashirinadi. U o‘z ko‘z yoshlariga mahkum. Begona yurtlarda darbadar hayot kechirayotgan turmush o‘rtog‘i, uning mehridan mahrum bo‘layotgan o‘ziga achinadi va hayotining eng yaxshi yillari ayriliqda o‘tayotganligini anglab, ko‘z yoshlarini to‘xtata olmaydi.

Kechga tomon yangi ma’muriy bino qurilishi yakunlangani munosabati bilan uyushtirilgan bazmga taklif qilingan ayol, bazmda ishtirok etayotgan rahbar va xodimlarning ayollarini zimdan kuzatadi. Bazmdan so‘ng esa turli yoshdagi, biri yigirma, ikkinchisi o‘ttiz, uchinchisi taxminan 40-50 yoshlar atrofidagi 3 ta ayol uchrashib qolishadi. Ular o‘rtasida qizg‘in suhbat bo‘lib o‘tadi, suhbat so‘nggida ular pul bo‘lsa yolg‘izlikka ham sabr qilishlari ma’lum bo‘ladi.

Hikoyada o‘ziga xos ikki xil dunyo, biri qahramonning *«shaxsiy dunyo»*si, ikkinchisi esa uning atrofidagi *«tashqi dunyo»* taqqoslanadi. *«Shaxsiy dunyo»* pulni asosiy o‘ringa qo‘yadigan makon bilan chegaralangan. Qahramon o‘z dunyosini rangsiz, undagi odamlarni esa haqiqiy qiyofalarini sun’iy niqob ostiga yashirganlar, deb hisoblaydi. Uning bazmlarga kiyib boradigan qimmatbaho kiyimlar «galereya»si ham qalbidek mazmunsiz va rangsiz edi.

So‘nggi paytlarda u tez-tez yig‘lar, lekin yig‘i ham uning ruhiy azobini yengillashtirmas edi. Ko‘z yoshlar ayolda hali his-tuyg‘ular borligini ko‘rsatardi. Ammo hech kim bu ko‘z yoshlarni ko‘rmasligi kerak edi. Uning ichki tug‘yonlari, dardu-alamlari haqida hech kim, hatto, xizmatkor ham xabar topmasligi uchun u o‘zini hayotidan, ishidan, oilasidan mamnun ekanligini ko‘rsatuvchi niqob kiyishga majbur edi. Asta-sekin bu niqob haqiqiy qiyofaga aylanib bordi. Yangi qiyofada farzandlarga nisbatan ham o‘zini namoyon qildi: ayol ularga nisbatan befarq va juda sovuqqon bo‘lib qoldi.

Muallif ham bejizga hikoya voqealarini bolalarning maktabga ketish uchun tayyorlanayotgan jarayondan boshlamagan. Tong otganiga qaramasdan, ayol hali ham to‘shakda yotar, farzandlarini kuzatish, ularga xayrli kun tilash uchun shoshilmasdi. U og‘li va qiziga mehr ko‘rsatmas edi. Bolalar ham buni sezishardi. Kutilmaganda havo aynib, ko‘kda momaqaldiroq chaqnasa, bolalar onasining emas, ayolning kir-chir kiyimidan doimo ovqat hidi anqib turadi, deb jirkanadigan xizmatkor ayol pinjiga tiqilishardi.

Yolg‘izlik ayolni butunlay qorong‘ulikka olib kirayotganday edi, u hamma narsaga nisbatan qiziqishlarni yo‘qotgandi. Endi uni yangi buyumlar, yangi liboslar quvontirmas edi. Turmush o‘rtog‘ining yiroqda ekanligi uni hayot quvonchidan mahrum qilgan edi. Yozuvchi qo‘shni xonadonda endigina turmush qurgan juftlikning tongdagi xayrlashuvini kiritish orqali qahramon holatini yanada chuqur e’tirof etadi.

«앞집의 쇠대문의 자근 문이 열려져 젊음 남자가 보였다. 따라서 그 부인하고 아이가 나왔다. «아빠야자장자장, 아빠야 자장자장!» 하며 여자가 아이를 보다가 남편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남자는 아이 뺨을 뽀뽀하고 큰 걸음으로 가파른 비탈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여자와 아이는 자장자장 계속했다.나는 팔짱 낀 손으로 자기 가슴을 꽉 눌렀다. 얇은 잠옷 속에 흥분한 육욕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심장을 울적했다. 나는 조용히 한숨 쉬었다…. 그들은 지난 뇌우가 거칠어진 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58]..

«Qarama-qarshi uyning temir darvozasi eshigi ochilib, yozgi kostyum kiygan va yoqasi och sariq ko‘ylakli bir kishi ko‘rindi. Ortidan uning ayoli qo‘lida bolasi bilan paydo bo‘ldi. Erkak bolaning yuzidan o‘pdi va tik qiyalikdan tusha boshladi. Ayol va bola xayrlashib, qo‘llarini

[58]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문학네.

silkitishni davom etishardi, men qo'llarimni ko'ksimga bosdim. Egnimda yupqa, tungi ko'ylak edi, ko'ksimdagi yurak meniki emasdi xuddi. Men jimgina xo'rsindim. Qiziq, ular kechagi momaqaldiroq bo'lgan tunni qanday o'tkazdilar? Albatta, yosh ayol erining bag'rida tinch, mehrga to'yib o'tkazgan. Mana shu kelishgan va kuchli erkak bag'rida. Oddiygina tasavvur ham mening yuragimga og'riq bergandi».

Ba'zida ayol o'zini anchadan beri ko'rmagan erini eslashga majbur qilar edi, lekin yolg'izlik yillari davomida eriga bo'lgan barcha his-tuyg'ulari butunlay yo'qolgandi. Uning qalbida faqat «bo'shliq hissi» bor edi. Er-xotin 15 yillik turmushi davomida og'ir kunlarni birgalikda yonma-yon boshdan o'tkazishlari mumkin edi. Ammo ular hali o'z shaxsiy uyiga ega bo'lishmagan edi, oila a'zolarining o'z daromadlari bo'lsa-da, er kichik ukasini oyoqqa qo'yishini o'zining burchi deb bildi. Yillar davomida ayol ham eriga qarshi chiqishga jur'at eta olmadi. Endi esa u qaynonasining tanbehlari va iltimoslariga qaramay, o'zining fikrlarini oshkora aytmoqda.

« – 시엄마 가세요. 결혼식날은 정하면 – 여름이나 겨울이나-알려 줘요.나는 종부 내 의무 준수할거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59].

«Keting oyijon. To'y yozdami yoki kuzdami, bu haqida bir qarorga kelishingiz bilan menga ayting. Men to'ng'ich o'g'ilning rafiqasi sifatida o'z burchimni ado etaman. Ammo bundan ortig'iga umid qilmang».

Pul oilaviy an'analarning buzilishiga sabab bo'ldi, kattalarga nisbatan hurmatsizlik yuzaga keldi. Kelinning qaynonaga nisbatan bunday qo'pol muomalasi eridan ajrab, oila buzilib ketishiga sabab bo'lib qolishini bilsa-da, ayol jazodan qo'rqmadi. Uning yagona umidi eri va farzandlari bilan har tong birga nafas olishdan iborat bo'lib qoldi.

Shuningdek, «pul dunyo»si ayolga ikki ayol «baxtsizlikdagi do'stlar»ni ro'paro qildi. Biri, yoshi qirqdan oshgan, yolg'izlikda qizini katta qilayotgan, qimmatbaho liboslarga burkangan, ammo baxt hissini tuymagan ayol. Ikkinchisi esa yoshi yigirmalar atrofida, sodda va samimiy farzandsiz ayol. To'ydan bir yil o'tar o'tmas eri xorijga pul topish uchun ketdi. Ketishidan oldin atrofdagilar unga baxtli, farovon turmushni va'da qilishgandi, endi esa u yolg'iz o'zi azob chekmoqda:

«나는 실패한 결혼하면 이혼해도 혼자서 살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대학교에 보냈다.그런데 나는 샛서방을 못 봐요.<…>나는 내 의무에 충성하며 샛서방을 못 해요. 통화는 감정보다 또 강해요.아, 왜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기쁨 없이긴가? 오늘 밤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로했다, 하지만 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60]

«Onam yolg'iz yashashim uchun meni universitetga o'qishga yubordi, garchand mening turmushim muvafaqqiyatsizlikka uchragan bo'lsa-da. Ammo men erimni unuta olmayman.
Oh, nega inson hayoti bu qadap rangsiz. Bugun erimga xat yozishga qaror qildim, shartnoma muddati tugamasa ham. Ammo buni ham uddalay olmayman».

Erlari xorijga ketishidan avval, ular ham barcha ayollar singari kelajak uchun qayg'urishardi. Vaqt o'tishi bilan, ularning barcha ehtiyojlari ta'minlandi, endi ular yana ham yaxshiroq yashashni xohlashardi. Bu faqat moddiy ta'minotdan iborat emas. Oilaning butligi, hammaning jamuljam bo'lishi muhim. Boshqa ayollar singari turmush o'rtoqlariga suyanib, ularning mehrini har kuni his etishni istashadi. Yillar davomida ayriliqqa sabab bo'lgan «pul» muommosidan xalos bo'lishni xohlashadi. Eng muhimi, yolg'izlikdan qutulish edi. Umuman olganda, ayol uchun faqat suyanadigan insoni bor ekanligini his qilishi muhim edi. Uzoqlarda bo'lsa ham faqat turmush tashvishlari emas, his-tuyg'ulari haqida suhbat qurishga nisbatan istak tuyg'usi uning qalbini butunlay muzlatdi.

«난, 아까 헤어진 동반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들은 더 같이 적당한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다고 그것은 나에게 보였다. 하나는 "중요한 통화에 대한 사명감" 마스크를 쓰고 다른"여성의

---

[59] O'sha manba. – B.221.
[60]O'sha manba. – 224.

충성과 남편을 존경 "라는 마스크를 쓴다. 그러나, 내 마스크 그 두 결합보다 또 강한 것을 분명한다» [61].

«Men hozirgina xayrlashgan do'stlarim haqida o'yladim. Nazarimda ular ham o'zlariga mos niqobda edilar. Ulardan biri «boylik hamma narsadan ustun» degan, ikkinchisi esa nima bo'lsa-da «ayolning sadoqati va eriga bo'lgan hurmati» nomli niqobda edi. Biroq mening niqobim har ikkisining niqobidan kuchli ekanligi aniq».

Har bir ayolning atrofdagilarga o'zini kamchiliklarsiz ko'rsata oladigan niqobi bor. Hikoya qahramoni ham o'z niqobini butunlay olib tashlamoqchi bo'ldi. Lekin hayotiy ehtiyoj yana ustunlik qildi, eriga shartnomani yana uzaytirish taklifiga rozi ekanligini bildirdi. Yana o'zini yolg'izlikka mahkum etganini his qilib, uyqu dorilarini ichgancha ko'zlarini yumdi. Go'yo endi unga hech narsaning qizig'i qolmagandi.

«천둥을 치거나 애들이 아프거나,집에 도둑사람을 들어가나- 난 상관 없다! 아침까지 가만히 잠을 잘거야»[62].

«Momoqaldiroq gumburlasin, bolalar kasal bo'lib qolsin, og'rilar uyga kirsin – menga baribir. Ertalabgacha tinch uxlashni xohlayman».

3. **Xulosa**

Pak Vansoning mazkur «Juftli juftsizlar» hikoyasi orqali bosh qahramonning turmush o'rtog'idan yiroqda o'tgan kunlari, ichki kechinmalari, his-tuyg'ulari haqida bayon etadi.

Bir oilaning pul, boylik maqsadida yillar davomida yemirilib borishi, hayotini ma'nisiz bir narsaga aylanib qolishiga pul sababchi bo'lishi yorqin dalillar asosida ko'rsatiladi.

Pak Vansoning hikoya yozishdagi mahorati ushbu hikoya orqali ham bevosita yaqqol namoyon bo'ladi. Adiba bo'lib o'tgan voqea yoki qahramonga nisbatan o'zining munosabatini ochiq ifodalamaydi; u shunchaki oddiy insonlarning kundalik turmushi, hayotini bayon qiladi, xolos. Lekin kitobxon uchun ahamiyatsiz ko'ringan personajlar dialogi, mavjud detallar adibaning yetkazmoqchi bo'lgan mazmun-mohiyatni hikoya tubiga yashiradi. Hikoya boylik hissi oxir-oqibat inson qalbini so'nishiga olib kelishini ko'rsatadi. Ayol qaynonasi, eri va hattoki farzandlariga nisbatan ham endi hech qanday iliqlik his qilmas edi. Uning hamma narsaga munosabati o'zgardi. His-tuyg'ular o'rnini ham boylik va yolg'izlik, hayotga befarqlik egallab olgandi. Adiba Pak Vansoning hikoyasi hayotdagi boylikning ana shunday yovuz kuchi mavjud ekanligini ko'rsatishga bag'ishlangandek go'yo.

4. **ADABIYOTLAR RO'YXATI**

1.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2. – 문학네, 1999.
2.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5.

Abstract

THE FATE OF A WOMAN IN PAK VANSO'S STORY «COUPLES WITHOUT COUPLES»

Feruza ABDUGANIEVA

***Supervisor*: DSc, professor Saydazimova U.**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Although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analysis of Pak Vanso's «Couples without couples…» story and seems to be devoted to ordinary events that take place in society, it is possible to see the processes that represent real life. Simple images and plots solve the «money» problem that has

[61] O'sha manba. – 224.

[62] O'sha manba. – 224.

caused a family to collapse. It is obvious that the changes in the society, the events around them can cause great damage to the human heart and psyche. In general, PakVanso, known for his epoch-making stories in Korean literature, has created stories that are still relevant today. The stories he envisioned and presented to readers are still a problem toda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eeling of love lost between a couple due to wealth and money is the theme of every nation. In the story, these issues are assessed with appropriate lines in the example of a woman's destiny.

Key words: *money, personal world, outside world, collection, money world, feeling of emptiness, friends in unhappiness.*

AN GUK SON IJODIDA O‘RDAK OBRAZINING IJTIMOIY AHAMIYATI

Baxriddin SAIDOV

Ilmiy rahbar: DSc, professor U.T. Saydazim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Zamonaviy koreys nasrida oila masalasi
2.1. Didaktik nasrda oila masalalarining yoritilish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Kirish

Bilamizki, oila – sog‘lom jamiyat shakllanishida asosiy omil va inson ruhiy olamining muvozanatini ushlab turuvchi ustun hisoblanadi. Ayniqsa, Sharq mamlakatlarida oila hayot abadiyligi, avlodlar davomiyligi ramzidir. «Yovvoyi hayvonlar majlisi bayoni» qissasida oila masalasining ko‘tarilishi bejiz emas. Zero, oila farzandlarni tarbiyalab, ularga umuminsoniy qadriyatlarni singdirish bilan ularga boshlang‘ich ijtimoiy yo‘nalish beradi. Kamol topayotgan farzandlarni katta oqimga – jamiyatga qo‘shish bilan esa oila jamiyat yo‘nalishi, mamlakat iqtisodiyoti, madaniyati va ma’rifatini ham belgilashga o‘z ta’sirini ko‘rsatadi. Shuning uchun ham sharqda oila qadim-qadimdan muqaddas qo‘rg‘on hisoblanib kelgan.

2. Zamonaviy koreys nasrida axloq o‘chog‘i

Oila muqaddasligi haqida zamonaviy koreys nasrda yangi qarashlar paydo bo‘ldi. Tarixdan ma’lumki, XX asr boshida Koreyada turli xil gazeta va jurnallar chop ettirildi. Jurnallarga asosan ijodkorlar tomonidan asos solindi. Shunday jurnal asoschilaridan biri Li Gvansu o‘z jurnali sahifalarida jamiyatning ma’naviy-axloqiy hayotini takomillashtirishga bag‘ishlangan qator maqolalarni chop ettirdi va xalqni oila haqida qotib qolgan aqidalardan voz kechishga chorladi. U qishloq jamoalarining kattalarga so‘zsiz itoat etishga asoslangan eski odatlarini fosh qildi, zero bu odatlar yoshlarga o‘z qobiliyatlarini namoyon etish imkoniyatini bermas, shaxsning individual fazilatlari rivojlanishiga monelik qilar edi. Li Gvansu farzandlarni ota-onasining tiriklik davrida ozodlikdan mahrum qiluvchi oilada an’anaviy itoatkorlikka qarshi isyon ko‘tardi: «*Farzandlar ota-onasining tirikligida quldan, uy hayvonidan yoki rohibga so‘zsiz bo‘ysunadigan tabaalardan boshqa narsa emas*»[63].

Bu bilan yozuvchi qiz va yigit hamda ularning haq-huquqlari, istak-xohishlari masalasini ilgari surdi. Yoshlar Li Gvansuning konfutsiychilik aqidalari bilan chetlab o‘tilgan tuyg‘u –

[63] Иванова В.И. Новая проза Кореи. – М., 1966. С.135.

muhabbatni ozod qilishga bag‘ishlangan chiqishlarini ayniqsa qizg‘in qarshi oldilar. Konfutsiychilik aqidalariga ko‘ra, oila his-tuyg‘ularga emas, balki ota-ona, ajdod, urug‘ oldida o‘z burchini ado etishga asoslanar edi. Nikoh oilani kengaytirish ishiga xizmat qiluvchi marosim hisoblangan, uni tuzish va kelin tanlash yoshlarning bir-biriga moyilligi bilan ham, hatto ularning tanishuvi bilan ham bog‘liq emas edi:

«*Koreys xalqi muhabbat nimaligini bilmaydigan millatdir. Nikoh bizda bir-birini ko‘rmagan, bir-birining ismlarini ham eshitmagan begona odamlar o‘rtasida tuziladigan rasmiy bitimdan boshqa narsa emas*»[64].

Biroq konfutsiychilik aqidalari asosida tarbiyalangan jamiyatda ozod etilgan muhabbat g‘oyalarini yoyish bu tuyg‘uni badiiy asarda ifodalashga qaraganda osonroq kechdi. Li Gvansuning ilk romanlarida yoshlarning tabiiy tuyg‘ulariga erk berish talabi ilgari surildi, bu asarlarda konfutsiychilik aqidalariga qarshi chiquvchi qahramonlar ham bor, biroq «*moddiy hayot uzra parvoz qiluvchi tuyg‘u*» – muhabbat mavjud emas. Li Gvansuning romanlarida faqat erkaklar sevadilar, ular muhabbat qo‘ygan ayollar esa bunga javoban faqat hurmatga o‘xshash tuyg‘ularni his qiladilar.

2.1. Didaktik nasrda oila masalalarining yoritilishi

O‘z-o‘zidan ravshanki, muhabbat asosiga qurilmagan oilada albatta, kelishmovchilik, axloqsizlik bo‘lishi tabiiy. Li Gvansu fikrlariga homahang tarzda An Guk Son o‘z qissasiga azaldan Koreyada oila ramzi hisoblangan o‘rdakni notiq sifatida tanlaydi va mazkur davrda oiladagi muhitni o‘rdak nutqi orqali ochib beradi. O‘rdak o‘ziga xos, ya’ni oilaviy muhabbat va er-xotinning bir-biriga sadoqati ramzini anglatadi. An Guk Son oiladagi munosabatlar mavzusini aynan turmush bilan bog‘liq o‘rdak ramzi orqali yoritgani ham bejizga emas. Majlisda so‘nggi notiq sifatida minbarga chiqqan o‘rdak oila qurish borasidagi qotib qolgan aqidalar, insonlar orasida munosabatlar, ayollarga past nazar bilan qarash va ular tomonidan uyushtiriladigan fitnalarga nisbatan tanqidiy fikr bildiradi:

«나 는 원앙이올시다. 여러분이 인류의 악행을 공격하는 것이 다 절당한 말씀이로되 인류의 제일 괴악한 일은 음란한 것이오. 하느님이 사람을 내실 때에 한 남자에 한 여인을 내셨으니, 한 사나이와 한 여편네가 서로 저버리지 아니함은 천리 (天理)에 정한 인륜(人倫)이라»[65].

«*Men o‘rdakman. Sizlar odamzotning yomon ishlari haqida ko‘p gaplar aytdingiz, lekin odamzotning eng qabihi – bu alohida masala. Osmon xudosi insonni yaratganda bir erkakka bir ayolni juft qilib berdi. Bir erkak va bir ayol faqat bir kishi bilan turmush qurishi mumkin*».

Shu o‘rinda o‘rdak «Kabo yili islohotlari» qabul qilingandan keyin ham ko‘pchilik amaldorlarning qonun doirasidan chetga chiqayotgani, kanizaklikka olish hali ham davom etayotganiga ishora qiladi.

«사나이도 계집을 여럿 두는 것이 옳지 않고 여편네도 서방을 여럿 두는 것이 옳지 않거늘,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사나이는 계집을 많이 두고 호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처첩을 두셋씩 두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오륙 명 두는 자도 있으며»[66].

«*Er ham bir necha bor uylanishi mumkin bo‘lmaganidek, ayol kishi ham bir necha bor turmushga chiqishi mumkin emas. Dunyoda aksariyat odamlar, xususan, erkaklar ko‘p bora uylanishadi, bekamu-ko‘st yashash to‘g‘ri deb hisoblashib, qayta-qayta uylanadiganlar bisyor*».

Yuqorida keltirilgan parchada o‘rdak nutqi orqali muallifning ko‘pxotinlilikka nisbatan tanqidiy fikri yangraydi. Shuningdek, bir erkakka bir ayolni juft qilib yaratdi, degan jumlalar orqali nasroniylik dini qarashlarini ko‘rish mumkin. Zero, Koreyaning ma’rifatparvarlik davrigacha bo‘lgan diniy-tarixiy manbalarida bu kabi qarashlar uchramaydi. Matnda keltirilgan, «*ayol kishi bir*

---

[64] Иванова В.И. Новая проза Кореи. – М., 1966. С.135.

[65]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67.쪽.

[66]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서울,1995, 467. 쪽.

necha bor turmushga chiqishi mumkin emas» jumlalarida adib axloqsizlik ko‘chasiga kirib ketayotgan ayollarni ham nazarda tutadi.

Bu holat mazkur davrda yashab ijod qilgan Kim Doninning «Bir savat batat» hikoyasida yaqqol o‘z tasdig‘ini topadi. Hikoya qahramoni Ponni oilani tebratish uchun axloqsizlikning barcha ko‘chalariga kirib chiqishga majbur bo‘ladi. Eri tanballigi sabab Ponni avval tilanchilik qiladi, keyin ipak qurti boquvchisining mardikoriga aylanadi, boshqaruvchining o‘ynashi ham bo‘ladi. Ammo kartoshka o‘g‘irlash bahonasida tanishib qolgan xitoy amaldori bilan don olishib yurgan Ponni unga xuddi o‘z eriga qaragandek munosabatda bo‘ladi. Oqibatda, xitoy amaldori qo‘lida halok bo‘ladi. Ponni turmushga chiqqan ayol bo‘lishiga qaramay, xitoy amaldori bilan hatto o‘z uyida ham uchrashib yuradi. Bunga uning eri loqaydsizlik bilan qaraydi, u faqat qornini to‘yg‘azish ilinjida. Uyga kelayotgan oziq-ovqat qayerdan kelayotgani uni qiziqtirmaydi, xitoy amaldori uyiga tashrif buyurganida, jimgina uydan chiqib ketadi.

«어찌 그리 편벽되며, 사나이가 남의 계집 도적함은 꾸짖지 아니하고, 계집이 남의 사나이를 상관하면 큰 변인 줄 아니, 어찌 그리 불공하오?»[67].

«*Bu qanday hol? Qanday qilib bunday oila buzilib, erkak kishi birovning ayoliga ta’ma qilsa, ayol kishi birovning eriga qiziqa boshlasa, oqibati yaxshi bo‘lmasligini bila turib bunday qabihliklarga qanday yo‘l qo‘yish mumkin?*»

Aslida oilada huquqiy madaniyat bo‘lishi kerak. Oilaga huquqiy jihatdan ta’rif berilganida, oila bu – nikoh qurish, bolalarni tarbiyaga va farzandlikka olish, aka-ukalar, opa-singillar va boshqa oila a’zolari o‘rtasida vujudga keladigan munosabatlar yig‘indisidir.

O‘rdak nutqi orqali adib hayotning abadiyligini, avlodlar davomiyligini ta’minlaydigan, muqaddas urf-odatlarni saqlaydigan, kelajak avlodga bevosita ta’sir ko‘rsatadigan oilada uyg‘unlikning buzilishiga azaldan muqaddas sanalgan oilada er-xotin munosabatlariga salbiy ta’sir ko‘rsatuvchi kanizaklar masalasiga alohida to‘xtaladi:

«혹은 장가 든 뒤에 그 아내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두번 세번 장가 드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사랑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자도 있으니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천리에 어기어짐이라»[68].

«*Yoki o‘z ayolini sodda deb hisoblab, kanizaklarni sevib ardoqlaydigan erkaklar ikki ayolga uylanishi ularning o‘z ayoli bilan oralaridagi masofaning uzoqlashishiga sabab bo‘ladi*».

Bu aytilgan fikrlar Kim Manjunning «Sa xonimning janub bo‘ylab sargardonliklari» romanida ham o‘z tasdig‘ini topadi. Mazkur asar xotimasida Kim Manjun oiladagi ko‘ngilsizliklarning ildizi qayerda degan savolga o‘z fikr-mulohazalarini bildirib, oila tinchini buzuvchi bosh omil sifatida kanizak masalasini ko‘rsatadi:

«출전'해재신 해계 동유 동찰판 (해 在辛亥季冬由洞札板) 을 근거로 현대어풀이줄거리'사씨 남정기'는 양반사 대부 가문인 유한림의 가정과서로 다른 양반 사대 부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는 사정 옥과 교채란 사이의 갈등을 통해 축 첩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 하고 있으며 동시에 양반가 정의 추악 한 내막을 드러 내고 있다»[69].

«*Oila muammosiga asoslangan asar sifatida* «*Sa xonimning janub bo‘ylab sargardonliklari*» *romanida yanban oilasining muammolarini ko‘rsatib berdim. Yanbanlar hayotidagi illatlarni fosh etib, uni tanqid ostiga oldim. Bir qarashda to‘kisdek ko‘ringan oila ichida bo‘layotgan muammolarning ildizlarini qidirdim. Javob – kanizaklikka olish udumidir*».

O‘rdak oilaviy munosabatlarning darz ketishi sabablarni birma-bir sanab borishda davom etadi. Shu o‘rinda adib kanizaklarning kimligiga ishora qiladi: qadimgi Koreyada kanizak har doim bir kishiga xizmat ko‘rsatmagan. Agar uning sohibi undan voz kechsa, boshqa amaldor xizmatiga kirgan. Bu bilan An Guk Son o‘rta asrlarda katta hajmli asarlar muallifi Kim Manjunning «Sa

---

[67]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67. 쪽.

[68]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67. 쪽.

[69]김병국.서포김만중의생애와문학,– 서울, 2001. 401.쪽.

xonimning janub bo‘ylab sargardonliklari» romanida aytib o‘tilgan fikrlarini yodga soladi. Kim Manjun o‘z romanida qirolga kanizaklarning beka bo‘la olmasligini eslatib qo‘ygan edi. Darhaqiqat, kanizak faqat kisenga aylanishi mumkin:

«계집이 두 사나이를 두면 변고로 알고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예사로 아니»[70].

«*Ayol kishining ikkinchi marotaba turmush qurishini juda katta gunoh deb bilib, erkak kishining esa ikki marta uylanishi oddiy hol deb qabul qilinadi*».

Adib inson tabiatiga xos noshukrliklar va erkak ayol o‘rtasidagi mehrsizlik, sadoqatsizlikka to‘xtaladi. Shubhasiz, ayol va erkak tabiatida misqolchalik bir-biriga g‘amxo‘rlik qilish xislati bo‘lmaganida hozir dunyodagi odamlar o‘ta yovuzlashib, axloqsiz hamda berahm insonga aylanib qolardi. Jumladan, yo‘l chetidagi majnuntolni kesish maqsadida yuz yillik yaqinini ham unutishi, cho‘qqidagi bir kunlik gulni ko‘rish uchun ayolidan voz kechishi, eri kasalga chalinsa, uni tashlab ketishi, o‘z manfaati va nafsi yo‘lida hatto erini ham ayamasligi, eri vafotidan uch kun o‘tmay turib Sariq dengiz sari ketishi. Shu bilan birga odamlarda u xoh kanizak, xoh erkak kishi bo‘lsin, insoniy tuyg‘ular, qarindoshlik hislari yo‘qolib borayotganini insoniylikka yo‘yib bo‘lmaydi.

Bugungu kunda er va xotin, oila tashqaridan qaraganda risoladagidek ko‘rinishi mumkin, lekin o‘zaro munosabatlar haqida gap ham bo‘lishi mumkin emas. Insonlar oilaviy turmush tarz, oila madaniyati, odob-axloq normalari, oila a’zolarining burch va vazifalari, ota va onaning oiladagi o‘rni kabi masalalar haqida unutib qo‘yishdi. Xalq orasida o‘rdaklar hayotiga oid turli xil hikoyalar mavjud. Quyida shunday ibratli hikoyalardan birini e’tiboringizga havola etaman:

«사냥꾼이 원앙새를 잡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털을 뜯을새, 날개 아래 무엇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거년(去年)에 자기가 잡아온 수원앙새의 대가리라. 이것은 암원앙새가 수원앙새와 같이 있다가 수원앙새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서 떨어지니, 그 창황중에도 수원앙새의 대가리를 집어 가지고 숨어서 일시의 난을 피하여 짝 잃은 한을 잊지 아니하고 서방의 대가리를 날개 밑에 끼고 슬피 세월을 보내다가 또한 사냥꾼에게 얻은 바 된지라, 그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 정절이 지극한 새라 하여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땅에 장사를 지낸 후에 그때부터 다시는 원앙새는 잡지 아니하였다 하니»[71].

«*Qadim zamonda bir ovchi uchib ketayotgan ikki qushdan birini ushlab oldi. Bu nar o‘rdak edi va moda o‘rdak eriga o‘z sadoqatini asrab, aza tutdi. Boshqa bir yili moda o‘rdak yana o‘sha ovchi o‘qidan yaralanib, ovchining o‘ljasiga aylandi. Ovchi o‘rdakni tutib, uyiga ketayotib patini yulmoqchi bo‘lganida uning qanoti ostida o‘tgan yili o‘zi ovlagan o‘rdakning boshini ko‘rdi. Moda o‘rdak erining boshini olib qochib, qanoti ostiga yashirib, ovchiga nisbatan nafrat bilan yashab keldi. Buni ko‘rgan ovchi qushni iste’mol qila olmadi, moda o‘rdakni pok joyga ko‘mdi. Shundan so‘ng boshqa o‘rdak ovlamadi*».

Moda o‘rdak tabiat jonzoti bo‘lishiga qaramay, o‘z sadoqatini saqlab qoldi. Odamlarga kelsak, ayol va erkak munosabatlari shu qadar jirkanchliki, hatto, hayvonlar ham bunchalik emas. O‘rdak insonlar xatti-harakatiga ta’rif beradi, agar ayoli bevaqt vafot etsa, qayg‘u chekadigan erkaklar topilarmikin? degan savolni o‘rtaga tashlaydi:

«상처한 후에 사나이 수절하였다는 말은 들어 보도 못 하였소. 낱낱이 재취(再娶)를 하든지 첩을 얻든지, 자식에게 못할 노릇 하고 집안에 화근을 일으키어 화기(和氣)를 손상케 하고, 계집으로 말하면 남편 죽은 후에 수절하는 사람은 많으나 속으로 서방질 다니며 상부한 지 며칠이 못 되어 개가할 길 찾느라고 분주한 계집도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개구멍이나 다리 밑에 내버리는 것도 있으며»[72].

«*Shu bugunga qadar erkaklarning ayollar haqida g‘am chekkani haqida hech eshitmadim. Agar barchasi haqida batafsil gapirsam, erkaklar ikkinchi marotaba uylanadi yoki jazman orttiradi. Farzandiga ham namuna bo‘la olmaydi, oilada yomon illatning ildiz otishiga sabab bo‘ladi. Endi,*

---

[70]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서울, 1995, 467. 쪽.

[71]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67. 쪽.

[72]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55. 쪽.

ayollar haqida gapiradigan bo‘lsak, eri vafot etgan bo‘lsa, yoxud erini sevsa-da, ko‘ngilxushlik bilan shug‘ullanadiganlar ham topiladi. Bir inson bilan uchrasha boshlaganiga qisqa vaqt o‘tgan bo‘lsa-da, ikkinchi bir insonni ham qarmoqqa ilintirish ilinjida yurgan ayollar ham yo‘q emas. Shu bilan birga farzandini it iniga yoki ko‘priq ostiga tashlab ketadiganlar yo‘q deysizmi?»

Koreya Osiyoning Sharqiy qismida joylashgan va uch tomondan okean bilan qamrab olinganligi sabab tarixiy jihatdan boshqa mamlakatlar bilan almashinuv juda ham past darajada kechgan. Yevropa va G‘arbiy Osiyo mamlakatlari bilan esa, umuman hech qanday almashinuv bo‘lmagan. Bu o‘tmishda Koreya Xitoy va Yaponiya tomonidan bosib olinganligi bilan bog‘liqdir. Shu sababli boshqa mamlakatlar uni alohida davlat sifatida qabul qilmagan. Keyinchalik Koreyaning boshqa mamlakatlar bilan hamkorligi salbiy voqealar: harbiy harakatlar, kolonizatsiya, mustamlaka va uning hududida Amerika qo‘shinlarining uzoq muddat bo‘lishi bilan bog‘liq. Natijada koreys xalqida boshqa millatlarga nisbatan salbiy munosabatlar ustuvorlik qiladi.

Ajdodlar qonining aralashuvi yoki ayolning ustuvorligini tan olishga yo‘l qo‘ymaydigan konfutsiychilik g‘oyalariga mansubligi irqiy aralashuv bu razolat hisoblangan. XVI asrning oxirlarida xitoyliklar ko‘plab koreys ayollarini Xitoyga olib ketishgan. Vatanga qaytgandan so‘ng bu ayollarni «*qaytgan ayollar*», keyinchalik esa, «*fohisha*» deb ularni «*kir*», «*iflos*» ayollar hisoblashgan. Yaponiya hukmronligi davrida koreys ayollari yapon askarlariga xizmat ko‘rsatgan. Koreys urushi paytida aralash irq bolalari tug‘ildi, bu aynan shu bolalar va ularning bolalariga salbiy munosabatni vujudga keltirdi.

Boshqa millat vakillaridan tug‘ilgan farzandlarga salbiy munosabat, zo‘ravonlik qurboni bo‘lgan ayollarga nisbatan yomon qarashlar mavjud bo‘lgani holda, mamlakat ichkarisida kanizaklar, ular bilan noqonuniy ishqiy munosabatlarga xolis qarash juda ham g‘ayrioddiy hodisaga o‘xshaydi:

«심한 계집은 간부에게 혹하여 산 서방을 두고 도망질하기와 약을 먹여 죽이는 일까지 있으니, 저희들의 별별 괴악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세상에 제일 더럽고 괴악한 것은 사람이라, 다 말하려면 내 입이 더러워질 터이니까 그만두겠소»[73].

«*O‘ta suyuqoyoq ayollar jazmaniga maftun bo‘lib erini tashlab ketishi yoki zahar berib o‘ldirishdek qabihlikka ham qodir bo‘ladilar. Biz bunday jirkanch ishlar haqida bor gapni ayta olmaymiz. Dunyoda eng jirkanch jonzot – bu odam. Hammasini gapiradigan bo‘lsam og‘zim ham ifloslanadi. Shuning uchun nutqimni tugataman*».

Umuman, tarixga nazar tashlasak, qadimda koreys xalqi diniy marosimlar, rasm-rusumlar, o‘zining ilohiy kelib chiqishi, Osmon podshosini madh etishi bilan birga oila, oilada erkak-ayol munosabatlarini ham muqaddas sanashgan. Jumladan, X asrgacha saqlanib qolgan ba’zi bir manbalarda keltirilgan «Bambuk xonim» allagoriyasida ham bu masalaga e’tibor qaratilgan. Li Gok qalamiga mansub bu allegoriyada muallif Bambuklar oilasi, qizlar tarbiyasi, turmushga uzatish, oilada ayol va erkak sha’niga dog‘ tushirmaslik kabi masalalarga chuqur e’tibor qaratadi.

Bambuklar oilasida dunyoga kelgan va o‘z iffati bilan atrofdagilarning e’tiboriga tushgan Bambuk xonimga Badkirdor batavfiq she’r bitadi, bunga javoban Bambuk xonim shunday javob beradi:

«*Erkaklar va ayollar, albatta, bir-biriga o‘xshamaydi, lekin inson sha’ni novdadek nozik va hamma uchun birdek qadrli. Uni bir marta sindirsang, qayta tiklay olmaysan*!»[74]

Oila asrlar davomida koreys xalqi uchun eng qutlug‘ dargoh hisoblangan. Turmush qurish yoki uylanish borasida ham ular bu masalaga juda ham chuqur e’tibor qaratishgan. Bu masalalar Kim Manjunning «Sa xonimning janub bo‘ylab sargardonliklari» romanida batafsil yoritilgan: oila bekasining vafot etishidan tortib kelin tanlash masalasigacha muhim ahamiyat kasb etadi. Asardagi har ikki bosh qahramon ayol ham Yu xonadoniga kelin bo‘lib keladi. Bu xonadonga kelin tanlash

---

[73]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455. 쪽.

[74] Klassik koreys nasri antologiyasi. Tuzuvchilar: Saydazimova U.T., Choy So Yong va boshq. – T.: Istiqlol. 2013. B. 58.

esa juda mas'uliyatli ish hisoblanadi va bu Buyuk bobokolonimiz Amir temur aytganlari bilan mos keladi:

«*O'g'illarim, nabiralarim, va yaqinlarimni uylantirmoq tashvishida kelin izlamoqda e'tibor berdim. Bu ishni davlat yumushlarini bilan teng ko'rdim... Kelin bo'lmish nasli-nasabi, odab-axloqi, sog'lom va baquvvatligi bilan barcha qusurlardan xoli bo'lsagina, el-yurtga katta to'y –tomosha berib kelin tushirdim*»[75]

Onasi Yu Yonsuni dunyoga keltirib, vafot etgach, bu xonadonda beka o'rni bo'shab qoldi. Shu sababli bo'lajak kelinning kelishi oila uchun katta ahamiyat kasb etgan. Chunki uyda qaynona bo'lmaganligi sababli bo'lg'usi kelin uy bekasiga aylanadi va uy-ro'zg'or tashvishi, xizmatkorlarni boshqarish kabi vazifalar uning zimmasiga tushadi. Shu boisdan ham oilaga kelin tanlash masalasiga juda jiddiy qaraladi. Oila boshlig'i tarbiyali va obro'-e'tiborli xonadon qizini kelin qilishni orzu qiladi.

Orzusi ushalib, saroyda o'zining sadoqatliligi, qirolga xizmat qilishdagi sodiqligi bilan dong taratgan Sa xonadonining qizi Sa Jong Okni kelinlikka tanlaydi. Sa xonim yuqorida keltirilgan hamma sifatlarni o'zida mujassam etgan edi hamda Yu xonadoniga munosib kelin ekanligini isbot etdi.

Oila boshlig'ining yelkasidan tog' ag'darildi, chunki oila bekaligi kelajakda ishonchli qo'llarga topshiriladi, kattalar uchun bu mas'uliyatli ish edi. Sa xonimni kelinlikka tanlab, Yu xonadoni adashmagan edi. Sa xonim oilaparvarligi, donoligi va aql-farosati bilan qaynotasining duosini olib, umr yo'ldoshining ishonchini qozondi.

Muallif xalq og'zaki ijodi hamda o'rta asrlarda yaratilgan ilk romanlarda ko'tarilgan oila masalalarini o'z asariga ko'chirdi. Ammo muallif bu yerda ramziy obrazlar nutqi orqali masala mohiyatini ochib berdi.

O'rdak nutqi orqali orqali insonlar qanchalik noto'g'ri va jirkanch hayot kechirayotganlarini, insoniy tuyg'ular yo'qolib borayotganini ta'kidladi. Aslida odamzod hayvonlardan aql idroki, insoniylik xususiyatlari bilan ajralib turadi. Biroq ushbu asar orqali hayvonlar hayvon emas, balki insonlar berahm, vahshiy hayvonga aylanib borayotganini badiiy talqinda tasvirlatgan. Albatta bunday deyishga yozuvchining asoslari yetarli bo'lgan. Insonlarning o'zaro munosabatlaridan tortib, erkak va ayol, oila, ota-ona va farzand, ayollarning jamiyatda past mavqei va ikkinchi bor turmush qurishi borasidagi xalq ongida qotib qolgan asossiz tushunchalar, erkak va ayol taqdiri kabi mavzulargacha qamrab olingan ushbu asar insonlarni yana bir bor o'z hayoti haqida chuqur mulolohaza yuritishga, tanqidiy fikrlar orqali salbiy holatlardan ijobiy xulosalar chiqarishga undaydi.

O'rdak obrazida muqaddas sanalgan oila sha'nini saqlab qolish nafaqat erkak, balki ayollarning ham mas'uliyatli vazifasi ekanligi ta'kidlanadi. O'rdak ovozida ayollarni o'zlarining nojo'ya xatti-harakatlari haqida mulohaza yuritib, to'g'ri xulosa chiqarishga chorlav yangraydi. Har bir ayol oilada muhim vaziyatlarda Sa xonimga o'xshab oqilona ish ko'rishi kerakligi alohida qayd etiladi.

O'rdak nafaqat ayol va erkaklarga nasihat qiladi, oqil va donolik bilan ish ko'rishga chorlaydi, balki ijtimoiy jihatdan oilani asrovchi va bu yo'lda jonkuyar kurashchi hamdir. Chunki o'rdakning nutqida mumtoz va o'rta asrlarda yaratilgan allegoriya va romanlarda uchraydigan an'anaviy sifat-belgilar uchraydi.

O'rdakni oila muqaddasligini asrab qoluvchi xislatlar qiziqtiradi. Bu borada u ham erkak, ham ayollarni befarq bo'lmaqlikka undaydi. Chunki har bir erkak kimningdir otasi, kimningdir akasi bo'lsa, har bir ayol kimningdir onasi, kimningdir opasi ekanligi ayon.

---

[75] Амир Темур ўгитлари: (тўплам). Тузувчилар:Б. Аҳмедов, А.Аминов, – Т.: Ўзбекистон, 2007. Б. 57.

Inson nasliga bo‘lgan demokratik qarashlar An Guk Son qissasida har bir tabiat jonzoti nutqi orqali tasvirlangan. Qissada yetakchi g‘oya koreys xalqi mintaliteti bilan uyg‘un jonzotlar nutqida ko‘rsatilgan.

3. Xulosa

Hayotda mudom «*O‘zingni bil, o‘zgani qo‘y*» qabilida fikr yuritadigan insonlar faqat o‘zining tinchini o‘ylab, bir umr «*shapko‘r*» insondek yashashi barchaga ma’lum. Adib bu asari orqali mamlakatda yuz berayotgan voqea-hodisalarga «*jim*» qarab turgan amaldorlar, ularning harakatsizligi, bir qarashda beozor, aslida befarq insonlarga qarshi isyon ko‘taradi. Bunday insonlar *jamiyat ofati* sanaladi.

Asar o‘z davrida ijtimoiy taraqqiyot, ijtimoiy tenglik va adolat, erkinlik kabi goyalar bilan maydonga chiqdi. Ijtimoiy sohada esa «*aqlga muvofiq jamiyat*» qurish masalasini qo‘ydi.

Nikoh va oila munosabatlarining ko‘pchiligi odob-axloq nomalari bilan tartibga solinadi. Shunday bo‘lsa-da, ba’zi bir urf-odatlar, an’ana va rasm-rusumlarga yangicha yondashuv mazkur davr talabi edi. Shu sababli muallif Li Gvansu fikrlariga homahang tarzda o‘rdak nutqida mana shu an’anaviy va yangi qarashlar o‘rtasidagi to‘qnashuvga alohida urg‘u beradi.

O‘rdak o‘z nutqida oilaning haqiqiy baxt makoni bo‘lishini ta’minlashda muhabbat, burch, vijdon, halollik, o‘zaro hurmat kabi ezgu niyatlarning amalga oshirilishi zarurligi, bunda ayol va er mas’ulligi alohida ta’kidlanadi.

4. Adabiyotlar ro‘yxati

1. Амир Темур ўгитлари: (тўплам). Тузувчилар:Б. Аҳмедов, А.Аминов, – Т.: Ўзбекистон, 2007
2. Klassik koreys nasri antologiyasi. Tuzuvchilar: Saydazimova U.T., Choy So Yong va boshq. – T.: Istiqlol. 2013.
3. Иванова В.И. Новая проза Кореи. – М., 1966.
4. 신소설,한국소설문학대게 1, – 서울, 1995,
5. 김병국.서포김만중의생애와문학,– 서울, 2001.

Abstract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DUCK IMAGE IN AN GUK NUMBER

Bahkriddin SAIDOV

***Supervisor*: DSc, professor Saydazimova U.**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n society, emerging from «feudal backwardness» and joining world civilization, was suddenly turned into a Japanese colony under the influence of powerful powers and the defeat of Tsarist Russia in the Japanese-Russian War. Like all fields, the literary world was censored by the Japanese. For this reason, artists began to re-refer to symbols, wildlife, and phytonymy when creating works.

In Korean society, which had long been in feudal backwardness in the Middle Ages, attitudes toward the social environment were expressed in the literature mainly through symbols. The people expressed all their problems and attitudes to social life only in symbols or in stories of unknown authorship. But in Korea, which emerged from feudal backwardness, artists faced another life test, and their work had to pass Japanese censorship. For this reason, during this period, some artists reverted to medieval dream motifs and images of creatures.

One such writer, An Guk Son, is also concerned about the country's fragmentation and the loss of national values. In fact, the writer who learned new things in Japan was a political scientist. However, realizing that the science he studied did not serve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writer turned his attention to fiction.

Key words: An Guk Son, Kim Manjun, Kim Donin, family, symbol, duck, maid, tradition, innovation

CHO MYONXI VA MUHAMMAD YUSUF IJODIDA VATAN MAVZUSI

Sardor NAZAROV

Ilmiy rahbar: DSc, professor U.T. Saydazim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Cho Myonxi ijodida vatan sog‘inchi mavzui
2.1. Muhammad Yusuf ijodida tarix sahifalaridan namunalar
3. Xulosa
4.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Vatan – inson eng ko‘p o‘ylaydigan, so‘ylaydigan, kuylaydigan mavzu. Eng yuksak jasoratlar sababi – Vatan. Jahon urushlari o‘rtaga Vatan masalasi qo‘yilganda boshlangan. Vatan deb jon kechadilar. Ular ma’naviy jasorat sohiblari.

Nega Vatan so‘zi Ona so‘zi bilan keladi, birga yoziladi? Oan ko‘zi yumuq mushtdek jonning to‘qqiz oylik rohatbaxsh, sokin vatani. Inson dunyoga kelgach, o‘zga o‘lkalardan emas, faqat kindik qoni tomgan o‘z Vatanida ana shu halovatni his qila oladi. Vatan va Ona so‘zining egizakligi shundadir?!

Vatan – bu inson va uning avlod-ajdodilari kindik qoni to‘kilgan muqaddas dargohdir.
Vatan – bu ajdodlar maskani, el-yurt, xalq voyaga yetgan, uning tili, tarixi, madaniyati, urf-odatlari, qadriyatlari chinakamiga shakllanib, o‘sib, kamol topib boradigan zamindir.

Vatan deganda, hamisha o‘zimiz tug‘ilib o‘sgan, ko‘z ochib ko‘rgan, ta’lim-tarbiya olib voyaga yetgan, necha-necha avlodu ajdodlarimiz yashab o‘tgan, ularning aql-idroki, mehnati sarf qilingan yurt ko‘z o‘ngimizda gavdalanadi.

Vatan ona kabi aziz va mukarramdir. Vatan insonga baxt iqbol beradigan, ijodkorga ilham bahishlaydigan zamindir. Abdulla Avloniy aytganidek: «Har bir kishining tug‘ilib o‘sgan shahar va malakatini shul kishining vatani deyilur. Har kim tug‘ilgan, o‘sgan joyini jonidan ortiq suyar...Biz turkistonliklar o‘z vatanimizni jonimizdan ortiq suyganimiz kabi, arablar arabistonlarini, qumlik issiq cho‘llarini, eskumislar shimol taraflar, eng sovuq qor va muzlik yerlarni boshqa yerlardan ziyoda suyarlar. Agar suymasalar edi, havosi yaxgi utronlik oson yerlarga o‘z vatanlarini tashlab hijrat qilurlar edi».

2. Cho Myonxi ijodida vatan sog‘inchi mavzui

Koreys shoiri Cho Myonxi ijodining asosiy mavzui, she’rlarining gultojisi Vatan mavzuiga bag‘ishlangan. Chunki shoir yurtidagi istibdod sabab kindik qoni to‘kilgan joydan boshqa bir makonni Vatan tutishga majbur bo‘ldi. Judolik, ayriliq, hijron uning quyidagi she’rida ko‘zga tashlanadi:

나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저기 저 흰 구름 너머 이먄새의
나래 빌려 가련마는 누른 땅 위에 무거운 다리 움직
이며 창공을 바라보아 회파람 불다
나의 고향을 저기 저 높은 산 너머 이면 길
고 긴 꿈길을 좇아가련마는 생의 엉킨 줄 얽매여 발 구르며 부르짖다
불투명한 생의 욕의 화엽에 들레는 저자거리 등지고 돌아서 고목의 옛 덩굴 디디고 서서 지는 해
바라보고 옛 아야기 새 생각에 울다
고 적 한 사람아 시인 아
하늘 끝 회색 구름의.나라

이름도 모리는 새 나라 찾으려
말고 만 창공의 길 자문 바람에
외로운 형 영 번득이며 날아가는 그 새와 같이 슬픈 소리 바람결에 부 져 보내며
아픈 걸음 푸른 꿈길 속에
영원의 빛을 찾아가다

Oq bulutlar ortidadir Vatanim,
Qanotlansam, qushlar ko‘mak bersalar,
Yer va Osmon ko‘prigini qurardim,
Samolarga hayrat ila qarardim.
Yuksak tog‘lar ortidadir Vatanim.
Olis xayol yo‘llarida boraman,
Turmushning shum tugunlari chirmashib,
Yo‘l bermaslar. Dodlab bag‘rim yoraman.
Shoir ,yolg‘iz ,olam ichra sen tanho
Ehtiroslar olovida yonasan
She’riyatning yo‘llarida chekinib,
Keksa daraxt quyosh sari ko‘z tashlab,
Eski hislar ko‘z yoshiga cho‘masan .
Yakka –yolg‘iz shoir,sening manziling
Ko‘k so‘ngida kulrang bulut o‘lkasi
Osmon yo‘lin qorong‘ulik qopladi,
Sen qush yanglig‘ parvozdasan muttasil
Shamol eltar iztirobli faryoding,
Og‘riq qadam bosib achchiq bo‘zlaysan.
Hayollaring yashil yo‘lin bosarkan
Abadiylik shu’lasini izlaysan.

Har qanday inson o‘z vatanini sevadi, uni ardoqlaydi. Lekin bu tushuncha Vatandan ayro tushgan, Vatanidan olisda va unga yana qaytish imkoni bo‘lmagan inson uchun umuman boshqacha ma’no kasb etadi. O‘z yurti tuprog‘ida yurgan odam uchun u nafas olayotgan havo, u yurgan tuproq, u ko‘rib turgan daraxt va tog‘ kundalik oddiy narsadir. Lekin shu oddiy narsalarda undan yiroqda bo‘lsang yoki undan ajralganingdagina sehr borligini biladi kishi.

Oq bulutlar ortidadir Vatanim,
Qanotlansam, qushlar ko‘mak bersalar,
Yer va Osmon ko‘prigini qurardim,
Samolarga hayrat ila qarardim.
Yuksak tog‘lar ortidadir Vatanim.

Cho Myonxi ham yurt sog‘inchi ta’sirida ushbu she’rni yozadi. Xayol ummoni uni o‘z ona yurti baland tog‘lar va oppoq bulutlar ortidagi nurli maskan Vataniga borish tuyg‘usini uyg‘otadi. U bu yo‘lda o‘zini har ishga qodirdek his qiladi. Musofir inson uchun bu tushunchaning qadri ikki marta qadrlidir. Koreyaga nisbatan «Tonggi musaffolik mamlakati», «Tonggi shudringlar mamalakati» tashbehi ishlatiladi. Shoir ham shu ta’riflarga mos holda vatanini yuksaklikda joylashgan o‘lka sifatida ta’riflaydi. Faqat u joylarga qaytishning imkoni yo‘q. Shoir shu taqdirga o‘zini ko‘niktirishga garchand urinmasin, qalbidagi bir kuni Vatanga qaytish hissi uni hech qachon tark etmagan. Jisman o‘z yurtiga bora olmagan bo‘lsa-da, xayolan har kun Vataniga tashrif buyurar, qalban esa u bilan doim birga edi.

Olis xayol yo‘llarida boraman,
Turmushning shum tugunlari chirmashib,
Yo‘l bermaslar. Dodlab bag‘rim yoraman.

Cho Myonxining keyingi ijodi o‘zida Koreya burjuaziya sinfi shakllanayotgan bir paytda ijtimoiy ongning chuqur o‘zgarishlarini aks ettirdi. Shoir va yozuvchi har qanday ishga u hoh siyosiy bo‘lsin, hoh ijtimoiy, vatan manfaati uchun kurashdi. Aslida o‘z vatanini tark etishiga ham vatanini zulukdek qonini so‘rayotgan kishilarga qarshi kurashish sabab bo‘ldi. Dastlab ilg‘or g‘oyalarga ergashgan bo‘lsa-da, bu g‘oyalar ijodda ham an’anaviy poetik shaklardan uzoqlashganini tez angladi. Shuning uchun shoir o‘zining milliy madaniyatiga, ayniqsa adabiyotning ma’rifatchilardan tomonidan unutilgan she’riyat – sijo janriga munosabatini qayta ko‘rib chiqish kerak, degan fikrga keldi.

Keksa daraxt quyosh sari ko‘z tashlab,
Eski hislar ko‘z yoshiga cho‘masan .

O‘zga yurtlarda yurar ekan ijtimoiy voqeylikka qarshi norozilik bildirib, haqqoniy tasvirlarga murojaat qiladi. U quyoshni keksa daraxt deb tasvirlashiga aslida uning eski hislari sabab edi. Chunki quyosh o‘z vatanida ham xuddi hozirgidek charaqlab turar edi. U quyosh sari ko‘z tashlar ekan, beixtiyor vatani yodiga tushadi. Bu o‘rinda vatan tushunchasi shoir uchun juda keng va chuqur ma’no kasb etgan edi. Uning qishlog‘i do‘stlari, yoshligi, sholizor oralab o‘tgan yolg‘izayoq yo‘l, Naktongan daryosidan tortib ilk maktabga borgan kuni, birinchi dil izhori, ilk quvonch va qayg‘ularigacha oz ichiga olar edi.

Yakka –yolg‘iz shoir, sening manziling
Ko‘k so‘ngida kulrang bulut o‘lkasi

Lirik kechinmalarni ifodalashda Cho Myonxi istiora va ma’joziy obrazlardan keng foydalanadi. Uning lirikasida allaqanday ichki bezovtalik sezilib turadi. Tuyg‘ularning to‘xtovsiz iztirobi obrazlarda o‘z ifodasini topadi. O‘sha davrdagi Koreyani she’rida «*ko‘z yoshlar o‘lkasi*» deb ta’riflaydi.Chunki tabiatan kulrang bulutdan uzoq vaqt yomg‘ir yog‘adi. Xuddi shu ramzdan Cho Myonxi vatani boshidagi zulm va adolatsizlikning davomiyligi ifodasi sifatida foydalanadi. O‘zini esa vatanidan olisda yolg‘iz his qiladi. Fikrni to‘g‘ridan to‘g‘ri ifodalash bo‘lgan so‘z narsalarning anglash qiyin bo‘lgan mohiyatini ham, ijodkorning ichki olamini ham o‘quvchiga tushunarli va ta’sirli yetib borishi uchun jonli obraz ramzga aylanadi. Cho Myonxi she’rlarida shoirning lirik «*men*»i o‘zini o‘rab turgan manzaraga singib ketadi.

Osmon yo‘lin qorong‘ulik qopladi,
Sen qush yanglig‘ parvozdasan muttasil
Shamol eltar iztirobli faryoding,
Og‘riq qadam bosib achchiq bo‘zlaysan.
Xayollaring yashil yo‘lin bosarkan
Abadiylik shu’lasini izlaysan.

Shoir qorong‘ulik qoplagan osmon yo‘lida qush yanglig‘ tinimsiz harakatda o‘z vatani sari intiladi. Zamon zayli va shum taqdir tufayli bu yo‘lning oxiri yo‘q lekin shoir bu cheksizlikdan o‘zi uchun abadiylik imkonini izlaydi. Nazarimizda, Cho Myonxi bu imkonni topa olgan. Chunki uning asarlari vatan sog‘inchi bilan yaralganligi uchun abadiylikka daxldordir.

가을

키 큰 사람이 얇은 햇빛 쪼이는 언덕 의에 올라서 부
두 손을 지광이에 얹고 생각을 영원에 놓아 끝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이제가 어느 때 뇨 이제가 어느 때?"
가슴은 빈한을 갖고 한숨은 높은 바람과도 같도다 긴 한숨 긴바람에 부쳐 보내며 거듭 탄식에 그는 눈 내려갑다.

2.1 **Muhammad Yusuf ijodida tarix sahifalaridan namunalar**

Xuddi shu ma’noda Muhammad Yusuf she’riyati o‘zbek xalqi mentalitetini ochib beruvchi she’riyatdir. Chunki Muhammad Yusuf avvalo, o‘z Vatanini oddiy farzandidek sevadi. Keyin esa shu sevgini qog‘ozga tushiradi. Shoir, yozuvchi – umuman ijodkorlar o‘y-xayollari, qalb haqiqatlarini

o‘z ijod na’munalarida ifoda eta olish imkoniyatiga ega bo‘lgan, Olloh nazari tushgan iste’dod egalaridir. Ya’ni qalbidagi his-tuyg‘ulari, kechinmalarini hech qanday zo‘riqishlarsiz tiliga jo qila olgan, qalamida ifoda eta olgan insongina haqiqiy ijodkor sanaladi. Bunday ijodkorlarning asarlari insonning eng shaffof maskani-qalbidan chiqqanligi uchun o‘z ixlosmandlarini tez topadi va yuraklarda mangu yashaydi.

Men dunyoni nima qildim,
O‘zing yorug‘ jahonim,
O‘zim xoqon,
O‘zim sulton,
Sen taxti Sulaymonim.

Mazkur satrlar bilan boshlanuvchi she’r shoir qalbining to‘ridan chiqqan eng go‘zal tuyg‘ular tarannumidir. Vatanini Sulaymon taxtiga o‘xshatgan shoir yuragida qanday hislar kechmagan deysiz. Quvonchli kunida ham, g‘amgin kunida ham unga hamdard-u hamxona bo‘lgan Vatani barchaga birdek nur sochuvchi quyoshdan ham ilig‘roqdir. Yassaviy, Navoiy, Mashrab kabi ulug‘ allomalar yurti bo‘lgan ushbu zamin haligacha ochilmagan bir qo‘rig‘ misoli. Shafqatsiz yovlarni yurtga kiritmagan Xo‘jand, Chingizxonni qanchalik dahshatga soldi. Temur Malik kabi mard, jasur o‘g‘lonlari bo‘lgan yurt Sirdaryoga sakrashdan ham tap tortmadi. Yov qo‘lida o‘lishni o‘ziga or deb bilgan Muqannaning qorachiqlari olovlarga sachradi. Vatani, xalqi uchun o‘z jonidan kechgan Shiroqlarni kim unuta oladi? Elni xalq qiladigan Jaloliddin, Bobur kabi sher haybatli farzandlari Kurdiston, Hindistonlarda yurganidan dili og‘rigan shoir bu holatlarni misralarda jo etadi.

Vatani uning uchun tarqab ketgan to‘qson olti urug‘dir. Ana shularni jamuljam ko‘rish istagi shoirni qalam olishga majbur etdi. Vatanining birgina «o‘g‘lim» deyishi uni osmonlarga olib chiqadi. Ulug‘bekni quchib, bor alamlarini to‘kishni xohlaydi. Qodiriyni sotganlarida ham «bolam» deb aytolmagan dudug‘ Vatan hasratlari uning yuragini parcha-parcha qiladi. Vataniga murojaat qilib «Sen – *shoxlari osmonlarga tegib turgan chinorim*» deya faxrlangan shoir Vatanini bo‘ynidagi tumori kabi asraydi-avaylaydi. Ulug‘lardan ulug‘ ekanligini ming yillar davomida iftixor bilan kuylab o‘tadi.

Vatan mavzusiga bag‘ishlangan she’rlari qatoridagi «Xalq bo‘l, elim» she’ri asl ma’nodagi madhiya. Shoir har bir milatning asosi o‘zligida deb biladi. Elining xalq bo‘lmog‘i uchun kuyib-yongan shoir yurtga yana allalar qaytishini, daryolar to‘lib oqishini istaydi. Ota-bobolari ruhini shod etish uchun ham elini xalq bo‘lishga chorlaydi. Xalq bo‘lishga sendan boshqa kim loyiq deya faryod urgan qalb sohibi elini moziylarga nazar tashlashlarini xohlaydi. Butun dunyoni egallagan Sohibqironning ham beshigini tebratgan sensan, yulduzlarga narvonni qo‘ygan ham sening bolang, bir mayizni qirqqa bo‘lib yegan ham sening bolang. Nega sen xalq bo‘lishga haqli bo‘lmasliging kerak? Ona xalqim, o‘zbek xalqim, daryo kabi mavj ur, toshqinlar qalblarga kirsin. Bayramlaringda ko‘z yoshlaringdan sevinch nurlari yog‘ilsin. Xalq bo‘lgin, Yurtboshing yoningda qanot bo‘lsin! Bir bo‘l, xalqim, qaddingni ker. Qadring baland shuni sen bil! Bu so‘zlar yuragi Vatan deya urgan inson qalbidan chiqadigan so‘zlardir.

Muhammad Yusufning «Izhori dil» she’ri ham Vatan madhi kuylangan she’rlaridan biri. Shoir she’rda Vataniga bo‘lgan muhabbatini kuylaydi. Bir kun singlim, bir kun onam, deya kimligini bilmay sevadi. To‘ralar to‘nidan tortib, tuzini yeb sotganlar pushaymon bo‘lib kelganlarida, u Vatani yonidan jilmay sevadi. Shoirga qora yer ham yulduzli osmon ham suyuk va qadrli. Dala kezib tovoniga kirgan azobli tikan ham ardoqli. Hattoki, kaftiga kirgan zirapchani ham olib tashlamasdan sevadi. Uni Vatanining bir bo‘lagi deya ataydi. Singlisi kabi ko‘rib sochlarini silaydi. So‘ksa ham onam deya gina qilmay birday yaxshi ko‘radi. Bir farzandning Vatanga bo‘lgan mehri bo‘lsa shunchalik bo‘lar.

Vatanini yuragining Olampanohiga qiyoslagan shoir dunyoni Vatanida o‘sgan jiydaning shoxiga o‘xshatadi. Bu dunyoda bor-u yo‘g‘i bo‘lgan Vatani uning hayoti kabi muqaddas. Bilol va

Habash Payg‘ambarimizga qanchalik itoatda bo‘lgan bo‘lsa, shoir ham Vataniga shunday qul bo‘lishni xohlaydi.

Biz xalqimiz ardoqlagan Muhammad Yusuf ijodini yuqoridagi fikrlarga eng yuksak namuna sifatida olishimiz mumkin. Zero, shoir qalami qalbi bilan hamohang ijodkor edi. U nimaiki yozsa, qalbi bilan yozar, hech qanaqa ortiqcha tashbehlarsiz ifoda etar edi. Shu sabab ham uning she‘rlari kirib bormagan xonadon, navolarini tinglamagan inson topilmaydi.

Keng kitobxon va xalqimiz orasida Muhammad Yusuf she‘riyatiga nisbatan «o‘qish va tushunish oson, sodda va samimiy yozilgan», degan fikrlar ko‘p bor aytiladi. Darhaqiqat, chindan ham shoir she’rlari sodda va ravon o‘qiladi. Ammo unga o‘xshatib yozish hammaning ham qo‘lidan kelmaydi. Uning oson yoziladiganga o‘xshab ko‘rinadigan misralari muxlislarini yig‘latadi, kuldiradi, o‘z og‘ushiga tortib oladi. Xo‘sh, buning siri nimada edi? Bu savolga qisqa qilib shoir qalbining tozaligi va samimiyligi, deb aytish mumkin. Bunday ijod qilish uchun albatta Muhammad Yusuf bo‘lish kerak. O‘zi kuylayotgan xalqini, Vatanini chin dildan seva olish lozim.

Muhammad Yusuf she’riyatining bosh mavzusi mehr-muhabbat, sevgi-sadoqat kabi insoniy tuyg‘ular va bu tuyg‘ularning bosh manbayi, gultoji Vatanga bo‘lgan behisob muhabbat va ehtiromni tarannum etishdir. Shoir «Izhori dil» she’rida shunday yozadi:

Vatan – yuragimning olampanohi
Bu dunyo bukri bir jiydaning shoxi.
Ko‘zim yoshi bilan sug`orib gohi,
Ko‘ksimda o‘stirgan gulday sevaman.

Vatanni tarannum etmagan, kuylamagan ijodkor topilmasa kerak. Chunki, ijodkor uchun o‘zi tug‘ilib o‘sgan maskani – Vatanini kuylashdek zavqli va sharafli baxt bo‘lmaydi. Vatan mavzusida yozilgan asarlarning tub mohiyati bir bo‘lsa-da, lekin ular biri bir-biriga o‘xshamaydi. Shu o‘rinda Muhammad Yusuf ijodida asosiy o‘rinlarda turuvchi Vatan mavzusidagi she`rlar o‘zgacha ohang va takrorlanmas misralarda jo bo‘lganligi sababli yorqin va ta’sirchan, deyish mumkin. Ya’ni, shoir lirikasida hech kim tasavvur qilmagan, ammo mos keladigan tashbehlarni ko‘ramiz. Bunday o‘xshatishlar boshqa hech bir ijodkor ijodida uchramasligini shoir asarlarining o‘ziga xos badiiy tili, deyish mumkin. Vatan haqida gap ketganda vujudimiz baxt bilan yengil titroqqa to‘ladigan go‘zal bir qo‘shiq bor. Bu qo‘shiqning matnini ham M.Yusuf qalamiga mansub? She’r «Tavallo» deb ataladi. Bu she’r har bir o‘zbek farzandi so‘z bilan ta’rif etolmaydigan tuyg‘usini qog‘ozga tushira olgan, shuning uchun ham bu she’r sevib kuylab kelinmoqda.

Oq yo‘rgakga o‘ragansan o‘zing bizni,
Ham yuvib, oq taragansan o‘zing bizni
Beshigimiz uzra bedor ona bo‘lib,
Kunimizga yaragansan o‘zing bizni
Fidoying bo‘lgaymiz seni O‘zbekiston,
Hech kimga bermaymiz, seni O‘zbekiston.

Yurtimizni hech kimga berib qo‘ymaymiz. Bu nido bugungi kun yoshlarining jarangli ovozidir. Shoir yozganidek bu yurtning Alpomishlari bor ularning nasli esa davom etaveradi

Qalqoning bor, kim qasd qilsa gar joningga,
Alpomishlar ruhi yor har o‘g‘loningga.
Asragaymiz giyohing ham gulday o‘pib,
Yovlar yaqin yo‘lamagay qo‘rg‘oningga.
Adoying bo‘lgaymiz seni O‘zbekiston
Hech kimga bermaymiz seni O‘zbekiston.

Shoir she’rining davomida yurtfurushlar taqdiri hamisha qanday yakun topishini she’riy baytlarda bayon qiladi. Bu misralarni o‘qigan har bir yosh avlod esa, Vatanga yanada kuchliroq mehr bilan tarbiyalanadi.

Tuzing tatib, unutganlar xor bo‘ladi,

Ko‘zlariga ikki dunyo tor bo‘ladi,
Shodon daming ko‘rolmagan yurtfurushlar,
Bir kun bir kaft tuprog‘ingga zor bo‘ladi.
Yoningda turgaymiz, seni O‘zbekiston
Hech kimga bermaymiz seni o‘zbekiston.

She’rni e’tibor bilan o‘qisak, oxirgi misralarda bir gapni takror qo‘llanilganining guvohi bo‘lamiz. «Hech kimga bermaymiz seni O‘zbekiston», birgina shu ahdning zamirida olam-olam ma’no mujassamlashtirilgan. Vatan barchamizniki, bu hayqiriq esa, hammamizning yuragimizdan chiqadigan so‘zlar, ona zaminni asrash esa, shu aziz tuproqning har bir farzandi uchun eng birinchi galdagi vazifadir.

3. Xulosa

Vatan – bu xalqning o‘tmishi, buguni va kelajagidir. Vatan – muqaddas qadriyat. Taraqqiyot vatandan boshlanadi. U insonning kindik qoni to‘kilgan joy, insonni ijtimoiy yetimlikdan asrovchi manzil, ma’naviy kamolot, fuqarolik maydoni, hayot maktabi, farovonlik va baxt-saodat o‘chog‘idir.

Inson uchun Vtan yagonadir. Vatanning katta-kichigi ham, boy-kambag‘ali ham bo‘lmaydi. Vatan tanlanmaydi. Vatan har bir kishining xususiy mulki emas. Shuning uchun ham Vatan pulga sotilmaydi, sotib olinmaydi. Vatan in’om etilmaydi, qarzga berilmaydi. Vatan har bir fuqaro uchun muqaddas va betakrordir.

O‘zbekiston Respublikasi Birinchi Prezidenti aytganidek, «Vatan sajdagoh kabi muqaddasdir». Vatanni eng oliy ne’mat singari boshimiz uzra baland ko‘tarib, har on va har soniyada uning tuprohini ko‘zlarga surtib, unga ta’zim aylash farzandlik burchimizdir. Muqaddas hadisi shariflarda ham «*Vatanni sevmoq iymondandir*», deyilgan. Iymoni but, vijdoni pok har bir inson vatnni sevadi, uni g‘animlar ko‘zidan asraydi, uning yashnashi va yashashi, hurligi uchun kurashadi.

Vatan mehrini, vatan sehrini, uning o‘’tabarligiyu ulug‘vorligini so‘z bilan ifodalash qiyin.

Har bir barkamol inosn vatan kamoloti va istiqboli, el-yurtining ozodligi va mustaqilligi uchun hamma narsani, hatto shirin jonini ham ayamaydi. Bu haqda Mavlono Fuzuliyning: «*mening bitta hayotim bor, bordiyu mingta hayotga ega bo‘lgan taqdirimda ham hammasini vatan uchun sarflagan bo‘lar edim*», degan so‘zlari har birimiz uchun bebaho o‘gitdir.

4. **Adabiyotlar ro‘yxati**

1. Zamonaviy koreys she’riyati antologiyasi. Tuzuvchilar: Saydazimova U, Choy So Yong, Xvan Li va boshq. – Toshkent. «Istiqlol» nashriyoti. 2014.
2.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Lee Peter H. –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3. Yusuf. M .Saylanma. – Toshkent. Sharq. 2005.
4. Yusuf. M . Xalq bo‘l elim. – Toshkent.O‘zbekiston. 2005.
5. Yusuf. M. Ulug‘imsan Vatanim. – Toshkent.O‘zbekiston. 2010.
6. Муҳаммад Юсуф Замондошлар хотирасида./ муҳаррир У. Қўчқоров. –Тошкент «Adib» 2014.
7. Солдатова М.В., Пак К.А. Современнауа литература Кореи. – Владивосток, 2003.
8. 김윤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 서울.: // 文學, 1990.
9.이정숙. 한국현대소설연구. – 서울, 1999.
10. https// Wikipedia
11.https//koryo-saram

Abstract

THEME OF THE COUNTRY IN THE WORKS OF CHO MYONXI AND MUHAMMAD YUSUF

Sardor NAZAROV
***Supervisor*: DSc, professor Saydazimova U.**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Homeland is the subject that people think about, talk about and sing about the most. The reason for the highest courage is the Motherland. World wars began when the question of homeland was raised. They live as a homeland. They are spiritually courageous.

The homeland is the sacred place where man and his descendants shed their umbilical cord blood. The homeland is the place of ancestors, the land, the land where the people have grown up, where their language, history, culture, customs and values are truly formed, grown and perfected.

The main theme of the work of the Korean poet Cho Myung-hee, the flowerbed of his poems is dedicated to the theme of the homeland. Because of the oppression in the poet's homeland, he was forced to occupy another place in the country, where the umbilical cord blood was shed.

Everyone loves and respects their homeland. But this concept has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for a person who has been separated from his homeland, far from his homeland and unable to return to it. For the man who walks on the soil of his homeland, the air he breathes, the soil he walks on, the trees he sees, and the mountains are all normal. But one knows that there is magic in these simple things only when you are away from it or when you are separated from it.

Muhammad Yusuf's poetry reveals the mentality of the Uzbek people. Because Muhammad Yusuf first of all loves his homeland like an ordinary child. And then he puts that love on paper.

It is often said among the general readership and among our people that Muhammad Yusuf's poetry is «easy to read and understand, simple and sincere». Indeed, the poet's poems are really simple and fluent. But not everyone can write like him. His seemingly easy-to-write verses make fans cry, laugh, and embrace.

Homeland i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 nation. Homeland is a sacred value. Development begins at home. It is the place where a person's umbilical cord blood is shed, a place that protects a person from social orphanhood, spiritual maturity, civic space, a school of life, a hearth of prosperity and happiness.

Key words: homeland, sognch, hijran, mother, history, umbilical cord blood, poetry, sacred value

ZAMONAVIY KOREYS YOZUVCHISI CHON YON TEK -IJODIDA MAVZULAR KO‘LAMI

Mahbuba ALLAMOVA
Ilmiy rahbar: DSc, professor U.T. Saydazim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Mundarija

1. Kirish
2. Chon Yon Tek ijodining o‘ziga xos xususiyati
2.1. Adib ijodida mavzular ko‘lami
3. Xulosa
4. Adabiyotlar ro‘yxati

Abstract

1. **Kirish**

Adabiy asardagi so‘z badiiy so‘zdir. Lekin har qanday so‘z ijodkor munosabatisiz badiiy bo‘la olmaydi. Badiiy obraz ham so‘z orqali yaratiladi. Darhaqiqat, «badiiy adabiyotda obraz yaratuvchi asosiy va yagona vosita so‘zdir. Lekin, badiiy adabiyotdagi so‘z oddiy so‘z emas, balki insondagi muayyan his-tuyg‘uni, holat va harakatni, o‘y va kechinmani o‘zgalar qalbiga, shuuriga ta’sir etadigan darajada ifodalaydigan soz‘dir»[76].

Badiiy ijod so‘z tanlashdan boshlanar ekan, har bir ijodkor uchun so‘z mas’uliyatini g‘oyat teran his qilish, oddiy so‘zlarni ham mukammal badiiy vositaga aylantirish, ular zimmasiga salmoqli ma’no yuklay olish nihoyatda zarur. Chunki, bunday so‘z asarni qaysi qismida bo‘lishiga qarab aniq badiiy niyatni ifodalashga, so‘zni polesimik (ko‘p ma’noli) va stilistik (uslubiy) xususiyatini aks ettirishga, ma’lum vazifa bajarishga xizmat qiladi. Zero, so‘z estetik ta’sir vositasi bo‘lib, muallif tildagi ma’no rang-barangliklari, shakliy turfaliklardan teran anglay olishga intiladi. Zamonaviy koreys nasrida badiiy so‘zdan foydalanish, so‘z jozibasi orqali kitobxon qalbiga kirib borishda Chon Yon Tek ijodining o‘ziga xos o‘rni bor.

2. Chon Yon Tek ijodining o‘ziga xos xususiyati

Koreys yozuvchisi va Chon Yon Tek 1894-yilning 18-yanvarida Janubiy Koreyaning Pxenyan shahrida tug‘ilgan. 1910-yili Chon Yon Tek Pxenyandagi Daesung o‘rta maktabini uch yildan so‘ng, tugatmay tashlab ketdi. 1918-yili Ayama Gakuindagi adabiyot fakultetini tugatgan adib dinshunoslik fakultetida tahsil olishni davom ettirdi. Chon Yon Tek Kim Dong In, Joohan, Kim Xvan va boshqalar biln birgalikda «Ijod» adabiy jurnalining harakatlantiruvchi kuchiga aylandi, o‘z adabiy faoliyatni boshladi.

«Ijod» **(«**창조**»)** adabiy jurnali 1919-yilning 1-fevralida Tokio shahrida xalqaro talabalar qatorida bo‘lgan Kim Dong In, Ju Yuhan va Chon Yon Tek tomonidan nashr etildi. Birinchi bo‘lim koreys tilida yozilgan bo‘lib, 81 sahifadan iborat. Asosiy asarlar orasiga Xanning yirik «Yong‘in raqsi» («불놀이») she’ri, Kim Dong Inning «Zaiflar g‘amginligi» («약한 자의 슬픔») hikoyasi, Chon Yon Tekning «Xesonnning o‘limi» («혜선의 사») hikoyalari kiritildi. Jurnalning to‘qqizinchi nashri Seulda Kim Dong In, Kim Chan Yong, Kim Hvan va Chon Yon Tek hamkorligida nashr etildi. 1921-yil 20-mayda jurnalning barcha sonlarida nashr etilgan materiallar to‘plam holiga keltirildi. To‘plamdan 70dan ortiq she’r, 21ta hikoya, 4ta pyesa va 49ta tarjima she’rlar o‘rin oldi.

1919-yili u o‘z ijodini «Ijod» jurnalining birinchi sonida «Xeyson tarixi» («약한 자의 슬픔») qissasini chop ettirish bilan boshladi. U 1923-yili Ayama Gakuen universitetining dinshunoslik fakultetini tugatgandan so‘ng Seul dinshunoslik universitetida professor bo‘lib ishladi. 1930-yili u AQShdagi «Tinch okeani» diniy seminariga a’zo bo‘lib, Xingsadan (milliy harakat)ga qo‘shildi. 1932-yili Koreyaga qaytib keldi. Adib avval Xvanxedodagi Bongsan cherkovi, 1938-yili Pxenyanda Jon va Xotin-qizlar maktabi, 1942-yili Pxenyan Shinri cherkovi rohibi sifatida faoliyat yuritdi. 1948-yildan boshlab Jungang diniy seminari professori lavozimida faoliyatini davom ettirdi.

Chon Yon Tek rohiblik bilan birga adabiy sahnada ham o‘z faoliyatini davom ettirdi. 1961-yili akademik va ommaviy axborot vositalarida, jumladan, Ta’lim Vazirligining tahririyat byurosida ishlash bilan birga koreys adabiyoti uyushmasining birinchi direktori ham edi. Samarali mehnatlari natijasi o‘laroq, 1963-yili adib «Koreya madaniyati faoli» medali bilan taqdirlandi. Uning qalamiga «Ahmoqmi? Dohiymi?» («천치? 천재?», 1919), «Zahar ichgan ayol» («독약을 마시는 여», 1921), «K va uning onasining o‘limi» («K와 그 어머니의 죽음», 1921), «Oq tovuq» («흰닭», 1924), «Xvasubun» («화수분», 1925), «Kichkina» («소», 1950), «Tong qo‘ng‘irog‘i» («새벽종», 1955), «Sichqoncha hikoyasi» («쥐 이야기», 1956), «Uy» («집», 1957) va «Ota va o‘g‘il» («아버지와 아들», 1957) kabi asarlar mansub.

[76] Саримсоков Б. Бадиийлик асослари ва мезонлари. – Тошкент. 2004. Б. 5.

Shuningdek, adib yaratgan «Osmonga termilgan ayol»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 1958), «Bitta qo‘y» («한마리 양», 1959), «Kungaboqar» («해바라기», 1959), «Oltin baliq» («금붕어», 1959), «Rojdestvo arafasidagi manzara»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 1960), «Injilni pastga tushiring» («거꾸로 맨 성경», 1961), «Hamma narsani bag‘ishlang» («모든 것을 바치고», 1961), «Tug‘ilgan kun» («생일파티», 1964), «Jim odam» («말없는 사람», 1964) va boshqa hikoyasi «Hayot bahori» («생명의 봄», 1920) kabi sarlari asosida qisqa metrajli filmlar ham suratga tushirilgan. «Yoshlik qo‘shig‘i» («청춘곡», 1938), «Shahidlar» («순교자», 1938) va «Personalizm» («인격주의», 1959) kabi asarlari asosida esa badiiy filmlar ishlangan.

Chon Yon Tek hikoyalarida ilk mavzular ko‘lamini mustamlakachilik davri ijtimoiy muammolari, poyoni yo‘q istibdod, shaxsiy hayot fojealari, cheksiz azob-uqubat, qashshoq vatandosh, insoniy ongning toptalishi kabi masalalar tashkil etdi. Xalq anglab yetmagan qisqa fursatda o‘tib kelgan ozodlikdan keyingi hayot qiyinchiliklarni adib asosan xristianlik e’tiqodi orqali yengishga harakat qildi. Lekin shunga qaramay yozuvchi ba’zi bir asarlarida millat va shaxsning kelajagini real tarzda chizishga intilgani seziladi. Bu yozuvchining ma’naviy yuksak iqtidoridan dalolat beradi.

«Xvasubun» hikoyasi mazkur davrda asos solingan neyroxyangpa (신경향파)[77] tashkiloti a’zolari fikrini o‘zida mujassam etadi. Ammo tashkilot a’zosi sifatida adib hikoyada odamlarning ibtidoiy jamoa tuzumida ham ahil va inoq turmush tarzini voqealar ketma-ketligida emas, balki koreys adabiyotiga xos xususiyat ramzlarda tasvirlagan[78]. Bu fikr mazkur davrda yashab ijod qilgan faylasuf shoir Xan Yon Unning «Itoat» she’rida o‘z tasdig ‘ini topadi:

Mayli aystsin odamlar sevamiz deb ozodlikni,
Men sevmasman erkni, sevaman itoatni.
Bunga sabab erkni bilmasligimmas,
Bor sababi sizga sodiq xizmat etmoqlik.
Sizga qilmoqchiman xizmat-beminnat,
Bunday xizmat anchayin totli,
Ozodlik va hurriyatdan ham.
Agar siz aytsayiz,bor boshqasiga,
Et sodiq xizmat,
Bunday bir buyruqqa also bo‘ysunmam,
Chunki bo‘lsam sodiq boshqa biriga,
Sodiq bo‘la olmam sizga hech qachon.

Neyroxyangpa atamasi birinchi marta Park Yang Xining «Neyroxyanpa adabiyoti va uning adabiy maqomi»da maqolasida qo‘llanilgan[79]. Mazkur davrda milliy ozodlik harakati tarafdorlari butun dunyoni larzaga solgan sotsialistik yo‘nalishga hamohang tashkilotga asos soldilar. Har bir tashkilot o‘z yo‘nalishiga ega bo‘lish bilan birga dekadentlik ruhiyatini ham aks ettirar edi. Bu borada eng faol jurnallar qatoridan «Kebek» («개벽»), «Yangi hayot» («신생활»), «Choson davri» («조선지광») kabi jurnallari munosib o‘rin egalladi.

2.1. Adib ijodida mavzular ko‘lami

Mazkur jurnallarda chop ettirilgan adibning «Kichkina» («소») hikoyada ozodlikdan keyingi qishloq hayoti tasvirlanadi. Hikoyaning qisqacha syujeti quyidagicha: Koreya qishloqlarining birida istiqomat qiladigan dehqon Xong Chang Su o‘zi va qishloq aholisi uchun sigir sotib oladi. Sigir ortidan kelgan daromad hisobiga sekin-asta qishloq iqtisodiy tanglikdan chiqib ketadi. Daromadi oshgan dehqonning ayoli endi qishloqda emas, mazkur davrda urf bo‘lgan shaharda yashashni istaydi. Lekin Chang Su dehqonchilik bilan shug‘ullanish va dehqonchilik ortidan kelayotgan daromad unga huzur bag‘ishlashi sabab ayolining taklifini rad etadi. Ammo keyinchalik qishloq ikki – Shimoliy va Janubiy

[77] Mazkur davrda asos solingan yangi tashkilot nomi.
[78] https://terms.naver.com
[79] 개벽:1925. 쪽12.

hududlarga bo‘linib ketadi. Shu bilan birga oilada, Chang Su va ayoli o‘rtasida ham kelishmovchiliklar yuzaga keladi. Bir kuni Chang Suning bir sigiri Shimol tomonga o‘tib ketadi va uni Shimolliklar o‘zlashtirib olishadi. Bundan xabar topgan Chang Su ikkinchi sigirini yashirish uchun uyiga shohib boradi. Afsus, uyida sigiri yo‘q edi. Uni allaqachon ayoli olib ketgan ekan. **«Kichkina» («소»)**
Chon Yon Tekning 1950-yili Pekminda fuqarolar urushi arafasida ikki mafkuraviy hududlarga bo‘linib ketgan bir millat taqdiriga ba‘gishlangan qisqa hikoyasidir. Yozuvchi qisqa hikoyada ijodining ilk sahifalarida gumanizm g‘oyalarini aniq ochib berishga muvaffaq bo‘ldi. Oddiy qishloq voqealari orqali Chon Yon Tek ikkiga bo‘lingan millat fojiasini real tasvirladi.

Shu bilan birga adibning rohiblik davrida ko‘rgan-kechirganlari «Rojdestvo arafasidagi manzara»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 hikoyasida bo‘rtib namoyon bo‘ladi. Hikoyada adib cherkovning chirkin hayotini, rohiblarning noqonuniy xatti-harakatlarini tanqid tig‘i ostiga oldi. Hikoya kitobxon va tanqidchilar tomonidan yuqori baholandi.

«Hayot bahori» («생명의 봄»)[80] Chon Yon Tekning dastlabki to‘qqizta hikoyasini birlashtirgan birinchi hikoyalar to‘plami hisoblanadi. To‘plamga «Ahmoqmi? Dohiymi?» («천치? 천재?»), «Fotosurat» («사진»), «Xvasubun» («화수분»), «Hayot bahori» («생명의 봄»), «Xeyzunning o‘limi» («혜선의 사»), «Shamolli oqshom» («바람 부는 저녁»), «Taqdir» («운명»), «Pxenyan qal’asiga qarab» («평양성을 바라보면서») va «Oq tovuq» hikoyalari kiritilgan. Bu Chon Yon Tekning mustamlakachilik davri, 1919-1925 yillar oralig‘ida nashr ettirgan deyarli barcha asarlarni qamrab olgan yagona to'plamdir.

Hikoyalar to‘plamining «Hayot bahori» deb nomlanishi haqida muallifning shunday yozadi: «Hayot bahori o‘tmishdagi hayotimning aksi, yodgorlik minorasidir»[81].

«Hayot bahori»ning birinchi nashri 1926-yili Sulhvakutubxonasi va Park kutubxonasida nashr etilgan.

Mazkur to‘plamga kiritilgan hikoyalar avtobiografik xususiyat kasb etadi hamda har bir hikoya yozuvchi hayotidan olingan qisqa lavhalarga o‘xshaydi. Muallif asosli ta’kidlaganidek, «Hayot bahori» mustaqillik harakati bilan bog‘liq qarashlarni real tasvirlashga xizmat qiluvchi hikoyalar to‘plamidir. Shu bilan birga bu hikoyalar tanqidchilar o‘rtasida turli munozaralarga sabab bo ‘ldi.

Chon Yon Tekning XX asr boshi ikkinchi o‘nyilligidagi badiiy olami mazkur hikoyalarda o‘z ifodasini topgan. «Ijod» adabiy guruhining asosiy g‘oyasini o‘zida mujassam etgan bu hikoyalar bayroq yanglig‘ qo‘ldan qo‘lga otishi lozim. Ko'rinib turibdiki, hikoyalar haqiqiy san’at asari sifatida muallifning «haqiqiy hayot», «kuchli inson», «shaxs» haqidagi fikrlarini ochib berishga qaratilgan.

«Hayotni qayta qurish» («생명의 개조», 1926), «Yu Gvanson» («유관순전», 1953) kitobi, «Adolat quyoshi» («의의 태양», 1955), kabi asarlari yozuvchiga mashhurlik olib keldi. «Osmonga termulayotgan ayol»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 1958) va «Chon Yon Tek asarlar to‘plami» («전영택창작집», 1965)da adibning noyob asarlari joy oldi[82].

1968-yili Chon Yon Tek yo‘l transport hodisasida halok bo‘ldi. Hozirdgi kunda Chon Yon Tek istiqomat qilgan uy adib uy muzeyiga aylantirilgan.Uy muzeyda adib qalamiga mansub barcha asarlar va hayotidan tushirilgan suratlar joy olgan[83].

Chon Yon Tek yaqin do‘stlari bilan suhbat jarayonida bir vaqtning o‘zida ikkita sohada faoliyat yuritish murakkabligini takror-takror aytib afsuslanganligi haqida ma’lumotlar uchraydi. Bunda Chon Yon Tek ham yozuvchilik, ham rohiblikni nazarda tutadi. U o‘zini har ikki sohada ham mohir deb hisoblamaydi. Shu sababli u inson bir sohada muntazam ravishda shug‘illanishi samaraliroq bo‘ladi, deb maslahat bergan. Lekin shunga qaramay yozuvchi o‘zidan keyin «Xvasubun» kabi ajoyib hikoyalar

---

[80]박상준:«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출판, 2000.

[81] 김윤식: «한국 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82]송하춘,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1985.

[83] «전영택 집 터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텔링 개발), 2010

yozib qoldirdi hamda rohib sifatida ham tahsinga loyiq ishlar olib bordi. Shuningdek, u faqat kattalar uchun emas balki bolalar uchun ham qator asarlar yozib qoldirdi[84].

Chon Yon Tek o‘z hikoyalarida so‘zlashuv uslubidan unumli foydalangan, uslubda katta o‘zgarishlarni amalga oshirgan. Yangi adabiy tendensiyalar, tabiatshunoslik va realistik adabiyotga asos solgan. To‘laqonli erkin she’riyatning rivojlanishiga katta hissa qo‘shgan.

4. Xulosa.

Chon Yon Tek umri davomida ikkita kasbda faoliyat ko‘rsatgan bo‘lishiga qaramasdan, ikkala kasbning ham ko‘zga ko‘ringan vakili hisoblangan. Ammo u do‘stlariga ikkita kasb tanlashi, uning katta xatosi ekanligini bot-bot takrorlagan. Umri ayanchli yakun topganiga qaramasdan, kelajak avlodga o‘zidan yorqin iz qoldirgan. Hozirda adibning umrining oxirigacha istiqomat qilgan uyi «Chon Yon Tek uy muzeyi»i hisoblanadi va u yerda Chon Yon Tekning fotosuratlari, yozgan asarlari, o‘qigan kitoblari saqlanib kelinmoqda.

Chon Yon Tek qisqa umri davomida 40dan ortiq hikoya va o‘zining sevimli hikoyalarini jam qilgan hikoyalar to‘plamini yozib qoldirdi. Adib hikoyalari zamonaviy koreys adabiyoti rivojiga ulkan hissa qo‘shdi. Chon Yon Tek hikoyalari mavzular ko‘lamining ko‘pligi va rang-barangligi bilan ham o‘z zamonasining yozuvchilari hikoyalaridan ajralib turadi.

5. Foydalanilgan adabiyotlar:

1. Saydazimova U., Choy So Yong, Xvan L. va boshq. «Zamonaviy koreys she’riyati antologiyasi» – Toshkent, «Istiqlol» 2014.
2. Саримсоков Б. Бадиийлик асослари ва мезонлари. – Тошкент. 2004.
3. 개벽:1925.
4. 박상준:«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출판, 2000.
5. 김윤식:«한국 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6. 송하춘,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1985
7. 문화원형백과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텔링 개발: «전영택 집 터 문화콘텐츠닷컴», 2010
8.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전영택»(인물사전)
9. http://people.aks.ac.kr
10. https://terms.naver.com

Abstract

THE SCOPE OF TOPICS IN THE WORK OF A MODERN KOREAN WRITER CHON YOUNG TEK

Maxbuba ALLAMOVA

***Supervisor*: DSc, professor Saydazimova U.**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Aforementioned article was comparatively analyzed, the life and work of Chon Young Tek and the scope of his works. The time when the writer lived and worked was a very difficult year for Korea. However, during his student days in Japan, Chon Young Tek was able to publish his work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Korean writers. The writer also served as a priest. As a result of his hard work, he was awarded various titles. During his lifetime, the writer witnessed the division of Korea into two and was deeply saddened by it and reflected on it in his story. The stories of Chon Young Tek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modern Korean literature.

Key words: korean modern literature, belles-letters, professor of religious, faculty of religious, national movement, colonial period, primitive community system, the tragedy of the nation.

---

[8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전영택» (인물사전) http://people.aks.ac.kr//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 В РАССКАЗЕ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Й»

Шохсанам АКРАМ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ф.н. Ким В.Н.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Ли Хёсок- яр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2.1.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 в рассказе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й»
4. Заключение
5.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С 1910 по 1945 год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оккупирован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ей. В этот период Корея вся власть принадлежала японск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в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полуостров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лс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лане,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были сформированы основы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ндустрии, повысился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в многократно увеличилась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Параллельно положительным процесс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проводилась жесткая авторитар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85].

Жесткая дискриминац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языку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возродило в корейцах дух противоборства, в связи с чем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отошёл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85] Kim Brandt. Kingdom of beauty: mingei and the politics of folk art in Imperial Japan. –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 P. 25.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ях на *вэньяне*[86]. Этот период можно назвать зарождением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ак как писатели стали творить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же в 1920-1930-х годах все произведения были написаны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разговор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звернулось движение за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стал активно употребляться лишь с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

В целом,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начале XX в.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лиял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ых жанров, стилей и направлений, а также на проблематику сюжетов и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героев, что отражало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в литературе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Одним из та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является «Клуб фантазий» («공상구락부») Ли Хёсока.

2. Ли Хёсок – яр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Ли Хёсок – известный корейский писатель, заложивший основы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ый дебют состоялся в 1928 году с произведения о социальном неравенстве «Город и Призрак», в котором писатель сосредоточил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вопросах власти и порядка в городе, жизни и быту городской бедноты. Им такж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т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к: «Хрупкий красный свет», «Побережье Норён», «Послание с Северного полюса», «Философия Мачжак» и др.

Если в начале свое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у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Ли Хёсока были наполнен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идеями, то в более поздние годы, его мировоззрение резко меняется, писателя стали волновать э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а основными темами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стали изображение красоты природы. Однако,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было наполнено не только эстетизмом, но и такими серьезными темами, как вопросы морали и порочная любовь.

Ли Хёсок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более 100 произведений. Он писал не только прозу, но и стихи, которы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еще во время учёбы, также эссе, критические статьи, пьесы, сценарии и переводы произведений. Его репрезентативными работами являются «В море возле России», «Подсолнух», «Сборник произведений Ли Хёсока», «Цветочный горшок» и «Бескрайнее синее небо» и т.д.[87]. Писатель опубликовал более 110 эссе, а его литературный шедевр – «Сжигание опавших листьев» был издан в учебниках для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Ли Хёсок был фанат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а, его перу принадлежат пьесы и серия сценариев «Хва Рюн», написанная к кинофильмам. В 1930 году вместе с Ким Ю Ёном, Со Кван Чже и Ан Сок Ёном он создал «Ассоциацию писателей сценариев Чосон» Считается, что творчество Ли Хёсока стало импульсом для зарожд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Корее[88]. В связи с вышеизложенным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Ли Хёсок внес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2.1.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 в рассказе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текст рассказа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й»,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 виды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 и как они воплощаются в единую систему.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классифик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е противоречат друг другу, а дополняют одна другую. Классификация образов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Элементарный уровень (словесная образность).* Здесь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наращения значения значений, стилистические фигуры, тропы;

---

[86]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 использовавшийся в Китае, Корее и Японии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87] 이정숙. 한국현대소설연구. – 서울: 깊은샘, 1999.

[88] Who’s Who in Korean Literatur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1996.

2. *Образы-детали*. Образ-деталь, как правило, строится из множества словесных образов и является более ощутимым звеном при анализе образов более высокого порядка;

3. *Пейзаж, натюрморт, интерьер.* В ряде случаев эти образы не носят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являясь частью образа человека, но в других ситуациях эти образы могут быть совершенно самодостаточными;

4. *Образ человека.* Образ человека становится по-настоящему сложной знаковой системой лишь в 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он становится центром произведения[89].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рассказе Ли Хёсока «Клуб фантазий» ведется от автора, который особо не акцентирует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Сам рассказ начинается с диалога о мечтах героев.

«– О чем вы мечтаете? Вед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ь, надо иметь хотя бы одну мечту...

– Вы дожили до тридцати лет и до сих пор занимаетесь самообманом, не надоело? О чем в наше время можно мечтать?

– А как можно жить, ни о чем не мечтая? Если не мечтать, откуда возьмутся силы для жизни?

– Мечта – это понятие средних веков, какие могут быть мечты сегодня? Неожиданное наследство в несколько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ли, как в далеком прошлом, любовь несравненной красавицы к простому рабочему? Это все древние сказки. В сегодняшнем мире нет места для мечты.

– Тогда зачем ты живешь? Чего желаешь?

– У меня нет ответа на этот вопрос. Могу только сказать, что я жду завтрашний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точно знаю, что он наступит»[90].

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диалогах очевиден общий настрой героев, глубоко разочарованных в жизни, не уверенных в своем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не имеющих никаких перспектив состояться как личность. Это были реалии эпохи, когда человек не ощущал себя свободной личностью.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их фантазиям, появляется надежда на дальнейшую счастливую жизнь. Мечты - объединяют четырех друзей, у которых больше нет других общих интересов.

Дале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даёт нам кратк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персонажей:

«Я немного расскажу об этом клубе. В нем состояли Чонгхе, почитающий литературу и выделяющийся из толпы своей красотой, Чонма, недавно отрастивший усы, кривоносый Пекку, мечтающий стать пилотом, и Унсим с нескладной фигурой. Этих четверых можно было всегда встретить в какой-*нибудь из чайных – они слушали музыку, попивали кофе и лелеяли глубоко в своих душах меч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не хуже, чем у других»*[91].

Фантазии молодых людей сродни вымыслу, связанной с устремленностью изменить настоящую жизнь, сделать его современной, счастливой.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вествовании Чонма делится подробно своей фантазией. Так, один из них, Чонма мечтает поехать на маленький островок и стать вождем племени «соверш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Общество, где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изнурительный труд, но будет искусство и будет музыка, обще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наслаждаться работой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чудесных мелодий. Стать вождем такого общества - мечта всей моей жизни».

Следующий герой – Пеку мечтает стать пилотом, покоряющим воздуш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

[89] Николаев А. И. Основы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Иваново: ЛИСТОС, 2011.

[90] Клуб фантазий: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проза / [сост. Банг Мин Хо]; пер. с кор. Инны Нигай. – Спб : Гиперион, 2011. Здесь и далее цитируется из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издания.

[91]

«…Раньше я думал, что мне удас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ее, но я упустил то время, когд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пилотом, и моя мечта осталась только мечтой…»

В ответ на эти мысли Чонгхе упрекает друзей в том, что их мечты слишком детские и несбыточные. Его мечта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поиски «Клеопатры XXI века», которую считает вполне реальной. Это возмущает его друзей, что находит в отражение в ег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В отличие от нас всех он не был ничем связан и не слишком беспокоился о том, что непременно нужно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Он спокойно жил, много читал,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в отличие от нас безмятежно наслаждался жизнью».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лны дерзновений. Завязка завершается фантазией Унсима, именно с истории этого персонажа можно маркировать кульминацию сюжета. Его главная мечта – совершить кругосвет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и прославиться. Однако, он также, как и его друзья, не совершал особых усилий для ее реализации, но Унсим, в отличие от своих друзей пытается найти дело, чтобы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ю мечту.

«*В один из дней Унсим, вернувшись из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появился перед друзьями, держа в руке странную вещь. Оказалось, что за этой вещью он специально ездил к себе домой, получив письмо от друга. То, что он привез, было куском редкой руды из горных районов 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Все в той же атмосфере чайной комнаты, где витала дымка фантазий»*[92].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является кульминационной, так как последствия этого события повлияют на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героев. Унсим сделал всё,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ал часть своей земли, заплатил за право на горнодобычу, налоги и теперь торопился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 руднике,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восхитило и вдохновило его друзей. К ним пришло осознание,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времени за разговорами в чайной – абсолютно бесполезно и бессмысленно и пора чем-нибудь заняться тоже.

Дальнейше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рассказе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две части: две схожие ситуации, но с различным итогом. Происходят два похожих события, только с разницей во времени: дважды Чонгхе встречает Унсима, после его возращения с малой родины. Первая ситуация – отъезд Унсима по делам бизнеса, который повлиял на скорой распад «Клуба фантазий»:

« – Эй, друг, попробуй угадать, сколько денег у меня в кармане. – Унсим улыбаясь, похлопал себя по груди, намекая, что его карман полон.

– Я не могу думать ни о чем, кроме того, что сейчас ко мне пришли удача. Я начал эту работу, но не думал, что все пойдет так хорошо. Это просто поразитель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день ко мне приходят сомнения, может ли такое быть и правда ли все это. Вскор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ы начали рыть, мы наткнулись на богатую жилу. Невозможно понять творца – то ли это насмешка над человеком, то ли еще что-нибудь».

Пекку и Чонма нашли работу и перестали сидеть сутками в чайной. Однако, этот подъём завершается падением во второй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о вторым появлением Унсима в чайной «Мимоза»:

« – Что же ты не спрашиваешь: «Угадай, сколько денег у меня в кармане?» Наверное, твой карман и в этот раз полон?

– Теперь я понял, что никогда нельзя расслабляться, если твои дела идут хорошо.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богатая жила оказалась не такой уж богатой и почти сразу после начала работ оскудела. Все было впустую – я вложил в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все прочее сумасшедшие деньги, и у меня не осталось средств даже на бурение одной скважины. Не зная, что делать,

---

[92] Клуб фантазий: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проза / [сост. Банг Мин Хо]; пер. с кор. Инны Нигай. – Спб : Гиперион, 2011.

я от беспокойства перестал спать по ночам. Теперь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все это не что иное, как шутки судьбы».

Геро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еалиями жизни, выслушав длинное объяснение Унсима о крахе его бизнеса, друзья не знали, что ответить. Разочарование было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ым, как будто это было их дело, – они не знали, как утешить или ободрить друга. Их стремление к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свободе сходит на нет, когда внешние факторы мешают осуществиться их мечтам. Рассказ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исьмом Унсима к своим друзьям, где он намекает им, что покончит с собой, так как не справился с реализацией своей мечты. Друзья были глубоко потрясены, но всё же верят, что ничего ужасного не случится, ведь они отправили ему телеграммы со словами поддержки.

« – Унсим выстоит. Он опять начнет добывать руду, достигнет большого успеха, и наши фантазии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воплощены в жизнь.

Так эти три человека возродили в себе надежду на светлое завтра, нашли нить света в этом отчаянном мире, поймали ее и вспомнили о своих прошлых мечтах; они желали Унсиму новых свершений и молились за него. В их затуманенных печалью глазах снова появились уверенность и спокойствие, и они бодро, с новыми силами зашагали в будущее».

Автор пытается нас убедить в том, что финал у этой истории довольно светлый. Однако,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исход жизни Унсима печальный. Его друзья убеждены в этом тоже, но не могут признаться себе в этом, так как эта мысль помешает их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полной фантазий. Тем не менее, основная мысль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ключена во фразе Пеку:

« – Фантазии, как мыльные пузыри, быстро исчезают.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предугадать исхода своих дел. Сломанная фантазия, разбившаяся мечта - почему-то мне сейчас хочется плакать... Мне очень грустно»

Стремление к либерализму и индивидуализму в ту эпоху не могло превзойти колосс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реальности, с которой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героям рассказа «Клуб фантазий». 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изначально не было перспектив на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Автор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при любых усилиях, итог давно предрешен.

4. Заключение

Исходя из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рассказ «Клуб фантазий»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реалистиче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 литературе. Ли Хёсок, который был знаком с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ой и её «индивидуалистической» концепцией, в этом рассказе пытается отойти от присущего корейцам – коллективизма и затронуть проблемы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Автор пользуется литературным приёмом, выделяющий личность каждого персонажа – мечтой. Мечты в свободном и либер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будут разными, что и будет их отличать от других индивидуумов.

Рассказ ярк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тяжелую эпоху и реалии, с которыми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героям. Реальность гнёта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тормозило развитие идей либерализма и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однако писатель выражает надежду на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через перспективные и позитив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других героев.

5. Библиография

1. Курбанов С.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 СПб.: Изд-во СПб ун-та, 2009.
2. Клуб фантазий: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проза / [сост. Банг Мин Хо]; пер. с кор. Инны Нигай. – Спб: Гиперион, 2011.
3. Николаев А. И. Основы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Иваново: ЛИСТОС, 2011.
4. Хализев Е.В. Теория литературы. Учебник. 3-е изд., испр. и доп. – М.: Высшая школа, 2002.

5. Kim Brandt. Kingdom of beauty: mingei and the politics of folk art in Imperial Japan. —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 Duke University Press c.
6. Who's Who in Korean Literatur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1996.
7. 이효석. 공상구락부. 한국문학전집, 2017.
8. 이정석.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정치학 -이효석의 «공상구락부». – 우리어문학회, 2004.

Abstract

THE SYSTEM OF IMAGES IN LEE HYO-SEOK'S STORY «FANTASY CLUB»

Shokhsanam AKRAMOVA

Supervisor: Doctor of Philosophy science, Kim.V.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system of artistic images in the story «Fantasy Club» by Lee Hyo-Seok. Lee Hyo-Seok in this story is trying to move away from the inherent in Koreans - collectivism and touch on the problems of individuality. The author uses a literary technique that highlights the personality of each character – a dream. Dreams in a free and liberal society will be different, which will distinguish them from other individuals.

The story perfectly demonstrates the difficult era and the realities that the characters had to face. The reality of the oppression of the occupation hampered the development of the ideas of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Despite the fact that one of the main characters has an unfortunate fate, the author expresses hope for a bright future through promising and positive statements from other characters.

Also,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k of Lee Hyo-Seok, the article examines the era in which the writer lived and worked and which had a huge impact on the formation of his literary direction.

Key words: Lee Hyo-Seok,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Fantasy Club, dream, fantasy, artistic imagery, individualism.

ТРАНСФОРМАЦИЯ ЖЕНСКОЙ СУДЬБЫ В РАССКАЗЕ ШИН КЁН СУК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Юлия ЛИ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ф.н. Ким В.Н.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Шин Кён Сук- ярк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современной женской прозы
2.1. Психологизм в раскрытии образа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многие столетия оставалось без изменений, – она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лишь в контексте семьи, и не имела прав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явления своей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в обществе. Современная Южная Корея во многом сохранила прежн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но сам фак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же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ее популярность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теперь у женщины появилось

стремление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как личнос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этого служит творчество писательницы Шин Кён Сук.

2. Шин Кён Сук – ярк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современной женской прозы

Творчество Шин Кён Сук стало новым витком развития женской прозы начала 1990-х годов. Ее тонкий, поэт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ый авторский стиль привнес в читательскую аудиторию, отягощённую жесткими рамкам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едыдущ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ощущение новизны и свободы.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сер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Шин Кён Сук предвосхищала приход новой эры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и личного автор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выходящими за рамк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80-х и 90-х годов XX века. Это явление ярко отражено в ее рассказе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1992), который может служить образцом рассказа, где обсуждаются проблемы чувства и долга. Автор ставит вопрос, имеет ли женщина право на любовь, если эта любовь принесет страдания другим людям, и решает его традиционно, долг оказывается более значимым, чем чувства.

Рассказ написан в форме письма любимому человеку. По компози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е произвед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ассказ в рассказе», две любовные истории. Одна из них происходи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ероиня любит женатого мужчину, вторая история – детск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оторые накладываются на собственные переживания героини и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а выбор ее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и.

В рассказе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ярко чувствуется влияние запад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изведений европ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содержащих идеи экзистенциализма. Как известно, философия экзистенциализм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роблемы отчуждения человек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и сущности, для обретения которо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стать свободным.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 достигает в ситуации,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которой требуется сделать нравственный выбор. Выбор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амим человеком, исходя из его сущности. В рассказе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идеи экзистенциализма именно в плане обретения героиней нравственной свободы через собственный выбор.

Изложение ведется от лица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и приобретает характер исповеди, что усиливает впечатление от рассказа. Героиня рассказа, женщина – «Я», признается в форме письма женатому мужчине в своих сердечных чувствах, которые она не может разорвать два года.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나의 하루는 이 치받침으로 시작해서 이 치받침으로 끝나곤 했으니, 나에겐 오히려 동무 같은 감정이예요. 당신을 만날 때의 반가움, 당신의 얼굴을 만져 보고 싶은 수줍음, 당신이 없는 동안의 그리움, 누구에게도 당신을 자랑할 수 없어서 곧잘 얼굴이 발그레해졌던 무안함까지 그 치받침 속에는 섞여 있습니다»[93].

«С тех пор, как я полюбила тебя, мой день начинался с этого пожара в груди и заканчивался так же, поэтому это чувство стало мне близким, как друг. В этом состоянии души смешались и чувство радости при встрече с тобой, и стеснительное желание коснуться твоего лица, и тоска, когда тебя нет рядом, и чувство стыда, такое, что я вся заливалась краской от невозможности никому с гордостью говорить о тебе».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рассказ, написанный в эпистолярном жанре позволяет героине максимально деликатно и честно раскрыть свое тайное внутреннее «Я» объекту, к которому она обраща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е формы письма описывают воспоминания героини, связанные с ее прошлым и настоящи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едется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оно переплетается с повествованием второго рассказчика. Данный факт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духа автора в поиске новой формы рассказа.

В рассказе композиционно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несколько смысловых блоков:

1. Ранее детство героини;

---

[93]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Перевод автора статьи.

2. Появление «женщины»;

3. «Разве я – ни одна из них?»

4. Звонок возлюбленному.

Композиционно первую часть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 экспозицию (перв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связанное с ранним детством); завязку (втор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связанное с появлением «женщины»); развитие действия (третье воспоминание, связанное с судьбами других женщин и вводом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персонажей); четвертая часть – кульминация. Звонок возлюбленному – развязка рассказа.

В сюжетной линии переплетаются два врем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отором живет героиня, и прошлое, представленное ее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где лейтмотивом проходит мысль о любви, которая не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а. Это сделало произведение более ярким и сыграло су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е рассказа.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форма вспоминания прошлого – это способ, которым «Я», рассказывает свою историю. Дан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историю о эволюционном развитии личности, поскольку в ней изображен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молодой девушки и процесс её взросления. Тематика рассказа раскрывает боль расставания с любимым человеком.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это любовь «запретная», которая неизменно приведет к мучительной, нестерпимой сердечной боли.

В рассказе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героиня «убивает» свою любовь. Автор, проведя её через тяжелые испытани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заставляет увидеть цель жизни, обрести гармонию. В этом заключается особенность фабул Шин Кён Сук, так выражается ее отношение к жизни.

2.1. Психологизм в раскрытии образа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Рассказ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 это одна из репрезентативных работ нового потока в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е, поскольку в нем скрупулезно раскрывается внутренняя психология человека. Произведение демонстрирует тривиальную тенденцию, детально раскрывая внутреннюю сторону личности 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аморефлексии. В раскрытии образа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Шин Кён Сук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а ретроспекцию, исповедь, монологи и диалоги. Эт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омогают е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верно раскрыть тайну душевных побуждений героини, ход ее мыслей, переживаний.

Повествование рассказа начинается с описания природы, на фоне которой читатель знакомится с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й, – автор через явления природы, не просто описывает пейзаж, а показывает переживания, тоску, любовь и одиночество.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산은 푸르고. 푸름 사이로 분홍 진달래가... 그 사이... 또. 때때로 노랑 물감을 뭉개 놓은 듯, 개나리가 막 섞여서는. 환하디 환했습니다. 그런 경치를 자주 보게 돼서 기분이 좋아졌다 가도 곧 처연해지곤 했어요»[94].

«Только что 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и дорога, ведущая в деревню, была очень красива. Ярко-зеленые горы… Сквозь зелень – розовые азалии… в промежутке… опять…местами, словно растертая желтая краска… беспорядочно разбросаны форзиции…так ярко-ярко. От этой красоты, стоящей все время перед глазами, настроение вроде улучшилось, но скоро опять стало грустно».

Картина природы раскрывает исто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характера, способствует глубокому пониманию внутреннего мира героини. Нужн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мастерству писательницы, которая сумела показать разную роль пейзажа в рассказе.

«시누대가 있던 자리에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봄에 그 아스팔트를 뚫고 죽순이 솟았다더니, 제 마음에도 바로 그런 요동이 일었어요»[95].

---

[94]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95]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На том месте, где когда-то рос бамбук, положили асфальт; прошл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и вот однажды весной ростки бамбука пробились сквозь асфальт. И сейчас в моей душе как раз происходит нечто похожее».

Здесь это и фон, на котором происходит действие,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душевного состояния героя, и своеобразное обрамление сюжетного хода, и создание особой атмосфер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исательница, создавая пейзажную зарисовку, стремится не только отразить в ней душевное состояние героя, но еще добавить элемен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не замечаются героиней за пеленой счастья.

В рассказе героиня представлена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независимая женщина, чувство долга и причастности к сообществу остается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ее внутреннего мира и, как правило, определяет ее поступки. Семейная история девушк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ее детских годах, доминируют в настоящей жизни героини. В этом и состоит причинно-следственная связь, автор объясняет читателю, почему у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нет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расстаться с любимым мужчин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блема женского чувства и долг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рассказе реша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 во имя достижения гармонии долг побеждает чувства.

В рассказе автором отображен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амосознания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через встречу с «женщиной», которая была для нее объектом восхищения. Однако столкнувшись с реальностью,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осознает, что была лишь искаженным отражением той «женщины» и не желает такой жизни. В итоге, она смогла обрести себя,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всего, чего хотела.

«이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힘든 것을 모르고서 저는, 이 마을에 내려와 제 마음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께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일도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한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어제는 빨래터에서 이 사실이 어찌나 낯선지 물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르르 흩어지는 송사리 떼들… 그래도 몇 년만에…숨을… 깊은… 숨을…들이쉬는 것 같습니다»[96].

«Когда я начинала эти строки, у меня впервые появилось желание самой решать, как мне жить. Я не знала, насколько это будет сложно, и, приехав сюда, наверно, верила, что смогу в письме объяснить тебе все, раскрыть свою душу. Сейчас, после долгих раздумий, мне кажется: когда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со мной, я не была хозяйкой своей судьбы. Вчера на речке, там, где стирают белье, этот факт показался мне таким непривычным, что я долго смотрела в глубину вод… Стайка рыбешек рассыпала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И все-таки мне показалось, впервые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я вздохнула… глубоко… вздохнула… всей грудью».

3. Заключение

В рассказе Шин Кён Сук «Там, где стояла фисгармония»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е понимание мира, истоки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в древней мифологической модели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воссоздание и поддержание космического порядка.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в произведении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несправедлив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женщине не звучит путем прямого обличения патриархальных устоев в семье и обществе. Автор описывает судьбу своей героини, которой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между долгом и женским счастьем. Но подтекст этой житейской истории очевиден: женщины уже не желают оставаться бесправными существами, они хотят быть достой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исательницей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возник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атриархальными и нов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

[96]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Героиню произведения Шин Кён Сук волнуют проблема отношений в семье, касающиеся внутреннего мира женщины, поиска смысла жизни. Они не связаны с деньгами, карьерой и стремлением добиться высок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обществ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автор описывает традиционный тип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в которой сильно проявляется материнское начало, для которой чувство долга превыше личного счастья. В то же время, в рассказе перед нами предстает образ современной женщины, способной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выбор, стремящейся жить интересной, полнокровной жизнью, которую волнует красота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и всё происходяще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3.
2. Kwon Young M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as Division Literature// Korea journal. – Vol. 27. – Seoul, 1987.
3. Kwon Young-Min. Modern Korean Literature (11)// Journal of Korean Studies. 2001. Vol.14. Yung-Chang Kim. Women of Korea. A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1945. – Ewha University Press. – Seoul, 1997.
5. https://ru.qaz.wiki/wiki/Shin_Kyung-sook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A WOMAN'S DESTINY IN SHIN KYUNG-SOOK'S STORY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ONCE WAS»

Yulia LEE

Supervisor: **Doctor of Philosophy science, Kim.V.**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works of Shin Kyung-sook, where the transformation of a woman's destiny is considered on the example of her work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Once Was». This story allows us to trace the process of a Korean woman's awareness of her purpose in society in connection with new trends in the country and the moral and eth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changes.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Once Was» is a work where the author discusses the problems of feelings and duty and asks whether a woman has the right to love, if this love brings suffering to other people and resolves it traditionally, duty turns out to be more significant than feelings.

Key words: Shin Kyung-sook, Modern female prose, existentialism, retrospection, psychologism, monologue.

МОТИВ НАСИЛИЯ В РАССКАЗЕ ЛИ МУНЁЛЯ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Бусора КИНЖЕЕ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ф.н. Ким В. Н.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Тематическое и жанров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творчества Ли Мунёля
2.1. Мотив насилия в рассказе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невзирая на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ей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XX столетия,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1950-х годы, сумела сохранить свой голос, так же, как и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в литературе отражены тема власти, проблемы насилия и бесконечные страдания народа.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жизненных проблем в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было весьма сложно, однако неизменным фактом остается какой отклик находили эти темы в жизни народа[97]. Эти темы находят отражение в творчестве 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Ли Мунёля.

2. Тематическое и жанров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творчества Ли Мунёля

[97] Конрад Н.И.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Конрад Н.И. Восток – Запад: Статьи. – М.: Наука, 1972.

Ли Мунёл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послевоенных писа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Он родился 18 мая 1948 года, Юнъян, Северный Кёнсан. Будучи в подростковом возрасте, его отца обвинили в преступных связях с коммунистами и его семье пришлось бежать на Север.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им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лицом к лицу со мног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о и преследов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Эти события повлияли отразились на здоровье юноши, он впал в глубокую депрессию и был в шаге от самоубийства. Пытаясь абстрагироваться 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н погружается в мир литературы, в котором видит единственное спасение. Постепенно от чтения он переходит к писательству[98].

В 1979 году состоялся литературный дебют Ли Мунёля, ознаменованный публикацией нескольких реалистических рассказов на социальную проблематик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заявил о себе как о талантливом, самобытном писателе. Ли Мунёль был «мастером литературных жанров»[99],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и короткие рассказы, повести, романы, драма.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Ли Мунёля известно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и переведено на англи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итальянский, русский и др. языки. Ег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творения и по сей день не теряет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100]. Героями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были люди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начиная от чиновников и заканчивая школьниками. Как и большинство писателей пост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Ли Мунёль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нередко поднимает политические темы, и тема 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 стала для него исключением.

Возможно, ни одна из работ Ли Мунёля не привлекала столько внимания и не была так широко известна миру, как его рассказ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получивший корейскую престижную литературную премию имени Ли Сана и сразу же был переведен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Рассказ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1987 году, ког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усиленно шла борьба за демократию. Этот год ознаменовался народным восстанием против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которое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ел к желаемым реформам.

«*В тот год,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формированное Либеральной партией, держалось у власти последние дни»*[101].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что рассказ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 это довольно обычная история, в которой автор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и учителями. Однако, она таит в себе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который несведущий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к понять не сможет. Даже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мы, сами того не осознавая четко, имеем дело с силой и властью внутри нас самих, с нашими попыткам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тому, что мы воспринимаем как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насилие, и нашим подчинением ей, когда цена, которую приходится платить становится слишком высокой. Не следует недооценивать подчин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порядку, который приносит мир ценой повиновения[102] .

Герой рассказа Хан Пён Тэ – ученик младшей школы, «не видевший многого в жизни», стремящийся к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менно эта черта его характера стала главной ценностью для автора. Его детская наивность и непоколебимая убежденность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оторая показана в начале рассказе, не может не расположить к себе читателей. Он еще не нашел своего места в новой школе, в коллективе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он не намерен «мириться с порядками» 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равнодушием», царящими в ней.

---

[98] Who’s Who in Korean Literatur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1996.
[99] Общ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М., 1985.
[100] 이정숙. 한국현대소설연구. – 서울: 깊은샘, 1999.
[101] Ли Мунёль.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 СПб.: Гиперион, 2014. – С.2-3.
[102] Там же. – С.3.

2.1. Мотив насилия в рассказе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Принципы разума и свободы в лице Хан Пён Тэ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повседневной реальностью и связанной с ней конфликт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втор выражает в эт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глубокую ненависть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е, которая правила в стране. Острое ощущение непримирим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подростками, недовольство, перерастающее в стычки между школьниками, физическое и моральное насилие в младшей школе,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о мотиве насилия как «составной части сюжета» в дан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103]. Происходит трансформация образ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если в начале повествования автор характеризует его как человека «неизменно следующим своим принципам», то в ходе развития сюжетной линии он показан как «поверженный», «сломленный» духом героем.

«벌써 삼십 년이 다 돼 가지만, 그해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어쩌면 그런 싸움이야말로 우리 살이[生]가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실은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Прошло уже почти тридцать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я окончил школу, но всякий раз, когда я вспоминаю ту битву, которую вел школьником в одиночку целых полгода, меня охватывает всё то же мрачное отчаяние, что и тогда, в детстве. Мне иногда кажется, что мы всю жизнь ведём подобные битвы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я чувствую, что для меня она ещё не закончена»[104].

«Принципы разума и свобод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Хан Пён Тэ – острый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поведение старосты Ом Сок Дэ, – есть лишь выраж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состояния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Писателя интересует прежде всего общая атмосфера насилия, царившая в классе, вопросы и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пытался разрешить Хан Пён Тэ. Через образ школьника младшей школы автор показывает настоящую атмосферу, царящую в школе. Староста-повелитель – одна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фигур в рассказе. Выбор старосты в классе зависел не от умствен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успеваемости избираемой кандидатуры, а от физической силы, авторитета и диктаторского духа.

«드물게 힘까지 센 아이가 있어도 그걸로 아이들을 억누르거나 부리려고 드는 법은 거의 없었다. 다음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걸 참아 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Но даже в тех редки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староста оказывался самым сильным, он никогда не использовал свою сил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вить других и превращать их в своих прислужников. Этого не могло быть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старосту переизбирали, и такого диктатора ребята долго терпеть бы не стали»[105].

На наш взгляд, автор больше симпатизирует не простому школьнику, а именно старосте Ом Сок Дэ, который «держит» класс, не встречая ни еди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путем запугивая и принуждения к выполнению неблаговидных дел. Староста ставил себя выше других, считая, что с позиции силы и возраста он имеет полное право распоряжаться судьбами других школьников.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какое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оказывала возрастная иерархи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иказы старшего по возрасту следовало выполнять беспрекословно, не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азаться или возразить. Именно так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окрыляло Ом Сок Дэ и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ло мотив его поступков. «Иерархичность - способ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рейца, а выход из иерарх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равносилен выходу из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

[103] Pilon's Pig, Bilingual Edi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013, P. 85.

[104]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Сеул 한국문학전집, 2017. Перевод автора.

[105]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Сеул: 한국문학전집, 2017.

Также и Пён Тэ вначале активно сопротивлялся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орядкам в классе, вступал в противоборство с авторитетным старостой, - это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 итоге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отвернулись от него, делая пакости, всячески стараясь испортить ему жизнь.

Вдобавок ко всему, старосте придавало уверенности доверие со стороны учителя Нельзя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учитель не знал о проделках Сок Дэ, о том,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исходило в классе. Он мог знать и просто закрыть на это глаза. Иб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автор, - учителя не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амих учениках: в их жизни. Легче было дать всю власть одному физически сильному и устрашающему ученику и не переживать, чем бороться и пытаться проявить неравнодуш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учащимся.

«내가 석대의 나쁜 짓을 캐 모으려 한 것은 그것으로 먼저 담임선생과 그를 떼어놓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의 힘 중에서 싸움 솜씨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이 담임선생의 신임에서 왔다는 것 알고 있었다. 청소 검사, 숙제 검사, 심지어는 처벌권까지 석대에게 위임하는 담임선생의 그 먼 신임이 그의 폭력에 합법성을 부여해 그를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 위에 군림하게 했다».

«Я стал подмечать случаи, когда Сок Дэ злоупотреблял властью старосты, чтобы потом всё рассказать нашему классн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Я знал, что доверие учителя было такой же частью его власти, как его умение драться. Учитель доверял Сок Дэ принимать уборку класса, проверять домашние задания и даже наказывать учеников – и это придавало насилию, творимому старостой, законную силу и позволяло ему безраздельно царить над нами»[106].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ерой был всего лишь подростком, насилие в школе является для него некоей оградой от внешнего хаоса. Мира, в котором проблемы насилия и господствующей власти, показывают современному читателю 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и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менно с т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насилия в школе, в лице старосты - командира столкнулся Пён Тэ, и изначально именно он,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автором, быть «жертвой», в данном рассказе[107].

Пён Тэ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личался от других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Несмотря на униж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ок Дэ, он мечтал стать героем-освободителем из рабства старосты-повелителя, отдать себя в жертву и стать «*своим и другим, и похожим и не похожим»*[108]. С каждым днем в его душе росло желание раскрыть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Сок Дэ. Но продолжать безнадежную борьбу одному было нелегко, так как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был всегда на стороне старосты, и не доверял Пён Тэ, особенно, после случая когда пятнадцать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написали о его поступках учителю.

«읽기를 마친 나는 억울하거나 분하기보다는 깊이 모를 허탈에 빠져들었다. 아니, 무언가 단단하고 높은 벽이 코앞을 콱 막아선 듯해 그저 아뜩하고 막막했다. 담임선생의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멀리 하늘 위에서 뿌려지는 것처럼 그런 내 귓전을 맴돌았다».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я падаю в бездонный колодец, или нет - как будто у меня перед самым носом выросла высокая стена, отрезав меня от всех, и мне теперь никуда не выбраться»[109].

Эмоциональное насилие и порождаемые чувства унижения и непонимания, не находят разрешения ни в классе, ни в беседе с учителем: «*Тут не Сеул, тут живут по-другому. Но так уж тут принято. У нас тут свои правила, и ты должен им подчиняться*».

Однако такой привилегией Сок Дэ пользовался не долго, так как «*в классе свершилась революция, железный диктатор был объявлен обыкновенным преступником и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 Новый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чал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новому*: «все порядки в*

---

[106]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Сеул: 한국문학전집, 2017.
[107] Prague Writer's Festival, «Yi Mun-yol».
[108] Там же. – С.15.
[109]Там же. – С.8

классе переменились. Теперь все решалось дискуссией и голосованием». Жизнь в классе нормализовалась, Сок Дэ исчез, не только из коллектива школы, он исчез из города, и казалось бы из жизни Пён Тэ. Однако, спустя 30 лет после расставания с Сок Дэ, Пён Тэ увидел и узнал его, здорового мужика, которого держали за руки полицейские в штатском. Сок Дэ остался таким каким был, он все еще контролирует людей 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ытается это сделать.

3. Заключение

Исходя из вышеизложенн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в дан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писатель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скрывает мотив насилия на примере героев рассказа. Ли Мунёль отображает, как реальность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так и без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поведения и поступков, произошедших на фоне событий провинциальной школы. В финале рассказа герой наконец освободился от детск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Я пил почти до утра и под утро даже уронил пару слезинок. Но о чем я плакал – о себе или о нем, или от чувства освобождения, или от нового приступа пессимизма, – я и сам не знаю».*

Ли Мунёль показывает, насколько насилие, которое перенес Пён Тэ будучи учеником младшей школы, оставило глубокий и горький осадок в его сердце. В связи с чем, читатели могут понять то глубокое возмущение, борьбу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свободу, к которой так отчаянно он стремился.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Конрад Н.И.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Конрад Н.И. Восток – Запад: Статьи. – М.: Наука, 1972.
2. Троцевич А.Ф. Корейский современный рассказ: традиции и западное влияние. Из сб-ка // Межлитературные контакты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Литера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СПб., 1997.
3. Общ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М., 1985.
4. Ли Мунёль. Наш сломленный герой. – СПб.: Гиперион, 2014.
5. 이정숙. 한국현대소설연구. – 서울: 깊은샘, 1999.
6.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한국문학전집, 2017
7. Who's Who in Korean Literatur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 – 1996.
8. Prague Writer's Festival, "Yi Mun-yol"

THE MOTIVE OF VIOLENCE IN YI MYNYEOL'S STORY «OUR TWISTED HERO»

Busora KINJEEVA

Supervisor: **Doctor of Philosophy sciences Kim V.**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Modern Korean literature, despite the difficulties that it had to face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especially in the 1950s, has managed to retain its voice, and above all a reflection of the life of the entire Korean people. Just as in real life, literature fully reflects the theme of power, the problem of violence and the endless suffering of the people. It was very difficult to reproduce such life problems in literary works, but the fact remains that what kind of response these themes found in the life of the people. Such themes are often found in the literary works of contemporary Korean writers, and Yi Munyeol was no exception among them.

Keywords: the violence, Korean modern literature, difficulty, power, political conflicts, authoritarianism, democracy, classroom, social problem, freedom, mind, fighting, war, ideology.

МИР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 РАССКАЗЕ КИМ ДОНИНА «ОГНЕННАЯ СОНАТА»

Сабина РАХИМ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ф.н. Ким В.Н.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Структу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ссказа
2.1. Трансформация образ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рассказа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Одним из основателей новой прозы, по праву, считают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им Донина. Особое влиян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писателя оказало знакомство его с западной 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ой, учёба в Японии, где он издавал журнал «Творчество» (1919).

Ким Донин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известных статей «Взгляды корейцев на прозу», «Роман и душевное состояние писателя». Всплеск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метился в 1920-е годы. В этот период им были созда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снискавшие ему славу писателю – это «Корзина бататов» (1925), «Прощальная песня», «Соната огня» (1930) и др. рассказы.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писателя всегда вызывали интерес в научном мире и являются объек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многих корееведов. В этом плане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диссертацио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В. Цой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проза 1920–1930-х годов: новое и традиционное в рассказах Ким Донина (1900–1951)»[110]. О плодотворности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выход в свет пол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Ким Донина в 17 томах под редакцией Квон Ёнмина, изданного в Сеуле в 1978 – 1988 годах.

Творчество Ким Донина не осталось обойденным внимания и его современник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Ли Гвансу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Ким Донин вошёл в историю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ак обличитель «традиционного морализма»[111].

2. Структу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ассказа

[110] Сайдазимова У.Т., Хван Л.Б., Чой Со Ёнг и др.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50-х годов XX в.). – Ташкент, 2015.
[111] Там же.

В экспозиции довольно трудно определить от какого лица ведется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событиях какой давности идет речь? То, что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на самом деле ведет диалог со своим знакомым,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ым лишь в завязке, что усложняет понимание рассказа, однако, вместе с тем, делает его занимательным: и интригующим. Вызывает интерес и тот факт, что главный герой в контексте рассказа появляется позднее, но понимание психологии его поведения начинается еще до его появления. Герой мал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читателем, его присутствие проявляется как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Г-на К, –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в его письме Г-ну К.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ранее, происходит диалог, в котором один из собеседников г-н Мо выступает в роли слушателя. Хронотоп рассказа сдвигается на тридцать лет назад от основного момента времени действия.

«Пьяный дебошир», – таким отца запомнили его друзья, которые видели его талант, но не записывали его творения, занимаясь каждый своим делом. Они были слишком молоды, чтобы понимать жизнь и наслаждаться моментом, как неким подарком судьбы, ценить его и стараться самим менять мир к лучшему. Поэтому вокруг музыканта сложилось довольно ненавязчивое окружение, допустившее превращение музыканта в настоящего пропойцу: *«После семи-восьми лет такой жизни он совершенно опустился. Если у него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выпить, руки его начинали трястись. Он ужасно выглядел и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ледил за собой – мог по нескольку дней не умываться, так что в уголках глаз у него скапливался гной. А когда он пил, то становился совершенно неуправляемым, и к тому же спаивал других. Упившись, он падал, где попало, и засыпал»*[112].

Жалкий *«гений со страшным будущим»* испытает на себе тяжести уготованной судьбы. Он женится и вскоре умирает от инфаркта. Ему не суждено увиде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окружить его отцовской любовью, возможно, изменить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ради семьи, поведение и поступки отца лишь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быть обычным человеком – не его удел: все намного хуже и, в то же время, лучше, ведь он жил музыкой и творил ее,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из его сверстников.

Итак, к завершению экспозиции по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ек Сонгсу – точная копия отца. Хронотоп действия переноситс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рошлогоднюю весеннюю пору. В этот период в церкви происходит судьбоносная встреча двух людей *«с таким странным характером»*, чтобы глубокой ночью оказаться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вдохновиться зрелищем пожара у подножия холма, где находится церковь, и желанием создать музыку, пропитанную только что испытанными чувствами. В церкви Г-н К, не выходя какое-то время из тени, сделает заключение о том, что перед ним предстал «*несомненный талант, свободный и неординарный*». Здесь и произойдет переплетение их жизненных путей – завязка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тонкими натурами, неравнодушными к музыке: *«Его неуправляемая дикая сила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те ценные сокровища, так редко встречающиеся сейчас у современных музыкантов, захватили меня».*

Г-н К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фигурой в рассказе, ведь, по сути, сюжетная структура рассказа выстраивается исходя из его жизненного пути, и с его подачи н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следить за перипетиями ситуаций, в которых оказывается герой. Важно понять внутренний психологизм геро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н К, как видного деятеля культуры и «*одного из тех музыкальных критиков, которы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можно пересчитать по пальцам*».

Композиция рассказа представляет «рассказ в рассказе», повествующий о прошлом Пек Сонгсу,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обычном и размеренном. Мать была очень заботливой и

---

[112] Zamonaviy koreys nasri antologiyasi. Tuzuvchilar: Saydazimova U.T., Choy So Yong va boshq. – T.: Istiqlol. 2014. Здесь и далее цитируется из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издания.

доброй, жертвуя всем ради ребенка: «*Его мать, благочестивая и добрая женщина, трудилась разнорабочей, старалась оградить его от нищеты, и дарила ему много любви*». Но и сын отвечал ей взаимной любовью и привязанностью к ней: *«Все деньги, которые он планировал потратить на получение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шли на лечение матери»*.

В связи с чем, главный герой не знал о своих чудовищных наклонностях творить шедевры в состоянии бесконтрольной ярости и безумия, ибо присутствие чистого создания в лице матери не позволяли проявляться его демонам в душе. Любой ребенок являет собой пример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Многое, конечно, зависит от воспитания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о факт влияния генетики родителей и проявления их в ребенке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остается неоспоримым.

Так, наш герой рос под крылом у матери и получал нежность и заботу в достаточной степени, чтобы знать о любви и дарить ее обратно. Но, все же, он рос в неполной семье, поэтому ему приходилось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чем сверстникам, отсюда вытекает первый сигнал бедствия в становлении им здоровым полноценным членом общества. Но его мать старалась всеми силами восполнить отсутствие отца, возможно, избегала острых углов в отношениях с ним, отчего происходили упущения в воспитании. Отсюда мы получаем незнание истинной природы сущности человека, порождающей социальную неприспособленность и отторжение общества: «*Дома он не отходил от пианино*».

2.1.Трансформация образ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рассказа

Конфликт в поведении уже тридцатилетнего героя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в его письме, в кульминации рассказа, собственными признаниями в содеянном умышленном зле, и, в то же самое время, тогда он не подавлял в себе нездоровую привычку вредить окружающим. Как может ментально здоровый человек вести себя столь противоречиво? Вопрос тут же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ответ, заключающийся в ранее сказанных словах, что ребенок есть отражение двух родителей, а не одного. Сколь ни была мать героя порядочной, нельзя было не ожидать проявления в отпрыске отцовских черт, скрывающихся в темных глубинах его души. Их присутствие было очевидным, но, видимо, матери было легче не замечать этого, не работать с ребенком, а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него только добром. Но ведь жизнь не есть одно добро, которое побеждает зло. Скорее, это иде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двух начал, где важно найти середину и установить равновесие в их проявлении внутри человека. Наш герой не смог найти баланс равновесия добра и зла, необходимого в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уже без заботливой матери рядом, с которой он привык быть хорошим и послушным. В итоге источник добра вдруг исчез, он оказался один на один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он увидел на улицах совершенно непохожих на мать людей, отчего в нем открылась другая, темная сторона, необузданная и дикая. В окружающей е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никто не будет входить в его положение: «*Сонгсу умолял его[*хозяина табачной лавки*] о снисхождении, пытался объяснить, что его мать умирает и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вызвать к ней врача – а потом он непременно вернется и ответит за свой проступок. Но хозяин магазина был неумолим и отвел его в полицию*».

Так возвышенная натура геро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настоящими жизненными реалиями, требующими приземленности и внутреннего стержня. Са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одталкивают героя к отчаянным, безнравственным поступкам, поэтому он начинает криминальную главу своей жизни и подводит читателей к кульминации: «*он совершил та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как поджоги, надругательство над телом и убийства*». Сонгсу не был преступником, но «*кованый шанс*»,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й ему для спасения любимой матери, развязали ему руки на полное своеволие, столь пришедшее по вкусу сыну дикого отца. Добро постоянно подавляло зло в герое: «*Эти мысли разрывали мой мозг и мое сердце, и я поджег соломенную крышу этого дома. Я стоял и смотрел, как дом полыхает, и неожиданно мне стало страшно*».

Совесть терзает героя, не давая ощутить наслаждение от сотворенного, как это бывает у преступников. Стало быть, герой не равен преступнику. Он лишь переживает черную

полосу жизни, и вдруг раскрывает свою способность создавать несравненную музыку, так еще и встречает Г-на К,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ет спасителем его положения. Все, что требует в ответ Г-н К, – создание подобных «Сонате огня» великолеп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Зная, что за перв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стоит месть хозяину магазина, Сонгсу понимает роль злодеяния в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и не желает отступать от пути, ведущей к славе:

«*– Этот человек – создатель «Сонаты огня», и он сын Пек, который был гением на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от как вы представили меня, и я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этого*».

Так он создает музыку, наполненную грехами от проступков, и паралелльно радует достижениями своего покровителя, сулившего ему известность. Кажется, что слава героя уже близка, ведь за спиной остались т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к «Волна злости»: «*Музыка началась с адажио – перед моими глазами встало спокойное тихое море, вечернее солнце, опускающееся за линию горизонта, и вдруг в один момент эта мирная картина сменилась ливнем, громом, страшным воем ветра, молниями, звуками крушения корабля, криками чаек, падающих в море, воплями людей...* ».

«Мелодия крови» стала новым прорывом в творчестве героя, ведь прежние пожары, учиненные им в городе, не вызывали более волнения. Стало быть, нужно утягощать характер злодеяний. И вновь начались убийств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полнили музыку страстью и мятежностью. «Душа умершего» создана после жуткого события, о котором даже сам герой не в силах признаться: «*...о господин, у меня не хватает духа,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вам эту историю до конца!.. Но если вы прочитаете приговор суда, вы все узнаете*».

Оказавшись неготовым взглянуть в лицо своему таланту и дать ему отпор,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ек Сонгсу стал жертвой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н не выбирал такую жизнь – вс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было решением судьбы. Он лишь хотел жить в удовольствие. Но, к сожалению, он не нашел гармони с собой и своим внутренним миром, не сумел соединить в себе воспитанную сдержанную часть с дикой и необузданной, не смог взять под контроль поведение, неприемлемое в обществе.

Герой оказался слишком слабым человеком, чтобы быть на поводу чувств и подверг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критике трезвого ума, такие люди чужды обществу, вот почему в финале рассказа Г-н К принимает сторону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не презирая его выбранного пути: «*На самом деле искусство Пек Сонгсу было светилом, озаряющим всю нашу культуру. Пожары? Убийства? Старые дома, несколько жалких обывателей – неужели нельзя принести все это в жертву искусства? Уничтожение большого гения, который появляется один раз в тысячу лет, нет, в десять тысяч лет, из-за нескольких совершенных им преступлений само по себе является еще большим преступлением*».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мы, деятели исскуств, считаем именно так...* »

3. **Заключение**

Рассказ «Соната огня» Ким Донина затрагивает множество злободневных проблем, в том числе проблему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условленную историче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воззрением писателя, его верой в духов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рода. Права А.Н. Тэн,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 что в рассказе Ким Донина поставлены проблемы «искусство 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скусство и гуманизм», «искусство и мораль», решаемые в пользу абсолют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духе демонического эстетизма»[113]. Извест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творчества Ким Донина И.В. Цой определяет мир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 рассказе «Огненная соната» в контекст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читавших, что «искусство должно отвечать потребностям общества, и твор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113]Тэн А.Н. Очерк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 век (до 1945). – 50 с.

обязана служить его интерес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скусства для искусства», утверждавшим, что твор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свободна и не должна служить чьим-либо интересам»[114].

4. **Библиография**

1.Сайдазимова У.Т., Хван Л.Б., Чой Со Ёнг и др.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50-хгодов XX в.). – Ташкент, 2015.
2. Zamonaviy nasri antologiyasi. Tuzuvchilar: Saydazimova U.T., Choy So Yong va boshq. – T.: Istiqlol. 2014.
3.Тэн А.Н. Очерк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 век (до 1945). – Сеул, 2003.
4. Цой И.В. Мир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 рассказе Ким Тонина «Соната безумного огня»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ып. 5-6. 2003.

THE WORLD OF THE PROTAGONIST IN KIM DONIN'S TALE «SONATA OF FIRE»

Sabina RAKHIMOVA
Supervisor: **Doctor of Philosophy science Kim V.**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literary analysis of Kim Donin's short story «Sonata of mad Fire». The author of the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raised in the story: «art and crime», «art and humanism», «art and morality». The author of the article considers the structural organization of the story, as well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image of the main character. An analysis of a number of researchers of Kim Donin's work is presented and discussed in the article, as well as the biography and bibliography of the writer.

Keywords: «Traditional moralizm», exposition, chronotope, opening, composition, «story in a story», social inadaptability, culmination, wickedness, incomparable music, «genius of our generation», passion, rebellion, talent, inner peace harmony, sobriety critisizm.

[114] Цой И.В. Мир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 рассказе Ким Тонина «Соната безумного огня»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ып. 5-6. 2003. – 4 с.

Iqtisod, tarix,siyosat

발해 출토 바르간 의의

Mohira QUTBIDDINOVA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발해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발굴 과정에서 바르간 (Vargan, 口琴) 의 발견은 이미 언론과 학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바르간이 그 자체로 서역과 중앙아시아의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단서를 가진 유물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바르간이 어떠한 악기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이 왜 서역과 유라시아 지역의 교류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만 접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필자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전히 바르간이 매우 친숙하고 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필자의 나라나 한국의 학계에서 이 바르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음이 아쉽다.

바르간은 그 이름과 최초의 악기로서의 지위를 언제 획득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악기이다. 누군가는 바르간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겠지만, 바르간의 연주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 악기의 매력적이며 때로는 무섭고 신비로운 소리에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없다. 이는 고대 악기는 지금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 바르간은 일상적인 음악 제작에만 사용되었다면 오늘날, 다양한 유라시아 국가에서 콘서트 악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바르간의 연주소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많은 콘서트, 페스티벌 및 국내나 국제대회 등에서도 접할 수 있다. 때문에 필자의 모국에서 바르간은 현재에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바르간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기에 모호한 질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며 다른 하나는 «이 악기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다. 서역부터 유라시아 나아가 발해 지역까지 그 악기 유물이 분포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이름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무수한 견해가 혼재한다. 또한, 바르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널리 보급된 문화유산의 역사를 찾아 탐구할 때에도 참조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기록자료조차 적다.

바르간은 초원지역 유목민들이 애용하던 전통 악기로 여겨진다. 바르간이라는 악기는 철심을 구부려 만든 좌우대칭의 틀과 그 안쪽의 '판'리고 철심이 구부러진 곳의 바깥에 위치하는 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촉은 결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보고에서 말하는 바르간의 전체 길이는 8㎝, 너비는 1.9~0.9㎝이다. 틀 안쪽의 '판'은 잔존 길이가 2.3㎝이다. 바르간은 입에 물고 가볍게 철판을 튕기는 악기이다. 손으로 철판을 튕겨서 바이브레이션을 만들면 구강이 그 공명통 역할을 하게 된다. 연주자는 이 때에 호흡을 조절하고 입안 모양을 바꾸면서 다양한 음색과 음조를 만들어 연주한다. 옛날에는 바르간을 철과 뼈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철로 만든 바르간을 자주 사용한다. 간혹 출토된 유물을 통해 금으로 만든 바르간도 볼 수 있다.

다만 바르간이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었던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115]만 있을 뿐 언제, 누구에 의해 발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통념적으로 악기의 외관을 통해 우선 휴대하기에 아주 간편한 느낌이 들고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초원지역 유목민들 중심으로 본 악기가 발명되고 발전한 가능성있다고 여겨진다. 유목민들은 유목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활에서 이동을 자주하고 및 거처의 이주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바르간과 같이 간편히 휴대하여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이 악기는 초원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초원이 악기이며 나아가 알타이지역에서는 무당들의 주로 사용하는 악기였고 악을 쫓아낼 역할을 했다고 한다. 무기(巫器)로서 바르간이 사용되었다는 문헌적 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이슬람의 경전, 쿠란 (Quran, القرآن)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쿠란에서는 심판의 날이 오면 «나팔이 부는 그때, 그날은 곧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 고 한다[116]. 이는 흥미롭게도 입으로 연주하는 악기가 중앙아시아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간의 탄생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북방 유목민에 관련된 전설이 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사냥꾼이 이상한 선율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보니 곰이 마른 낙엽송에 올라 편자를 뽑아서 연주를 하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그 연주를 좋아했고 곰이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었다. 그 만든 악기가 바로 알타이 후무스라고 한다.[117] 필자는 이 때문에 바르간이 북방 유목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 곰이 고조선의 단군설화와 같이 동아시라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토착민들-연해주의 에벤키, 오로치, 오로첸, 나나이, 니브흐 (길략) 그리고 시베리아 만주-퉁구스 족 등-의 전설에서 성스로운 동물로서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118].

역사자료에 이 악기가 소개되는 것은 악기가 발명되고 활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후의 시점으로 서술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유럽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겠지만 필자는 사실상 이후 언급할 역사적 자료들이 기원을 판단하는 자료로서는 거의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바르간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바르간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바르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르간의 출토 지역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지역에 전파되는 과정을 꺼쳤다. 특히 Michael Wright의 연구를 참고한 이진원의 연구를 통해 바르간이 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 그리고 동남아와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분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9]. Gjermund 는 바르간이 가장 오래된 유물은 몽골에서 발굴됨에 따라 바르간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원되었다고 주장[120]하였고, Michael Wright 은 바르간이 아시아에서 발생하여 13 세기 경 유럽으로 널리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121]. 그 이유는 스웨덴의 웁살라에서 발굴된 바르간 유물은 아래 [그림5]에 보이는 13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머리핀형 바르간이며, 머리핀형 바르간은 바르간의 시대별 외관의 변형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연구되었다.

유럽에서 출토된 바르간 관련 유물들을 살펴보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체 개발을 통해 악기를 발명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르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3~14세기 북부 유럽을 통해서 기타 유럽지역으로 전파되는데, 완성도와 전파 방향을 통해 이 악기가 자체개발보다는 유목 사회로부터 유입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로써 바르간이 유목민족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까지의 무역로와 이동로 등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르간의 동으로부터 서쪽으로의 전파를 주도했던 유목 민족들의 후대가 현재에도 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전히 바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통해 그 기원이 이들이었음을 알

---

[115] 강인욱, «발해의 문화와 중앙아시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2015.05.2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015

[116] *Quran*, Mudassir surasi, 8-oyat: «For˙ when the Trumpet will be sounded», 9-oyat:“that will ˙truly˙ be a difficult Day

[117] Мустафина Алтын Булатовна,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с конференц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 2014*», Астана, 2014.

[118] 곽진석, «시베리아 에벤족의 곰 축제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곽진석, «시베리아만주-퉁구스족 곰 신화의 양상과 유형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김관웅, «고조선(古朝鮮)의 단군신화(檀君神話)와 동이문화(東夷文化)의 련관성(聯慣性) -곰 토템 숭배를 주축으로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淵民學志» 15, 연민학회, 2011.

[119] 이진원, «발해(渤海) 구금(口琴)에 대한 악기학적 검토», «한국음악사학보» 59권, 한국음악사학회, 2017, 167쪽 (Michael Wright,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the Jew’s Harp», *The Silkroad vol.2 no.2,* The silkroad Foundations, 2005 에서 재인용)

[120] Gjermund Kolltviet. «Archaeological Jew’s Harp Finds in Europe: Chaos or Coherence?» In: Studien zur Musikarchäologie.2 vols,Vol. II: Musikarchäologie früher Metallzeiten. Ellen Hickmann et al., eds. Rahden: Verlag Marie Leidorf, 2000.

[121] Michael Wright,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the Jew’s Harp», *The Silkroad vol.2 no.2,* The silkroad Foundations, 2005.

수 있다.

즉 이는 바르간이 유목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확산되어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맺음말

바르간은 고대 악기라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이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정보가 바르간에 대한 연구를 더 명확하게 하고 진지하게 진전시킬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모든 증거를 한곳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주로 유럽 전파를 다룬 선행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Michael Wright와 Gjermund의 연구를 통해 초기 모습을 가진 바르간 관련 유물이 스웨덴과 같은 북부유럽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후대 바르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 및 사료가 발견됨에 따라, 바르간의 유럽으로의 전파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즉 바르간의 북방 유목민족의 이동 방향에 따라 전파 되었으며, 이 사회와 북부 유럽의 관련성도 동시에 추론해 볼 수 있기에 필자는 바르간이 유목사회로부터 전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바르간이 종교 의례용 악기라는 것이다. 다만 쿠란 이외 이를 증명할 문헌적 사료가 부족함에 따라 오늘날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종교적 의례에 활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유럽에서도 유태인 하프라고 명칭을 가진 것도 유대교의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필자는 향후 연구에서 발해의 바르간의 활용에 있어서 악기 이외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을 확인했다. 다만 본 발표문에서 이를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본 연구에 있어 제한적인 사료 안에서 이루어진 분석이고 필자의 연구경력이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간에 대해 전파와 그 전파 방향에 대한 연구에 관련한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곽진석, «시베리아 에벤족의 곰 축제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곽진석, «시베리아 만주-퉁구스족 곰 신화의 양상과 유형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김관웅, «고조선(古朝鮮)의 단군신화(檀君神話)와 동이문화(東夷文化)의 련관성(聯慣性) -곰 토템 숭배를 주축으로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淵民學志» 15, 연민학회, 2011.

2. 이진원, «발해(渤海) 구금(口琴)에 대한 악기학적 검토», «한국음악사학보» 59권, 한국음악사학회, 2017, 167쪽 (Michael Wright,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the Jew's Harp», *The Silkroad vol.2 no.2,* The silkroad Foundations).

3. 강인욱, «발해의 문화와 중앙아시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2015.05.2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015.

4. Michael Wright,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the Jew's Harp», *The Silkroad vol.2 no.2,* The silkroad Foundations, 2005.

5. Gjermund Kolltviet. «Archaeological Jew's Harp Finds in Europe: Chaos or Coherence?» In: Studien zur Musikarchäologie.2 vols., Vol. II: Musikarchäologie früher Metallzeiten. Ellen Hickmann et al., eds. Rahden: Verlag Marie Leidorf, 2000.

1880-1894년 일본인의 조선인식 변화－갑신정변을 중심으로

Yamamoto Narumi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1880년은 조선이 근대화를 향한 노력을 사작한 시기, 그리고 1894년은 지금까지 아시아를 지배해왔던 중화주의가 붕괴한 청일전쟁이 개전된 해이고 이 시기는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일본인의 조 선 인식분석을 통해 일본의 대조선, 아시아 정책을 밝히고 , 일본 민중이 대조선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신문사설로 보는 조선» 이라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문 중 두개를 활용했다.

첫 번째는 도교일일신문이다. 이것은 어영신문적인 쉬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빈호치신문이다. 이 신문은 정부를 하야한 일물들이 중심으로 된 입헌개진당의 기관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신문이다.

당시부터 정부에 의해 신문의 중요성이 인지되어 있었고 이 시기의 유일한 미디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신문은 당시의 분위기나 여론을 알기 위해 최적한 분석 대상이다.

«도교일일신문», 1880년 8월 14일자에서는 수신사의 일본 방문을 전하고 있다.

«우리 인근의 동맹인 조선국의 수신사는 본월 11일 우리 동경에 도착했다»[122].

«유빈호치신문», 1880년 1월 15일자

«조선은. 그 인민은 어느 정도 국민라는 기운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자국을 보호하고 자국의 권리를 다하려고 원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123].

이렇게 동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호적인 조선관이 있었다. 또한 조선을 이미 일본 양토가 되버린 남쪽에 있는 왕국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현)과 비교하고 조선 국민의 기운과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을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청은 일본과 연대할 만하고 라이벌인 «노대국(老大國)»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적은 청이 아니라 러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청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880년 초에 아시아주의라는 사상과 그것에 따르는

---

[122] «도교일일신문», 1880 년 8월 14일자, 朝鮮ノ修信使來ル, 我ガ近隣の同盟タル朝鮮國ノ修信使ハ本月十一日ヲ以テ我東京ニ來着シタリ, 北原スマ子, 園部祐之, 趙景達, 長谷川直子, 吉野誠編, «資料新聞社說に見る朝鮮 2 -東京日日新聞», 서울: 高麗書林, 1995.

[123] «유빈호치신문», 1880 년 1월 15일자, 外交政畧論二, 朝鮮ハ琉球ト異ナリ(중략)其人民ハ幾分カ國民タルノ氣力ヲ有シ外人ニ對シテ自國ヲ保護 シ自國ノ權利ヲ完フセント欲スルノ精神ヲ具ヘ, 北原スマ子, 園部祐之, 趙景達, 長谷川直子, 吉野誠編,『資料新聞社說に見る朝鮮4-讀賣新聞・郵便報知新聞», 서울:高麗書林, 1995.

삼국연대라는 인식을 놓았고, 이것은 삼국연대를 내걸은 흥아회라는 던체가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설립된 것에도 알게된다.

당시 일본 민중의 조선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임오군란에 관한 책도 여러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사건신문자전 (朝鮮事件新聞字引)» 과 «조선변보록(朝鮮變報錄)»이 있다. 신분자전은 조선에 관한 보도에서 자주 쓰인 용어를 해설한 용어책이고 조선변보록은 무려 14권까지 출반되었고 그림도 쓰면서 임오군란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 책은 둘다 한자 옆에 그 읽은 방법을 히라가나로 써 있기 때문에 한자도 읽을 수 없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인 아닌 일본 민중을 대상으로 삼아 있다는 것이 알게된다. 이런 책을 쓰면서까지 신문 보도 내용이나 조선 상황을 알고싶어하는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1884년 12월4일이 되어 일본 정치, 지식인들도 지원, 관여한 조선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다. 갑신정변 실패 이후 거의 모든 신문사는 청에 대한 적대심을 나타내고 일본의 출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일하게 비전론을 제의한 신문사도 지금까지 동맹국이었던 청과 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때문에 비전론을 내걸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 부족을 걱정해서였다.

RESEARCH ON THE CHANGES IN JAPANESE PERCEPTION OF KOREA DURING 1880-1894

Yamamoto Narumi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hanges in Japanese public opinion about Korea during the period 1880-1894: from Korea's earliest attempts of modernization till the beginning of the Sino-Japanese War.

The policy of Japan regarding Korea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factors: Japanese military power, China's policy toward Korea,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Great Powers' activity in East Asia.

Noila MIRKHAMIDOVA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목차

1. 머리말
2.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 개성
3. 고려의 국제 교류 즉 이슬람 세력의 출입
4. 고대 한국과 이슬람 상인들의 문화 교류
5. 결론

1. 머리말

한국의 명칭은 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져 있다. 이 명칭은 고려를 방문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꼬레»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이슬람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했다. 고려 초기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방문하였고, 후기에는 원나라를 통해 유입된 무슬림들의 이슬람 공동체도 생기고 이슬람이 전래되었다. 소주의 전래나 비파, 나팔 같은 서역 악기, 서역 음악, 서역의 춤과 같은 이슬람 문명이 고려에 미친 영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교류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의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과 일본, 거란이나 여진 등 주변 국가와의 교류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한국의 국제 교류와 문화사에서 이슬람 사회가 미친 영향을 정리, 연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고려 시대의 이슬람 사회와의 교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학위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한국과 이슬람 사회와의 교류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는 무함마드 깐수 (1990) 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신라와 아랍-이슬람 제국의 무슬림들의 교류에 대한 것이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세계 문명의 집산지로서 페르시아, 바그다드 등에서 온 외교 사절이 빈번히 내왕했고,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아랍과 서역 지방 물품이 대량 유입되었다.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통일신라인들은 장안에서 이슬람 문명권에서 온 외교 사절이나 무슬림 상인들과 다양한 접촉을 했다.

고려시대의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위 논문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북방민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성영 (2010) 은 고려시대 교역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아라비아 상인이 짧게 등장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등장했던 국가와의 교역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이슬람 사회와의 교류에 대해 일부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인평 (2009) 은 중앙아시아 음악이 고려 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술논문에서 고려시대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궁중에서 무슬림이 참석한 회회조회나 회회축원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음악이 고려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2.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 개성

고려의 사상 문화 사회 신분 등 여러 구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여러 요소가 서로 충돌하거나 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형태의 다원성은 고려 다원사회의 형인 모습이자 특징이다. 고려 다원사회는 10세기 한반 도를 둘러싼 내외의 변화과정에서 형성되고 기원했다. 외으로 10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러 국가 사이의 분열과 립의 결과 다양한 종족과 주민이 고려에 유입되었다. 내으로 후삼 국의 성립과 통합쟁의 여로 수많은 후백제 계통의 신라의 성주와 장군들이 고려로 내투했다. 이러한 상은 후삼국이 통일된 후 성주와 장군의 내투는 단되었으나, 발해의 멸망과 부흥운동, 고려와 거란의 쟁, 거란 내부의 정쟁 등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로 인해 이민족의 다양한 종족과 주민은 나라가 건국되는 12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고려는 주변의 수많은 종족과 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신민으로 삼아 고려의 울타리인 번병으로 삼았다. 고려왕조에 내투하여 후삼국 통합쟁에 조한 지방 세력 역시 고려의 울타리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를 천하의 심으로 간주하는 고려 특유의 천하을 낳게 했다. 고려는 이러한 천하을 바탕으로 천자국 체제를 유지했다.

3. 고려의 국제 교류 즉 이슬람 사회에 출입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당해 원나라의 제국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의 «한－이슬람 교류사» 에 의하면 다수의 아랍인들이 고려 후기부터 개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정착했다. 이들은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했을 때 주로 사신이나 통역관, 관리, 몽골 귀족의 시종무관, 서기, 근위병, 혹은 교역을 목적으로 한 상인으로 고려에 와서 살다가 한반도에 정착했다.

당시 원제국의 교역망은 유럽, 터키까지 뻗어 있었는데, 그 동쪽 종착지가 고려의 수도 개성 일대였다. 이 교역망을 타고 수많은 아랍인들과 이슬람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다. 고려에 정착한 아랍인과 유럽 상인들은 예성강 하구의 국제항 벽란도와 개성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한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이슬람 역법을 한국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농사 달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의 수시력을 가져다 쓰니 해 뜨는 시각, 달의 움직임이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은 집현전 학자인 정인지, 정흠, 정초 등을 시켜 농사력을 연구하게 했다.

이 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수시력을 연구하다보니 그것의 과학적 토대가 중국 역법이 아니라 이슬람 역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슬람 역법의 원리를 가져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맞게 고쳐 썼으므로 그들에게는 맞고 한국인들에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개성과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 일대에는 최소 4만 명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대부분이 무슬림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예궁» 이라는 모스크를 지어 기도를 하고 코란을 낭송했다.

충렬왕 시절 무슬림 민보는 고려에 귀화하여 대장군 벼슬을 제수 받았고, 고려시대 매의 수집과 관리부서인 응방, 통역관 양성소인 사역원에도 다수의 투르크인들이 근무한 기록이 있다.

4. 고대 한국과 이슬람 사회에 문화 교류

한반도에 온 아랍인들은 고유의 명절을 즐겼고, 중앙아시아 민속의상과 모자를 쓰고 위구르어를 사용했으며, 예궁이라 불리는 종교사원을 건립하고 이슬람교 예배의식인 대조회송축을 조정에서 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속되어 오던 종교적, 민족적 동질성은 세종 시절 조정 대신들이 임금에게 올린 건의에 의해 이슬람식 예배와 전통복장을 금지 당하게 된다.

«회회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 사람들이 모두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야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입는다면 우리나라 사람과의 혼인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대조회 때 회회교도의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때부터 옷차림과 이슬람교도 특유의 종교의식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들은 고유의 문화풍습을 버리고 조선에 동화되어야 했다. 1427년 칙령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무슬림들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을 알려주는 일체의 기록이 없다.

팔관회에서 고려와 물산교역을 했던 종족과 국가는 «중동팔관회의»에서는 송나라 상인, 동서번자와 탐라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 밖에 철리국이나 불나국 같은 소국들도 팔관회에 입조하여 참례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은 비공식적이며 팔관회의 국제교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인 조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만일 팔관회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자격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것이었다고 간주하여 좋을 것이다.

5. 결론

아랍사회와의 접촉은 고려사회의 문화에 많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악장가사» 와 «시요향악부»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노래들은 서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쌍화점» 과 같은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아랍으로 전달된 «얄리얄리얄라야»라는 구절이 청산별곡에 등장하기도 한다. 고유의 복장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면서 궁중의례에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는데, 이 때 무슬림은 이슬람 의식에 따라

코란을 낭송하며 왕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비는 의식을 행했다. 무슬림들은 고려의 팔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고려와 아랍사회의 접촉에 대한 자료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 문화에 남긴 많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수용 과정이나 고려를 방문했던 아랍 상인들이 자국에 돌아간 후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고려사와 세종실록 같은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아랍에서 연구된 자료들도 참조를 하여 고려와 아랍사회의 교류 과정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6. 참고문헌

1.무함마드깐수 (1990), 신라, 아랍-이슬람제국관계사연구, 단국대학교석사논문
2. 이성영 (2010), «고려시대교역품연구», 서울시립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3. 전인평 (2009), «중앙아시아음악의고려음악에대한영향», 문명교류연구 vol.1
4. 박종기 (2013), «고려다원사회의형성과가원», 한국중세사연구, vol.36.
5. 전영준 (2010), «고려시대팔관회의설행과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vol.8

Abstract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YO AND ISLAM WORLD

Noila MIRKHAMIDOVA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history major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cultural exchange of Korean and Islamic society. In the history of Korea, the Korean state is distinguished by its foreign relations. But so far the diplomatic and cultural ties of the Korean state have been studie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China, Japan, and the northern states. However, during the Korean period, the Korean people also had many cultural and formal ties with the Islamic community.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hed more light on that cultural connection.

Key words: Koryo, Islam, world, traders, trade, foreign relations, exchange, western regions, silk road, sea road, middle ages.

중국 청말·민국시기 «고려» 호칭 사용과 의미

Li Bin Bin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에서 제시된 «고려» 라는 호칭
1. 교과서에서의 «고려»
2. 출판물에서의 «고려»
3. 저명인사 글 또는 강연에서의 «고려»
III. «고려» 라는 호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유래
1. 사서(史書)의 «고려» 인식
2. 지식인의 «고려» 인식
3. 일반 사람의 «고려» 인식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본고는 20 세기 전반 중국 사회에서 한반도를 «고려» 라고 부르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러한 호칭이 불리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한 나라가 자칭(自稱)[124]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위상과 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북쪽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남한 (대한민국)이다. 전자의 국호 출처는 고조선이고, 후자의 국호 출처는 삼한과 대한제국이다. 남북은 각자 한반도 역사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찾았다.

한편, 한 나라가 자신의 타칭(他稱)[125]. 을 선택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역사적 기억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명의 영문 China는 강한 진(秦)나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고 당(唐) 나라의 강대와 문화적 포용성 때문에 서양 세계에서도 중국인들이 당인(唐人)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남북은 자신을 조선과 한국으로 부르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Korea로 통일적으로 불린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좀 달랐다. 20세기 전반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호칭이 주로 조선이었지만 교과서, 출판물, 저명인사의 글 또는 강연에서는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것도 적지 않았다. 조선이라고 푸르는 이유는 조선왕조와 고조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될 만하고 그런데도 왜 아직 한반도를 고려라고 많이 부르는지 흥미롭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유용태의 논문[126]은 «고려»는 영문

---

[124] 자칭 (**自稱**):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음.
[125] 타칭 (**他稱**): 남에게 무엇이라고 일컬어짐.
[126] **柳鏞泰**, «**中國人**의» «**南朝鮮 漢城**»: «20 세기 **中華主義**», «동아시아역사연구», 제 4권, 1998, 156.쪽.

Korea의 한자 표기인데다가 중국어 독음에도 가깝고 중국의 외국지명 표기원칙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가 추측했다. 무정명(武鼎明)의 박사 논문(2014)[127]은 1920년대 중국 작가들이 한반도 관련 작품을 창조할 때 한인, 조선인, 고려인을 각자 사용한 이유를 문학적 시각으로 탐구했다. 그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작가에게는 기본적으로 소련과 관련된 배경이 있고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려를 한반도 전체로 지칭하는 경우가 그 이전에는 이미 유행하고 소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조형열의 고려국호론에 관한 논문 (2018)[128]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국호를 제정할 때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외에도 고려공화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한국인 기억 속에 고려라고 표상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중국인 기억 속에 고려라고 표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 분석 결과는 참고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청말·민국시기 교과서, 출판물, 저명인사의 글 또는 강연에서 나타난 고려라는 호칭에 관한 현상을 정리한 뒤에, 그 형성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 연구를 통해 왜 고려라는 호칭이 중국인의 역사적인 기억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Ⅱ. 중국에서 제시된 «고려»라는 호칭

1. 교과서에서의 «고려»

1904 년 청나라 정부가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 즉 계묘학제(癸卯學制)를 반포하면서 중국 교육 근대화의 서막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식 교과서는 전통적인 사서오경을 대체하여, 공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학생들이 지식을 얻는 중요한 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의 주된 원천이었다.

청말·민국 시기 중국 지리교과서는 한반도에 대한 호칭이 통일되지 않고 «조선», «고려», «한국»의 세 가지 호칭가 혼용되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호칭은 조선왕조와 고조선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교과서에서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었다. 한국의 호칭은 대한제국과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1945년 해방 이전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이라고 호칭은 주류가 아니었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 교과서에서의 «고려»

고려는 조선의 별칭	普通教育新地理外國之部 (1908)	조선은 고려라고도 불리고 국호는 대한이다.[129]
	初級中學本國地理 (1935)	조선은 고려라고도 불리고 아사아 동부의 큰 반도이다.[130]
조선은 고려의 별칭	小學萬國地理新編 (1902)	고려왕국, 고려는 조선이라고도 불린다.[131]
고려는 조선의 구칭	復興初級中學教科書本國地理 (1933)	고려는 조선이라고도 불린다(1910년 일본에 병탄되면서 그 이름이 생겼음)[132].

[127] 무정명 (武鼎明), «중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1920년대 한인제재 소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128] 조형열, «해방직후 고려 국호론의 전개와 고려 표상», «역사와 현실», 제 109 호, 2018, 참조.

[129] 楊文洵 編; 胡麐閣 校, «普通教育新地理外國之部». 會文學社, 1908, 39쪽. «朝鮮者, 一名高麗. 國號大韓».

[130] 王益涯, 周立三 編, «初級中學本國地理(第四冊)», 正中書局, 1935, 101쪽. «朝鮮一名高麗, 是亞州東部的一大半島».

[131] 陳乾生 編, «小學萬國地理新編 (上卷)». 商務印書館, 1902, 10쪽. «高麗王國, 高麗亦名朝鮮».

[132] 傅角今 編; 傅緯平 校, «復興初級中學教科書本國地理» (第3冊), 商務印書館, 1933, 88쪽. «高麗一名朝鮮 (一九一〇年被日本合併後始有此名)».

	高中世界地理 (1933)	조선은 옛날에 고려라고 불린다. 1897년 대한으로 개칭했다가 1910년 일본에 병탄되면서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133]
	初中本國地理教科書 (1936)	조선의 옛 이름은 고려였다.[134]

위의 지리 교과서들은 고려를 조선의 별칭이나 구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한반도에 대해 고려라고 직접 부르는 교과서도 있다. 심지어 «復興初級中學教科書本國地理» (1933) 와 «高中世界地理» (1933) 에는 고려가 한반도의 오랜 국호였고, 조선은 1910년 이후에야 나타났다고 잘못 서술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착오라고 여기기에는 사례가 의외로 다양하여 이 시기 중국인의 인식 속에 고려라는 용어가 매우 깊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레 교과서 서술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만하다.

사실 교과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사례는 당시의 출판물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2. 출판물에서의 **«**고려**»**

출판물에서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같은 문단에서 두 호칭을 혼용하기도 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역사를 기록한 «청사고(淸史稿)»에 고려와 조선이라는 호칭이 혼용된 경우가 있다. «청사고방» 교(邦交)·미리견(美利堅) 조에서는 «1868년 봄 2월, 미국의 사신이 청나라에게 재작년 9월에 미국 상선 두 척이 고려에 좌초되었고, 사람이 4명이나 남았으니 고려에 전하여 구조해 달라고 보고하였다. 청나라는 고려가 스스로 규명하고 답신하라고 했다. 6월 미국이 군함을 보내 고려에 들어갔고, 왕이희가 청나라에 보고하였다. 중국은 미국인을 구속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사신에게 해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미국 사신은 할 말이 없어서 배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35]»라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단 뒤에 다시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136]. 이와 같은 상황이 «청사고» 방교(邦交)·일본(日本) 조에도 나타났다[137].

당시 출판물의 제목을 딸 때도 이런 경우가 있다. 1933년 국립북평역사박물관 소장 초본에 의해 중판된 «만청입관전여고려교섭사료(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138] 가 바로 이 경우다. 책 제목에는 고려가 적혀 있지만 실재로 명 숭덕(崇德) 연간(1636~1643) 청나라와 조선왕조의 왕래문서 70여 통이 수록됐다. 이런 상황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청나라 말기 왕석기(王錫祺)이 편찬한 «소방호재여지총서(小方壺齋輿地叢書)»에 수록된 한반도 관련 여행기는 다음과 같다. 고려라는 호칭을 딴 여행기도 많다.

표 Ⅱ.『소방호재여지총서』에 수록된 한반도 관련 여행기[139]

---

[133] 王謨 編, «高中世界地理», 世界書局, 1933, 72쪽. «朝鮮古稱高麗, 一八九七年改成大韓國, 一九一〇年, 被日本合併後, 始稱朝鮮».

[134] 王鈞衡, 萬方祥 編, «初中本國地理教科書(卷下)», 北方學社, 1936, 61쪽. «朝鮮昔名高麗».

[135] «淸史稿» 志131 邦交4 美利堅 條 «七年春二月, 美使來言, 前年九月有本國商船兩只在高麗擱淺被害, 尚餘四人, 請轉知高麗, 設法救護. 政府請高麗自行查明酌覈. 六月, 美人派兵船入高麗, 國王李熙奏聞. 中國查明並無羈留美人情事, 函致美使代為解釋. 美使乃無言, 其兵船亦啓棹去».

[136] «淸史稿志» 131 邦交 4 美利堅 條 «十年正月, 美致朝鮮函, 請中國代達, 謂將以兵船前往商辦事務. 中政府以權宜許為轉達. 旋接朝鮮咨, 謂美使所投封函, 專為曩年美商船來韓, 壹遭風遇救, 壹人沒貨無, 以為壹救壹害, 相懸太甚, 欲請究治. 朝鮮以己國無殘害美船之事, 不允所請, 並請中國降旨開諭美使. 美使以降旨開諭, 是以屬國相待, 不受. 乃以兵船抵朝鮮脅之. 朝鮮人不服, 與力爭, 並報中國牒美使解之».

[137] «淸史稿志 131 邦交6 日本 條 "朝鮮政府頗不願與日本通商往來, 而日使森有禮往謁李鴻章, 則以高麗非中國屬邦為詞. 因提出條件三: 一, 高麗以後接待日本使臣; 一, 日本或有被風船只, 代為照料; 一, 商船測量海礁, 不要計較. 鴻章答以高麗系中國屬國. 事既顯違條約, 中國豈能不問, 森使急求與高麗通好, 鴻章請徐之».

[138] 據國立北平歷史博物館所藏抄本重印,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 1933.

[139] 박현규, «청말 王錫祺 «小方臺齋與地叢초» 중 韓國 地域學 文獻»,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4호, 1998, 154쪽.

주제내용	문 헌 명	종 수
삼국총론	東南三國記	1
조선총론	高麗論略, 朝鮮考略, 朝鮮雜述	3
풍 토	朝鮮小記, 朝鮮風土略述, 高麗風俗記, 朝鮮風俗記, 朝鮮風土記, 高麗瑣記	6
지 리	高麗形勢, 朝鮮八道紀要, 朝鮮輿地說, 朝鮮疆域紀略, 巨文島形勢, 朝鮮諸水編, 高麗水道考, 鎭南浦開埠記, 朝鮮海道圖說, 平壤濟南浦記, 高麗新開埠記, 封長白山記, 長白山記, 東北海諸水編,	14
행정법률	朝鮮會通條例	1
유 기	東遊記(東遊紀略), 遊高麗王城記	2
명 . 승	東國名勝記	1
전 쟁	征撫朝鮮記	1
사신수행	入高紀程, 奉使朝鮮日記	2
대외교섭	東行初錄, 東行續錄, 東行三錄	3
영토분계	朝俄交界考	1

20세기 초 유행했던 망국사학(亡國史學) 작품 중에는 고려와 조선을 동시에 책명으로 쓴 겨우도 있다. 1932년에 출판된 «조선유한(朝鮮遺恨)»[140].은, 표지에 조선을 책명으로 사용했지만, 정문에는 «고려망국연의(高麗亡國演義)»라는 부제(副題)도 있다. 20세기 전반의 많은 중국 문학 작품에 한민족 인물이 등장할 때도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다.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 중국 작가는 다음과 같다[141].

표 **III. 20**세기 전반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 중국 작가

	고려인	조선인	한국인
작가명	이휘영(李輝英), 소군(蕭軍), 서군(舒群), 대평만(戴平萬), 소송(小松), 낙빈기(駱賓基)	목시영(穆時英), 파금(巴金), 비창(非廠), 단복홍량(端木蕻良), 유백우(劉白羽), 낙빈기(駱賓基)	낙빈기(駱賓基)

또 외국 작품들이 번역한 책에서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1924년출간된 «교려일별(高麗一瞥)»[142].은 정자천(鄭資川) 이 A. Herbert 의 «A Peep at Korea» 에서 번역했다. 책 제목은 말할 것도 없고 책 내용에서 한반도를 고려로 번역한 것이 더 많다.

당시 출판물은 소설뿐만 아니라 엄숙한 역사저서까지 고려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속에 한반도의 호칭이 바로 고려다.

3. 저명인사 글 또는 강연에서의 **«고»**

20세기 초 가장 유명한 중국 지식인들 중 하나가 바로 양계초(梁啓超)다. 그는 신문에 시사정치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구국 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지를 끌려고 했다. 그 글들 중에는 한반도 정치에 관한 내용이 많다. 예컨대 양계초는 «베트남, 버마, 고려는 중국에 속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심지어 부패한 정치까지도 배우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143] 와 «페르시아는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지 않았다. 고려는 러시아와 일본이 상호 합의에 따라 살아남았다»[144]. 라고했다.

또한 당시 중국 정치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화민국 창조자인 손문(孫文)도 한반도에 대해 많은 강연에서을 하고 고려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1924년 2월 3일 손문의 강연 내용은 «백 년 동안 중국은 많은 영토를 잃었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최근에 잃어버린 영토는 위해위(威海衛), 여순(旅順), 대련(大連), 청도(青島), 구룡(九龍), 광주만(廣州灣)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高麗), 대만(臺灣), 팽호(澎湖)»[145].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1921년 12월 군대에 대한의 연설에서는 «중국 영토로 말하자면, 안남(安南), 고려(高麗), 미얀마(緬甸),

---

[140] 沈桑紅, «朝鮮遺恨», 上海滬報館, 1932.

[141] 무정명, 앞의 논문 (2014), 15쪽.

[142] 鄭資川, «高麗一瞥», 商務印書館, 1924.

[143] «梁啓超文集»: 論不變法之害(1896.8.19) «越南, 緬甸, 高麗, 服屬中土, 漸染習氣, 因仍弊政, 薾靡不變, 漢官威儀, 今無存矣».

[144] «梁啓超文集»: 論近世國民競爭之大勢及中國前途(1899.10.15) «而波斯因英, 俄均權, 僅留殘喘. 高麗因俄, 日協議, 聊保余生».

[145] «孫中山全集»: 三民主義 · 民族主義 (1924.2.3) «這百年以來, 中國便失去許多領土, 由最近推到從前, 我們最近喪失的領土是威海衛旅順大連青島九龍廣州灣 再推到前壹點的失地, 是高麗, 臺灣, 澎湖…».

티벳(西藏), 대만(臺灣)과 같이 중국의 속국이거나 중국의 속지다».[146] 라고 했다.

손문의 후계자인 장개석(蔣介石)은 손문의 사상을 자연히 물려받았다. 그는1938년 8월 강연에서는 «일본에서 대만, 류큐와 고려를 탈환해야 하는데[147]» 라고 했다.

1920년대 이후의 지리교과서에는 고려라고 부르는 한반도에 관한 내용이 손문의강연에서 직접 발췌한 경우가 많고 저명인사의 강연이 교육계와 지식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것은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근본 원인이 아니지만 고려 호칭의 전파를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III. «고려» 라는 호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유래

2장에서 교과서, 출판물, 저명인사의 글 또는 강연에서 나타난 고려라는 호칭에 관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청말·민국 시기 중국에서는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는지 또는 중국인에게 왜 고려라는 용어가 더 친근감이 있고 익숙한 것이었는지 궁금할 만하다.

유용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신문잡지에 일본인의 글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 란 호칭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기피의 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1909 년의 중학교 지리부도에 국명을 «고려»로 표기하고 그 전도 «고려전도»로 한반도를 «고려반도»로 표기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고려»는 영문 Korea의 한자 표기인데다가 중국어 독음에도 가까우니 중국의 외국지명 표기원칙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일본인이 중화민국을 «지나» 라고 부르면서 이를 영문 China의 역명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논법을 볼 수 있다.[148]

이 해석은 근대 중국이 왜 한국을 고려라고 칭하였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청말·민국시기 출판된 번역서에 나온 고려라는 호칭을 설명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20세기 이전도 중국에 자주 나타난 한반도를 고려라고 부른 사례를 해석할 수 없다. 무정명의 소련 영향설도 마찬가지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서(史書)의 «고려» 인식

지금은 일반 상황에서 일단 고려라고 언급하면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려왕조 (918~1392) 다. 그러나 송나라 때 이후 중국 공식 역사 기록 속에 고려라는 호칭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중국 왕조의 책봉으로 인해 고구려가 고려로 개칭되어 시기는 남제(南齊) 건국(479) 전후가 된 것으로 보인다[149]. 그래서 그때 이후의 중국 정사(正史)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기록한 부분을 대부분 고려전(高麗傳)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등이다. 이 역사서들 중 고려가 고구려를 지칭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 상황은 왕건이 918년에 고려왕조를 창립한 이후가 되면 복잡해졌다.

왕건이 세운 나라와 고구려의 이칭이 모두 고려였기 때문이다. 실제 «구오대사(舊五代史)», «신오대사(新五代史)»,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에 모두 고려전(高麗傳)이 있다. 그리고 이들 기록은 모두 고구려의 역사를 고려전(高麗傳)에 입전되고 있다. 더욱이 «송사» 는 왕건이 고려(고구려) 왕의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서술하였다.[150] 그 외에도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 역사서에는 고구려가 조공을 왔다는 기록과 다른 고구려 관한 서술이 아직도 나왔다.[151] 이 자료들로 발해 건국이후 요동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자 日野開三郎이 요동에 또 하나의 高句麗國(小高句麗國)이 존재했었다는

---

[146] «孫中山全集»: 在桂林对滇赣粤军的演说 (1921.12.10) «若論中國領土, 如安南, 如高麗, 如緬甸, 如西藏, 如臺灣等或為中國屬國, 或為中國屬地».

[147]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對日抗戰與本黨前途 (1938.4) «從日本奪回臺灣, 琉球和高麗…».

[148] 柳鏞泰, 앞의 논문 (1998), 156 쪽.

[149] 程尼娜, «高句麗"改稱"高麗"再考論», «東北史地», 제 4권, 2014, 25쪽.

[150] «宋史» 卷 487 列传 246 外国 3 高麗, 本曰高句驪 禹别九州, 屬冀州之地, 周為箕子之國, 漢之玄菟郡也 在遼東, 蓋扶余之别種, 以平壤城為國邑 漢, 魏以來, 常通職貢, 亦屢為邊寇 隋煬帝再舉兵, 唐太宗親駕伐之, 皆不克 高宗命李勣征之, 遂拔其城, 分其地為郡縣 唐末,中原多事, 遂自立君長 後唐同光, 天成中, 其主高氏累奉職貢 長興中, 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 遣使朝貢, 以建為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封高麗國王.

[151] 이 역사 기록들이 주로 다음과 같다. (https://cafe.naver.com/kjijon/43927)

① 聖歷三年 (700) 三月六日敕東至高麗國 南至眞臘國 西至波斯 · 吐蕃及堅昆都督府 北至契丹·突厥 靺鞨 並爲八番 以外爲絶域 其使應給料各依式 («唐會要» 권 100, 蕃夷雜錄).

② 景龍四年 (710) 四月 高麗 各遣使來朝 («冊府元龜» 권 970, 朝貢 3).

③ 元和十三年 (818) 四月 其國進樂物兩部 («唐會要» 권 95, 高句麗).

④ 九年 (915) 冬十月 戊申 鉤魚于鴨淥江 新羅遣使貢方物 高麗遣使進寶 («遼史» 권 1, 本紀 1, 太祖 上) 55)

⑤ 靺鞨 在高麗之北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越喜靺鞨 東北至黑水靺鞨 地方二千里 編戶十餘萬 兵數萬人 («冊府元龜» 권 957,國邑1).

⑥ 今擧天寶十一載 (752) 地理 唐土東至安東府 西至安西府 南至日南郡北至單于府 南北如前漢之盛 東則不及 西則過之 «漢地東至樂浪·玄菟 今高麗·渤海是也 今在遼東 非唐土也» («舊唐書» 권 38, 志 18, 地理 1).

⑦ 其入四夷之路與關戍走集最要者七 一曰營州入安東道 二曰登州海行入高麗 渤海道 («新唐書» 권 43, 地理志 7下, 河北道)

⑧ 開元三年 (715) 二月 突厥十姓部落左廂五咄之啜· 右廂五怒失卑五侯斤 及高麗王莫離支高文簡都督 跌思大等各率其衆 自突厥相繼內屬 前後二千餘帳 («冊府元龜» 권 977, 降附)

것을 주장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152].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고대 정사 기록에서 고려라는 호칭은 918년에 왕건이 세운 고려왕조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에 세워진 고구려(심지어 小高句麗國도 포함)와 고려왕조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거의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표상이다.

2. 지식인의 **«고려»** 인식[153]

이러한 중국 고대 정사의 기록, 그리고 많은 이 기록의 영향을 받은 저작은 자연히 그것을 읽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명청 시기가 되면 고려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은 또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 특징은 조선인이 중국에 진출해서 쓴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에서 찾아될 수 있다.

1574년 조선 사신 조헌(趙憲)은 북경에서 명나라 유생과 대화한 기록을 다음과 같다.

아침에 장안문(長安門)으로 가서, 통정문(通政門)으로 들어가서 문 안에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몇 명의 환관들이 나와 대화하려고 왔다가 거절당했다. 또 4명 정도의 유생들이 와서 나에게 고려인이냐고 물었다. 내가 왜 매번 나한테 고려인이냐고 물었지? 고려는 전조(前朝)의 이름이고, 현재의 국가 이름은 조선이며, 명나라가 하사한 이름이라고 대답했다[154].

이것은 조헌의 직접 경험이다. 중국 유생들이 자신을 고려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조헌은 매우 분개하여 조선이야말로 명나라에서 하사한 정식 국호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가 «왜 매번 나한테 고려인이냐고 물었지» 라는 것을 보면 그는 중국에서 이미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명나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766년 홍대용은 청나라 관리 희원외(希員外)와의 대화 기록을 다음과 같다.

세무 관리가 문밖에 서서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어 나를 오라고 했다. 나는 걸어가서 그와 인사를 하고 그의 주소와 직위를 물었다. 그는 만주인이고 집은 북경에 있고 지금은 심양호부원외랑 (瀋陽戶部員外郎) 관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희원외는 우리 나라 왕의 성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씨라고 대답했다. 희원외는 너희 역사에는 김씨과 왕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왜 지금 성이 이씨냐고 또 물었다. 나는 신라 왕은 성이 김씨이고 고려 왕은 왕씨이고, 우리 나라 왕은 이씨라고 말했다. 희원외는 고려가 이미 조선으로 대체되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155]

이 대화를 보면, 당시의 중국 지방 관리들은 한반도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한반도의 정권은 여전히 고려왕조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때는 건륭 30년으로, 고려왕조가 멸망한 지 거의 400년이 되었는데, 중국 지방 관리들이 특히 만주 지역 관리는 한반도에 관한 상식이 뜻밖에도 부족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위의 명청 시기의 예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의 한반도 인식은 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조선을 고려라고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이다. 둘째는 심지어 조선왕조가 고려왕조를 대체했다는 것을 모르는 지식인도 있다는 점이다.

3. 일반 사람의 **«고려»** 인식

당시 사회 상류층의 지식인들은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하니 민간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연행록에는 조선 사신이 한반도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고려라고 부르는 것을 일상적으로 자주 듣는 기록도 있다.

함풍(咸豐) 5년 (1855) 조선 사신 서경순(徐慶淳)은 중국에 출사하면서 요동 사람들은 종종 조선인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서경순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 꼭 가오려(嘉吾麗)라고 부르고, 중국 말로는 고려를 가오려라고 부른다.[156]». 라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요동인뿐 아니라 북경인들도 조선인을 고려인이라고 불렀다. 강희(康熙) 59년(1720) 조선 사신 이의현(李宜顯)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말을 타면, 또 다른 사람이 고삐를 잡아당겨야 하는데, 북경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크게 웃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말을 탈 때 누구가 고삐를 당기고 고려를 외치며 가게 된다»[157]. 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건륭 31년(1766), 홍대용은

---

[152]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小高句麗國の研究**» 제 8 권 (**東京**: **三一書房**, 1984). **徐光錫**, «**高句麗 滅亡 後** 遼**東**에 **再建**된 **高句麗**», «**中國史研究**», 제 114권, 2018, 2쪽 재인용. 이렇게 요동 고구려의 실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小高句麗國**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들마저도 8~9세기 요동에 고구려인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153] 본장 2 소절과 3 소절의 사료는 주로 **黃普基**의 «**歷史記憶的集體構建**: «**高麗棒子**»**釋意**» («**南京大學學報**», 제 5권, 2012) 에서 언급된 사료를 다시 보완하고 정리한다.

[154] **趙憲**, «**重峰集**», **卷** 11 **朝天日記**(**中**), **八月十七日**. **早赴長安門**, **入通政門**, **坐於門內以待曙**, **有宦者數人**, **來欲交話**, **余答以不通話**. **又有儒生數四人來言曰**: «**這是高麗人乎**». **余曰**: «**怎麽每道高麗**,**高麗是吾地前代之名**, **今則名喚朝鮮**, **也是皇朝所定名**».

[155]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8 **燕記 希員外**. 稅**官立門外** , **熟視良久**, **舉手招之**. **余進與之揖**, **問其居住及職名**, **答雲**: «**滿洲人**, **家在京裏**,**見任沈陽戶部員外郎**». **希問**: «**國王何姓**?» **余對以實**. **希曰**: «**在先有姓金姓王**,**今何姓李**?» **余曰**: «**新羅姓金**, **高麗姓王**, **本國姓李**». **希曰**: «**然則高麗革世而為朝鮮乎**?» **余曰**: «**然**».

[156] **徐慶淳**, «**夢經堂日史**», **一月十五日**. «**遼人見我行**, **必呼曰嘉吾麗**, **華音稱高麗曰嘉吾麗**».

[157]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下**)». «**我國人乘馬**, **別使人牽之**, **燕中人大以為笑**, **每兒童輩乘馬**, **使人牽之**, **作勸馬聲**, **稱高麗高麗而去**».

북경 극장에 가서 희곡을 관람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 고려 나리라고 불렸다[158].

중국인들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고려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은 왕일원(王一元)의 «요좌견문록 (遼左見聞錄)» 에서 뚜렷하게 구현된다. 이 책은 «조선은 중국에 공물을 바치는 노선이 압록강과 봉황성(鳳凰城)을 넘어 요녕(遼寧)과 심양(瀋陽)을 거쳐 산해관(山海關)에 들어가 북경에 도착한 것이다. 선양의 고려관(高麗館)은 사신이 묵는 곳이다[159]».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국인이 고려관이라고 부르는 곳의 현판은 사실상 조선관이라고 쓰여 있다. 김창업(金昌業)이 중국에 출사할 때 동행한 최덕중 (崔德中)과 기록한 연행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김창업은 «전문의 현판은 조선관이라고 쓰여 있다»[160]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최덕중은 «문위에 판은조선관이라고 쓰여 있다»[161].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요좌견문록에는 남고려북고려고려포자고려삼 등이 기록돼 있다. 이 외에도 «요좌견문록» 에는 남고려(南高麗), 북고려(北高麗), 고려포자(高麗包子), 고려삼(高麗參) 등이 기록돼 있다.

심지어 청나라 초기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중국 일반 사람들의 조선인에 대한 경멸하는 말도 조선봉자(朝鮮棒子)가 아니라 고려봉자(高麗棒子)이었다[162].

요컨대 명청시대 중국에 아래로는 일반 사람들, 위로는 정부 관리 유생들이 조선왕조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조선왕조을 고려라고 부르고, 조선인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고려왕조의 대외무역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송을 비롯하여 거란, 여진, 일본등 외국인의 출입을 자유롭게허용하였으며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등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중 송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다. 13세기 대몽항전 이후 평화관계가 성립된 후로는 원과의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 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고려왕조가 존재했던 거의 500년 동안 중국 각지와 다양한 형태의 무역을벌였고 인삼, 청자로 대표되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수출했다. 그 후로 한반도에서 출산된 인삼과 청자는 고려삼과 고려청자로 불렸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고려청자라는 명칭이 고려시대에 태어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비교적 흥미로운 것은 인삼의 경우이다. 처음에 고려삼과 관련된 것은 고려왕조가 아니라 고구려였다. 도홍경 (陶弘景) (456-536년) 이 쓴 «명의별록(名醫別錄)» 중에 «고려인삼찬(高麗人參讚)» 이란 글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의 고려삼이 중국에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때 고려삼은 주로 한반도 북쪽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이 1596년 저술한 «본초강목(本草綱目)» 에 따라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출산된 인삼은 고려삼, 백제삼,신라삼으로 나누기 때문이다[163]. 하지만 고려왕조는 한반도를 통일한 왕조로서 그 후의 고려삼은 한반도에서 생산된 모든 인삼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고려왕조의 활발한 대외 무역은 제대로 고려삼을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했다.

중국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품 단어는 기억 속에 깊이 심어져 있어 잊기 어렵다. 입소문을 타면서 고려는 한반도의 대명사가 되어갔다. 조선왕조가 고려왕조를 대체했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입버릇을 바꾸기가 어려웠고, 청나라 때 만들어진 한반도 관련 속어라도 고려를 한반도의 대명사로 삼았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20세기 전반 중국 교과서, 출판물, 저명인사의 글 또는 강연에서 나타난고려라는 호칭에 관한 현상을 정리하고 그 형성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통해 중국인 기억 속에 고려라는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사서, 특히 정사에서 고구려와 고려왕조를 혼동했기 때문에 고려라는 호칭은 918년에 왕건이 세운 고려왕조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에 세워진 고구려와 고려왕조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거의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표상이다. 다른 책들도 한반도 역사를 서술할 때 이들 공식적인 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나서 중국 고대에서 사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로 지식인들은 잘못된 역사 기록을 읽음으로써 고구려와 고려가 같은 정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얻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조선왕조가 수립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왕조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러한 지식인들에게 고려라는 국가가과거가 아니라 당시 아직 실존하고 있는 국가였다.

중국 지식인들도 고려라는 호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더구나 일반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고려에 대한 일반 사람의 인식은 간단하고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다 고려라는 호칭을 붙여 불렀다. 고려 나리, 고려봉자, 고려관, 고려삼과 고려청자 등 일반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그런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라는 호칭은 탄생일로부터 중국의 사서, 지식인의 인식, 일반 사람의 생활과

---

[158]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10 燕記 場戲.

[159] 王一元, «遼左見聞錄». «朝鮮貢道從鴨綠江, 鳳凰城取道遼瀋, 入山海關而至京師, 盛京有高麗館為貢使信宿之所».

[160]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卷 3 壬辰 12月25日. «前門扁以朝鮮館».

[161] 崔德中, «燕行錄日記», 12月25日. «而門上掛板曰朝鮮館».

[162] 黃普基, «歷史記憶的集體構建: «高麗棒子» «釋意», «南京大學學報», 제5권, 2012.

[163] 李时珍, «本草綱目», 草部第十二卷, 草之一. «百濟參, 白堅且圓, 名白條參, 俗名羊角參; 遼東參, 黃潤纖長有須, 俗名黃參, 獨勝; 高麗參, 近紫體虛; 新羅參, 亞黃味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에서 고려라는 호칭 뒤에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중국이라는 중화문명의 통칭 처럼 고려라는 호칭이 한민족 문명의 통칭으로 중국의 교과서, 출판물, 저명인사의 글과 강연에서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분석이었으나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초보적인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高麗一瞥» «老稼齋燕行日記» «湛軒書» «滿淸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

«本草綱目» «夢經堂日史» «孫中山全集» «宋史» «梁啓超文集» «燕行錄日記»

«遼左見聞錄» «朝鮮遺恨» «重峰集» «淸史稿»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陳乾生 編, «小學萬國地理新編(上卷)». 商務印書館, 1902.

楊文洵 編; 胡廛閣 校, «普通敎育新地理外國之部». 會文學社, 1908.

傅角今 編; 傅緯平 校, «復興初級中學敎科書本國地» (第3冊), 商務印書館, 1933.

王謨 編, «高中世界地理», 世界書局, 1933.

王益涯, 周立三 編, «初級中學本國地理(第四冊)», 正中書局, 1935.

王鈞衡, 萬方祥 編, «初中本國地理敎科書(卷下)», 北方學社, 1936.

무정명(武鼎明), «중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1920년대 한인제재 소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현규, «청말 王錫祺《小方壺齋與地叢초》중 韓國 地域學 文獻»,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4호, 1998.

徐光錫, «高句麗 滅亡 後 遼東에 再建된 高句麗», «中國史硏究», 제114권, 2018

柳鏞泰, «中國人의 «南朝鮮 漢城» : 20세기 中華主義», «동아시아역사연구», 제4권, 1998.

程尼娜, «高句麗”改稱“高麗”再考論», «東北史地», 제4권, 2014

조형열, «해방직후 고려 국호론의 전개와 고려 표상», «역사와 현실», 제109호, 2018.

黃普基, «歷史記憶的集體構建: «高麗棒子» 釋意, «南京大學學報», 제5권, 2012.

https://cafe.naver.com/kjijon/43927

Abstract

THE USE AND MEANING OF THE TITLE «KORYO» IN THE QING AND THE REPUBLIC OF CHINA

Li Bin Bin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that Korean Peninsula was called Koryo in Chinese societ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to analyze the prototype of this appellation.

This paper first collates the appellation Koryo in textbooks, publications, articles or speeches of famous people in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n tries to analyze the reasons for its formation from various angles.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know why the appellation Koryo is so ingrained in the historical memory of the Chinese people.
Key words: Koryo, Qing Dynasty, historical memory.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

Rano SODIKOVA
Seoul,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목차

1. 외환위기란
2. 외환위기의 원인
3. 대한민국들의 대응전략
4.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의 변화
5. 참가문헌

외환위기는 외화유출의 급증, 자국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외환시장의 기능마비와 같이 외화에 대한 수급의 불안정으로 시장을 통한 외환수급 조정을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164].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나라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면 그동안 외국에서 빌렸던 돈을 결국 갚지 못하게 되고, 정부가 외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에서 수출하는 물건의 품질 관리나 경영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값이 상승하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입게 됩니다[165].

대한민국은 1997년 금융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증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정부는 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할 사태에 이르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166].

대한민국 기업들은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추진했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는데 감염론, 실정론, 구조론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167].

---

[164]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p 50-51.인쇄물
[165]외환위기,천재학습백과
[166]외환위기,네이버지식백과
[167]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p 51.인쇄물

감염론: 멕시코의 위기가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킬라 효과와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고 외환위기를 유발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외환위기의 전개과정을 분석해 보면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도화선인 1997년 7월의 태국 외환위기가 홍콩, 대만 등 경제의 하부구조가 양호한 국가에까지 파급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투자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외국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0월에 85% 이상을 유지했던 단기외채의 연장 비율은 12월에 와서 20% 선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외채구조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실정론: 정부와 정책당국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정부의 실정론입니다. 1997년 초반에 이미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파악이 있었습니다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위기를 유발시켰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보유고가 충분하며 경제가 튼튼하다면서 있는 외화까지 써버리고 결국 외환시장 마비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168].

구조론: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는 다른 아시아의 국가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의 구조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수익성보다 매출액, 생산능력, 자산규모 등 외형확대 중심의 경영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임경영이 체질화되었습니다[169].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목표로 두고 시장이 원한 것 이상으로 물건을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빚을 많이 받고 기업활동을 하다가 아시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파산이 된 기업수가 급증하면서 결국 국가도 파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동남아의 통화위기가 한민국의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그 당시의 한국 경제구조가 이러한 위기에 대응 못할 만큼 악화되었고 그것이 정부의 실정으로 이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170].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IMF(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그 이후 기업 연쇄도산, 실업 및 물가상승, 부동산 자산의 폭락, 금융기관 부실화의 노출, 금리의 고공행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171].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IMF가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자금지원조건을 따라야 했습니다:

1. 긴축통화정책과 금융조정, 강력한 거시경제 틀을 만들 것
2. 금융부문의 조정과 자본의 재분배, 그리고, 좀더 투명하고 시장 중심적이며, 정치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
4. 자본계정 자유화를 가속화할 것
5. 무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고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경제자료를 공개한다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172].

다음으로는 기업부실화와 구조 조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문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부실기업 처리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부실기업은 주로 대기업 간의 **사업교환 (빅딜)** 과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 을 통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빅딜은 그동안 좋지 않았던 회사들은 문을 닫고 회사 자원, 자산, 인력 등을 그보다 잘 나가는 회사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워크아웃을 통해 회사의 불필요한 자산을 팔고 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부실기업 처리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동반하므로

---

[168]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 p 51-52.인쇄물.

[169]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 p 52-53.인쇄물

[170]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 p 54.인쇄물

[171]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1998, p 49-50.인쇄물

[172] 박원암.기업부실화와 구조조정 *(2):1997*년 외환위기.홍익대, n.d,p 41-42.인쇄물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을 지원했고, 부실기업 선정 및 매각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규율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 1월에 **5+3 원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부채비율 200% 이내로 재무구조 개선;

(4) 핵심 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5)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 5 대 원칙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국제기준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개정,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173].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권비를 줄이고 생산성이 떨어진 인원을 바로 해고시키고,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최대한 많은 외화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가지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의 구조가 바뀌고 행동이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7년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부도나 워크아웃으로 해체된 그룹이 11개에 이르고 무분별한 비관련다각화, 가족 경영, 높은 부채비율 등이 개선되었습니다[174].

또한 박영철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 이후 투자위험 혹은 부도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와 차입 결정이 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의 감소로 수익성 또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175].

기업은 부채 비율을 낮추고 수익성 중심으로 돌고, cash flow 중심의 경영을 하고, 회계 투명성이 생겼고 이제 더 이상 risk taking을 하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때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이병기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이후 과잉인력이나 과잉 생산설비를 정리함으로써 기업 운영효율성 증대효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력이나 생산설비의 구조조정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의 구조 조정과 함께 설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생산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이병기,74)[176]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로부터 강도 높은 요구조건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이 투명해지고 운영효율성이 증가하고 회사의 인력 수를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

1. 류주한.한국기업경쟁전략.한양대학교, 2020, 7-8수업.
2. 박영철.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8. (보고서 번호: 2008-10), pp 368.인쇄물.
3. 박원암.기업부실화와 구조조정 (2):*1997년 외환위기*.홍익대, n.d,pp41-43.인쇄물.

---

[173] 박원암.기업부실화와 구조조정 (2):1997년 외환위기.홍익대, n.d, p 42-43.인쇄물

[174] 박원암.기업부실화와 구조조정 (2):1997년 외환위기.홍익대, n.d, p 45-46.인쇄물

[175] 박영철.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에 관한 연구.서울:한국경제연구원, 2008.(보고서 번호: 2008-10), p 368.인쇄물.

[176] 이병기.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한국경제연구원, 2008.보고서 본호:2008-14,p74인쇄물.

4. 이병기.*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8보고서 본호:2008-14, pp74. 인쇄물.
5. IMF의 원인과 대응방안.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1998, pp 50-54.인쇄물.
6. https://ppss.kr/archives/32767
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931&cid=40942&categoryId=31825
8. https://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45489

Abstract

THE CAUSE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IMPACT ON KOREAN COMPANIES.

Rano SODIKOVA
Academy of Korean Studies
Songnam, Republic of Korea

The article is about a financial crisis which The Republic of Korea suffered in 1997 due to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 chain default by large corporations due to poor business management focused on borrowings, a decline in external trust, and a surge in short-term external debt. In December, the government applied for a bailout loan to the IMF.

Korean companies suffered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and had to endure difficult times.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at how the 1997 financial crisis occurred, what strategies Korean companies pursued to overcome it, and how it changed in the result of restructuring.

Key words: *Foreign exchange crisis, contagion theory, infectious theory, structural theor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usiness exchange, corporate improvement work, restructuring.*

벤처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우즈베크스탄에서의 적용 가능성

Lazizbek FAYZIEV
***Supervisor*: PhD of economy Yoziyev.G.**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Content

1. Introduction
2.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venture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2.1. Suggestions to develop venture business in Uzbekistan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3. Conclusion
4. Literature
Abstract

1. **Introduction.**

XXI 세기 초에 국가 경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세계적 경험에 따르면 효과적인 벤처 비즈니스 없이는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을 보장 할 수 없다. 동시에 혁신은 경제의 원동력이되고 있다. 천연 원료의 원천과 달리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만든 자원이며 그 기회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모의 개발에 대한 미래 전망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벤처 사업은 생산 및 소비 분야에서 선도적 인 과학 기술 아이디어의 한 유형이되었다. 이것은 혁신의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업의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크게 단순화하고, 과학 및 기술

제품의 상업화 수준을 높일 것이다. 벤처 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며 경제의 실질 부문을 발전시키는 혁신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방향이다.

외국 경험에 따르면 벤처 비즈니스의 발전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의 발전을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국가 전략으로 간주되다. 미국에서만 2018 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10 대 기업 중 7 개 기업이 벤처 비즈니스와 벤처 캐피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중 5 개: Apple, Amazon, Alphabet (Google), Microsoft 및 Facebook에서 미국의 기업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177]. 미국의 벤처 캐피탈 기반 기업은 약 400 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전체 시장의 5 분의 1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상장 기업의 연구 비용의 44 %를 차지하는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이것은 국가 경제에서 벤처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대통령님 Shavkat Mirziyoyev 말했듯이 «혁신은 미래입니다»[178].혁신은 미래에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도입 한 최종 결과이다.

선진국의 과학 및 혁신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 발전에서 과학 기술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 재료 생산 부문의 점진적인 발전을 보장함; 세계 시장에서 국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국가의 국방 능력 강화; 환경 개선; 기존 과학 학교의 유지 및 개발.

이러한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 활동에 관한» 법률 초안이 개발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전문가 및 일반 대중과 논의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현재 상황은 혁신의 창출과 실행에 기여하는 벤처 비즈니스 기관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벤처 펀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벤처 투자를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 부족, 연구 및 혁신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벤처 기업의 발전에있어 국가의 역할, 한국의 사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venture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은 혁신 개발 측면에서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혁신 개발을위한 국가의 정책은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가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179]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상반기 한국의 신규 벤처 투자는 8000 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벤처 펀드 조성도 2018 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8 % 증가한 약 2.2 조원 (미화 18 억 달러) 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 투자의 70 % 이상이 약 7 년 된 스타트 업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젊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벤처 캐피탈 지원을 나타낸 것이었다.

생명 공학 스타트 업은 전체 투자의 30.2 % 를 차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다. IT와 유통, 서비스가 각각 25.4 %와 16.8 % 를 차지했다.

5 월부터 10 월까지 월간 벤처 투자가 약 400 억원 (미화 3,350 만달 러) 에 달하는 가운데 2019 년 총 벤처 투자는 지난해 총 3 조 4000 억원 (28 억원 이상) 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를 공개 한 기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벤처 생태계도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었다.

첫째, 현지 벤처 투자 규모의 증가가 유니콘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자체 시장에서 10 억 달러 이상의 개인 시장 가치를 보유한 9 개 회사를 보유한 국내 유니콘 수에서 세계 5 위를 차지하고 있다.

8 ~ 9 월 국내 스타트 업 6 곳이 벤처 투자 (1680 만달 러) 이상 200 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벤처 산업 발전에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의 벤처 기업 발전 경험은 우즈베키스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180].

---

[177] «Investing and Economics Blog». The 20 Most Valuable Companies in the World — Jan 2019 at Curious Cat Investing and Economics Blog. Accessed April 19, 2019.https://investing.curiouscatblog.net/2019/01/14/the-20-most-valuable-companies-in-the-world-jan-2019/.

[178] O‘zbekiston Respublikasi Prezidenti Shavkat Mirziyoyevning «Oliy Majlisga Murojaatnomasi» 22-dekabr 2017. https://uza.uz/oz/posts/o-zbekiston-respublikasi-prezidenti-shavkat-mirziyoyevning-o-22-12-2017

[179]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temaList.do

[180] Короткий С.В. «Венчурный бизнес». ООО «ЛитРес», 2019.

1) 시장 기능과 정부 역할의 균형 벤처 기업 육성 정책에서 배울 수있는 중요한 사실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서의 역할을 축소 할시기를 계획해야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시장이 저절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되지만 역할을 다했을 때 물러나는 것도 알아야한다. 이것은 시장 기능에 대한 존중과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여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다.

2) 벤처 기업의 금융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바람직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적 자원, 비즈니스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와 자신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분야에 투자해야한다.

3) 장기 개발을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 투자는 우리나라의 R & D 지수와 특허 취득은 선진국과 비슷하게 개선 되었으나 기초 연구나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약한다.

2.1. Suggestions to develop venture business in Uzbekistan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구조적 변화 및 경제 다각화 과정을 지속한다는 목표,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추가 개발을 기반으로 "혁신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181] 다음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의 선택부터 사용, 판매 (상용화) 및 구현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국가의 수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는 전통적인 혁신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신기술 개발이다.

둘째,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의 결과를 구현하는 국가 혁신 시스템 (MIT) 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잠재적 인 과학, 교육 및 생산뿐만 아니라 전체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다.

셋째, 혁신 활동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적 지원, 벤처 자금 조달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 지적 재산 보호 및 경제적 관행 도입 (특허, 라이센스, 노하우 및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특혜 과세) 다른 무형 자산의).

넷째,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 집약적 제품의 수출을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프라의 실험 실험실, 테크노 파크, 테크노 폴리스, 과학 공원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만들 것이다.

다섯째, 정보 지원, 전문성, 인증 및 개발 운동, 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된 혁신 프로세스 인프라의 개발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발전을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초기 단계에서 국가 지원을 제공한다.

일곱째,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경쟁 선택 도입. 주정부는 작고 빠르게 지불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유망한 생산을 수행하는 데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의 흐름을 늘려야한다.

여덟째, 생산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수의 기본 기술을 선택하여 혁신 정책의 유망 영역을 구현한다.

3. Conclusion

우리는 채택 된 법률에 이러한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미래에 우리 나라에 혁신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가 4 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고있는 지금 우즈베키스탄도 혁신 산업에 주목하고 인공 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차세대를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인공 지능을 포착 한 세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벤처에 대한 투자와 격려가 필요한다.

4. Literature

1. O‘zbekiston Respublikasi Prezidenti Shavkat Mirziyoyev, «Oliy Majlisga Murojaatnomasi» 22-dekabr 2017.
2. O‘zbekiston Respublikasining «Innavatsion faoliyat to‘g‘irisida» qonuni 2020-yil 7-aprel.
3. Короткий С.В. «Венчурный бизнес» ООО «ЛитРес», 2019.
4. www.lex.uz
5. www.mss.go.kr

[181] O‘zbekiston Respublikasi «Innavatsion faoliyat to‘g‘irisida» qonuni 2020-yil 7-aprel. https://lex.uz/docs/-4910391

6. www.investing.curiouscatblog.net

Abstract

EXPERIENCE OF REPUBLIC OF KOREA IN THE DEVELOPMENT OF VENTURE BUSINESS AND PROSPECTS FOR ITS APPLICATION IN UZBEKISTAN

Lazizbek FAYZIEV

***Supervisor*: PhD of economy Yoziyev.G.**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trends of recent years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ies, how important innovations, start-ups, especially venture business and venture business are in the global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innovative potenti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currently becoming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in the world, the direction of the state strategy to bring it to this level in the short term, the innovative environment for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and bills specially for free acts of domestic and foreign venture investo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tudied experience, ways to overcome the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cesse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using the experience of the world and the Republic of Korea's in developing ventures, were suggested. Given that venture business is a relatively new field for our country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is not yet fully formed, first of all, proposals were made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education system, which serves as a resource role for the sector in the future.

Key words: Start-up, innovation, venture business, venture investment, trends, digital technologies, government strategy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йгул ТУРЛИБЕК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Ёзиев Ғ.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Введение
2.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ефор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1.Концепция креа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Новыми элементам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становятся два фактора –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культура. *Глобализация*[182]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означает это не только перемещение потоков товаров, сырья и денег по всему миру, но и усиление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всех составляющих мир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Техн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неудержимо ведет к постоянному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и обновлению техни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культура приобретает роль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его элемента в процессе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формации, модернизация, охватывая все стороны жизни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 экономику, со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духовность, – ведет к существенным переменам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Успех модерниз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явля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их прям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мелого сочетания двух факторов – следования в русле общемировых тенденций, открывающих путь 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прогрессу, и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мест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и социальному своеобразию.

2.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ефор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дернизационном опыте Южной Кореи обращаю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четыре** четко прослеживаемых **фактора**. **Во-первых**,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я, определивш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цели политики, ее характер, формы, методы, и особенно содерж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Это идея прорыва нации на передовые рубежи развит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о-вторых**, мобилизация ресурсов нации на реш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и посредст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мощ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его инструментов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сфере бюджетной, кредитно-денежной, структурной, налогово-таможенной, аграр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иннов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третьих**, сознательно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истемы концентрации капитала на решающ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рыва путем создания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групп. **В-четвертых**, развитие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и занято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го уровня спроса и на этой основе роста доходов и сбережений.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ыделяют **четыре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реформ**, которы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ись в жизнь.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акцент был сделан на реформ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Быстрый подъе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беспечил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для населения и сырье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на селе, где тогда жил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имел следствием высвобождение избыточ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обеспечившей потребности расту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торичного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Земельная реформа бы завершена к 1955 г., однако ввиду густонаселенности примерно 43 % крестьянских семей имело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менее 0,5 га земли. В первые годы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американская помощь в вид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се еще имела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огда положение с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о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 оно непрерывно улучшалось, особенн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импорт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бственн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а также рыболовств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форм страна решил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роблему и вышла на уровень полно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г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Период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характеризовался бурным развитием **импортозамещ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ов

---

[182]*Глобализация* является характерной чертой процессов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мир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нимаемого как совокуп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ых хозяйств, связанных друг с другом систем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азделения труд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утём включения в мировой рынок и тесного переплетения экономики на основе транс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и регионализации.

широ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на базе собственного сырья. Экспорт был ограничен посредством завышения курса обмена.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сть расчетного баланса достигалась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иностранной помощи. В 1950-е гг. импортозамещающие отрасли обеспечивали 24% прироста вс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Экспорт увеличился лишь на 5%. Созда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я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столкнула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покупатель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Так, к 1957 г. возможност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были исчерпаны ввиду того, что отече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удовлетворяло уже 90% потребности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в товарах широк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После 1957 г. эконом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ступила в застойный период. Средний доход жителя Кореи к 1960 г.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158 в год – меньше, чем, например, в Либерии и Гватемале. Это вызвало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ыразившуюся, в частности,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волнениях и завершившую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ереворотом в 1960 г.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модернизации в рамках перехода к экспортной ориентации экономики развернулась широкая экспортная экспансия,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изнана главным двигател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ходя из сравнитель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состоящих в изобилии рабочей силы, и учитывая растущий спрос япон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ынков в трудоемкой продук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интенсивно развивала такие отрасл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к текстильная, швейная и сбороч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электронных товаров. Это сразу же отразилось на объеме и структуре экспорта страны. В 1975 г.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экспортных отрас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ышла швей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беспечив 23% всего экспорт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было хлопкопрядильное и хлопкоткац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8%), затем производство синтетических тканей (6%), компонентов и частей электронных изделий (5%) и обуви (4%). В 1980 г. набирает силу экспорт кораблей и продукции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их доля достигла 5%. Прогрессивные сдвиги в структуре экспорта страны были очевидны. Южная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ла не только товарный экспорт, но и экспорт различного вида услуг, например, обслуживание Л. Е. На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323 американской армии во время вьетнамской войн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арабских странах в 1970-е гг., что принесло стране немало доходов. Например, стоимость контрактов на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к концу 1978 г.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14 млрд долларов – почти половину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Реализуя политику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рынка, с 1981 г.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экспортировала товары в 159 стран. Американский и японский рынки являлись самыми важными и составля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6,7 и 16,5% все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Европа – 15,8%, Африка – 6,1%, Азия – 22,8%,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 лишь 3%. Экспорт оказал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целом, так и ее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и секторов. Многие экономисты отмечают влияние экспорт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Экспор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росту занятости и доходов все более широк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Показатели безработицы уменьшились с 8% в 1963 г. до 4% в 1973 г.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ход 20% самых бедных в стране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увеличился на 130%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ериодом 1958–1970 гг. **На завершающем этапе** реформ ключевой задачей стало созда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и подготовка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 развитии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стало широкое заимствование зарубеж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авитель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удалось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но и среди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программы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стран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работке и успешном проведен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ыграло налич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воли. Наконец,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ы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идей, развития рационализаторских инициатив

широк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Во многом это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образованные люди пользуются особым уважением. На этой основе оказываются плодотворными такие ме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как массовая пропаганда идей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организация широкого доступа населения к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2.1. Концепция креа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в 1988 г. ВВП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ставлял $197 млрд (в текущих ценах). Почти через 30 лет, в 2017 г., он равнялся уже $1,5 трлн – в 8 раз больше. За 30 лет Корея прошла путь, который западные развитые страны преодолевали в течение века, считает Чон Сон Чхоль из STEPI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Многие, похоже, согласны с тем, что «внешня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хорошо образованная 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помогли достичь того, что называют «корейским чудом», – пишет Чон в статье «Инноваци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и рост: корейский опыт». По итогам 2017 г. дохо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Корее составил $29 743. Южна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4-е место по легкости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в рейтинге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Doing Business по итогам 2018 г. Все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ктивности инвесто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муникаций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 данным ЮНЕСКО, сегодня лидер по тратам на НИОКР: 4,2% ВВП – это больше, чем США (2,7%) и Япония (3,2%), два миров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лидер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 данным ЮНЕСКО, сегодня лидер по тратам на НИОКР: 4,2% ВВП – это больше, чем США (2,7%) и Япония (3,2%), два миров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лидера.

Концепция креативного[183]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реды в XXI веке, включает: 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цели: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ствую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косистемы дл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и повышения 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рост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источник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рынков и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цветание нации путем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развития контент-культуры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звлечений (фильмы, сериалы, музыка,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анимация) на основе компьютер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б) направления: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ых драйве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основывающихся на воображении и креативности, наукоемки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ИКТ; поиск эффективных форм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ом, ведущими ТНК,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и мелким бизнесом; активизаци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фирм, способных использовать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укоемкие технологии, куль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в) приорите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созд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й среды для открытия и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обеспечения гарантий защиты прав креа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в сфере контент-культуры, ИКТ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изнеса после непреднамеренного банкротства; г)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е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 области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для генерирования но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за счет компетенций партнеров и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Это позволило: 1) выявить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азвити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2) доказать, что предпосылки но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ывка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изации формируются не традиционными отраслям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укой, образованием, культурой, экологией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где создается

[183] *Кре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или экономика знаний* — особы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анный на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нов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являются: высокая роль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открытий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высокая добавленная стоимость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реализуются цели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3) обоснова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глобальной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за сче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меющихся компетенций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и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для повы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3. Заключение.

Мно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вязывают структурн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Южной Кореи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реформами, направленными на открытие страны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рынк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факторов ее успеха: страна сегодня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крупнейших экспортеров в мире, а ее экспорт в процентном отношении к ВВП вырос с 25,9% в 1995 г. до 56,3% в 2012 г., по данным отчета «Золотой рост» от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посвященного сравнению европе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модели с моделям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нна Мария Сантакрю, экономист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зервного банка Сент-Луиса, проводившая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Корее, считает, что политика стимуляции инвестиций в инновации вместе с улучшением деловой среды помогли Корее выйти н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пы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 выработке общей стратег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ее реализации на практик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имер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ет наличие особой модел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 пост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ществе, которая формируется на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й основ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Межуев В. М. Цен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контексте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глобализации. URL: http://www.zpu-journal.ru/e-zpu/2009/1/Mezhuev/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1.09.2015).
2. Яковлев А. И. Модернизация как реформа системы // Вестн. – Моск.унта. Сер. 25.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2010. № 2.
3. Толстокулаков И. А. Политическ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еи: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и этапы. –Владивосток, 2009.
4. Мореходов М. А. Южная Корея: секреты успеха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2012. № 1.
5. Сычева В. А. Труженики маленьких четырех драконов. – М., 1991.
6. Окрут З. М., Фам За Минь. Модел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Путь к процветанию. – М., 1992.
7. Пузановский А. Г., Морозов А. П.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условиях модернизации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 Кострома, 2002.
8. Малевич И. А. Азиатский треугольник драконов. – Минск, 2006.
9. https://elar.urfu.ru/bitstream/10995/40195/1/kiis_2016_041.pdf
10. https://cyberleninka.ru
11. https://articlekz.com/article/19805
12. https://mgimo.ru/upload/iblock/e0bB5.pdf

Abstract

SPECIFIC FEATURES OF MODERNIZATION OF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Oygul TURLIBEKOVA

***Supervisor*: PhD Yoziev F.**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stages and specific features of such a rapid development of the modernization of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 short period. The economic factors of successful modernization in the country are characterized. And also, as the experience of many

countries shows, modernization, covering all aspects of the life of modern society – economy, social relations, spirituality, leads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tical sphere. The success of modernization processes in South Korea is evidence of their direct dependence on a skillful combination of two factors: following in line with global trends that open the way to socio-economic progress, and respecting local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country, which manages not only to minimize the problems of economic modernization, but also to develop new types of economic activity, is generalized.

Key words: *economic modernization, globalization, reforms in agriculture, import substitution, export orientation of the economy, scientific and technical base, highly qualified labor force, R&D.*

ОСОБЕННОСТИ ВНЕШНЕ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дира ШУКУР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Ёзиев Ғ.Л.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1. Начал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её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принятый в 1960-е годы.
2.2.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ременя глобальных кризисов в 1990-е
2.3. Нынешние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Абстракт

1. **Введ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 доказано, что не одно государство не способно развить и улучшить свою экономику, если ограничит себя от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 целого механизма процессов экономики, в которого также входит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 этом нужно отметить важность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е вкладываются в определённые проекты, в ходе которых извлекается прибыль. Как правило, меры и стратегии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определены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государства, указах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х, принят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законах. Изучив данную статью можно сделать определённые выводы по поводу прямого влияния и связи проводим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с её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азвитием, выделить плюсы и возмож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не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литики, сделать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двух стран, начальный путь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х схож друг с другом – а именн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Узбекистан.

Говоря о внешне-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о её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максимально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осуществлению мер по улучшени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го климата. Более того создана мощная правовая баз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оддержку и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Закон, в котором были указаны все эти меры, был принят ещё в 1998 году 16 сентября –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е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Нынеш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внешн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весьма многообещающие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и требую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и доскон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Так в 2019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было поручено,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подготовить стратегию по осуществл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средне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ом был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2.1. Начал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её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принятый в 1960-е год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самым успешным является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ормацией и умело ей пользуется. Так и на уровне государ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владеть текуще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 общи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гражданско-правовых аспектах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транах, в особенности являющимися ведущими партнёрами. В ходе правильно составленных и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величение потока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но и приведёт к взаим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Здесь ж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важность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базой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Изучая пу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ужно выделить, что д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на была аграрной страной, у населения не хватала денег на повседневные нужды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Более того последствия 36-летнего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а затем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в 1950-е годы заметно разрушила промышленный сектор страны и превратила её в руны. И даже после войны 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далека от возможного прогресс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на тот период страна остро нуждалась в поддержке извне в лице передовых стран с развитой экономкой – а именно по большей мере США и рада стран Западной Европы, являющи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оседями.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поддержке уже к 2004 году ВВП страны превышал 1 трлн. дол., а сегодня она занимает 12 строчку в списке стран мира с развитой экономикой (по данным МВФ за 2020 г). Здесь также следует выделить взаимное согласие и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ак называемым «чеболям» страны – «крупным частным корпорациям», а также принятие в

1960 году Закон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и привле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который являлся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шагов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днако в начале этап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Южная Корея получала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ного займа, чем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из-за чего в 1980-е годы она была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долгу. Причиной того, как же всё-таки развивалась экономика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сть страны 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хода на западный рынок.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уделялось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недрению инноваций во все отрасли социаль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было развит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2.2.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ременя глобальных кризисов в 1990-е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инает меняться после 1980х годов, ког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бурног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увеличились зарплаты и параллельно возросла инфляция в стране. Также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реформ прирост ВВП стал отрицательным и составлял -1,7% причинами этой ситуации был нефтяной кризис и введение импортных квот со стороны США. Учитывая д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либерализировать экономику, уделяя при это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логовым реформам, приватизации и человеческому капиталу.

Действ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е прошли даром и уже в 1981–1997 годах темпы прироста ВВП были крайне высоки (+9,1% в среднем ежегодно). Однако в 1996 году рост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замедлился.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резким увеличением дефицита счета текущих операций, что привело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накоплению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долга, уменьшению экспорта, более того экономика страны была ослаблена чрезмер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и очень тесными связями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с банками. Все это на фоне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конъюнктуры экономики в регионе (Азиатски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1997–1998 годов) привело к сокращению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сновном – чеболей). В 1997 году 7 из 30 крупнейших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и признаны банкротами, а корейская вона потерпела двукратную девальвац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оллару США, что привело к серьезным негатив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фактором, осложнившим ситуацию в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в тот период, стала значительная девальв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алют соседних стран, что отразилось на сокращени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Однако уже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998 года финансовые рынки в стране начали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ся, процентные ставки понизились до докризисных уровней, а национальная валюта почти на треть укрепилас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оллару СШ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98 года в Корее начался рос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темпы прироста ВВП по итогам года все же бы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ми и составили –5,5%). Благодаря успешным действ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в 1999-2000 гг. ВВП стал расти на 9% ежегодно, выросли инвестиции; в 2003-2007 гг. темпы роста ВВП Южной Кореи уменьшились д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4-5% ежегодно. Скорому выходу из кризиса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гиперинфляци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жесткая кредитно-денежная политика, помощь со сторон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МВФ), а также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сам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виде накопленного золота из собственного кармана.

В начале XXI века темпы прироста ВВП Кореи сократились на фоне замедления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Тем не менее, экономика Кореи прошла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2008–2009 годов хотя и со снижением показателей роста. Негатив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великой рецессии» 2008–2009 годов стали рост безработицы и инфляции, сокращени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выпуска и существенное снижение курса корейской воны к доллару США. Однако уже к третьему кварталу 2009года экономика страны стала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за счёт роста экспорта.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проводившая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Ли Мён Бака –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тот период, который сделал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ажной частью стратегии роста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 2008 г. в Кор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акционеров) составляло более 9% населения (около 4,6 млн. человек),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обеспечивала 50% оборот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в этой связи, что последнее крупное изменение Закона было произведено в 2009-2010 гг.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рея вышла из кризиса, что потребовало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и гарантий инвесто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Законом «О содействии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действуют и друг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резидентов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К ним можно отнести, например, законы «О комме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земе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О развит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сектора и учрежд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О монополь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й торговле», «Об операциях с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ой»,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ах и рынке капиталов» и др.

В 2012 г. от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было получено 16 млрд. 260 млн долл.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что стало рекордо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Основными инвесторами выступали Япония, США, Гонконг, Сингапур и материковый Китай. Выйти на докризисный уровень инвестирования удалось только в 2013 г.

2.3. Нынешние особенно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иходят от США с их 43,8 млрд. долл., что составляет 25,2%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Корею с 1960 г., затем идет Япония с ее 26 млрд долл. (14,9%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затем –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 ее 10,7 млрд долл. (6,2%)20. С 2012 г. США действуют на основе американо-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зоне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2012 г. Во время глобального кризиса с Кореи было вывед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нег, и этот опыт помог им понять,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читывать только на свои силы.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м работам (НИОКР),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получение новых знаний и затем применение их на практик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й выгоды и улучшение 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на уровне со странами большой восьмёрк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икогда не прекращала поиск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артнёров и уже спустя год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1992 году 29 январ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креп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9 год Узбекистан является третьим по величине партне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странах Европы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формирующимся рынком: товарооборот в 2019 году составил 2,7 млрд. долларо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а первой страно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заключившей соглашение о зоне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 ЕС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в 2011 году).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деся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вросоюза, при этом Союз – третий по величине экспортный рынок для Кореи. В обще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15 соглашений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ентябре 1991 г. страна стала членом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ит во все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ОН, а в 2007–2017 годах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и.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ВТО, ОЭСР, Интерпола, «Группы двадцати», МАГАТЭ.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к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трана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АТЭС 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диало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АСЕАН.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и Азиатского банк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инвестици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далось качественно и колич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за 2000–2018 годы ВВП страны практически удвоился. Тем не менее, не все «хрон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были решены. К примеру, весьма непростые отношения с соседями в лиц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ей, нехватка природных ископаемых,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д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к особенностя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носятся:

-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оп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иностранные займы, а затем на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 увеличение объёма экспорта;
- созд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вободных зон торговли;
-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апиталоёмкости экономик,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нутренних сбережений;
-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значительные вложения 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дея о поддержк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й, научных кадров и т.п., внедр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ди упрощен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и для местных и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инвесторов-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3. Заключение

За 1980–2018 годы эконом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величилась почти в 20 раз. Некогда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Кореи составлял меньше чем у самого отстал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фрики, а теперь составляет 31,841 долларов и входит в тридцатку стран мира. Грамотно проведенные реформы, высокая трудовая этика и благоприятная конъюнктур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позволили Корее пройти путь от аграрной страны до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промышленных стран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Развитие в XX веке «чеболей» – крупных управляемых промышленно-финансовых конгломератов – обеспечило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экспорта и обеспечивает 50% экспорта страны,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высокие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виду ориент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экспорт, сжатие внутренних рынков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рецессии» внесло существенный отрица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ост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в XX веке. Стране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период «великой рецессии». Тем не менее, Корее предстоит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и най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райве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По оценкам МВФ, темп прироста ВВП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19 году замедлит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на 0,1- 2,6%, а затем ускорится до 2,8% в 2020 году. ОЭСР пересмотрела в сторону снижения прогнозы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 в доклад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марте 2019 г.,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оябрьскими оценками.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оценкам, ВВП Кореи увеличится на 2,6% в 2019 и 2020 годах.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ичинами замедления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станет замедление экспорта, однако продолжающееся смягчение налогово-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и низкая инфляция должны поддержать спрос.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Беликова К.М., Ахмадова М.А.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тран БРИК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и экономика.
2. Бойко А. Робототехник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01.11.2016. URL: http://robotrends.ru
3. Беликова К.М.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уть развития стран БРИКС как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вектор. Актуализация процесс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тран БРИКС в экономике, политике, праве: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го семинара. Москва, 9 октября 2012 г.

4. Гил Кюн Сук. Эволюция политик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ле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1997 т. URL: http://www.evolutio.info
5. Эконом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URL: http://www.ereport.ru
6.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Republic of Korea). / Ed. by Ministry of Legislation. URL: legal.un.org/avl/pdf/ls/Shin_RelDocs.pdf
7.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спехи и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https://ac.gov.ru

Abstract

PROPERTIES OF FOREIGN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Nodira SHUKUROVA

***Supervisor*: Ph.D. Yoziev F.L.**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e article examines the investment policy and investment strategy of South Korea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rom 1960 to the present. These strategies allowed the country to quickly cope with the bad economic situation and become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relying on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novations, science, which opened its markets to foreign investors. It also considers the existing and still existing laws on investment support. The prerequisites and main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and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investigated.

Key words: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policy, investment climate, government policy, economic liberalization, tax reforms, innovation, economic integration, industrial sector, capital market, public debt, free trade zone**.**

УЗБЕКИСТАН-КОРЕЯ: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Эльвира АНАРКУЛ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Ёзиев Г.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Современное миграционн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1.Миграци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 Корею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Стреми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вывело государство из беднейшей страны в страну с развитой экономикой. Благодаря быстрым темпам развития ВВП Кореи увеличился в 8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1988 г., когда эта страна смогла показать себя миру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1988 г. Сегодн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лидерские позиции в отраслях медицины, косметики, электроники,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яжел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Т, туризма и др. За полвека страна смогла не только направить экономику на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но и ориентировать ее на экспор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рея выпускает на экспорт ряд таких товаров, как электроника и электр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тяжел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ядерные реакторы, котлы;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кроме ЖД), трамваи; корабли, лодки и другие плавучие сооружения; минеральное топливо, масла, продукты дистилляции; пластик; оптическая, фото-, медицинская аппаратура; органические химикаты; железо и сталь; изделия из железа и стали.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с 1996 по 2015 г. колич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азработок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росло на 88,5% (с 2,3% от ВВП в 1996 г. до 4,2% в 2016 г.), а в США – только на 14,4% (с 2,44% в 1996г. до 2,7% в 2016г.). Этому причиной могут служить инвестици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эту область и в человеческие ресурсы. Еще в 1945 г. грамотными были лишь 22% граждан, чье число к 1970 г. увеличилось до 87,6%, а в поздние 1980-е – до 93%. Однако с ростом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а потеряла свое конкурент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на мировой рынке – дешев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тали причиной беспокойств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хотело сохран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2.Современное миграционн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в 2019 г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увеличилось на 7%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что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о 2,5 млн. В основном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тайской, вьетнамской, тайск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японской, узбекской и рус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за текущий год составили 4,9% от общего населения, тогда как 5% дает стране статус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Еще в 2007 г количество иммигрантов было меньше 1 млн, а уже в 2016 г их число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о 2 млн.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Коре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новитс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для иммигрантов страной.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иммиграци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брак, диаспору, образование, работу и кратк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Из-за повышения образованности в стране и падении уровня безработицы началась нехватка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Это и стало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актив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иммигрантов. Однако они прибывают в Корею на временном основании. Прежде всег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уждается в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готовы работать в категории «трудный, грязный и опасный», где и у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вернувшись таким способом в Корею. До 2003 г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было официа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о ввозе временной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Присутствие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лекло вним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 июне 2002 г оно призн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ого статуса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в первый раз. В июле 2003 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недрило систему разреш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схему гостевой работы,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и разрешения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работали бок о бок.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ников также растет за счет того,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отраслей, где можно работать мигрантам. Еще в 2000-х позволялось работать в 19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Это были стройка, заводы, фабрики, сервис,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ный промысел и др.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 появлением визы H2 список пополнился до 32 отраслей. Исходя и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могут

заключать трудовые контракты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тест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находятся в хорошем физ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образова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Корее также открыты двери дл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Так,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между тем, включая артистов,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языков, могут временно работать и жи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котор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аланты, в том числ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аботники, могут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посредством экспресс процедуры.

Тем не менее, самым легким способом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является брак.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намного легче для женщин. Число зарубежных жен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причинам того, что женщины ищут лучшую жизнь.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невесток составляют китаянки и вьетнамки. Если в 2002 г число таких лиц было 16 тысяч, то в 2015 г их численность увеличилась до 151,5 тысяч.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приток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получ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чему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выбирают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в целях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этого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причин. Первая причина, это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лидерские позиции в списке стран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ругая причина, это выделяемые стипенд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Кореи. Больший уклон университеты делают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епени магистра и аспиранта, помогая при этом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ях и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ы. При этом среди опрошенных студентов 78% говорили, что удовлетворены жизнью в Корее, 21% говорил, что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ормальные и лишь 1% ответил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Более того, 86% студентов высказались об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Если в 2000 г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оставляло 6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то в 2016 г их стало уже около 105 тысяч.

2.1.Миграци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 Корею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збекистан стал одной из стран, чьи граждане ежегодно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Корею в целях работы и учебы. Многие годы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узбек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были Россия и Казахстан. Удобство было в том, что эти страны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находятся близко к Узбекистану. Однако после падения рубля и тенге узбекские рабочие стали эмигрировать в Корею. В 2019 г количество иммигрировавших узбекских граждан составило 24 тысяч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им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х было 749 тысяч.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збекистан оказался на 4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вшись после Китая, Вьетнама и Тайланда и обогнув США на 1 позицию. Тот факт, что Узбекистан поднялся на 1 позицию вверх,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граждан Узбекистана мотив и желание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растет. Как упоминалось выше,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Узбекистана растет из-за высокой оплаты тру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Узбекистаном, Россией или Казахстаном, где такой же труд оценивается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дешевле. Положительной стороной эмиграции рабочей силы является уменьшение безработицы в стране. Однако основной проблемой узбекских рабочих стало их плохое знание или не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же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когда по окончанию контракта узбекские мигранты продолжали оставаться в Корее в качестве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Это также встревожи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сокращении квоты. Но в 2018 г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вшая Узбекистан, начало обсуждение не только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воты, но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самого механизма отбора. Так, узбекская сторона попросил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разрешить ей работать напрямую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ения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фессий на рынке.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 2019 г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180 тыс.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узбекских студентов оказалось почти 10,5 тысяч. Больше всего студент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было из Китая и Вьетнама. Студенты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выбирают,

в частности учебу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языковых курсах, чтобы в дальнейшем обучаться в бакалавриате или магистратуре, а такж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дной из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сторон являются стипенд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студентам с низким и средним доходом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ое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лучших в мир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миграция связана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молодежи в зарубежные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 целью последующего переезда ил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рубежом. Образ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высокую квалификацию,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и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При этом страны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этом виде миграции, позволяющей им име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молод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которая уже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интегрирована в культуру принимающей страны. Корея, котора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также становится страной,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старение нации, испытыв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молодой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е. В 2017 году около 33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обучалось в зарубеж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Из них больше тысяча направились в сторону Южной Кореи, что составило чуть больше 3%.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Россия, куда уехало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студен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стет темп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Узбекистане, что дает благоприятную среду для 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в Узбекистане.

3. Заключение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стать одной из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стран как для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так и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мигр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ом мигрантов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выходцы из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связано со схожестью в культуре и менталитете, улуч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платежеспособности как самого населения, так и мигрантов. Из-за нехватки низ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а также из-за сохранения потребности в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илучшим способом приобретени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стается их привлечение чере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истему, позволяющую корейцам готовить необходимых сотрудников, у которых не возникнет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блем с адаптацией или со знанием. Благодаря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граждане Узбекистана такж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быть вовлеченными в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Кореи. Узбек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действует желающим уехать гражданам посредством агентств и центр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астет число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е, являющимися гражданами Узбекистана. Благодаря рабочим мигрантам издержк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остаютс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а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ает прибыль в виде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Тен М.Д.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лматы, Вып. 8 (16) 2009. С.61-77.
2. Зулайхо Кадиро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11 (239) 2019
3. Joohee Lee Income Assistance and Employment Creation through Public Works in Korea: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Policy Options for the Future // Korea Labor Institute, 2001.
4. Park Young-bum South Korea Balancing Labor Demand with Strict Controls //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04.
5. https://nuz.uz/o-migracii/46874-kolichestvo-grazhdan-uzbekistana-v-yuzhnoy-koree-prevysilo-75-tysyach.html
6. https://amp-vedomosti-ru.cdn.ampproject.org/v/s/amp.vedomosti.ru/partner/articles/2019/02/14/793589-futuristicheskaya-volna?amp_js_v=a6&amp_gsa=1&usqp=mq331AQHKAFQArABIA%3D%3D

7. http://www.asianinfo.org/asianinfo/korea/education.htm
8. https://www.studyinkorea.go.kr/ru/overseas_info/allnew_highSatisfaction.do
9. https://uz-sputniknews-ru.cdn.ampproject.org/v/s/uz.sputniknews.ru/amp/20180223/kvota-uzbekskie-migranti-yuzhnoj-koreya-7580820.html?amp_js_v=a6&amp_gsa=1&usqp=mq331AQHKAFQArABIA%3D%3D#aoh=16172241352655&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D0%A1%20%D1%81%D0%B0%D0%B9%D1%82%D0%B0%20%251%24s&ampshare=https%3A%2F%2Fuz.sputniknews.ru%2F20180223%2Fkvota-uzbekskie-migranti-yuzhnoj-koreya-7580820.html
10. https://review.uz/post/migracia-cerez-obrazovanie
11. https://cyberleninka.ru/article/n/migratsiya-v-respublike-koreya

Abstract

UZBEKISTAN-KOREA: MIGRATION PROCESSES
Elvira ANARKULOVA

***Supervisor*: PhD Yoziev G.**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migration processe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migrants in Korea has been growing rapidly. The reason for this was the improvement in the life of the country and population. Indigenous people are no longer willing to work as low-skilled workers, while their education allows them to work at more prestigious spheres. That is why the flow of migrants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Thailand, Uzbekistan and etc. is increasing to Korea. Author's special attention was paid on migration arriving from Uzbekistan. If earlier labor and educational migrations from Uzbekistan were directed towards the Wes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s to increasing of the migrants' flow to the East, especially to South Korea. The main goal of migrants is high wages, high-quality education and better living conditions.

Key words: foreign citizens, immigrant, emigrant, migration, low-skilled worker, foreign labor, living conditions, foreign students, labor migration and educational migration.

ТОРГОВЫЕ СВЯЗ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Баходир АЛЛАБЕРГОНОВ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Ёзиев Г.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Free trade agreement-FTA)
2.1.Торговля РК-ЕС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экономик мира. С ВВП более 1377 миллиардов евро, она заняла 11-е место в мире в 2017 году.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знач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10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С. С коммер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для ЕС. В 2016 году он был 8-м по величине поставщиком ЕС и 9-м по величине экспортным рынком.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 укрепил свои позиции в качестве 2-го по величине поставщика страны и 3-го по величине экспортного рынка. Секторальная разбивка торговых потоков между Кореей и ЕС отраж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одели глобальной торговли с акцентом н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секторы: машины и транспорт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химикаты и т. Д. растущий сектор услуг, двусторонняя торговля между ЕС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езко увеличилась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ЕС – крупнейший инвестор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бъем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ИИ) ЕС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величился на 8% с 2014 по 2015 год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и достиг 49,7 миллиарда евро,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20% объема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роме того,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ЕС вы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19%, составив 20,9 млрд евро.

Двусторонняя торговля между ЕС и РК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ережила впечатляющий рос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порт ЕС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рос на 21 %, увеличившись с 39 миллиардов Евро в 2010 г. до 47 млрд евро в 2017 г. Это увеличение было особенно значительным в период с 2016-2017 г., что впервые за пять лет привело к положительному сальдо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лее того, импорт ЕС из РК увеличился больше, чем его общий импорт во всем мире (который увеличился на 17 процентов, с 1,5 триллиона евро в 2010 году до 1,8 триллиона евро в 2017 году),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 относительную важность импорта из РК для ЕС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2.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Free trade agreement-FTA)**

FTA ЕС-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тех пор является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с 2011 года.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о в октябре 2010 года в Брюсселе. Временно применяется с июля 2011 г. и официально вступил в силу в декабре 2015 г. после ратификации РК и всеми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ЕС. Это контрастирует с гораздо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м процессом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Ш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ввело систему поэтапной либерализации и отмены импортных пошлин, чтобы позволить отечественны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остепенн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Эта схема постепенной либерализации была завершена в июне 2016 года, и не проводится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полностью, частично или не либерализованными товарам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С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о первым из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С, начатых в 2007 году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а «Глобальная Европа», которая призвала ЕС возобновить свое участие в Азии. Первое соглашение с ЕС, заключенное на волне глубоких и всеобъемлющих соглашений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которые Брюссель начал после отмены добровольного моратория на такие соглашения в пользу многосторонний раунд в конце 20-го века. На момент завершения это было как самое амбициозное торг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ное ЕС, а также его первая торговая сделка с азиатской страной. Для Сеул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С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о стратегии тогда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Ли Мён Бака (и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 Но Му Хен)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аны в центр зоны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ба представили FTA как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овышения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тив фон конкуренц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фир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быстрое старение рабочей силы в РК,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С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выгодное для обеих сторон, хотя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лее выгодное. так что в ЕС. Трудно от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торговых потоках к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как и к другим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факторы также неизбежно играют роль. Интересн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мнение РК о том, что ЕС получает больше от ССТ, экспортер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сегда имели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еференций, чем европ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ЕС также есть большие различия). Две ключевые причины лежат в основе этого наблюдения. Во-перв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ортеры, часто крупные чебол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экспорт, обладают опытом и находчивостью, когда дело каса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роцедур, тогда как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ЕС более фрагментирована. Во-вторых, «положение о прямых перевозках» в соглашении не позволяет некоторым экспортерам из ЕС,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свои региональные центры в Азии, пользуясь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FTA.

Несмотря на общую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с обеих сторон остаю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е опасения. ЕС (особенно Европейский парламент) недоволен прогрессом Сеула в области торговл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трудовых правах, таких как свобода объединений. ЕС также стремится добиться прогресса в разрешении экспорта говядины из ЕС в РК, которая была заблокирована с 2001 года из-за вспышки губчатой энцефалопати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BSE) в 1990-е гг. Тем времене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хоч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экспорта супа куриного женьшеня (самгетан). Другие повторяющиеся проблемы обычно связаны с доступом на рынок,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технических барьерах и права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2.1.Торговля РК-ЕС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Общий импорт ЕС из РК с 2010 года вырос на 21 процент. Это увеличение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химикаты (260 %), напитки и табак (197 %), животные и растительные масла, жиры и воски (151 %), а такж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живые животные (135%).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одом снизился импорт разной продукции (-24%) и товары и трансакции (-19%). Общий экспорт ЕС в РК увеличился на 70 процентов в период с 2010 по 2017 год был особенно важен для минерального топлива (1291 %),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живых животных (138 %) и раз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товары (112 %). Единственное снижение экспорта произошло в сфере сырья (кроме топлива) (-12%).

Общий импорт техники и дорож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 ЕС (раздел 7 МСТК) увеличился на 4 процента с 2010 года.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импортерами в ЕС являются электрические машины, аппаратура и приборы (22%) и автотранспорт (30%). Даже если экспорт из ЕС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рос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65 %), ЕС сохраняет отрицательное сальдо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в этом плане. Частично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во многих секторах ЕС был более открытым рынком, че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Экспорт в ЕС – это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техник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для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18%); прочее промышл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запчасти (15 %), электрические машины, аппараты и приборы (12 %) и дорожн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34 %). Среди импорта дорож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 ЕС 69 % составляют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исключая автобусы) и 30% – это части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Среди экс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ЕС такой же подраздел, 77 % –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кроме автобусов), 12 % – запчасти и аксессуары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а 7 % – автомобили для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и автомобили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Автомобильный сектор с нескольких много лет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ЕС-Р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пятым по величин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 мире и третий по величине источник импорта ЕС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осле Турции и Японии). ЕС более крупный глобальный игрок и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Германия, Испания, Франц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Чеш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евых игроко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шестым по величине экспортным рынком для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ЕС (в единицах). Хотя рынок ЕС для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 целом сокращаются с 2010 г., им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РК в ЕС растёт из года в год. Дискуссии о доступе на рынок автомобилей повторяющиес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абочей группе FTA и в Торговом комитете – и вызывают больш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о европейско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собенно важны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техничес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и экологичес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Европейская комиссия также признала, что устранение остающихся нетарифных барьеров в автомобильном секторе остается проблемой. На момент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С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ЕС опасался,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регистрирует крупные рост торговли в текстильном секторе за сче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ЕС.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в текстильном секторе, дефицит со временем значительно уменьшился. В 2017 году импорт текстиля составил около 2,5% от всего импорта товаров из РК. Экспорт составил 2,4%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товаров ЕС в РК.

Электроника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и составляют 9,5%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импорта товаров в ЕС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3%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экспорта товаров ЕС43. Особенно значительным является импорт электронных интегральных схем (47 %) и телефонных аппаратов (20 %). Для экспорта в ЕС, электронные интегральные схемы (43 %), электронные платы и консоли (15 %)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14%) преобладают. В целом импорт в ЕС из этой отрасли снизились на 22 % с 2010 года, тогда как экспорт увеличился на 33 %. Тем не менее, в 2017 году ЕС сохраняет небольшой торговый дефицит.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торговли услугами, транспорт особенно важен. Импорт ЕС увеличился на 38 % в этом секторе с 2010 года. Экспорт из ЕС увеличился на 70 %. Ключевые подкатегории - услуг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услуги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3. **Заключение**

ЕС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 сильные партнеры-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В 2010 году они повысили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д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Это сделало РК одним из деся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С. ЕС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дписали Рамоч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СТ) и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в управлении кризис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CMPA), охватывающее три столпа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единственная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у ЕС есть соглашения по этим вопросам при области уже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ЕС является третьим по величине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РК,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Восьмой по величине ЕС. Их ССТ была первой для ЕС в Аз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ЕС и РК является прочным и прочным. Это еще не полностью раскрыло свой потенциал. Это и понятно, учитывая, что отношения только обновлялись. К полноценному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артнерству в 2010 году и что соглашения, охватыва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компонен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только в 2014 и 2016 годах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екомендации:

• Ежегодное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ов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 Создание Европейским парламентом отде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с РК;

• Ускорение повтор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двустороннему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 Усиление реализации и универсализаци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по оружию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 Укреп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мена передовым опытом;

• Включение миротвор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перации ЕС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мира;

• Укреп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 Поддержка собственного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 Поддержка евроазиат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Mathias Juust «Trad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utomotive Industry» February 2020. Journal of East-West Business.**
2. Brown, C. (2011) «The European Union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 Case Study of the EU-Korea FTA», pp. 297-308, in, Herrmann, C. and J.P. Terhechte (eds.), Europ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1, 2,
3. Bruszt, L. and G. A. McDermott (2009) «Transnational Integration Regimes as Development Programs», in L. Bruszt and R. Holzhacker (Eds.) The Transnationalization of Economies, States, and Civil Societies, New York: Springer Political Economy Series, pp. 23-59
4. Cremona, M. (2011) «The European Union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pp. 245-268 in, Herrmann, C. and J.P. Terhechte (eds.), Europ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1, 2, pp. 49-63
5. Djelic, M.L. and K. Sahlin-Andersson (2006) Transnational Governance. Institutional Dynamics of 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Drezner, D. (2006) All Politics is Global: Explaining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7. Gilardi, F. & C. Radaelli (2012) 'Governance and Learning' in, D. Levi-Faur (ed.) The Oxford Handbook of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RADE RE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EUROPEAN UNION: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Bahodir ALLABERGONOV

***Supervisor*: PhD Yoziev G.**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In 2009,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Using a traditional list of state goals in foreign policy – national security, economic growth, prestige-seeking, and values-promotion – I examine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future. I find that deeper engagement is unlikely. Most importantly, neither side is relevant to the basic security issues of the other. Specifically, the EU cannot assist Korea in its acute security dilemma, and «sovereigntist» Korea does not share EU preferences for soft power, regionalization, and multilateral collective security. However, Korea is likely to pursue the relationship for cost-free prestige-taking. And the EU will understand this «Asian bridge» as a success for the promotion of liberal-democratic values in a non-European context. Pro-regionalist elites, most notably the «bureaucracy», may pursue 'inter-regional' ties for internal institutional reasons, but deep Korean attachment to the Westphalian state model will likely stymie such efforts.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trade relations, South Korea, EU, automobile sector, trade in electronics, direct foreign investments, liberalization, protectionism.

ЭТА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евинч ТУРСУН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Рустамова Назокат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Введение
2.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возле реки Ханган
2.1.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ссвет
2.2.Главная цель реформ –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Южная Корея – азиатская страна, расположенная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азиат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Столица и центр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 Сеул. Сеул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город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считается вторым по величине городом в мире, гд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2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 Южной Кореи – корейский,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широко говорят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е южнокорейцы на улице. Последни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оценивают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восьмую самую большую страну в мир, когда речь заходит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Экономика Южной Кореи считается развитой экономикой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Ва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ой страной и имеет самый высокий средний заработок в Азии.

Он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седьмой крупнейший экспортер в мире. На самом дел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ренд Hyundai – Kia считается 4-м по величин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автомобилей в мире. Южная Корея, без сомнени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стран,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технологии, с ведущими брендами, такими как LG и Samsung, 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экспортером плоских дисплеев и чипов памяти.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самым быстрым интернет-соединением в мире.

2.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возле реки Ханган

В 1950-1953 гг. большая часть структуры экономики была разрушена в ходе вой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й страна стала сильно зависеть от помощи США. Но в 1962 году последов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и у власти оказалась знаковая фигура генерала Пак Чжон Хи. Примечателен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момент его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дохо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79$ и своего как таков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сектора в стране не было.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а Пак Чжон Хи выбрал Японию и в 1965 году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который был призван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Дальше последовал настоящий торговы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бум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быстрое расширение сначала в сфере легкой, а после и в сфере тяжел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месте с поддержкой США, которо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ручилась в обмен на помощь во Вьетнамской войне, в страну хлынули небывалые инвестиции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в виде субсидий, займов, грант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1960-х 1970-х годов. Все это обеспечило рост средней годовой ставки ВВП в 8,6% в этом промежутке времени. Этот невероятный рост вошел в истор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Чудо на реке Ханган» в честь реки, протекающей через всю столицу и самый крупный город в Корее – Сеул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вела в Сеул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1988 г., которые дали ей возможность войти в число государств с развитой экономик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МИ назвали страну одним из четырех азиатских тигров наряду с Тайванем, Сингапуром и Гонконгом. В декабре 1996 г. страна стала 29-ым членом ОЭС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витых стран.

2.1.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ссвет

Сейчас Корея – высокоразвитая страна, член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11 экономика мира по размеру. Корея часто приводится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успеш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экономику

Будучи страной с недостаточным капиталом и ресурсами, Южная Корея постепенно в процессе достижения роста создала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структуру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у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ли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Корпорации заняли домин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то время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траны стала сильно зависеть от экспорта и импорта, что делало ее уязвимой от внешних условий.

Результаты успеш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 ВВП в 2016 году – 1432 млрд долл. (11 место в мире);
-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2016 году – 27,8 тыс. долларов;
- Средний класс составляет 45% от взросл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 3,5%;

-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в 2016 г. составили 198 млрд долл;
- Долгосрочный рейтинг кредитоспособности по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по шкале Fitch – «AA-» / прогноз стабильный, S&P – «AA» / стабильный, Moody's – «Aa2»/ стабильный;
- По легкости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страна занимает 5 место в мире (согласно рейтингу Doing Business);
- В рейтинге Глобального индекса инноваций страна занимает 14 место в мире;
- Расходы на НИОКР – 4,5% от ВВП;
- В индексе восприятия корруп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е 36 место из 167 стран.

Три причины успеха

- Упор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Страна сделала ставку на свой единственный ресурс – людей. Все усилия были брош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Стране удалось подготовить армию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женеров и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и стали основой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 Цель оправдывает средства.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корейских реформ, президент Пак Чон Хи,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в 1961 году. Президент Пак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своей властью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ставить богатых корейцев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верфи. Подобный стиль управления, возможно, вызывае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но именно он и был нуже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сстановить разрушенную войной экономику.
- Бизнес – дело семей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спех Южной Кореи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без крупных конгломератов, получивших название «Чеболь». Речь идет о группе формально независимых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фирм, фактически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дной семьи и под едины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и финансовым контролем. Глубоко укоренившийс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нталитете принцип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передачи власти обеспечивает стаби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многие считают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го чуда.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Самсунг» находится в руках одной семьи Ли с самог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в 1938 году.

2.3. Главная цель реформ –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Экспорт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в 1960 г. составлял 32,8 млн. долл. США, в 1977 г. превысил 10 млрд. долл. США, а в 2018 г. достиг 604,9 млрд. долл. США. Если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1953 г. ВН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л лишь 67 долларов, в 2018 г.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стиг 31 тысячи 349 долл. США.

Экспорт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рос даже быстрее, чем ВВП – за 54 года он увеличился в 7000 раз. Сегодн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экспорту продукци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корейцы получали все больше валюты, что помогл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В 2015 году доходы Кореи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оставили 735 миллиардов – это половина ВВП страны.

По экспорту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Корея занимает 5 место в мире, уступая Китаю, Германии, США и Сингапуру. В 2015 году экспорт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принес 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142 млрд долл.

Корея – мировой лидер судостроения. Коре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контролируют 40% мировых заказо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рских судов.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факторов 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трудоотдачи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бур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у корей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было 1-2 выходных в месяц. В 90-е годы количество выходных увеличилось до 4-5 дней за месяц.

Сейчас у корейцев, как правило, 8 выходных дней в месяц.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рабочих дней связано не только с ростом доходов и социа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в стране, но и с резко выросшей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труд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Даже японцы, которых считают трудоголиками, не могут сравниться с Кореей по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3. Заключение:

Создать та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смогут захватить у конкурентов внешние рынки сбыта. Упор был сделан на крупный бизнес семейного типа, рост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их труда.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реформы касате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х секторов страны. Наибольше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доля ВВП от экспорта страны, а так же поддержка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С.С.Серафимовна, З.Л.Владимировна. Экономика страны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борник лекции. МГИМО, Москва. 2018.
2. А.А.Шокиров.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занский (Приволж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азань, Россия. 2019.
3. Howkins J. The Creative Economy. New York, 2001.
4. Selin Arslanhan. «To what South Korea owes Success in Innovation», 2007.
5. Nayanee Gupta David W. Healey, «Innov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2013.
6. Neil Howe, Richard Jackson, «The aging of Kore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3.
7.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14. www.oecd.org
8. **http://ac.gov.ru**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vinch TURSUNOVA

***Supervisor*: Rustamova Nazokat**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analysis of the economy of South Korea,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Pacific, and a number of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its development, as well as the country's productive potential. The economic dawn of the South Korean Peninsula is reflected, where it initially became beggarly. The article indicates a number of strategic reforms and goals, as well as their results. The special position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Seoul is presented.

Key words: «Korean economic miracle», economic policy, foreign and domestic trade, GDP, Korean brands, automobile industry, private sector, business, reforms, economic reforms, development strategy, economic growth.

«»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И ПОСЛЕДСТВИЯ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тир ЧОРИЕВ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ф.н. Ёзиев Ғ.Л.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1.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2.Повышения самоокупаемости местных МСП
4.Заключение
5.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С момента первой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Корея придерживалась стратегию роста, на экспорт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отрасли, выбирая и поддерживая отрасл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дходящие для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и создавая основу для роста. Прошлая 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Кореи делала упор на децентрализацию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ля повышения самодостаточ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провинций за счё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что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ряд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ей и компаний стали доминировать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е. В результате стагнация в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ях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ивела к формированию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ая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а с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ыходящими за рамки занятости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 определённых регионах или простого банкротства или трудностей управления в конкретных компаниях. Эт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 пример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последовавшего за закрытием завода General Motors в Кунсане в 2019 году.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регионам преодолеть спад в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е может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а ни своевременно, ни рационально из-за опасений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в регион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обходимы долгосрочные измене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регионам измен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чрезмерно зависящие от одной отрасли.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льные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далее МСП) должны не только полагаться на крупные корпорации, но и стремиться самим изменить направл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независимой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в регионе.

2.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ореи преодолела пиковый спрос. Темпы роста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медлились, и отрасль вступила в зрелую фазу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а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выросла в количественном выражении на основе массового спроса, н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ос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ей и спрос на сталь упал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объём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ал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спроса на материалы в та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траслях,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е и автомоби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удостроение и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Происходит качественное изменение характера спроса, при котором корреляция между изменениями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ется. Это изменение в структуре спроса произошло в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в Европе, а также в США и Япон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Кореи и наиболее передовых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металл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сохраняется, но разрыв с Китаем, который можно назвать конкурирующей страной,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щаетс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зделий которы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вышенным спросом, но в основном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уязвимость промышл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в которой наблюдается серьёзный дисбаланс между секторами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является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будуще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7 год основным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ми регионами Кореи являются Кёнбук, Чоннам и Чунгнам,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е комбинаты POSCO и Hyundai Steel.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луфабрикаты производятся в Кёнбук, Чоннам и Чунгнам, гд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отрасли спроса, а затем доставляются в густонаселённые мегаполисы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зличных продуктов переработки, удовлетворяющих местный спрос.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такж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а в регионах,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круп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з-за промышл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ая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т небольшого числа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участвующих в коммер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Поскольку промышленная реформа проводи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ях, влияние на стальную ленту предприятий также будет значительным.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отреть примеры крупных зарубежны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уже подверглись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в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с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региональных МСП.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могут защит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от внешних воздействий, но они сильно зависят от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2.1.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Хотя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продвигается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эффект от эт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й фактически испытывают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все ещё недостаточен.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с 2000-х годов продвижение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ерешло к НИОКР, и хотя инвестиции в НИОКР постоянно растут, это мало влияет на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местах а также на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региона даже если мест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астёт в масштабах, именно создание хороших мест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оказывает само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регион. По данным Ли (2019) 31 из 39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работы, а это около 80 процентов, распределены в мегаполисах.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чем выше число, тем лучше) указывает на кач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Сеуле (1,928) и Тэджоне (1,482) с более низкокач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в Чоннам (-1,663), Кёнбук (-1,117), Чуннам (-0,733) и Кённам (-0,550).

Основная цель региональн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заключалась в устранении дисбаланс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о 1997 года. С тех пор 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соз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нов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и эндоген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развитии (1998-2002 годы),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звит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фундамента для независимого роста (2003-2007 гг.) и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2008-2012 гг.).

2.2. Повышения самоокупаемости местных МСП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естная экономика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могли расти вмест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жде всего укрепить самодостаточность местных МСП. Когда в регионе промышл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конкретной отрасли, влияние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лебания или структур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отрасли происходят внутри страны или за рубежом. Когда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флагманской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ступает кризис, продажи связанных МСП в регионе резко снижаются, и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задержки в оплате затрат на доставку, что приведёт к банкротству или закрытию связанных компаний из-за нехватк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сокращения затрат для МСП.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не вкладывать средства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нижается, чт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межных отраслях. Даже если компания не обанкротится и не прекрати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трудности с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и получени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огут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условия занятости. Так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оводу занятости или безработицы также снижа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рабочих и ускоряет отток промышле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ослабляя трудовой резерв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безработицы утечка мозгов из страны такж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спаду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раслях услуг, таких как питание и проживани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столп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следом страдает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в целом. Следовательно, трудно уменьшить воздействие внешних шоков, даже если в этих областях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промышленные или друг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меры. Хотя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спыт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из-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в секторе переработки и сбыта, МСП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стабиль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трудности, - это те, которые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развили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иннов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Текущ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 это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того, что МСП без собственных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лишком зависят от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чтобы выжить в периоды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Такие фирмы либо разоряются, либо ищут поддержки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эти фир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ебя, поэтому их крупным деловым партнёрам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политики, которая побуждает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развива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должна поступать компаниям, которые либо оснащены

иннова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либо предпринимают прак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по их развитию.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ов не может дать результатов за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Многие МСП настолько привыкли к субподря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с круп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что 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й дух иссяк. Компании продолжают оставлять только одну фабрику на прежнем месте, но перемещаются туд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конечный спрос.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радикальную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 МСП, и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и вывода прототипов на рынок материалов. В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низкоуровневую отрасль, но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Япония, Германия и Швеция, у которых все ещё есть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еуспели в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в отрасли с высокой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основанные на мелкомасштаб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стали могут выжить на рынке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сталелитей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ревратится в отрасль с высокой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Учитывая тот факт,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СП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поддержало рост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й, важно создать здоровую промышленную экосистему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будущем, 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МСП могут сосуществовать с крупными корпорациями.

3. **Заключение**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олжны раз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и для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в местных отраслях,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ме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 структуру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участвовать в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ях, выходящих за рамк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лекать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м хорошо подходят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влекать иностранный капитал и расширя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сбытовые цепочки,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обеспечивающий сохран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х фирм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экосистеме.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е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агент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должны играть важную роль в создании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местах за счёт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МСП, обеспечив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и доходов. Однако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этих ролей и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рганы должны быть осведомлены о текущем статусе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производящего сталь.

А также следует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позволяющий местным МСП избежать давления эксклюзивных контрактов с круп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участвуя в глобальной се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ортфеля, необходимо подумать о том, как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ведущие отрасли на уровне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но труд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езно для МСП.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не так много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значите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объекты.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едметом беспокойства должна быть компания, и если компании открывают и предлагают новый бизнес, ме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ли цент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оддержать их в этом.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Howkins J. The Creative Economy. New York, 2001.
2. Selin Arslanhan. «To what South Korea owes Success in Innovation», 2007.
3. Nayanee Gupta David W. Healey, «Innov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2013.
4. Neil Howe, Richard Jackson, «The aging of Kore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3.

5.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48728/south-korea-major-steel-producers-based-on-production-volume/#
6. https://www.kosa.or.kr/sub/eng/introduction/sub02.jsp#:~:text=The%20steel%20industry
7.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8847674_The_Steel_and_Shipbuilding_Industries_of_South_Korea_Rising_East_Asia_and_Globalization/fulltext
8.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eng6/jsp/s91a0000001i.jsp
9. https://eng.kiet.re.kr/kiet_eng/?sub_num=210
10.https://institutiones.com/industry/897-promyshlennaya-politika-yuzhnoj-korei.html

Abstrakt

REGIONAL POLICIES AND CONSEQUENCES OF THE METALLURGICAL INDUSTRY RESTRUCTURING IN THE REPUBLIC OF KOREA

Botir CHORIEV

***Supervisor*: Ph.D. Yeziev G.L.**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eel industry, in which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s raised, while recognizing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stagnation of the main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y on the local economy and increase the self-sustainability of the reg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the steel industry's base regions in Korea and to devise a long-term plan to overcome the serious side effects of a transforming industrial structure on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does not focus on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itself, but more on what kind of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at the regional level in the long term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 when the main manufacturing industry is in decline. As a result, it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industrial policies in a timely manner.

Key words: steel industry, restructuring, stagnation, manufacturing industry, self-sustainability, ransforming industrial structure, long-term plan, ecuring the competitiveness,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industrial policy.

CULTURAL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TO UZBEKISTAN

Altinay KHOJABAEVA

***Supervisor*: PhD, Kamila Nikolaeva**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Content

1. Introduction
2.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2.1 Cultural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to Uzbekistan
2.2 The KOICA
4. Conclusion
5. Biography
Abstract

1.Introduction.

Soft power is the safest of all powers, but at the same time a very significant and highly influential way of capturing, or policy with a «smile», and no weapons needed with him. It is the ability to get what you want through attraction rather than coercion or payments. It arises from the attractiveness of a country's culture, political ideals, and policies, introduced to the political science by Joseph Nye in 1991 year. Soft power is relevant to the environment or milieu in which a country seeks specific goals. This means that preferences are shaped by the indirect and diffuse effects of

soft power, which still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btaining desirable outcomes in bargaining situations.Recently, many countries have given special attention to soft power and are investing quite enough.

Gregor Holik identifies five sections in the structural model of «soft power» [1]:

1) Soft Power
2) Political Soft Power
3) Cultural Soft Power
4) Human Capital Soft Power
5) Diplomatic Soft Power

To be recognized in the world stage, you must be strong in military sphere «hard power», and also should be a top-level economy steep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located between communist China and modernized Japan , even more so supported such a world hegemon as Amerika ,Korean nation first seriously consider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technologies and public diplomacy in promoting an attractive image of the country.Finally, there is the attractiveness of South Korean is culture.It implies musical, linguistic, cultural ideology, korean food and more recently, dramas, world-famous korean artists. Already starting around the 1990s, Korean culture has been gaining worldwide popularity step by step such a phenomenon as «hullu» or «Korean wave».In 1997,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was engulfed in a devastating financial crisis - the same one that became one of the reasons for t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rgently had to look for new growth points for the economy - and, among other things, it was decided to invest in pop music. Nevertheless, the project was approved. A special department was creat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which received a significant budget. It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concert venues, the development of special effects, the efforts of the lobbyists who promoted the product, and the lawyers who protected it from copying.

2.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The modern strategy of «soft power» of South Korea is based not only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culture and traditional cultural values, but also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ctively engaged in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of the pop industry. Korean pop is a kind of mixture of music, dance, song, and of course the unusually beautiful appearance soloists, all this, fascinates the audience.And the trick is that they perform songs in their own korean language.The idols of K-pop spread their language, culture, style to the whole world. Now, the regular audience of K-pop artists on the Internet is 100 million people, which is twice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This music has already conquered all continents (except Antarctica) and many countries. BTS has become a powerful engine for the hallu, the so-called Korean Wave - cultural expansion into world markets that enhances Korea's imag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uccess of Korean mass culture leads to a boom in sales of goods in the «creative industry» - cosmetics, electronics, etc. According to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over 4 years, from 2012 to 2016, the export of Korean culture (popular music, dramas, films, games) grew from $ 4.6 billion to $ 6.3 billion. And the growth of exports in the field of culture for every $ 100 leads to an increase in high-tech exports by $ 412.[2]

V.O. Zhidkov in his work «Elements of the South Korean soft power» writes that: «We can not fail to note the country's efforts in exporting its culture - from kimchi to K-pop (Korean pop)» [3]. And this all not only brings big finances but also helps to grow Korea's influence in the world.

2.1. Cultural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to Uzbekistan

Cultural engagement between Koreans and Uzbeks first occurred in the late 1930s when Koreans living in the Far East were deported to Central Asia. At the time of the Soviet Union‘s collapse, some Koreans were even born and raised in Uzbekistan, where they have continued to live after Uzbekistan‘s independence.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30, 1991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Uzbekistan,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established on January 29, 1992 [3].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linked by traditional relation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ased on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Both countries pay great attention to the issues of deepening bilateral cooperation i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pheres.

Five main benefits of Korea‘s approach have been identified in Uzbekistan at present:

1) opportunities to establish Korean businesses in Uzbekistan and the rest of Central Asia with qualified staff;

2) the construction of a favorable image of Korea in the eyes of the Uzbek government and public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jobs and study opportunities;

3) opportunities to promot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and foster cultural exchanges;

4) the embedment into selected Uzbekistan governing bodies the personnel that were trained by Korea and are qualified to work with Korea;

5) the establishment of strong foundations for future projects.

Since Uzbekistan itself has a strong oriental culture, the Korean wave is not so strong, unlike other countries, but is gradually spreading among the growing generation. Youth is always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60% of the population of Uzbekistan is youth, to educate, support and comprehensively develop the government pays great attention and raises the interests of young people to the level of politics. It takes examples in the educational sphere from South Korea, Japan, India and a number of other countries. Considering all this, Korea began to use education as a weapon of soft power.andturned out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of engagement. A detailed of Korea‘s use of education as a SP tool in its relations with Uzbekistan is presented below.

Higher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key source of SP when education is used as a SP tool [4]. Korea actively uses the education channel to establish deeply strategic relations with Uzbekistan. To explore the nuances of the Korea–Uzbekistan relationship, different aspects of higher education are discuss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Korea‘s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Uzbek students in Korea is steadily growing, and currently more than 2,300 Uzbek students are availing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to the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receiv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in Korea,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language courses is also increasing. The Korean government expects that it will have housed 200,000 international students by 2023 [5].

2.2.The KOIC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s salient in the context of Korea–Uzbekistan relations. The KOICA is a governmental agency, which aim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in eliminating poverty and establishing socioeconomic growth. This is primarily an approach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6]. Support is extended to developing countries in different ways – particularly through loans, grants, sources, and education.This scholarship program is relevant in this context. This program offers students tuition fee waivers during their study in Korea and coverage of life and transportation expenses.To be eligible for this scholarship, one should be – a government official, an employee in the public sector, or a researcher in a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The main focus of KOICA’s work is to promot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by providing grant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implementation of specific programs and projects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based on implementation of advanced experience and modern technologies of Korea. The headquarters of KOICA is located in the city of Sonnam (satellite city of Seoul). It has 48 overseas offices.

Korea's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state institute working in his/her home country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addition, one should also be – nominated by [one‘s] government‖ [7]. The selected person can choose from about 20 graduate programs. These program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the fulfillment of long-term

developmental needs of the recipient‘s country.The total amount of gratuitous assistance provided 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rough KOICA in 1995-2018 amounted to 94.32 million dollars, which were directed to implementation of 29 projects in such spheres as healthcare,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utilities, agriculture and water management, energy, transport, etc [8].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KF) is a government-led organization that engages and supports Koreans living outside Korea. In the context of higher education, the OKF operates as a grant-giving authority for foreign-born Koreans and helps them in Such as the Ministry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represents a small part of the latter‘s population (it is estimated to be less than 1% of the whole population. And it is one of the main strengthening factors in Korean-Uzbek relations.

Korea's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completing their higher education in Korea.Besides higher education channels, Korea engages with the Uzbek public through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Currently Korean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most studied foreign languages in Uzbekistan. As per estimates, there are 90 to 158 Korean language centers15 in Uzbekistan, with at least 15,000 students enrolled in them.[9] Learning Korean also enables students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history, they will turn morally into "Koreans".

The high interest in learning Korean was a result of the following factors:

1) popularization of Korean culture through Hallyu;
2) employment generat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s, and the Uzbek government and the fact that businesses requires knowledge of Korean;
3) increasing numbers of working migrants from Uzbekistan in Korea (similarly, the role of Uzbeks and Koryoins who return to Uzbekistan after fulfilling their contracts);
4) cultural events organized by Uzbek Koreans;
5) the willingness of Uzbek Koreans to maintain traditions and the benefits of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6) the growing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preference to study in Korea.[10]

According to statistics provided by WFK, in October 2017, 561 Koreans participated in its programs devised for Uzbekistan. And 374 volunteers contribu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38 dealt with public health, 14 were involved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fields, 20 dealt with public administration, and 15 served in the field of industrial energy (WFK, 2017b). Besides improving life conditions and accelerating progress in countries where it assists, WFK, through its programs, also serves as a tool for culture exchange, which aids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11].

3.Conclusion

Korea introduces a more massive approach to engage with Uzbekistan‘s public by supporting language and culture centers and by launching vocational training centers. This mixed approach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favorable contexts of engagement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Korea‘s use of education as a SP tool in its relations with Uzbekistan, it can be observed that education serves not merely as an ideational power that shapes opinions and wins hearts on the basis of the attractiveness of ideas, values, or cultures. Education itself is a powerful incentive as it may provide employment and even enable people to fulfill their dreams. An educated workforce also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Korea offers vocational 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and establishes language and culture centers. These measures guarantee deeper cultural exchange and stronger ties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4. Biography

1. Azizov, 2017, March 9; Bae, 2008, April 22; Central Asia-Korea, 2017.
2. Holik, G. G. (2011). Paper Tiger? Chinese Soft power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6 (2), 223-254.
3. Kovba, D. M. (2014). Theoretical and practical adaptation of the concept of "soft power” by the East Asian countries. Prostranstvo i vremia, 4(18), 111-118.

4. (Nye, 2005; Snow, 2009; Stetar et al., 2010).Nye, J. (2005). Soft power and higher education. In Forum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rchives) (11-14)3
5. (ICEF Monitor, 2015). ICEF Monitor (2015). Korea aims for 200,000 foreign students by 2023. Accessed 21st of October 2017 at http://monitor.icef.com/2015/10/korea-aims-for-200000-foreign-students-by-2023/
6. KOICA (2017a). Mission and Vision. Accessed 21st of October 2017 at http://www. koica.go.kr/
7. KOICA (2017b). Scholarship program. Accessed 21st of October 2017 at http:// training.koica.go.kr/
8. https://overseas.mofa.go.kr/uz-ru/index.do
9. Central Asia-Korea, 2017; January 3; Fumagalli, M. (2016). Growing inter-Asian connections: Links, rivalries, and challenges in South Korean–Central Asian relation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7(1), 39-48. doi:10.1016/j.euras.2015.10.004. Korean Culture Center (2009, June 23). Korean wave—covers‖ Uzbekistan. Korean Culture Center. http://koreancenter.org. ua/?p=846[In Russian] Golos Uzbekistana (2014, January 3). Korean culture is in focus of youth. Golos Uzbekistana. Accessed 21st of October 2017 at http://uzbekistonovozi.uz/ru/ articles/index.php.
10 WFK (2017c). Vision. Accessed 21st of October 2017 at http://www. worldfriendskorea.or.kr/eng/historyInfo/eng.intro.vision/list.do.
11. https://www.forbes.com/sites/monicamercuri/2019/07/10/bts-is-the-worlds-highest-paid-boy-band-and-k-pop-act/?sh=6e9c11dae674

Abstact

КУЛЬТУРНАЯ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Алтынай ХОДЖАБАЕ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Камила Николаева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Мягкая сила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ли среде, в которой страна стремится конкретным целя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редпочтения формируются косвенным и рассеянным эффектом мяг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по-прежнему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ть на получение жел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переговорных ситуациях.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ногие страны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ягкой силе и вкладывают достаточно средств. Почему «мягкая сила» так важна сегодня, и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с помощью музыки завоевала весь мир, как начинались и продолжаются нынешние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ова основная цель KOICA, чем занимается OKF, быстро растет интерес узбекской молодежи к корейским возможностям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инструмента мягкой сил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стория, soft power, культурная soft power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йско-узбекские отношения, KOICA, OKF, образование.

ЦИФРОВИЗАЦ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Чарос ЖУМАНАЗАР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Николаева Камила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История, предпосылки и процес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Корее
2.1.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2.Перспективы на будущее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Введение.

Есть два таких понятия как оцифровка и цифровизация. Вроде бы очень близкие по значению слова имеют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понятия. Понимание различий между двумя этими подходами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и не только предприятия, но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начали переходить н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прозрачность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цифровка описывает чистое аналого-цифров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бумажного отчета, существующих данных и документов в закодированный цифровой вариант. А также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бирать данные, определять тенденции и принимать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решения как и 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Одним словом, оцифровка автоматизирует существующие ручные и бумажные процессы благодаря оцифровки информац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меющие разные значения два понятия взаимосвязаны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так как процесс цифровизации невозможен без оцифровки. И диджитализация или же цифровизация – это процесс, который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и подразумевает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базовое изменение всей модели и эволюции работы.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тот факт, что цифровизация раньше называлась копмьютеризацией. И у нас от этих определений появ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оба эти термина связаны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и различ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В мире сейчас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 стремится именно к цифров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ли же от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таких как экономика, бизнес и социальные сферы. И наше государство тоже в числе стран, которое стремится цифровизиро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залаживает основы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ведущим игроком с выдающейся цифр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динамичным сектором ИКТ. 5Gбыла внедрен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раньше, чем в любой другой стране мира, и стимулировала многие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инноваций 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умные фабрики, умные сети, ум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умные города и дороги. И даже в сложный для человечества период, то есть в пандэмийный период, Корея выделяется эффектив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ередовых цифр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2. История, предпосылки и процес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римечательных из современ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явлений XIX века является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термин Digital economy получил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под эгидой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в Канкуне (Мексика) в 2016 году министер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40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принявших декларацию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нновации, рост и социальн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 этом базовом документе сейчас в Корее происходит переход к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что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для каждой страны. Происходит переход от внедрения различных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к комплексному построению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Корейская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основана на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здесь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традиц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е, а о совокупности отношений складывающихся в системе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обмена и потребления, связанной с разработкой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грамм, систем управления базами данных,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систем), сколько об электронных товарах и сервисах, продаже виртуальных товаров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лектронных денег и криптовалют, специальных интернет сервис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 IoT, больших данных – Bigdata, облачного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Вот к чему стремиться Корея.

Главными движущими силами коренных изменений в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в XIX век можно назвать либерализацию, глобализацию,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посредством революции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Характерными чертам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стали спад 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снижение дол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его старение и рост показателя безбрачия населения вследствие падения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Отсюда можно 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такие явления могут оказать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устойчи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олкнулась с проблем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новой парадиг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результате в начале XIX веке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ереходу от аналог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 цифровой.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револю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зник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изменить сущность экономики посредством перехода к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IT вступает в фазу зрелости, парадигма экономики переходит от аналог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 цифровой, что приводит к существенным изменениям в широко применяемой модели бизнеса. Развитие науки техники, ускоренное революцией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местило фокус промышл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с тяжелой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отрасль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знаний и информации,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щ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Это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явлению новых отраслей обслуживания, использующих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технологии. Комбинация IT с BT (Biotechnology), MT (Materialtechnology) и NT (Nanotechnology), сформировала новый двигатель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соб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индустрию, основанную на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ях.

2.1.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ая возникла на базе революции IT и которая делает акцент не на физический труд, а на умствен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привела к увеличению доли вовлеченности женщин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орее. 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с упором на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илу(softpower)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активизации женщин. Сейчас в Корее наблюдается процесс повышения спроса на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освободить женщину от некоторой работы по дому, например на холодильники,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посудомоечные машины, мультиварки с передовыми функциям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Следующей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на пример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л переход от крупных и мощных игроков,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овали в период аналог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 маленьким и гибким. Так как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 таких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дистрибуция, маркетинг, инвестиции и финансы,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небольших и гибких участников, способных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изме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ключевые позиции занимают уже 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фер тяжел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аких как сталелитейная, судо- и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ительная, а хозяйствующие субъекты таких индустрий, как электронная, коммуникационная,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ая, финансов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фер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услуг. Это явление означает, что с ходом цифровизации ось экономики смещается в индустрию знаний. Поэтому новому этапу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и более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ладающие особыми умениями творческие и образованные люди, чем те, кто занимается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бюрократизированными круп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отличающиеся соей гибкостью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йся среды.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оля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венчурных компаний в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Коре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ед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ез временных 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пример,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такие преграды позволили преодолеть прогресс сервисов e-trading (электронная торговля) и e-banking (электронные банковские услуги). Кроме того, такие проявления оцифровки экономки в Корее, как интернет-банкинг, способствует увеличению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за счет сокращения операционных издержек, связанных с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ея уже вступила в фазу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т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арадигме также повлияли на изменение ро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аналоговой эконом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овало, управляло и контролировало многие аспекты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в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в таком контроле не только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 более того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невозможным. и в Корее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процесс ослабевания вмешательства и контроля над частным сектором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тенденции к либерализации. Поскольку доля аспектов, которыми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может управля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ась, отп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ланировать, продвигать, управлять и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вс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государствах с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ой, на подобии Кореи, возраст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тенциал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 усиливается функция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рынка.

2.2.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будуще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Корее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акой-то сферы государстве необходимо выделять средства, так как без этого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развитие или же трансформацию этой сферы. И осознав э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принимает пятилетние планы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типа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ая включит в себя налаженные поставки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блокчейна,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а 10 000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будущего. Это пятилетняя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принята в 2018 году 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 вложило $4,5 млрд в развитии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у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Южная Корея собирается развить платформенную экономику- новый тип экономики, в которой особую роль играют технологии. Для этого Сеул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 на четырех программах:

1. Создание платформы для работы с массивами данных- при помощи ИИ и блокчейна;
2.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предприятий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льшие данные и цифровые торговые платформы:
3. Налажи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а также хранени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4.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10 000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ущего».

Даже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рей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не перестала развивать процесс цифровизации. Отчет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ИКТ Киюнг Чой OECDDIGITAL Economy Outlook 2020 27 ноября может явля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моих сл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 нем тому, как пандемия COVID-19 увелич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облемы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 аспектах данных, сетей, цифров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м ОЭСР также включа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реей ИКТ для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а именно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арантине».

Одним из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о инициативу «Новый курс в цифровой сфере», цель которой потратить 58,2 триллиона вон ($ 52,7 млрд) на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такие как удаленные услуги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для создания более 900 000 рабочих мест к 2025 году. Эти все инициативы и денежные вложения даже в кризисный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показыва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сознания значимости цифровизации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3. Заключение

Чтобы прийти к такому уровню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орея, несомненно, прошла очень сложный путь. Так как цифров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путем замены аппаратного 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Цифровизация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благодаря:

1. Непрерывному росту и развитию циф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ику,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2. Оцифровке таких отраслей, как сталелитейная, автомобиле строительна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финансовая и другие;

3. Появлению новых цифровых услуг, таких как финанс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дистрибуция, спорт и туризм;

4. Развитию и гуманизации технологий.

Ведь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ессу технологий цифрового общества человек может преодолеть фатальны ограничения аналового общества, связанные со временем и пространством, умствен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и физической силой. Все это приводит к размыванию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жду людь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а также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границ. Благодаря цифровойудается добитьс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сбережений и инвестиций. А такж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IT революц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озрач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лич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электронных закупок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мно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за которые раннее отвеч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тизировались и стали открытыми.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в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гут быть полезным странам, разрабатывающим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собстве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ового столетия.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Матильда Пак, Департамент Экономики ОЭСР, 11 августа 2020 год. https://oecdecoscope.blog/2020/08/11/korea-roadmap-to-narrow-digital-gaps.

2. Оцифровка против цифровизации: различия,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меры. https://www.truqcapp.com/digitization-vs-digitalization-differences-definitions-and-examples.

3. Коллин Чапко-Уэйд, 21 октября 2018 год. https://medium.com/@colleenchapco/digitization-digitalization-and-digital-transformation-whats-the-difference-eff1d002fbdf.

4. Как отличить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от цифровизации. https://trends.rbc.ru/trends/industry/cmrm/606ae4c49a794754627d6161.

5. О Док Хи, Гил Кюн Сук, 25 июля 2019 год.

6. Го Джонсук. Наступление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2015.

7. Ким Кивуан.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17 год.

8. Ким Сонхо. Пять основных мегатендеций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XXI века, 2017.

9. Дарья Бердникова, 17 августа 2018 год. https://m.hightech.plus/2018/08/17/yuzhnaya-koreya-v-2019-godu-vlozhit-45-mlrd-v-razvitie-vosmi-tehnologii-budushego.

10. Корейский новый курс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https://overseas.mofa.go.kr/oecd-en/brd/m_21596/view.do?seq=760545.

11. ОЭСР подчёркивает ответ Южной Кореи на Covid-19, 27 ноября 2020 год. https://m-en.yna.co.kr/view/AEN20201127003000320?input=2106m.

Abstract

DIGITIZATION AND BUILDING OF DIGITAL ECONOMY OF REPUBLIC OF KOREA

Charos JUMANAZAROVA

***Supervisor*: PhD, Nikolaeva Kamila**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article is devo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Korean Republic, as the the country with highest degree of digitalization, building an e-government, digital economy. The Korean Republic's way of digitalization, here, is given as big experience for other countries and as challenge of time. Article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reasons which pushed Korea to digitalization and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in society, industry, governing system and liberalisation processes. Korea can be great example of country where earlier than in other countries. lT revolution took place, artificial intelligence was developed. And how Korean government deal with its economy during the pandemic with its high potential of technology development.

Key words: digital, digit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technology, IT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andemic.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Азизбек ТУРДАЛИЕВ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Хамракулова Г.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Содержание

1. Введение
2. «Мягкая сила» Кореи
2.1.Южнокорейско-узбекист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Узбекистаном.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Ведение

Власть в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е определяется по-разному. Современной обществе обычно говорят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указыва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военную мощь. Те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е обладают значительной властью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е, называются малыми державами, средними держава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державами, великими державами,

сверхдержавами или гегемонами, хотя общепринятого стандарта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си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Джозеф Най - ведущий сторонник и теоретик мягкой силы. К инструментам мягкой силы относятся дискуссии о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ях, диалоги об идеологии, попытки повлиять на хороший пример и обращение к общепринят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ценностям. Способы применения мягкой силы включают дипломат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анализ, пропаганду и культур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В это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ее значен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 ее применения. Также, развитие поп-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Значите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поп-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гда вся страна боролась с болезнью,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аспространяла свою культуру по всему земному шару.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сейчас активно слушают К-поп. К-поп это музыкальных жанр, возникш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и,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западного хип-поп и танцевальной музык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фильмом стал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оминацию «Оскар». Это было большое достижение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написано о культур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её приоритеты.

В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философии при анализе типов власти весьм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является «жесткая сила» и «мягкая сила» в англи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ах упоминается как hard power и soft power.

Термин soft power расшифровывается как сила (власть), обладающая свойствами «мягкой» матери, то есть легкость, гибкость нежность, соблазнительность и хрупкость

Термин hard power это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е по характеру «мягкой силы». Hard Power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как твердость, устойчивость, принуждение, жестокость.

Если сдел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од жесткой властью, то можно понять, что под этим термино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силы воен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и ин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Мягкая сила наоборот, подразумевает более свободная, мирная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ая власть.

Джозей С. Най младший –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литолог, разрабатывающий ряд в направлений в рамках неолиберализма, также теорию комплексн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литолог Джозей Най термин «мягкая сила» (англ. soft power) впервые написал в своей книге 1990 и развил её в 2004 году.

«Мягкая сила» - форма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я добиться жел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основ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участия, симпатии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в отличии от «жесткой силы», котор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ринуждение против вол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илы.

По слова политолога Дж.Ная – «мягкая сила»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которая влияет напрямую в мировую политику

«Мягкая сила» может проявляться в форме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а также в кинофильмах.

Иными словами «Мягкая сила»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страны влиять на выбор других стран путем убеждения или кооптации. Она опирается на позитивные ассоциации с культур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других к своему делу.

2. «Мягкая сила» Кореи

В начале 1970-х годов, когда так называем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дъем Южной Кореи, известный как «Чудо на реке Хан», вот-вот начнется,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то место, которое эта страна заняла сегодня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Мягкая сила никогда не заменит жесткую. Но при умел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он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имущества, которых нет у некоторых из ее гораздо более могущественных соседей. Эти преимущества могут оказаться своевременными, поскольку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гром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ключая быстрое старение общества,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уровней рождаемости в мире и рост безработицы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Конечно, перед страной стоят и отрезвляющи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зовы.

Но сейчас Южная Корея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гораздо лучшем положении, чем в начале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когда ей не хватало власти – жесткой, мягкой и всего, что между ними, – и было общество и руководство,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внест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Южная Корея никогда не сможет полностью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влияние геополитики н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состояния, но если Сеул сможет обуздать и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аспекты своей гибридной силы (включая мягкую силу), он, несомненно, сможет улучшить свои перспективы. вперед, пусть даже на полях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т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жания. Мягкая сила Юж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ла новых высот в 2020, в этом мы убедились во врем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начиная от реакции на пандемию и до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2020 год принес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блем для всех стран земного шара. Но в это врем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спела значительно поднять свой рейтинг благодаря фильму «Parasite» и альбом BTS и PSY, побившие рекорды ведущих стран. Это было мощное дополнение к ее инструментарию мягкой силы. Мягкая сила Южной Кореи она не ограничена и перспективна, хотя она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жесткую силу. Мягкая сила Сеула может выйти за пределы и решать некотор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опросы. Такж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эффективная борьба с пандемие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воевала еще больше уважения других стран к ее политике и подчеркнула свой политические достоинства и жизнестойкостью нар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могла завоевать доверия многих стран.

Мягкая си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одразумевает в себя музыкальную, языкову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ологию, 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орамы. К примеру к музыкальному можно отнести, как мы уже говорили, альбом BTS и PSY. В 2012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сполнитель и автор песен, выступающий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PSY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своими юмористическими видеоклипами и концертами стал самым просматриваемым в истории YouTube. И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YouTube и Интернет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одного видеоклипа «Gangnam style»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ард. А сейчас эту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должают бойбенд BTS «Bangtan Boys» или «Beyond the scene»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из 7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мировое признание. И даже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группа продолжала бить рекорды чатах, что заслуживает уважения. Также важную роль в мягкой силе» сыграл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выпущенный в мае 2019 год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Оскар» 2020 года во многих номинациях. Он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фильмом получивший премию «Оскар». И на это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работала не только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но уважения и всё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славится уважением к своей культуре, это доказывает отношение к своей традиции. Южная Корея до сиз пор продолжает сохранить свои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и обряды.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зыка, кухни и традиции Корея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 СНГ есть 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где обучают культуре,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дополняет список достиж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Мягкая сила может помочь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торое станет все более заметным в будущем постпандемическом мире. Это доказывает в таких отраслях как:

– растущая устойчивость и гибкость обществ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 угрозам

–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и, адаптируемые рынки, социальная сплоченность и проактивное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итики

– повышение значимость м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я, несущий как региональный и глоб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татусу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средней державы как сильной демократии.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мягкая сила Южной Кореи растет.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Brand Finance «глобальный индекс мягкой силы» за 2020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четырнадцатое место среди шестидесяти стран. Как отмечает бывши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Пан Ги Мун отметил «В сегодняшнюю эпоху растуще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и транснационализма проблем я считаю, что теперь мягкая сила важнее, чем когда-либо»

2.1. Южнокорейско-узбекист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Узбекистано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30 декабря 1991 года стала первой страно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ризнавшей независимость Узбекистана, 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29 января 1992 года. С тех пор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неуклонно развиваю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асширилось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ах.

Узбекистан пригласил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на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развитию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а также проректоров в несколь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В 2014 году Университет Инха открыл ташкентский филиал,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йся на компьютерных науках 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предлагает все курсы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Ёджу в 2018 году открыл филиал в Ташкенте, ставший первым част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 Узбекистане. Курсы института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такие области, как архитектура и город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энергия, управление бизнесом, туриз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кетинг, междунаро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ч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фил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 также эстетика и дизайн одежды.

20 апреля 2019 год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Узбекистан в Ташкенте открылся Д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есть в Самарканде, Бухаре и Нукусе. Это всё большие успехи и достиж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Но это не маловажно мягкой силе.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одежи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кей-попом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некоторых узбекских каналах до сиз пор показыв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как «Жемчужина дворца» и «Зимняя Соната». Сейчас эти фильмы до сих пор актуальны. Эти фильмы завоевала сердца многих узбеков.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открываются корейские языковые центры что помогают гражданам Узбекистана отправи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учебу или на работу. В это и ценность мягкой силы - способность влиять на выбор, путем убеждения или кооптации. Которая опирается на позитивные ассоциации с культур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других к своей работе и завоёвывать внимания.

3. Заключение

Сущность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преде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характерны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 одна из самых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для люб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ложность в том, что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уществуют свои правила и изменить их нельз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практика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оказывает, насколько важная мягкая сила. Если жесткая сила представляет жестокость, войну, кризис, смерть невинных людей и

хаус, то мягкая сила наоборот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мир, позитивное настроение и укреп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Отсюда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сейчас войны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ду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и цифровыми путя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храняя мир и покой в каждом доме.

4.**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Ванин Ю.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и в XVII–XVIII вв. – М. 1968.
2. Воробьёв М.В. Очерк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 СПб, 2002.
3. Глухарёва О.Н.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 М., 1982.
4. Гражданцев А**.** Корея. – М., 1948.
5. Закирова С.А.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 Рынок, деньги и кредит. – Ташкент, 2003. – №11. – С.67-69.
6. Русаковна О.Ф. «Мягкая сил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итической философии. 2005.
7. Описание Кореи**.** Сокращённое переиздание. – М., 1960.
8. Шабшина Ф.И. Очерк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1945-1953). – М., 1958
9. Chung Min Lee – «Soft power» of Republic Korea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12/15/can-soft-power-enable-south-korea-to-overcome-geopolitics-pub-83407.
10.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2012 Power and interdepend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1. South Korea Summons Uzbek Ambassador Over Golf Club Raid, Yonhap News, October.

Abstract

CULTURE AS A TOOL OF SOUTH KOREA'S" SOFT POWER"

Azizbek TURDALIEV

***Supervisor*: Khamrakulova G.**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This work completed to study Political system Soft Power of South Korea. In the word of the study, various sources were used, including foreign works by specialists in this field. The work shows the types of soft power and its use by South Korea in other countries. In this article, you will learn how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s culture. This is very relevant because during the pandemic there were big changes in Korea's foreign policy. Now the pop culture of Korea is developing very quickly. The article is not critical. In this paper, you will learn about the pop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мягкая сил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ультура, Южнокорейско-узбекист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Tarjimashunoslik masalalari, badiiy adabiyot tarjimalari

ПЕРЕВОД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

Айша АБАТОВА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PhD Ходжаева Н.Б.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Содержание

1.Введение
2. Способы и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2.1.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
3. Заключение
4. Библиография
Abstract

1. Введе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связи с развитием науки, культуры, техни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словарном составе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произошли изменения, выражающиеся в появлении новых слов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служащих названиями новых предметов, явлений, понятий. Неологизмы, ставшие единицами языка, со временем входят в словари, отражающие акту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лексики.

Вильгельм Фон Гумбольдт считал, что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составляют единое целое, так как язык «есть как бы внешнее проявление духа народов: язык народа есть его дух, и дух народа есть его язык, и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либо более тождественное» [Гумбольдт 1984].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дет учет и классификацию в области неологизмов с 1992 г.,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ажности да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явления.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эта сфера начала развиваться после Олимпийский игр в Сеуле 1988 года, так как язык стал жив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се изменения в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в сам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также во всем мире. Об интересе к лексическим изменениям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издание и составление новых словарей. Термин «неологизм» был заимствован из французского языка в XIX в. (neologisme – от греч. neos logos – новое слово). О. С. Ахманова дает следующее определение данному термину: «Слово или оборот, созданные (возникши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нового (прежде неизвестного) предмета или для выражения нового понятия» [Ахманова 1966]. При этом не следует путать неологизмы с окказионализмами. Р. Ю. Намитокова различает неологизмы языка и авторски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неологизмы) [Намитокова 1986]. Последние называют также окказионализмам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огласно Т. В. Жеребило, окказионализмы остаются фактами авторской речи, не становясь при этом нормой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еологизмы прочно закрепляются в словарном составе [Жеребило 2010].

2. Способы и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 неологизмов предполагает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и выражение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прямо или путем объяснений. Если же в переводящем языке нет прям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неологизмов, их можно описать или передать его фонетическую или орфографическую форму [7].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ов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е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мые способы перевода неологизмов:

·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утем подбо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аналога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ам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способом перевода;

· Следующий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неологизмов перевод с помощью транскрипции или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применяется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прям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в ПЯ, перевод неологизмов выполняется путем объяснения и передачи его фонетической или орфографической формы;

· И последний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неологизмов – метод калькирования.

2.1.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их неологизмов

1) 핑프 – сокращение от 핑거 프린세스 (Finger princess). Крайне ленивый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и пальцем пошевелить). Произошло от англий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бытовой сфере, при описании характера человека

그 사람이 핑프네~ Он и пальцем боится пошевелить.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одбор аналога на ПЯ.

2) 셀카를 찍다 – делать селфи. Произошло от английского «selfie», т.е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самого себя.

친구와 함께 셀카를 찍고 싶다 – Я хочу сделать селфи с другом.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транскрипция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3) 앱등이 «Эпдыни» (первый слог от «Эппл»). Фанат продукции «Эппл». В связи с широким употреблением продукции «эппл», и любителей д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зывают фанатами д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ли 앱등이. Сфера употребления: бытовая.

새로운 아이폰 나오면 사야겠다 – Как выйдет новый айфон, я сразу должна его приобрести

역시 앱등이네 – Определенно фанатка продукции «эппл».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4) 있어빌리티 – «иссобилити» (сочет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иссо» (есть, имеется) и ability (умение, возможность)). Термин, который относится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оц. сетей. Некий тренд поведения,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казную «гламурность»,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богатство и красоту жизни. «Делать вид, что у тебя что-то есть, даже если это только для вида».

마케팅 있어빌리티 – маркетинг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ловкость)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5) 쿠크 (쿠크다스 – название печенья Кукыдасы) легко ломающееся печень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писания слабохарактерн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го легко сломать.

심장이 쿠크처럼 잘 부서진다 – сердце человека ломается легко, как печенье.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дословный.

6) 낫닝겐 – образовано с помощью двух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от английского «not» – «не» и японского «ningen», чт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человек», т.е. означает «не человек». Обозначает выделяющуюся внешность или же какие-то особенные «нечелове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Чаще всего применяется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когда говорят о людях с очень выдающейся внешностью или талантом.

그녀가 꺼풀수술후기 보니 예뻐졌고 낫닝겐이다! –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на двойное веко, она стала выглядеть нереально красиво, словно не человек!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буквальный перевод.

7) 버카 – данный неологизм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аббревиатурой слов 버스 «автобус» и 카드 карта", т. е. карта для оплаты проезда в автобусе. При переводе неологизма буквальным способом перевода «автобусная карта», слово приобретает два значения: схему автобусного маршрута, либо карту для оплаты проезда.

저는 버카를 어디다가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 Не помню, куда я подевал свою карту для оплаты проезда в автобусе.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8) 발컨 – «ру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о от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 발 (паль) – рука и 컨 (кхон) от англ. «control». Слово, описывающее человека, плохо играющего или медленно реагирующего на действия в игре. 너 발컨이냐? – Ты вручную управляешь что ли?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дословный, описательный.

9) 비번 – пароль. Сокращение от корейских слов 비밀 – секрет, 번호 - номер.

나한테 네 비번을 알려 줄 수 있나? - Можешь сказать мне свой пароль?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одбор эквивалента.

10) 어그로 – дословно огр. Означает действия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ми он пытается привлечь к себе внимание.

너 왜 어그로끄냐? – Зачем ты начинаешь огрить?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калькирование.

11) 사바사 – сокращение от 사람 (человек) by 사람. «Человек человеку рознь» или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то».

사바사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 Будем думать, как поступ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то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2) 사이다 – от англ. Cyder (лимонад) в прямом значении. В переносном значении внутреннее чувство свежести, чувство облегчен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говорился, лопнуло нараставшее внутри напряжение, сказал то, о чем не мог молчать.

남친에게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사이다를 느꼈어. – Рассказав своему парню о той ситуации, мне полегчало.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3) 낄낄빠빠 – сокращение от полной фразы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со значением «Присоединяйс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оходи мимо, когда нужно» в значении «знай правильное время для своих действий».

네가 우리와 같이 매일 놀 필요가 없어서 낄낄빠빠. – Ты не обязан гулять с нами ежедневно, потому присоединяйся, когда будет время.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4) 엄크 – начальные слоги 엄 от слова 엄마 (мама) и 크 от слова «Critical». Общее значение: момент в компьютерной игре, когда герой погибает из-за внезапно вошедшей в комнату мамы.

엄크때문에 빠르게 컴퓨터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 Из-за того, что мама вошла в комнату, пришлось быстро выключить компьютер и лечь в кровать.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5) 귀척 – образовано путем сложения первых слогов (аббревиатура) от слова 귀엽다 и 척 하다 в значении «строить из себя милашку».

귀척 떨지 마. – Не притворяйся милым.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6) 덕페이스 – данный неологизм образован при помощи английских слов duck (утка) и face (лицо). Обозначает выражение лица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в частности *сэлках*, имеющее сходство с утиным клювом, губы, свернутые в «трубочку». Имеет негативный оттенок «Утиное лицо».

여즘 셀카를 덕페이스 표정으로 찍는 것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 Кажется,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пулярным стал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утиным выражением лица.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дословный.

17) 금사빠 – образовано путем сложения первых слогов слов 금방, 사랑에 и 빠지다. Обозначает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быстро влюбляется.

넌 금사빠네요. – Ты, оказывается, из тех, кто быстро влюбляется.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18) 알파걸 – образовано с помощью первой буквы греческого алфавита alpha (греч. άλφα) и от английского слова girl (девушка).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девушка-лидер», успешная леди, первая во всём. Описание могущественных девушек, занимающих лидерские позиции в обществе 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현재 사회에 알파걸이 많아졌어요. –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девушек-лидеров стало намного больше.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аналог на языке ПЯ.

19) 세젤예 –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сложения начальных слогов 세 от «세상», 젤 от «제일» и 예 от «예쁘다». Нечто или некто самый красивый на свете.

솔직히 내 여자친구가 세젤예 아니냐? – Разве моя девушка не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на свете?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дословный).

20) 타임푸어 – «Таймфуо» (Time fure)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писания человек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 временем или человека, у которого много дел и н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Человек, потонувший в делах, без единой свободной минуты.

타임푸어가 되지 않으며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 Если не хочешь стать таймфуо и хочешь быть успешным нужно придумать способ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ремени.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21) 금수저 – Золотая ложка. Используется к людям, родившимся в семье с больш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оторым не пришлось ничего добиваться в жизн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одинаковое значение английской поговоркой «Родиться с серебряной ложкой во рту».

나나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대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고 돈 주고 입학했다. – Так как Нана родилась с золотой ложкой во рту, она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с помощью денег без сдачи вступительного экзамена.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буквальный.

22) 흙수저 – глиняная ложка. Обозначает люде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редний или бедный класс, родившихся в обычной или бедной семье, которым всего приходится добиваться собственным трудом. Имеет одинаковое значение со словосочетанием «Деревянная ложк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힘든 순간들을 겪는다. – Люди, родившиеся с глиняной ложкой во рту, преодолевают трудные моменты.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буквальный.

23) 버터페이스 – «*но ее лицо*» или «Ботхопхейсы». Оно произошло от английских слов «But her face». Так называют девушек, которые идеальны во всем и все имеют, но, к сожалению, имеет некрасивую внешность.

친구의 여차진구는 모든 면에서는 예쁜데 버터페이스… – Девушка моего друга прекрасна со всех сторон, но ее лицо…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одбор аналога в переводящем языке и второй способ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24) 이케아 세대 – поколение Икеа. Эт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80-х с хоро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о из-за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ынуждены работать на малооплачиваемых не престижных должностях не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овосочетании «Икеа» имеет ссылку на продукцию хорошего качества, но дешевую по стоимости.

이케아 세대에게 스펙을 쌓으라고 '강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입니다. – Родители поколения Икеа сильно настаиваю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ми разно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буквальный.

25) 캥거루족 – поколение кенгуру. Эт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достигшие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или в возраст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зарабатывать, но не работает и живет за счет родителей.

경쟁률이 높아져서 캥거루족이 많이 생기고 있다. – Из-за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конкуренции все больше становиться поколений кенгуру.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буквальный

26) 나포츠족 (나이트+스포츠족) – ночные спортсмены.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в ночное время в виду занятости в дневное время.

최근에 스포츠 업계에서는 «나포츠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и-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товаров создают различные продукты для «ноч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дословный.

27) OO is 뭔들~ – это нечто, это что-то, это вещь! Восхищенный отзыв о чем-либо.

이 원피스가 is 뭔들! – Это платье просто нечто!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одбор эквивалента

28) 리즈 시절 – Старое доброе время (с ностальгией)

앨런 스미스도 리즈 시절을 기억해? – Ты помнишь период рассвета Алана Смита? (футболист)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Подбор эквивалента.

29) 취업 9 종세트 – Термин, обозначающий «набор из 9 качест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меются в виду оценки в школе, средний балл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уровень англ., учеба за рубежом и др.

너는 취업 9 종세트가 있으면 쉽게 취직할 수 있어. – Если ты имеешь все 9 качест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то тебе будет легко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30) N 포세대 – Поколение, которое отказалось от N-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категорий в связи с непростыми условиями жизни и работы в стране (например, поколение, отказавшееся от «трех»: любовь, брак, рождение детей»)

요즘 3 포세대 많아졌다. –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людей отказавшихся от 3х категорий (любовь, брак, рождение детей)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Способ перевода: описательный.

3. Заключени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30 примеров-неологизм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такие как: подбор эквивалента на переводимый язык,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описательный перевод, дословный перевод, буквальный перевод и калькирование.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ляемым способом был описательный перевод,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 переводе 11 примеров неологизмов, не менее частым был и способ подбора эквивалента и подбор аналога на ПЯ,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 переводе 6 примеров неологизмов. Менее употребляемыми способами были: дословный и буквальный перевод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и переводе 4 примеров неологизмов;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способ,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 переводе 2 примеров неологизмов; и калькирование,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 переводе 1 примера неологизмов.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реобладают неологизмы, употребляемые в интернет-переписке и созданные молодёжью.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никают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даже сами носители языка могут не знать то или иное значение слова, что выз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для людей, изучающих данный язык, а также возникают трудности при переводе у 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еревести неологизмы и передать их смысл, может быть им неизвестный. Это один из факторов, объясняющий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нания неологизмов и способов их перевода.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вторы хотят показать значимость неологизмов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не только, так как неологизмы есть и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абсолютно в любом языке в связи с глобализацией и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факторами.

4. Библиография:

1. Неологизмы | Русский язык http://ibrain.kz/russkiy-yazyk/neologizmye
2. 까도남, 차도남 신조어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127666903&qb=7LCo64+E64Ko&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u28yloRR1VssctTHFCsssssss0-422492&sid=3yenOxrbDBr7bhrvBE2/lw
3. «Способы перевода неологизмов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http://superinf.ru/view_helpstud.php?id=431
4. «Особенности перевода неологизмов» http://xreferat.com/31/1619-4-osobennosti-perevoda-neologizmov.html
5. http://tip.daum.net/question/87501936
6.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5881.html
7. http://namu.mirror.wiki/w/N%ED%8F%AC%EC%84%B8%EB%8C%80
8. Ахманова О. С. Словарь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 М. :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66.
9. Гумбольдт В.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языкознанию. – М. : Прогресс, 1984.
10. Жеребило Т. В. Словарь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Изд. 5-е, испр. и доп. – Назрань: Пилигрим, 2010.
11. Лопатин В. В. Рождение слова. Неологизмы и окказион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 М., 1973.
12. Намитокова Р. Ю. Авторские неологизмы: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аспект. Ростов-н/Д : Изд-во Ростов. ун-та, 1986.
13. Пакулова Я. Е. Корейские неологизмы XXI века, генетически восходящие к китайским корням //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в МГИМО. № 24 (39). – М.: МГИМО(У) МИД России, 2006. С. 122–130.

Abstract

TRANSLATION OF KOREAN NEOLOGISTS

Aysha ABATOVA

***Supervisor*: PhD Hodjaeva N.**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Uzbekistan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ies, which have radically changed and continue to have a decisive impact on the reality around us. The development of science, medicine, technology and other professional areas of human activity inevitably entails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the emergence of new words in it. These transformations cannot but be reflected in the language. Together with advanced technologies, neologistic terms that arise in this area very quickly penetrate into all areas of human activity and become everyday words.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a neologism in a language is short-lived requires an immediate study of this type of vocabulary. The authors note that today there are quite a large number of neologisms of the Korean language that have not been translated into Russian.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and methods of translating Korean neologisms into Russian.

Key words: Neologisms, Korean neologisms, translation difficulties, translation methods

YAN KVI JA «QO‘NG‘IROQ QUSHI»

(koreys tilidan tarjima)

Aziza HIDOYAT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Toshkent, O‘zbekiston

Bog‘ning kirish eshigi олдида *miapoxoso*‘[184] bor edi. Uning gumbazi yashil rangga bo‘yalgan bo‘lib, tag qismi keng aylana derazalardan iborat bo‘lganligi sababli shisha idishni yodga soladi. Beixtiyor qadamini to‘xtatgan ayol qizi Kyongju bilan birga derazadan ichkariga qaradi. Orqasidan yugurib kelayotgan Yun Xi va Yun Xining o‘g‘li Songularning ham kutilmagan narsani ko‘rishni istagandek qadamlari sekinlashdi. Ichkarida bir-biriga o‘xshash besh-oltita bolalardan ba’zi birlari muzqaymoq yeyishardi, ba’zilarining esa yuzlarida ko‘z yosh va burnidan oqqan suv izlari qolgan bo‘, yig‘lamsirab tashqariga bo‘yinlarini cho‘zib-cho‘zib mo‘ralab qo‘yishardi. Kunning birinchi yarmi bo‘lishiga qaramay odamlar ko‘pligi sabab ular orasida ota-onasini yo‘qotib qo‘ygan bolalar derazaga burnini tirab, tashqari dunyoga qarab bir nimalar deb shivirlashardi.

Odamlar bunday holatdagi bolalarga qarab, kulib o‘tib ketishardi. Kimdir esa bolalarni barmog‘ini niqtab kulardi. O‘z ota-onasi qo‘lini mahkam tutib turgan bolalar esa g‘aroyib narsaga duch kelgandek oyoq uchlarida ko‘tarilib derazadan ichkariga qarashardi. Ota-onasini yo‘qotib, yashil gumbaz ichida qamalib o‘tirgani uchun bu bolalar achinarli bo‘lib ko‘rinishardi. To‘rli chiroyli ko‘ylak ham, kichkina jentelmenni yodga soluvchi kiyinishi chakki bo‘lmagan bolalarning bosh kiyimi ham oilasini yo‘qotib qo‘yganligi sababli sababli shisha devor ortidan kir va iflos kabi ko‘rinar, tashqaridagi odamlar uchun tomosha maydoniga aylangan edi.

Bog‘da *miapoxoso*dan tashqari hayvonot bog‘ining ham mavjudligi bu joyning gavjumligiga sabab bo‘ladi. Hozirgina *miapoxoso* oldidan o‘tgan Yun Xi u yoqdan bu yoqqa tinmay o‘tayotgan odamlar kabi ovoragarchilikka yo‘l qo‘ymaslik fikrida besh yoshli Songuning bilagidan mahkam tutib, qo‘yib yubormaslikka harakar qilardi. Kyongju tengdosh bo‘lishiga qaramasdan ehtiyotkor bo‘lib, odamlar ko‘p yig‘iladigan joyda har doim tortinib turar edi. Qachonlardir o‘z onasidan ma’lum bir masofada ajralib ketaslik uchun u tez-tez orqasiga qayta-qayta qarab qo‘yardi. Qiz bo‘lganida yaxshi bo‘lardi. Yun Xi har safar bosh kiyimga ko‘zi tushganida, shunday deb afsuslanardi. Ajrashgan ayol yolg‘iz o‘zi farzand tarbiyalaydigan bo‘lsa, farzandning qiz bo‘lgani yaxshi, deyishsa, Yun Xi kulib, ajrashish qiz farzand tug‘olmaslik degani emas, deb qisqa javob berardi.

Ular anchadan beri rejalashtirib yurgan bog‘ sayriga kelishgan edi. Bir oyda bir marta dam oladigan oshxona egasi Yun Xi o‘g‘li Songu uchun bir kunini baxshida etish haqida o‘ylardi. U o‘g‘lini tarbiyalashda bir ayol yoki o‘z vazifasini aniq anglab yetgan onalardan farq qilmas edi. Yun Xi ajrashgan ona bilan, ustiga ustak har doim shovqin suronli oshxonada ulg‘ayayotgan Songuning tarbiyasi buzilgan, deb xulosa chiqarardi. Ayol borsak ham yaxshi, bormasak ham yaxshi deb o‘ylab turgan edi. Lekin eski *xanok*[185] ichida doimiy ravishda qamalib o‘tirgan ona bolani nimadir qilishga undayotgan Yun Xining taklifini rad etishiga biror sabab yo‘q edi.

Eri yo‘qligi sabab ikki ayol ham bir-biriga o‘shashardi. Ayol endi noilojlikdan yo‘qotgan eri haqida o‘ylay boshladi. Eri yo‘q ikki ayol bo‘sh vaqti – yakshanba kunini oila a’zolari bilan birga o‘tkazolmasdi. Bu xuddi uzoq tog‘da yerga yengil ingan xazonlar, yoki asfaltga tushayotgan erta kuzning quyosh nurlari kabi omonatdek tuyulardi. Bu narsalarni ko‘nglidan o‘tkazganida beixtiyor eri yodiga tushadi. U yana qancha davom etishi noma’lum umrini qamalgan dunyoda o‘tkazishi kerak. Qo‘llarida tushlik solingan tugun, bo‘yra va shu kabi narsalarni ko‘tarib olgan hamda oila a’zolarini yetaklab chiqqan yosh oilalar ularning yonidan u yoqdan bu yoqqa o‘tib ketishardi. Deyarli hamma er-xotin va bola-chaqalari bilan birga edilar. Yashil rangli barglar o‘rniga sarg‘aya boshlagan yaproqlar qoplayotgan olisdagi tog‘ni kuzatib turib ayol to‘satdan o‘ng qovog‘i uchayotganini his qildi. Qovoq uchishi bir necha soniyalar mobaynida qaytarildi. Va bu ayolning o‘ng tarafidan ko‘rinib turgan tog‘, daraxt va rang-barang bezatilgan kichik do‘konlar ham qimirlayotgandek tuyuldi. U qo‘lini ko‘ziga qo‘yib sekin bosib turdi. Anchadan beri uni qovoq

---

[184] Olamon orasida o‘z ota-onasidan ayrilgan bolalarning vaqtincha saqlanadigan joyi.

[185] Xanok – milliy koreys uyi

uchishi bezovta qilib kelayotgandi va bunga ko‘nikib qolgan ayol ko‘zini qo‘li bilan bosgancha bir necha qadam odimladi.

Uzun yo‘lak bo‘ylab to‘xtovsiz qadam tashlayotdek tuyuldi. O‘sha paytda ikki tarafi oq devor va sukunatga mahkum onlarda ham bir necha soniya orasida pirpirayotgan ko‘zlarini qo‘li bilan ishqaladi. Lekin uchrashuv xonasiga kirishda o‘tish joyi yo‘q edi. Ayol bir necha temir eshik va unga tikilgan o‘tkir nigohlar qurshovidan o‘tdi. Erining yuzlari qonsiz bo‘lib, yengi kalta ko‘ylak yengidan bilaklari turtib chiqib turardi. Ular to‘rtburchak xona ichida aniq ikkiga ajralib qolishgan edi. U bir tarafda, ayol boshqa tarafda. Ayol bir qavatdan iborat temir to‘rni olib tashlashi mumkin bo‘lgan kaftlarini qovushtirib, panjara ortida kuchsiz holatda o‘tirgan eri ortidagi biroz dog‘ va qo‘l izlari qolgan kulrang devorlarni kuzatdi. U yerga qarab sababsiz uf tortib, oyog‘i bilan yerni chizib o‘tirdi.

Ortiqcha bezaksiz faqat sonlardan iborat katta devor soatining ovozi ham uchrashuv xonasi bo‘ylab qattiq eshitilardi. Va nihoyat ayol oq devor dog‘laridan ko‘zini uzib eriga qaradi. U endi qamalgan hayvon kabi emas, balki nafrat o‘ti so‘ngan nigohi bilan yana ayoliga qaradi. O‘tgan safar Kyongjuning tomog‘i tuzalib qoldimi, deb so‘raganida, bir ozdan so‘ng ayolidan yoz tugadi, degan javobni olgan edi. Panjara ortidan xavotirlanmasdan xotirjam yashanglar, degan ovoz kelsa, qishloqdan amakimizning bolalaridan sarimsoq piyoz keldi, degan javob panjari ortiga qaytdi. Ko‘p ishqalanish oqibatida yaltirab qolgan yog‘och o‘rindiq va takroriy qo‘llarini o‘ynay boshlaganida qandaydir taxir ta’m qizni bezovta qildi. Eri yana bir bor xotirjam bo‘linglar, deganida ayol tabassum izhor qildi, ammo aslida bu ilojsiz jilmayish edi. Er to‘xtovsiz o‘ynayotgan qo‘llarini qo‘yib, so‘nggi bor bir nima aytmoqchi bo‘lgandek qaytish eshigidan kirib ketdi. Ayol ham ortga o‘girilib dunyoning boshqa tomoniga qaytdi. Eri oilasidan yiroqda, u tarafdagi devor ortida qolayotganidan ayol chorasiz edi. Keyingi safar borganida bunday vaziyatdan chiqish chorasi bordek tuyuldi. Lekin shunga qaramay hatto hech qanday yordam ham ololmasligini bilgan ayol o‘zining zaifligidan qattiq iztirob chekdi. Avval boshdan otasidan unga xonasi ko‘p, ammo kichkina uy meros bo‘lib qolgan. U shunchaki eski cherepitsa tomli uyda faqat yashab, yeb-ichib yuradigan odam emas. U bu dunyoda barcha insonlar imkon qadar halol va boshqalarga baxt ulashib yashashi kerak, deb fikrlaydi.

Uning bu fikri qaysidir paytdan boshlab targ‘ibotga aylandi va endilikda u faqat targ‘ibot orqasidan ergashib yurgandek tuyuldi. Shuning uchun ayol erining bo‘sh turgan joyiga qarashdan ko‘ra hayot mazmunini anglashga harakat qildi. Aslida, ayol o‘z xohishi bilan erining o‘rnini bo‘sh qoldirdi, deyish ham mumkin.

Birinchi bo‘lib ular katta maymunni tomosha qilishdi. Tikka qurilgan sun’iy qoya va falakka ko‘ndalang osilgan narvon maymunlar uchun o‘rnatilgan yaxshi sahna edi. Ular bo‘g‘iq ovozlar bilan qiziqarli sirk o‘yinlarini namoyish etishardi. Maymunlarni tomosha qilish har holda zerikarli emas edi. U shubhasiz qizil Piterdir, degan samimiy ishonchni oqlash uchun qolgan bir maymun sulolasi tarzida insonlar ko‘zgusiga aylangan edi.

Bolalar maymunxonani tark etishni xohlashmasdi. Yo‘q, maymunxona deyish deyarli mos kelmaydigan bu joy kimsasiz oroldek tuyulardi. Orolda o‘tirgan o‘nlab maymunlar ichida qiliqlari bilan ajralib turgan maymuncha aylana bo‘lib turgan tomoshabinlarga qizil orqa eshikni ko‘rsatib kulguli holatni yuzaga keltirardi. Narvon ustida o‘zaro urishayotgan va qoyaga chaqqonlik bilan ko‘tarilayotgan maymunlarning xatti-harakatlarini tomosha qilib turgan odamlar odatda shunday deyishardi: “Maymunning ham daraxtdan yiqiladigan kuni bor” (tajribali inson ham xato qiladi). Shunday deyishsa ham maymunlar umuman yiqilishmadi. Azaliy maqollarga ishonuvchi insonlar sazasini o‘ldirmaslik maqsadida bir maymun xuddi yiqilayotgandek ko‘rindi. A-a-a, degan qisqa baqir-chaqirdan so‘ng u birdan sun’iy qoya ustiga mahkam o‘rnashib, cho‘kkalab o‘tirgancha olma po‘chog‘ini tuf-tuf qilib tuflardi.

Maymunlar orolini tark etib, yana yurishda davom etishayotganlarida Songu qayta-qayta maymunlar yurushiga taqlid qilardi. Maymunlar insonlarga, insonlar esa yana qayta maymunlarga

taqlid qildi. Tizzasidagi jarohatdan oqayotgan qonga qaramasdan Songu unchalik charchagandek ko‘rinmasdi. Tinimsiz kuchli harakatdan Kyongju biroz cho‘chidi. Kyongju qizlardek onasining etagiga yopishib, lablarini cho‘chaytirdi. Qo‘rqayapman, akam qo‘rqinchli, akam hashorotdek qo‘rqinchli.

Kyongju uchun eng qo‘rqinchli narsa bu – hashorotlar edi. Shkaf tagidan chiqadigan eshakqurtdan boshlab suvarak, qirqoyoqdan tashqari dunyoda yana qanday qo‘rqinchli narsa bor ekan, deb o‘ylardi. Drakula[186] haqidagi dahshatli filmni ko‘rganida qiz qo‘rqqanidan baqirib yuborgan edi. Oyi, qo‘rqayapman. Mana bu hashorotni qarang. Chopib kelib televizorga qarasa, bo‘risifat tishilaridan qon oqib turgan hashorot Drakula bir odamni quvlab kelayotgan ekan. Ikki oyoqda tik yuradigan odamdan ham qo‘qinchliroq narsa mavjud emas, degan haqiqatni anglashga bolalik aqli yetmasdi. Jamiyatda faqat insonlarga nisbatan hujumlar xavotiridan qutulishning yagona yo‘li – bu o‘zi hashorotga aylanib qolishi kerakligini tushunishga hali ko‘p vaqt kerak bo‘ladi. Ko‘zga ko‘rinmaslik uchun qorong‘i javon tagida, polning teshigida g‘ujanak bo‘lib olgan hashorotlar bir muddat himoyaga muxtojligi sabab shunday yo‘l tutishi kerakligi tasodif emas. Ularni tark etib, u yoqda o‘tirgan eri haqida o‘ylab, shunday fikrga keldi: “Yaxshi ko‘rgan narsalarning barchasini yo‘qotish yanada qo‘rqinchli. Odamzot bu ikki oyoqda mahkam turgan jonzot, demakdir. Ayol qolganlarning yolg‘izligi bularning oldida hech narsa emasligini yaxshi bilar edi.

Saylgohga kelib, bolalar ortidan chopib yurib, kutilmaganda tez charchab qolganini sezdi. Sayrdan deyarli zavqlanib ham bo‘lmasdi. Bir qadam yursa jirafa, yana oyog‘i og‘rib biroz yursa bo‘rini ko‘rishardi. Dengiz, tog‘ kabi tumonat ichida yo‘nalishini yo‘qotib qo‘ygan odamlar dam o‘ngga, dam chapga qarab alanglab turgandek ko‘rinardi. To‘lqindek chayqalib turgan odamlar uzun taxta uchini ushlashga harakat qilgandek qiy-chuv qilib filning oldiga to‘da bo‘lib yugurib borishdi. To‘lqindek harakatlanayotgan odamlar orasida yugurib olmaxondek yo‘q bo‘lib ketayotgan Songuni tutib olish uchun Yun Xi ancha ter to‘kdi hamki, bola muzqaymoq yoki kola olib bering, deb oyisining qo‘lini tortib silkitdi. Xarxasha qilayotgan bolaga qarab ayolning xayolidan qayta-qayta Yun Xining sobiq eri o‘tdi.

Yun Xining erini ikki yoki uch marotaba ko‘rgan, xolos. To‘ydan oldin va to‘y kunini hisoblaganda shu raqam kelib chiqadi. To‘ydan keyin uni bir marotaba ham ko‘rmadi. Bunga sabab ularning oilali hayoti uzoq davom etmagan bo‘lsa, ikkinchi tomondan ayolning qiyin turmush tarzi bunga yo‘l qo‘ymagan. Bir kuni Yun Xi endigina atak-chechak qilib yurishni boshlagan bolasi bilan yolg‘iz o‘zi yemakxona ochganini eshitib ayol qattiq hayratlandi. Bu hayot past-baland mashaqqatlardan iborat, degan o‘y-fikrdan yiroq bo‘lganligi uchun ham shunday bo‘ldi. Ayol sovchilar bergan ta’riflarning yolg‘onligi, endi buni tuzatishning iloji yo‘qligi, erining ko‘p yolg‘on gapirishi, isrofgarchilikka yo‘l qo‘yishi, boz ustiga qimorboz ekanligidan ilojsiz ajrashishga majbur bo‘lgan Yun Xining gaplarini ma’qulladi. Haddan tashqari to‘g‘riso‘z, har bir ishning hisobini olib, keyin qaror qabul qiladigan Yun Xining fe’l atvorini juda yaxshi bilar edi. To‘g‘risini aytganda u umuman tushkunlikka tushmadi, aksincha, yanada o‘zini qo‘lga olib, butun e’tiborini pul topishga qaratdi, hatto, ajrashish muvaffaqiyat kaliti ekanligini ko‘rsatdi.

“Darhaqiqat, bu yerni Sharqda eng katta bog‘ deyishadi. Hayvonlarning o‘zini tomosha qilishga bir kun vaqting ketadi”.

Yun Xi kafti bilan yuzini kuzning quyosh nurlaridan to‘sib, atrofga bir nazar tashladi. Yelkasiga osilib turgan fotokamerada aks etgan quyosh nurlari ayolning ozg‘in tanasida jilvalanardi.

Yun Xining qulog‘idagi dumaloq ziragiga, bo‘ynidagi zanjiriga, qo‘lidagi bilakuzugiga ham quyosh nurlari tushib, ulardan zarrin nurlar taralardi. Ichkarida sayr qila boshlashganiga hali bir soat ham bo‘lmasdan, ayol o‘tirishga tez-tez joy qidirardi, birdan bukchayib o‘tirib oldi. Uning charchaganini ko‘rib Yun Xi “zaif quvvatli” degan tashxis qo‘ydi. Yun Xi azaldan quvvatsizlikdan

[186] Drakula - G‘arb filmi nomi

qo‘rqadigan erkaklarga mos taomnoma – bu pul topishning kaliti, deb hisoblardi. Ammo hozirgi kunda u eng zo‘r taom samgetang[187] tayyorlashda mohir oshpaz bo‘lsa ham, ayol uning bu taomi unga yordam bera oilmasligini aytdi. “Ilon nima-yu, chuvalchang nima? Yeb quvvatga to‘lsa mijozga yaxshi, pul topsam menga yaxshi”, deya jumlaning oxirini yutib yubordi, ketidan esa qo‘shib qo‘ydi: “erkaklarni aytaman, quvvatsiz degan tashxis qo‘yilsa, o‘sha zahoti rangi o‘chib ketadi-yu, nima qilibdi?”

Qachonki erkaklarning ayollarga nisbatan munosabatlari sovuqlashsa, ular bunga nomunosib, degan fikrga keladilar. Shuning uchun ular har qanday to‘siqlarsiz osonlikcha ayollarga erishib, ular haqida turli xil behayo so‘zlarni bemalol ayta olishardi. Ayollar haqida bunday fikrlar vaziyatning yaxshilanishiga ta’sir ko‘rsatmas edi. O‘zini zo‘r ko‘rsatsa-da, ayollarsiz ishqiy munosabatlar mumkin emas edi. Ayol yolg‘iz yashay boshlagach, ko‘p erkaklar tomonidan ishqiy aloqalarga ishora qiladiganlarga duch keldi. Bunday ishqiy aloqalar ko‘chada, bozorda, hatto yaxshi qo‘shnilaridan deyarli ochiqchasiga taklif qilinganida achchiq haqiqat – eri oldida emasligidan qo‘rquvga tushardi. Shunday vaziyatga tushgan Yun Xi esa allaqachon imo-ishoralarni mohirono o‘zlashtirib olgan edi. Yun Xi nisbatan erkin va iqtisodiy jihatdan mustaqil bo‘lganligi sabab unga har kim ham gap otishga jur’at qilmasdi. Vaqt o‘tishi bilan yo‘ldan ozdiruvchi imo-ishoralarga e’tibor bermay qo‘ydi.

Ayniqsa Seulda, ayol birdan shunday fikrga keldi. Ularning shaharlari vayron bo‘ldi... aslida yaqin orada ular tomonidan ham zarar yetkazilgan deyilsa, hozirda Seul pul va shahvoniy nafs, hokimiyatga o‘chko‘zlarcha intilayotganlar bilan to‘lganligiga ishonchi komil edi. Oz narsaga ega odamlar yana ko‘proq narsaga egalik qilish uchun harakat qilishayotganida azaladan ko‘p narsaga egalik qilib kelayotgan odamlar yangi narsalarni izlash payiga tushardilar. Avvaldan hech narsaga erisholmayman, deb o‘ylaydigan odamlar unchalik ko‘p emas. Erkinlik va tenglik deganda qo‘l qovushtirib o‘tirish salbiy oqibatlarga olib kelishih haqida uqtiradi. Chunki har qanday inson nafas siqilishidan qiynalayotgan bemorni yo‘tal tutgani kabi azoblansa-da, hasirab-hansirab oldinga intiladi. Ba’zan tongda uyg‘onib shaharni qoplagan quyuq kulrang tumanga ko‘zi tushganida, ayol bu tuman tun bo‘yi xohish-istaklar og‘ushida og‘izdan chiqqan ohu-dudlardan hosil bo‘lgan, degan xayolga kelardi. Yangi kunni qarshilayotgan shaharning maxfiy joylari yoki qorong‘i ko‘cha burchaklarida odamlarning fitnalaridan hosil bo‘lgan tutun quyosh ko‘tarilganida sekin-asta g‘oyib bo‘layotganini ko‘rganida hayolidan yana shu fikr o‘tardi.

Shahar bo‘ylab izg‘ib yurgan tumanga ko‘zi tushganida goho o‘zi ham shu tuman ichra singib ketish istagida xom-xayollarga borgan paytlari ham ko‘p bo‘lgan. Doimiy takrorlanib turadigan uyqudan so‘ng uyg‘onish ketma-ketligi adolatli dunyoda olinadigan eng birinchi nafas, deb o‘ylagan paytlari ham bo‘lgan. Har yangi tongni qarshilayotganda chuqurligi noaniq quduq ichiga asta-sekin sho‘ng‘ib boryapmiz, degan tushunarsiz hissiyotlar bilan solishtiriligadida, albatta bu kun sokin edi. Keyingi kun haqida tasavvurlar og‘ushida yashayotgan paytlari edi. Boshqalarning emas, aynan o‘zining shaxsiy hayoti sabab ayol xohlagancha o‘z kelajagi haqida xayollar surardi. Hayotga ham ana shunday nekbinlik bilan qarar edi. Erini birinchi ko‘rishidayoq unga oshiq bo‘lib qoldi.

Uning anglashishi bo‘yicha sevgan insoni bilan turmush qurishning yomon joyi yo‘q edi. Eri ayolini har vaqt sevib, ardoqlab, unga marhamat ko‘rsatgani sabab ayolning tasavvurida hayoti ham izdan chiqmadi. Bugungi kunga kelib esa kelajagi go‘yoki unga tegishli emasdek, e’tiborsiz bo‘lib qoldi. Erining davomli qamoqda o‘tirishi sabab uning kelajagi umuman o‘ziga bog‘liq emas edi. U gunohsiz qamalgan, deyishsa-da, ko‘ngli xotirjam topmadi, hayoti esa ostin-ustun bo‘lib ketdi. Uning qo‘lidan keladigan yagona ish uchayotgan qovoqlar orasidan ko‘rinayotgan beqaror kelajak tomon yurish edi. Bu safar eri uzoq ayriliqdan keyin ayolining oldiga qaytolmasligi ham mumkin.

---

[187] Tovuqdan tayyorlangan sho‘rva

Ehtimol, kelayotgan qish uchun paxtali shimni olib borishga to‘g‘ri kelar. Bahor keladi, degani o‘zi bilan orzu-umidni qaytarib olib keladi, degani emas.

Hayvonlar uchun xuddi erkinlikda yurgandek sharoitlar yaratilganga o‘xshardi. Ular oshib o‘tolmasligi uchun ora-orada chuqur chohlar qazib qo‘yilgandi. Shu sabab kiyik va bug‘ular xuddi odamlar yonida sakrab yurgandek tuyulardi. To‘tiqush maysalar uzra yuqori joyda o‘tirib, odamlar bilan “Assalomu alaykum” deb salomlashardi. Fil g‘ordek chuqur tomog‘ini baralla ochib, og‘ziga pechenye solishmaguncha kutib turdi. Sal narida delfinlar namoyishi haqida ma’lumot beruvchi afisha shari samoda uchib yurardi, tovuslar nozik va jilokor qanotlarini yoyib, kichkina oyoqlari bilan ohista olamon tomon qadam tashlardi. Ularning hammasi qo‘shni qarindoshlardek bir-birlariga o‘rganib qolishgandi. U yer, bu yerda qazilgan joylar bo‘lmaganida, odamlarning yoniga kelib, chiqishib o‘ynaydiganga o‘xshashardi.

Fil, jirafa va timsohlar ham biror yegulik narsa berisharmikin, deb tomoshabinlar yonidan ketishmasdi. Qarashlaridan mayda tosh uzatishsa ham yeydigandek tuyulardi. Oyna-i jahonda berilgan ko‘rsatuvlarda aytilishicha, jonzotlar yuqori sifatli mahsulotlar: mol go‘shtidan tortib banan, yogurt bilan yetarli darajada ta’minlangan, ammo ular beto‘xtov och ko‘zlari bilan yemish so‘rashardi. Hayvonlarni to‘ydirib bo‘lmaydigan ochlik va qondirib bo‘lmaydigan ishtahalari erksizlik sabab bo‘lsa kerak. Panjara va devorlarning mavjud emasligi xuddi ozodlik kabi ko‘rinsa-da, ora-oraga qo‘yilgan sezilarsiz masofa saqlovchi choh yaylovdagi erkinlik kabi emasdi.

Bolalarning yig‘i tovushi, kimnidir chaqirayotgan ayolning yoqimli ovozi, qayerdandir kelayotgan rokn-rol shovqinidan yon-atrof ola-g‘ovur to‘ldi va qoq peshindan o‘tib quyosh ham qattiq qizdirdi. Ancha vaqtdan keyin saylga chiqqan ayollar atrofida bolalar aravachasini sudrayotgan yoki kameraning tugmasini bosib turgan, zerikkan va charchagan kishilarga ko‘zingiz tushadi. Ularning orqasida sekin-asta qadam bosib kelayotgan, oq libosdagi yolg‘iz nuroniylar ham Sharqda eng katta hisoblanadigan bog‘ tuzulishiga horg‘in ko‘zlari bilan boqib, kishini yurishga majbur qilishardi. Kayfiyati ko‘tarilgan jo‘shqin bolalar shovqinidan erkak va qariyalar butunlay charchashdi, bolalar esa, kattalardan farqli o‘laroq bor vujudi bilan zavqlanishardi. Ayol, erkak, qariya va bola. Ularning yuzlarida paydo bo‘layotgan imo-ishoralar va shovqindan bo‘linib qolayotgan suhbatlar. Istar-istamas berilayotgan javoblar va horg‘in ovozlar oldidan o‘tib ketayotgan ayol o‘zini yolg‘iz his qildi. Shu kunga qadar kurashgan hayoti o‘zining asli qiyofasini ko‘rsatdi. Zerikib, charchab nomiga sayr qilib yurishardi. Yana zeriskishda davom etayotgan horg‘in yuzlar, sust qadamlar ularning yolg‘izligidan darak berardi. Ayol yana ucha boshlangan qovoqlari sabab yolg‘izlikni his qildi.

Tushlikda past adir oldida ovqatlanish uchun qulay joy topib, yozilgan sholchaga oyoq uzatishdi. Yun Xining mohir oshpaz kabi tayyorlagan kimpap[188], suvsiz maromiga yetkazib qovurilgan pulkogi[189], sosiskali quymoqchalarni dasturxonga qo‘yib, ikki ayol avval bolalar qornini to‘ydirish bilan band bo‘lishdi. Bolalar bir joyda biroz bo‘lsa-da tek o‘tirisha olishmadi. Adirda u yoqdan bu yoqqa chopib yurgan Songuning og‘ziga bir tishlam yegulik solar, u yana qochib ketar, va yana uni tutib olib og‘ziga yana bir tishlam narsa solardi… nihoyat Yun Xi chotkarakni [190] qo‘yib nafas oldi.

- Unga ovqat yedirish qayta tug‘ilish bilan barobar. Siz uni ovqatlantirish qanchalik mashaqqat ekanligini hatto tasavvur ham qilolmaysiz. Hozir bir likop ovqat yedirib, ko‘nglim to‘lgan bo‘lsa-да, keyinchalik bu ishlarga chiday olmaydiganga o‘xshayman.
- Songu yana biroz ulg‘ayib, o‘zi mustaqil ovqatlanadigan bo‘lsa, qiladigan ishing qolmasa, bundan yomoni yo‘q.

---

[188] Quritilgan dengiz o‘tlari va guruchdan tayyorlangan yengil taom
[189] Go‘shti qovurilib pishirilgan taom
[190] Ovqatlanishda ishlatiladigan maxsus tayoqchalar

“Shuning uchun tezroq qayta turmushga chiqing”, degan gapni yutib yubordi. Lekin shunga qaramay Yun Xi Songuning ulg‘ayishini kutayotgandi. Arang topilgan bahona ham barham yesa, yolg‘izlikka chidab yashashga hech qanday sabab qolmaydi. Erkaklar tomonidan nayza kabi yog‘ilayotgan gaplarga qarshi turish uchun o‘zida kuch topa olsa-da, yolg‘iz yashash ehtimol, to‘g‘ri ish emasdir.

- Bir marta aldanganim ham yetadi, ikkinchi marta aldanishni xohlamayman. Bundan tashqari kim mening Songuyimga o‘xshagan shumtakani o‘z o‘g‘lidek katta qiladi? Erkaklar hayot davomida bir marta bo‘lsa ham ichidagi haqiqiy gapni aytmasdan o‘lib ketadigan xilidan.

Erkaklar har narsani bahona qilib ayollarga har doim rad javob berishadi. Yun Xining so‘zlariga ko‘ra, erkaklarning hayoti haddan tashqari chalkash, u ularga xuddi joni achigandek qarardi, shu tariqa bunday suhbatlardan o‘zini olib qochardi.

- Qayta turmush qurishni yoqtirmaysan, hech bo‘lmasa bir marta uchrashuvga chiqib ko‘r. Shunchaki ko‘ngil yozish uchun, keyin umuman qayrilib ham qaramasang ham mayli. Sen nima erkak og‘ushini sog‘inmadingmi?

U miyig‘ida kulib qo‘ydi. Eri har doim uyda bo‘lsa, Yun Xi so‘radi: nima deysan? Er yaxshimi? Ayol ma’yus ko‘ringanida Yun Xi shunday derdi: Nima bo‘ldi? Tungi ish yaxshi bo‘lmayaptimi? O‘ziga ishonib do‘kon yuritayotgan, pul topish asta-sekin hayotining bir qismiga aylangan Yun Xi uchun er degani kunduzi keraksiz bir kimsa edi. Va hozir u so‘ramoqda: erkaklar og‘ushini sog‘inmadingmi?

Birga yashashsa-da, aslida ayri yashagan er. Erkaklarni sog‘inish, albatta eri bo‘lishi kerak degani emas. Sog‘inch nega aynan erkaklar bilan bog‘liq bo‘lishi kerak, deb savolga savol bilan javob berdi. Bolalikda hovliga ko‘mib qo‘yilgan mayda toshlarni sog‘inib bo‘lmaydimi? Anhorga uloqtirilgan eski krasovkaning bir poyi, oldidan turtib o‘tib ketgan qizlardan taralgan ifor, xotirada saqlanib qolgan nastarin mayda gullarining ifori, tom ostidagi tuynukda eski sarg‘ayib ketgan kundaliklar. Sog‘inch hissini tug‘diradigan narsalar odatda xotiraning bir chetida turadi. Uzoq vaqt o‘tgandan keyin esa, dunyo har doim ko‘z o‘ngingda dog‘li qog‘ozdagi no‘noq surat va yozuv kabi gavdalanadi. Ayolning ko‘zi oldiga xotiralar qurshovida sizib chiqayotgan oq qora rangsiz voqealar keldi, bag‘rida quchoqlab o‘tirgan Kyongjuning kichkina tanasini silab qo‘ydi.

Bu kichik jussada ham rangsiz oq qora xotiralar mavjudmikan. Bor bo‘lsa, hoynahoy otasi bilan bog‘liq javobsiz savollarga boy xotiralardir. Kyongju beradigan eng oddiy savol: Oyi, dadam nima ish bilan shug‘illanadilar? Kichkina bolaning xotirasida dadasi deyarli yo‘q edi. U doimo band bo‘lgan, shu sabab uning oldida kamdan-kam bo‘lardi, hatto uzoq qololmasdi.

Nima bo‘lishdan qat’iy nazar biz qanchadan-qancha narsalarni unitib yashaymiz? Ayol bir kundan keyin xotiralarning bir qismi, yana bir necha kundan so‘ng qolgan qismi, va yana bir necha oydan keyin juda oz qismi saqlanib qolgancha xuddi havoga singib ketgandek yo‘q bo‘lib ketishini juda yaxshi bilardi. Endi yurakning bir chetiga o‘tkir xanjar kabi urilgan o‘tmishni olib tashlasak, yana qanchasi qalblarda chuqurroq o‘rin egallab turgan ekan? Ertalab ko‘z ochilishi bilan qorong‘ulik qa’riga g‘arq bo‘lib yo‘qolib ketayotgan uzun va qo‘rqinchli tushlarni eslab qolishga betoqat urinishlar.

Tush. Hayotida yuragidan o‘chirib tashlagan bir tush. Yarim tunda qo‘rqinchli tushdan uyg‘onib, yolg‘iz o‘zi qunushib o‘tirganida, eri horg‘in holatda batamom bukchayib uxlar edi. Tong otgach aytib beraman dedi-yu, ammo og‘iz ochmadi. Ertaga aytarman, deb xayol qilgandi, lekin ertangi kun kelmasdan eri ketib qoldi. Shuning uchun tush faqat ayolning o‘zigagina tegishli bo‘lib qoldi. Shu sabab istalgan paytda bu tushni borlig‘icha xotirasida qayta jonlantira olardi.

Juda katta va yorug‘ xona. Sharq tarafda katta deraza bo‘lsa ham parda yo‘qligi sabab deraza yalang‘on vayronaga o‘xshardi. Janubiy devor burchagi ochiq turgan eshikdan tuynuk ko‘rinib turar edi. Voy, tuynuk yashirin joy, ko‘rinishi chuqur butni yodga soladi. Xona bo‘m-bo‘sh edi. Bir dona ham xo‘jalik yoki maishiy buyumlar bo‘lmasa-da, u yerda ayol supurgi ushlab turardi. Tush manzarasi shulardan iborat edi.

Bo‘m-bo‘sh xona aslida minglab, o‘n minglab, millionlab pashsha tuxumlari bilan qoplana boshlaganini anglaganida, tush keskinlashdi. Chuqur chot ko‘rinishidagi tuynukdan oqib tushayotgan pashsha tuxumlarining bir qismi yog‘och zinani, qolgani xona pollari, to‘rt tomon devorlarni qoplab oldi. Shiddat bilan harakatlanayotgan oq tanli tuxumchalar aniq bir oqimni hosil qilib kirish eshigi tomon yashin tezligida o‘rmalab borardi. Quyundek oqib va o‘rmalab borayotgan pashsha tuxumlari kirish eshigi tomon qanchalik tez oqib borayotgan bo‘lsa, ular hozir butun uy ichini, hatto butun dunyoni ham qoplab oladi, degan yomon xayol ayolni titratib yubordi.

Keyin u aqldan ozgandek jahl bilan to‘rt tomonga qarab supurgini silkitdi. So‘ng oyog‘i bilan bosib o‘ldirdi, o‘ldirishga ham kuchi qolmagach pashsha tuxumlarini sudirib tashlashga harakat qildi. Quyundek yopirilib kelayotgan pashsha tuxumlarini ortga qaytarishga urinayotganida, oyoq ostida qolganlari qo‘rqqanlaridan xuddi jipslashib olishgandek edi. Ortga o‘girilsa, ulkan dayo emish. Pashsha tuxumlari daryosi. Quyosh nurlarida yaltirab, mavjlanayotgan oq to‘lqin. To‘lqinlar hosil qilib oldga va yana oldga o‘rmalab ketayotgan oq tanli pashsha tuxumlari. Behuzurlik ham, qo‘rquv ham esidan chiqqan ayol aqldan ozgandek supurgini goh u tomon, goh bu tomon silkitardi, chuqur chotdan boshlangan pashsha tuxumi to‘lqini butun xonani to‘ldirib, shiddat bilan oqib borardi. Hech kim bu oqimga xalaqit beradiganga o‘xshamasdi. Uning ishongani faqat supurgi bo‘lib, ayol supurgi bilan pashsha tuxumiga qarshi kurashardi. U xuddi pashsha tuxumi daryosiga tushib qolgan kattaroq pashsha tuxumidek ko‘rinardi, xolos.

Va nihoyat pashsha tuxumi to‘lqinidan tozalangan xona paydo bo‘ldi. Ayol supurgini ko‘tarib turgancha, o‘zining g‘alabasini ko‘zdan kechirdi. Sharq tarafdagi deraza ham avvalgidek pashsha tuxumlaridan holi, tuynukka chiqadigan zina ham, to‘rt tarafdagi devor ham toza edi. Ayol holdan toyib, deyarli yastanib o‘tirgandek ko‘rinardi. Ayovsiz kurashda qatnashgan supurgini uzoqqa uloqtirib, bir silkinib qo‘ydi. Va kuchsiz harakat bilan yubkasining etagini qoqdi. Bir lahzada pashsha tuxumlari to‘kildi. Ular butunlay g‘ujanak bo‘lib xonaning polida yotishardi. U qo‘rqqanidan baqirib, apil-tapil yubkasini ko‘tarib qoqdi. Yubkasining etagidan, yelkasidan, qo‘ltig‘idan, ichki kiyimlari orasidan, tizzasining tepasidan pashsha tuxumlari to‘xtovsiz to‘kilardi, pashsha tuxumlari bir zumda ko‘payib, yana qaytadan butun xonani qoplay boshladi. Sochlari orasidan to‘lib toshib chiqayotgan sonsiz pashsha tuxumlarini silkib tashlarkan, ayol oxiri yo‘q jahannamga g‘arq bo‘layotgandi.

“Ovqat yegandan keyin uyqu kelyapti. Bu yerda bir oz bo‘lsa ham uxlab olsak, yaxshi bo‘lardi.”

Yun Xi sezdirmay bo‘sh idishlarni tozalab sumka ichiga solib, sumkani o‘tirgan joyga qo‘yibdi. O‘rtacha kattalikdagi sumka quchoqlagan o‘rta yoshlardagi ayol ularning yonidan o‘tayotib, sumkaning og‘zini ochib ko‘rdi, “juda sovuq”, деб qo‘ydi. Bir nechta muzdek pivo bankalari solingan sumka namlikdan ho‘l bo‘lgandi. Tushlik qilib o‘tirgan tashrif buyuruvchilar bilan birga o‘rta yoshli ayollarning sumkasida ham qo‘riqlash xodimi ko‘zini shamg‘alat qilib olib o‘tilgan bir nechta pivo bankasi bor edi.

“Ikkita bering”.

Ikki ayol muzdek pivoni oz-ozdan xo‘plashardi. Yun Xi birinchi bo‘lib bankani bo‘shatdi.

“Bunday paytlarda pivo eng yaxshi narsa. Chanqoqni tezda qondiradi. Erkaklarni aytaman, ayollar bilan may ichsa, yashashdan maqsad nima ekanligini bilmaydiganlar turidan… O‘tgan safar do‘stlar xonasida madaniyat haqida film ko‘rmayotganmidi? Boshidan oxirigacha may piyolasini og‘zidan qo‘ymay bema’ni ish bilan mashg‘ul edi...”.

Yun Xi, behayolikda bu filmga teng keladigan boshqa film bo‘lmasa kerak, dedi. U bunday filmlar borligini oldindan bilar edi. Bu tarzdagi filmlar yashirin namoyish etilsa-da, hatto oddiy ayollar ham bu filmlardan boxabar edilar. Bunday filmlarni ko‘rgan ayollar xuddi ta’qiqlangan ma’lumotlarni oshkora qilishdan cho‘chigandek, o‘zaro sirlashishardi. Shundan so‘ng bunday filmlar borligini bilmagandek ko‘zlarini o‘ynatib qo‘yishardi. Shahar yana quyuq tuman bilan qoplandi: insonga xos bunday nafs har doimgidek yashirincha qoldi. Atrof-muhitni tutunsimon

tuman o‘rab oldi. Odamlar shoshilinch tuman ichra (nafsni) yashira boshlashardi. Ayol ertalabgacha tuman tarqamasligini bilardi.

“Oyi, oyi. Delfin tomoshasiga boraylik! Tezroq boraylik!”.

Shu atrofda o‘ynab yurgan Songu hansirab chopib kelib, baqirdi. Delfin, delfin. Kyongju ham beixtiyor takrorladi. Boyadan beri delfin tomoshasini o‘tkazib yubormay deb, diqqat bo‘lib turgan kimsa bolaga delfinni eslatib yubordi.

Namoyish joyida odamlar tumonat edi. Chipta sotib olish uchun uzun qatorga tizilganlar ichkariga kirishni kutib turganlar bilan aralashib ketdi. Tashqariga yo‘naltirilgan radiokarnaydan ovoz baralla yangrar, yon-muhit tartibsiz holatga kelib qolgandi. Ayol bir burchakka Yun Xi va bolalarni qo‘yib, chipta sotib olish joyiga keldi ва holatni ko‘zdan kechirdi. Tushlik qilib olishdi, endi so‘nggi namoyishni ko‘rish ishtiyoqi tug‘ildi.

“Pul bor bo‘lsa-da, barcha tomoshaga kira oladi, degani emas. Men bugun kelishim bilan navbatga turib, oilam uchun zo‘rg‘a chipta sotib oldim. Tushlik ham qilmadim. Boshqa joyga umuman qaramasdan, faqat shu yerda bo‘ldim”.

Sochlariga oq oralagan boboy ikkita chiptani ko‘rsatib, gapirardi. Barcha tomoshalar uchun chiptalar allaqachon sotilib bo‘lingan, qolgan chiptalar soat beshda bo‘ladigan kechki tomosha uchun edi, atigi bir nechta chipta qolganligi sabab navbatga turishdan foyda yo‘q.

Songuning noroziligi har qachongidan kuchaydi. Olib sotarlarda chipta yo‘qmikan, deb umidini uzmagan Yun Xi ona bolaga umid bag‘ishlab, namoyish joyidan chiqdi. U Kyongjuning kichik jussasi quchoqlagancha orqasiga qarab qo‘ydi. U yerda hali ham ko‘p insonlar urushishardi.

Delfin tomoshasidan voz kechib, yana bepayon o‘tloq ustida yastanishdi. Sharqdagi eng katta, keng bog‘ni aylanishga oshiqqan oilalar, ularni yetaklab kelgan erkaklarning madori qurib borayotgan vaqt – qoq peshin edi. Tepadan tushayotgan quyosh nuri hali ham chidab bo‘lmas darajada qizdirardi. Bolalar ham shashtidan qaytishdi, ammo xarxasha bilan qayta-qayta muzdek narsa so‘rashardi. Yun Xi, kuz quyoshi qarishni tezlashtiradi, deb ming‘irladi. Ular daraxt soyasiga o‘tirishdi va avval bolalarga bittadan muzqaymoq berishdi. Sayrni davom ettirish uchun ortiq darajada qizdirayotgan quyosh nurlari ostida yura olishmasdi. Bu yerdan taxminan yarim soatli uzoqlikda jamoat poyezdi, tez uchar samolyot, yog‘ochli ot kabi eng yangi turdagi arg‘imchoqlar borligini eshitgan bo‘lishsa-da, charchoq ularni yenggan edi.

Shunday deb qaytib ketish ham odamga alam qiladi. Tushlik solingan savatlarini zo‘rg‘a ko‘tarib, panjara ortidagi qator hayvonlarni uzoqdan, ustiga-ustak odamlar yelkasi osha mo‘ralab ko‘rib qaytib ketish g‘irt ahmoqgarchilik, dedi Yun Xi. Ayol bunday gaplardan keyin ham daraxt soyasidan chiqolmasdi. Aslida yo‘lbars yoki she’rni ham tomosha qilishmagan edilar. Loaqal boshqalar kabi sayr qilish kerak. Yun Xi sayr ozgina zavq bag‘ishlagan bo‘lsa-da, baribir eng kam sayr qilgan odamlarchalik sayr qilish kerak, degan fikrda edi.

Shunday bo‘lsa-da, deyarli yomon kun bo‘lmadi. Uy ichida qamalib o‘tirgan ayol uchun uydan chiqishning o‘zi ham yetarli. Yo‘lbarsni ko‘rolmagani fojia emas. Lekin Yun Xiga hech narsa demadi. Yun Xining: Songuga ajoyib kunni tufha etolmadim, deya rejalari barbod bo‘lganlik hissini ayol ham yaxshi tushunardi. Nima bo‘lganda ham asalning ozi shirin.

Yerning issiq taftidan daraxt soyasi ham salqin bo‘lmay qoldi. Ustiga ustak bolalar ham lanj bo‘lib qolishdi. Lekin hali imkoniyat bor edi. Va nihoyat ular joylaridan qo‘zg‘aldilar. Qushlarni asraydigan yopiq xonaning kirish eshigi oldi salqindek tuyuldi. Hayvonlar mamlakatidan qanotlilar mamlakatiga o‘tish uchun charchagan oyoqlarni harakatga keltirishdi. Ayol issiqdan bo‘yin va qo‘llarini silab, osmonga qaradi. Quyosh issiq nur taratayotgan bo‘lsa ham, osmonda kuzning nafasi sezilib turardi. Ayol kabi Kyongju ham osmonga boqdi. Songu ham beixtiyor ularga ergashib, osmonga qaradi. Yun Xi ham bo‘ynini orqaga tashlab osmonga boqdi. Musaffo osmondan nigohini uzib Yun Xi ayolni turtdi.

“Nima bo‘ldi? To‘satdan ering yodingga tushdimi?”

Bo‘yi va eni bir metrcha keladigan shisha qutilar devor sifat taxlab qo‘yilgan joyga kirmasdan yoqimsiz hid taralayotganini sezdilar. Badbo‘y hid qushlar axlati va yopiq turgan xonadan taralayotgan bo‘lsa-da, bu hid ikki olamni yaqqol ajratib turardi. Ayol bexosdan erini esladi. Hid, ayniqsa bunday qo‘lansa hid erini yodga solardi. Badbo‘y hid chiqib tursa, hech narsa qilolmayman, derdi. Aralashib yotgan axlat, o‘rada to‘lib yotgan go‘ngni tozalamasa, u chidab turolmasdi.

Ayol qushxona ichida hech qanday hidni sezmay qoldi. Birozdan keyin hid bilish qobiliyati yo‘qoldi, qachon hid bor edi, degandek burnini tortib hidlab ko‘rdi. Ishonib topshirilgan ishlarni vaqtida bajarishga o‘rgangan odamlar uchun og‘ir ishning o‘zi bo‘lmasa kerak.

Shu tariqa qushlar ko‘p bo‘lsa ham, hech qayerdan qush ovozi eshitilmasdi. Qushlar hech narsasi yo‘q bo‘sh va zax g‘orga haykal misol qator qilib terib qo‘yilgandi. Qurigan daraxt shoxi ustida yolg‘iz o‘tirgan chumchuq, boltatumshuq, to‘rg‘aylar shisha devor ortidagi odamlarga tikilib qarashardi. Simyog‘ochda, ba’zan arpa dalasi, adirlarda mayin shabadaga jo‘r ohangda sayraydigan hur qushlardan farq qiluvchi bu ko‘rinish og‘ir sukunat sababmikin? To‘nka misol kesilgan qurigan daraxtni sementga mahkam qilib o‘rnatib, tartibga keltirilgan shoxlarda bir dona ham barg yo‘q edi. Qushlar yo‘g‘on shoxning uchida yengil harakatsiz to‘satdan pir etib uchib boshqa shoxga qo‘nishardi. Va yana sukunat. Bolalar shisha devorga mahkum qilingan qushlarni o‘zlariga jalb qilish uchun qo‘llarini silkitib ham ko‘rishdi, *huvik -huvik* deb qush ovoziga taqlid ham qilishdi.

Qushxonaning o‘rtasida ayol qo‘ng‘iroq qushini uchratdi. U qo‘ng‘iroq qushni tumshug‘I yoki qanoti rangidan tanimadi. Taxtadagi yozuv, kulrang qushning ma’yus ko‘zlari bilan to‘qnash kelganda, ayolning hafsalasi ancha pir bo‘ldi. “*Qo‘ng‘iroq qushi, qo‘ng‘iroq qushi, jororong qo‘ng‘iroq qushi”.* Har qo‘shiq kuylaganda yodga tushadigan bu shudring yanglig‘ his hech qayerda yo‘q edi. Ochiq-oydin va kinoyasiz boqib turgan qush oldida ayol biroz taraddudlandi. Sal turib fikri tiniqlashdi. Qo‘shiq, hoynahoy, qo‘shiq yo‘qolganligi oqibati bu. Qo‘ng‘iroq kabi ovoz bilan qo‘shiq kuylagandagina u qo‘ng‘iroq qushi deb atalgan. Sayramagan qo‘ng‘iroq qushi faqat kulrang qanotli qush edi, xolos.

“Anavi qush qo‘ng‘iroq qushi deb ataladi”.

Ayol baribir qiziga o‘rgatishi kerak. Qo‘shiq bandlarini oldinma-ketin kuylab, o‘rgatsa-da. “*O‘tgan kecha qo‘ng‘iroq qushni qayerdan tutib olib kelishdi? Jororong u qo‘ng‘iroqni qayerdan tutib olib kelishdi?”* Bilmasam, qayerdan tutib olib kelishganikin? Kyongju qo‘ng‘iroq qush qayerda bo‘lishi haqida so‘radi va ayol qo‘ng‘iroq qushi yashashi mumkin bo‘lgan makon haqida chuqur o‘yga toldi. U makon qayerda ekan? Va hozir nima uchun qo‘ng‘iroq qushni tutib olib kelib bo‘lmas эkan? Qalin, mustahkam shisha devor ichiga qamalgan, moviy osmon o‘rniga sement shift ostida qurigan daraxt shoxi ustida o‘tirgan qo‘ng‘iroq qushni birov tutib olib kelolmasligi kundek ravshan edi.

Kyongju hayajonlanib qo‘shiq kuylay boshladi. Xuddi ayol kabi Kyongju ham qo‘ng‘iroq qushini birinchi marotaba ko‘rayotgan edi. Faqat qo‘shiq matnidagi qushni ko‘z oldiga keltirib, bolakay jarangli ovozda qo‘shiq kuylardi. G‘or kabi chuqur qazilgan qushxona ichida bola hozir qo‘shiq bilan yuzlanashayotgan edi.

“A, qo‘ng‘iroq qushi g‘orda yashar ekan-da”.

Kyongju boshini irg‘adi. Ayol to‘satdan, bir lahza hayratlanib, qiziga faxrlanib qaradi. Shubhasiz, bu gap dadam g‘orda yashar ekanlarda, degandek eshitildi. Bola “g‘or ichida yashar ekanda-a-a-a” hayqiriq-la eshitgan gapini bir paytlar birga yashagan, hozir oldida yo‘q otasi haqida deb tushundi.

Endi bola har сафар qo‘ng‘iroq qush qo‘shig‘ini kuylaganida, o‘sha olisda yashovchi qo‘ng‘iroq qushini eslaydi. Qizcha sassiz ко‘ng‘iroq qush o‘rniga qo‘shiq kuylaganida bola ongida qo‘ng‘iroq qushi gavdalanadi. Ayol yana qo‘ng‘iroq qushiga qaradi. Ovozi eshitilmasdan, unsiz yig‘layotgan kichik jon boshqa shoxga o‘tish uchun qanot qoqdi.

Yun Xi qaytishda yo‘l tirband bo‘lishi sababli shoshilish kerakligini aytdi. Yopiq qushxonadan chiqib, bir nechta qolgan fotoplyonkani ishlatish uchun Yun Xi hovliqqancha “...keyingi oy yana kelib sayr qilish kerak”, dedi. Keyingi oy. Ayol g‘alati so‘z eshitgandek, Yun Xining taklifini e’tirozsiz qabul qildi. Ayol uchun ertangi kun ham mavhumdek tuyulgan vaqtda biro y haqida o‘ylash oson emasdi. Bu tushunarli. Ertalab va kechki payt sovuqdan junjikkan bo‘ynini qisib xazonlarni supuradigan farroshlar ko‘chaning u yer bu yerida yonboshlab yotishardi. Kyongjuning tug‘ilgan kunini to‘rtinchi marotaba nishonlash uchun Kyongjuga uzun yengli kiyimni kiydirish, ko‘mirdan yuztacha tappi tayyorlash, yangi hosil guruchidan peksolgi[191], miyokkuk[192] pishirish kerak.

Bola to‘rt yil oldin kuzning sokin kunlaridan birida, shu yaqin atrofdagi xaroba tug‘ruqxonada yigirma to‘rt soatlik darddan so‘ng dunyoga keldi. To‘rt yil oldingi voqealarni ayol ma’lum ma’noda ko‘z o‘ngiga keltira oladi. O‘sha tun, qizi tug‘ilganlidan xabar topib, yugurib kelgan reining ilk sovg‘asi bir kichik qutidagi sut edi. Sutni icharkan ayol ham er ham miq etishadi. Ayolning yonida yotgan yangi tug‘ilgan chaqaloqni bag‘riga bossa-da, er ayoliga bir og‘iz ham shirin so‘z ayta olmadi. Ortga qaytayotib ularning ko‘zi yana jirafaga tushdi. Kiraverishda katta temir eshik o‘rnatilgan va uzun devor bilan o‘ralgan molxona oldida ertalab kirolmagan bir qancha odamlar xoxolab kulishardi. Jirafa devor osha uzun bo‘ynini cho‘zib odamlar uzatayotgan narsalarni yamlab yutardi. Uzun bo‘ynini devor osha cho‘zayotgan jirafaning og‘ziga odamlar pechenye solishardi.

Ayol sheriklari bilan jirafa oldiga kelganida allaqachon sharpani sezgan ikkinchi jirafa bo‘ynini cho‘zdi. Yun Xi unga qo‘lidagi shirinlıkning bittasini uzatdi. Yun Xi oldiga cho‘zilgan qizil tilga shirinlikni tezda qo‘ydi. Songu irg‘ishtirib, xursand edi, Yun Xi ham hayajondan yuzi qizarib, g‘ururlanib bolasiga qaradi. Shu payt yana biri paydo bo‘ldi. Tomoshabinlar yanada ko‘paydi. Yegulik ilinjida devor osha bo‘ynini cho‘zib turgan hayvonlarga odamlar har xil narsalar, xom olma, konfet, muzqaymoq ham uzatishardi. Hattoki, qurutilgan baliq, chaynalgan saqich ham uzatishar, bitta bola g‘ijimlangan shirinlik qog‘ozini majburlab tiqishga harakat qilardi.

Yun Xi qo‘lidagi shirinlik tugaguncha o‘sha yerda turishi kerakdek tuyuldi. Ajablanarli holat. Hayvonlar oyoq uchida ko‘tarilib, boshini silash darajasida devor osha bo‘yinlarini egib turishardi. Tomoq teshigigacha ko‘rinib turgan ochilgan og‘izdagi qizil tilga yemish bersih ilinjida odamlar navbat haqida unutishdi. Bir payt jirafalar beshta bo‘lib ketishdi. Yana bitta bo‘lsa ham narsa yeyish uchun ma’yuslik bilan bo‘yinlarini cho‘zib turgan hayvonlarning nam qora ko‘zlarida ayol ko‘zyosh ko‘rdim, deb o‘yladi. O‘sha payt temir darvoza oldida uzun charm etik kiygan odam paydo bo‘ldi. Ko‘tarilgan qamchi temir darvozaga urilib, baland ovoz chiqdi. Shunda ham hayvonlar darhol ortlariga qaytmadilar. Oxir oqibat ulardan biriga qamchi urildi. Devorni osha turgan uzun bo‘yinlar birdaniga g‘oyib bo‘ldi, hovliqqan ovozlar eshitildi. Yesa ham beto‘xtov ochlikni qondirib bo‘lmaydigan jirafalar devorning u tarafiga haydalganlaridan so‘ng odamlar qo‘llarini qoqib, ortlariga qaytdilar.

Ular yana yurishdi. Jirafa sabab kayfiyatlari ko‘tarilgan bolalar u yoqdan bu yoqqa bir-birlarini quylab sakrashardi. Kyonju boyadan beri qo‘ng‘iroq qushi kuyini kuylardi. *Qo‘ng‘iroq qushi, qo‘ng‘iroq qushi, jororong qo‘ng‘iroq qushi. O‘tgan tunda u qo‘ng‘iroqni qayerdan tutib olib kelishdi? Jororong u qo‘ng‘iroqni qayerdan tutib olib kelishdi?* Qo‘shiq davom etardi, Yun Xi va ayol qo‘shiqqa jo‘r bo‘lishib, charchagan oyoqlarini sudrab bosishardi. Bu yengil va sodda kuy ohangi og‘ir odimlayotgan qadamlarni tortib ketardi. *Jororong qo‘ng‘iroq qush. Jororong*ni har aytganda bola og‘zini qush tumshug‘i kabi cho‘chaytirar va oyoqlarini biroz silkitib bosardi. *Jororong qo‘ng‘iroq qushi.* Oyoqlarini silkitayotib, ayol qovoqlari ucha boshlaganini sezdi. Titragan

---

[191] Tort kabi tayyorlangan ttokning nomi

[192] Dengiz o‘tlaridan tayyorlangan sho‘rva. Koreys xalqi bu sho‘rvani tug‘ilgan kunda iste’mol qiladilar.

ko‘z qovoqlari. *Jororong qo‘ng‘iroq qushi.* Sudralayotgan qadam. Ko‘zga ko‘rinarli hamma narsa tanasini titiratardi, bola ham chayqalib yugurib ketdi.

U titrayotgan qovoqlarini sekin bosib, erta-indin erining yoniga borishga qaror qildi. Bu safar quruq qo‘l bilan faqat dog‘li devorlarni kuzatib o‘tirmaydigandek tuyuldi. Qo‘ng‘iroq qushi g‘orda yashashi haqida hikoyani aytib bersa ham, yaxshi. Qorni och hayvonlarning ochilgan og‘zi haqida aytib berishni ham xohladi. Kyongjuning qo‘ng‘iroq qushi qo‘shig‘ini eshitib ko‘rishini ham taklif qiladi.

Hikoya tez tugasa, vaqt ortib qolsa, pashsha tuxumlari daryosi haqida ham batafsil gapirib bermoqchi. Hozir soch tolalari orasida o‘rmalab yurgan o‘nlab, yuzlab pashsha lechinkalari, bukilib o‘tirayotganida his qilgan og‘riqni batafsal hikoya qilib berishi mumkinligini haqida o‘yladi. Endi gapirib berib ham bu tushni yolg‘iz xotirasida saqlashdan qo‘rqishini aytadi. Dastavval ko‘zini shart yumib gapirishni boshlasa, kalavaning uchi yechilgandek davom etib ketadi. Bir marta og‘zini ochib unli va undoshlarni talaffuz qilsa, bir marta tumshuqni ochib qo‘ng‘iroq qushi ovozini chiqarsa, shuning o‘ziga ham bardosh berish yetarlidek tuyuldi.

Nihoyat ular *miapohoso* yonidan o‘tishdi. Ertalab to‘rt-besh kishini tashkil qilgan bolalar soni kechki paytga kelib tiqilinch darajada to‘lib ketgandi. Shisha devor ichida bolalar xavotirli nigoh bilan kuchukcha misol g‘inshib o‘tirishardi. Bolalar iflos yuzlari va qo‘llarini ko‘rsatib yotishardi. Odamlar shisha tashqarisida oshkora qiziquvchanlik bilan bolalarni kuzatishardi. Bolalar yig‘lashardi, buni tomosha qilayotganlar esa mazza qilib kulishardi. Avtobusga chiqish uchun ketishar ekan ayol damba-dam orqasiga qarab qo‘ydi. Shundanmi, bu safar uchrashuvda og‘zini ochish haqidagi qarori sekin yo‘qoldi. Endi ayol qila oladigan ish - qizining qo‘lidan ushlab avtobusga o‘tirishdan boshqa iloji yo‘qdek tuyuldi.

- Songu. Biz keyingi oy yana kelamiz. O‘sha paytda albatta delfin namoyishini ko‘rib, poyezdga ham minamiz. Va’da beraman.

Yun Xi ham oyoq og‘rig‘idan yig‘layotgan bolani tichlantirish uchun orqasiga qaradi. Yun Xi ham endi muzdek bo‘sh xonasiga qaytadi. Quyoshni, daraxtlarni va molxona ichidagi hayvonlarni tashlab, ertangi ish haqida qayg‘urib, yig‘ilib yotgan ijara pulini topish haqida o‘ylab uxlaydi.

Songu to‘xtamasdan shikoyat qilardi. Yun Xi bot-bot uni koyirdi. Tushayotgan quyosh nurlari ostida Yun Xi sal qariroq ko‘rindi. Besh yoshli bolasini opichlab olgan Yun Xi horg‘in qadam tashlardi.

Ayol qo‘lini ko‘tarib ko‘zlariga bosdi. Hali qovoq uchishi boshlanmagan bo‘lsa-da, u cho‘zilgan qovoqlarini kafti bilan bosdi. Nima qilayotganini sezib qo‘llarini tushirdi.

MUALLIFLAR HAQIDA QO‘SHIMCHA MA’LUMOTLAR:

Lingvistika, o‘qitish metodikasi

Муслимова Шахноза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e-mail shahnozamuslimova@gmail.com
Sobirova Madina. (TDSHU) tel: (+90)1788525, e-mail: madina140589@gmail.com
Karimov Nodirbek (TDSHU) tel: (+97) 7708007, e-mail: nodirbekkarimov1995@gmail.com
Лим Надежда (ТГПУ им. Низами) тел: (+90) 3163935, e-mail: nadejdalim1@gmail.com
Ким Владимир (ТГПУ им. Низами) тел:(+97) 7712597, e-mail: Vovcha2597@gmail.com
Xamidova Dilnavoz. (TDSHU) tel: (+99) 0066636, e-mail: dilijon6636@gmail.com
Kenjayeva Мунира (TDSHU) tel: (+97) 7915522, e-mail: munira.kenjayeva1903@gmail.com
Anorqulova Baxtigul (TDSHU) tel: (+99) 4760324, e-mail: Baxtigul.1802@gmail.com

Adabiyot, san’at

Hidoyatova Aziza (TDSHU) tel: (+94) 6453115, e-mail: khidoyatovaaziza@gmail.com,
Abdug‘aniyeva Feruza (TDSHU) tel: (+90) 9419287, e-mail: feruzabduganieva1997**@gmail.com**
Saidov Bfhriddin (TDSHU) tel: (+90) 9944111, e-mail: Bahriddinsaidov91@ gmail.com
Nazarov Sardor (TDSHU) tel: (+99) 7938399, e-mail: sardornazarov19910104@gmail.com
Allamova Mahbuba (TDSHU) tel: (+99) 7400398, e-mail:mahbuba0398@gmail.com
Акрамова Шохсанам (ТГУВ) tel: (+99) 8459819, e-mail: nadiakang279@gmail.com
Ли Юлия (ТГУВ) tel: (+90) 3522642, e-mail: sulalenivec@mail.ru
Кинжаева Бусора (ТГУВ) tel: (+90) 3271664, e-mail:kin98jeeva@gmail.com
Рахимова Сабина (ТГУВ) tel: (+94) 6453115, e-mail: Baxtigul.1802@gmail.com

Iqtisod, tarix, siyosat

Qutbiddinova Mohira (Academy of Korean Studies)

Yamamoto Narumi (Academy of Korean Studies)
Mirxamidova Noila (Academy of Korean Studies) e-mail: noilamirhamidova@gmail.com
Li Bin Bin (Academy of Korean Studies)
Sadikova Ra'no (Academy of Korean Studies) tel: (+93)5884698, +8201043473372 e-mail: **sadikovarano@mail.ru**
Файзиев Лазиз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el: (+99) 3727053, e-mail:laziz.fayziev@ mail.ru
Турлибекова Ойгул.(ТГУВ**)** tel: (+90) 9071792, e-mail:o.i.turlibekova@gmail.com,
Шукурова Нодира (ТГУВ**)** tel: (+93) 0002519 e-mail: nodicv@gmail.com,
Анаркулова Эльвира (ТГУВ**)** tel: (+91) 7778589, e-mail: elka.297@mail.ru
Аллаберганов Баходир. **(**ТГУВ**)** tel: (+91) 4271767, e-mail:bahodir.allaberganov@mail.ru,
Турсунова Севинч. **(**ТГУВ**)** tel: (+90) 3744272, tursunova.sevinch7799@gmail.com
Чориев Ботир (ТГУВ**)** tel: (+91) 6424466, e-mail:Botirchoriev97@gmail.com.
Хожабаева Алтинай.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tel: (+91) 3022774, e-mail: khojabaevaaltinay@gmail.com
Жуманазарова Чарос (ТГУВ**)** tel: (+93)7542706, e-mail: jumanazarovacharos020@gmail.com,
Турдиалиев Азизбек (ТГУВ**)** tel: (+90) 975-55-68, e-mail:Erkinovichazizbek292@gmail.com.

Tarjimashunoslik masalalari, koreys tilidan o'zbek (rus) tiliga o'zbek (rus) tilidan koreys tiliga badiiy tarjima

Абатова Айша. (ТГУВ**)** tel: (+90) 9842878, e-mail: abatova888@gmail.com,
Hidoyatova Aziza (TDSHU) tel: (+94) 6453115, e-mail: khidoyatovaaziza@gmail.com,